

2025

#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주 관 기 관 : 성남시청소년재단

연 구 진 : 강주연 연구위원 (경기미래세대재단)

장여옥 교수 (평택대학교)

조미영 교수 (명지전문대학)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본부 전략기획실)

조 사 기 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 목 차

## I

### 조사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
3.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	7
4. 정책 제언 .....	13

## II

###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

17

1. 일반적 특성 .....	21
2. 사회인식·미래설계 .....	25
3. 관계 및 참여 .....	89
4. 건강 .....	113
5. 교육·훈련 .....	141
6. 주거 .....	157
7. 노동 .....	195
8. 청년 정책 및 사업 .....	241

### III

## 성남시 청년 심층인터뷰 분석 ..... 29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7
2. 심층인터뷰 방법 .....	298
3. 연구결과 .....	304
4. 요약 및 시사점 .....	313
5. 청년정책 이해관계자 인터뷰 .....	316

### IV

## 정책 제언 ..... 321

참고문헌 .....	331
------------	-----

### V

## 부록 2025 성남시 청년실태조사 설문지 ..... 333

## 표 목 차

〈표 2-1〉 사회 인식 .....	25
〈표 2-2〉 사회 인식_삶의 만족도 .....	27
〈표 2-3〉 사회 인식_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	28
〈표 2-4〉 사회 인식_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29
〈표 2-5〉 갈등 인식 .....	31
〈표 2-6〉 갈등 인식_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33
〈표 2-7〉 갈등 인식_부유층과 서민층 .....	35
〈표 2-8〉 갈등 인식_수도권과 비수도권 .....	37
〈표 2-9〉 갈등 인식_남성과 여성 .....	39
〈표 2-10〉 갈등 인식_내국인과 외국인 .....	41
〈표 2-11〉 미래영향요소 .....	43
〈표 2-12〉 미래영향요소_불평등 .....	45
〈표 2-13〉 미래영향요소_저출생·고령화 .....	47
〈표 2-14〉 미래영향요소_기술·산업구조 변화 .....	49
〈표 2-15〉 미래영향요소_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	51
〈표 2-16〉 미래영향요소_기후 변화 .....	53
〈표 2-17〉 불평등 인식 .....	55
〈표 2-18〉 불평등 인식_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	57
〈표 2-19〉 불평등 인식_소득 대물림 인식 .....	59
〈표 2-20〉 삶에서의 중요도 .....	61
〈표 2-21〉 삶에서의 중요도_연애 .....	63
〈표 2-22〉 삶에서의 중요도_결혼 .....	65
〈표 2-23〉 삶에서의 중요도_자녀·출산과 양육 .....	67
〈표 2-24〉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학력 수준 .....	69
〈표 2-25〉 삶에서의 중요도_내가 원하는 일자리 .....	71
〈표 2-26〉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	73
〈표 2-27〉 삶에서의 중요도_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	75
〈표 2-28〉 삶에서의 중요도_사회 기여 .....	77
〈표 2-29〉 삶에서의 중요도_명예와 권력 .....	79
〈표 2-3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	81
〈표 2-31〉 향후 결혼 계획 .....	83
〈표 2-32〉 향후 출산 계획 .....	85
〈표 2-33〉 정치적 효능감 .....	90
〈표 2-34〉 정치적 효능감_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92
〈표 2-35〉 정치적 효능감_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94



〈표 2-36〉 정치적 효능감_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96
〈표 2-37〉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98
〈표 2-3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업무상 접촉은 제외) .....	100
〈표 2-39〉 외출 빈도 .....	102
〈표 2-40〉 은둔생활 상태 지속 기간 .....	104
〈표 2-4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	106
〈표 2-4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	108
〈표 2-4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	110
〈표 2-44〉 규칙적인 운동 빈도 .....	114
〈표 2-4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116
〈표 2-4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118
〈표 2-47〉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120
〈표 2-48〉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	122
〈표 2-4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	124
〈표 2-5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126
〈표 2-51〉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	128
〈표 2-5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	130
〈표 2-53〉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132
〈표 2-5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	134
〈표 2-55〉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	136
〈표 2-56〉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138
〈표 2-57〉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학교 .....	142
〈표 2-58〉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공공기관 .....	144
〈표 2-59〉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사설기관 .....	146
〈표 2-60〉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부모님이나 친인척 .....	148
〈표 2-6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친구, 선후배 .....	150
〈표 2-6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	152
〈표 2-63〉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154
〈표 2-64〉 부모 동거 여부 .....	158
〈표 2-65〉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	160
〈표 2-66〉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	162
〈표 2-67〉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	164
〈표 2-68〉 1인 가구 여부 .....	166
〈표 2-6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	168
〈표 2-70〉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2순위) .....	169
〈표 2-7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171
〈표 2-7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생활 인프라 .....	173
〈표 2-7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대중교통 이용 .....	175

〈표 2-7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177
〈표 2-7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위생 환경	179
〈표 2-7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녹지 공간	181
〈표 2-7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문화부대시설	183
〈표 2-78〉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교육 환경	185
〈표 2-79〉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관계	187
〈표 2-80〉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189
〈표 2-81〉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191
〈표 2-82〉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2순위)	192
〈표 2-83〉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96
〈표 2-84〉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198
〈표 2-85〉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200
〈표 2-8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기간	202
〈표 2-87〉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204
〈표 2-88〉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근로형태	206
〈표 2-89〉 지난 4주 동안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208
〈표 2-90〉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210
〈표 2-91〉 (미취업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211
〈표 2-92〉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212
〈표 2-93〉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 여부	214
〈표 2-94〉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215
〈표 2-95〉 (지난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	217
〈표 2-96〉 평소활동상태	219
〈표 2-9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221
〈표 2-98〉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 계속	222
〈표 2-99〉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2+3순위)	223
〈표 2-100〉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2+3순위) - 계속	224
〈표 2-101〉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유무	226
〈표 2-102〉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중한 업무	228
〈표 2-103〉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230
〈표 2-104〉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232
〈표 2-105〉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234
〈표 2-106〉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236
〈표 2-107〉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안전, 보호 장비 미비	238
〈표 2-108〉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242
〈표 2-109〉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244
〈표 2-110〉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 계속	245
〈표 2-111〉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2순위)	246
〈표 2-112〉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2순위) - 계속	247
〈표 2-113〉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249

〈표 2-114〉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 계속	250
〈표 2-115〉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 목적	252
〈표 2-116〉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평일	254
〈표 2-117〉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주말	256
〈표 2-118〉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작은도서관 이용	258
〈표 2-119〉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260
〈표 2-120〉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262
〈표 2-121〉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264
〈표 2-122〉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266
〈표 2-123〉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268
〈표 2-124〉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270
〈표 2-125〉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복수응답)	272
〈표 2-126〉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274
〈표 2-12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계속	275
〈표 2-12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277
〈표 2-12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279
〈표 2-13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1
〈표 2-13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 유스센터	283
〈표 2-13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양지, 은행) 유스센터	285
〈표 2-13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진동글, 은행동글) 자유이용공간	287
〈표 2-134〉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289
〈표 2-135〉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 전달 시 선호하는 경로(복수응답)	291
〈표 2-136〉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 빈도	293
〈표 3-1〉 심층인터뷰 대상자	298
〈표 3-2〉 심층인터뷰 절차	299
〈표 3-3〉 심층 인터뷰 질문지(청년)	300
〈표 3-4〉 심층 인터뷰 질문지(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01
〈표 3-5〉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청년)	304
〈표 3-6〉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307
〈표 3-7〉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09
〈표 3-8〉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12
〈표 3-9〉 분석결과 비교(청년,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15
〈표 3-10〉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정책이해관계자)	316
〈표 3-11〉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318
〈표 4-1〉 퍼스트 터치 시스템 로드맵(안)	324
〈표 4-2〉 취업준비관련 도움 받은 기관	328

## 그림 목 차

〈그림 2-1〉 사회 인식 .....	25
〈그림 2-2〉 사회 인식_삶의 만족도 .....	27
〈그림 2-3〉 사회 인식_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	28
〈그림 2-4〉 사회 인식_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29
〈그림 2-5〉 갈등 인식 .....	30
〈그림 2-6〉 갈등 인식_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32
〈그림 2-7〉 갈등 인식_부유층과 서민층 .....	34
〈그림 2-8〉 갈등 인식_수도권과 비수도권 .....	36
〈그림 2-9〉 갈등 인식_남성과 여성 .....	38
〈그림 2-10〉 갈등 인식_내국인과 외국인 .....	40
〈그림 2-11〉 미래영향요소 .....	42
〈그림 2-12〉 미래영향요소_불평등 .....	44
〈그림 2-13〉 미래영향요소_저출생·고령화 .....	46
〈그림 2-14〉 미래영향요소_기술·산업구조 변화 .....	48
〈그림 2-15〉 미래영향요소_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	50
〈그림 2-16〉 미래영향요소_기후 변화 .....	52
〈그림 2-17〉 불평등 인식 .....	54
〈그림 2-18〉 불평등 인식_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	56
〈그림 2-19〉 불평등 인식_소득 대물림 인식 .....	58
〈그림 2-20〉 삶에서의 중요도 .....	60
〈그림 2-21〉 삶에서의 중요도_연애 .....	62
〈그림 2-22〉 삶에서의 중요도_결혼 .....	64
〈그림 2-23〉 삶에서의 중요도_자녀·출산과 양육 .....	66
〈그림 2-24〉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학력 수준 .....	68
〈그림 2-25〉 삶에서의 중요도_내가 원하는 일자리 .....	70
〈그림 2-26〉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	72
〈그림 2-27〉 삶에서의 중요도_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	74
〈그림 2-28〉 삶에서의 중요도_사회 기여 .....	76
〈그림 2-29〉 삶에서의 중요도_명예와 권력 .....	78
〈그림 2-3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	80
〈그림 2-31〉 향후 결혼 계획 .....	82
〈그림 2-32〉 향후 출산 계획 .....	84
〈그림 2-33〉 정치적 효능감 .....	89
〈그림 2-34〉 정치적 효능감_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91
〈그림 2-35〉 정치적 효능감_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93

〈그림 2-36〉 정치적 효능감_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95
〈그림 2-37〉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97
〈그림 2-3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업무상 접촉은 제외) .....	99
〈그림 2-39〉 외출 빈도 .....	101
〈그림 2-40〉 은둔생활 상태 지속 기간 .....	103
〈그림 2-4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	105
〈그림 2-4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	107
〈그림 2-4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	109
〈그림 2-44〉 규칙적인 운동 빈도 .....	113
〈그림 2-4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115
〈그림 2-4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117
〈그림 2-47〉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119
〈그림 2-48〉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	121
〈그림 2-4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	123
〈그림 2-5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125
〈그림 2-51〉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	127
〈그림 2-5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	129
〈그림 2-53〉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131
〈그림 2-5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	133
〈그림 2-55〉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	135
〈그림 2-56〉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137
〈그림 2-57〉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학교 .....	141
〈그림 2-58〉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공공기관 .....	143
〈그림 2-59〉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사설기관 .....	145
〈그림 2-60〉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부모님이나 친인척 .....	147
〈그림 2-6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친구, 선후배 .....	149
〈그림 2-6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	151
〈그림 2-63〉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153
〈그림 2-64〉 부모 동거 여부 .....	157
〈그림 2-65〉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	159
〈그림 2-66〉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	161
〈그림 2-67〉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	163
〈그림 2-68〉 1인 가구 여부 .....	165
〈그림 2-6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1+2순위) .....	167
〈그림 2-70〉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170
〈그림 2-7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생활 인프라 .....	172
〈그림 2-7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대중교통 이용 .....	174
〈그림 2-7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	176

〈그림 2-7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위생 환경 .....	178
〈그림 2-7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녹지 공간 .....	180
〈그림 2-7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문화부대시설 .....	182
〈그림 2-7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교육 환경 .....	184
〈그림 2-78〉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관계 .....	186
〈그림 2-79〉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	188
〈그림 2-80〉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1+2순위) .....	190
〈그림 2-8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195
〈그림 2-82〉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197
〈그림 2-83〉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	199
〈그림 2-84〉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기간 .....	201
〈그림 2-85〉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	203
〈그림 2-8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근로형태 .....	205
〈그림 2-87〉 지난 4주 동안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	207
〈그림 2-88〉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	209
〈그림 2-89〉 (미취업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	211
〈그림 2-90〉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	212
〈그림 2-91〉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 여부 .....	213
〈그림 2-92〉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	215
〈그림 2-93〉 (지난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 .....	216
〈그림 2-94〉 평소활동상태 .....	218
〈그림 2-95〉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1+2+3순위) .....	220
〈그림 2-96〉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유무 .....	225
〈그림 2-97〉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중한 업무 .....	227
〈그림 2-98〉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	229
〈그림 2-99〉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	231
〈그림 2-100〉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	233
〈그림 2-101〉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	235
〈그림 2-102〉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안전, 보호 장비 미비 .....	237
〈그림 2-103〉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	241
〈그림 2-104〉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1+2순위) .....	243
〈그림 2-105〉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	248
〈그림 2-106〉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 목적 .....	251
〈그림 2-107〉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평일 .....	253
〈그림 2-108〉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주말 .....	255
〈그림 2-109〉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작은도서관 이용 .....	257
〈그림 2-110〉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	259
〈그림 2-111〉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	261
〈그림 2-112〉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	263

〈그림 2-113〉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	265
〈그림 2-114〉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	267
〈그림 2-115〉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	269
〈그림 2-116〉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복수응답) .....	271
〈그림 2-11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273
〈그림 2-11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	276
〈그림 2-11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	278
〈그림 2-12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80
〈그림 2-12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 유스센터 .....	282
〈그림 2-12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양지, 은행) 유스센터 .....	284
〈그림 2-12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진동굴, 은행동굴) 자유이용공간 .....	286
〈그림 2-124〉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	288
〈그림 2-125〉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 전달 시 선호하는 경로(복수응답) .....	290
〈그림 2-126〉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 빈도 .....	292
〈그림 3-1〉 Voyant tools .....	302
〈그림 3-2〉 단어구름 분석 결과(청년) .....	305
〈그림 3-3〉 3 클러스터 중심 분석 결과(청년) .....	306
〈그림 3-4〉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청년) .....	308
〈그림 3-5〉 단어구름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310
〈그림 3-6〉 산점도 분석 결과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 클러스터 기준) .....	311
〈그림 3-7〉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312
〈그림 3-8〉 단어구름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316
〈그림 3-9〉 2 클러스터 중심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317
〈그림 3-10〉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318
〈그림 4-1〉 경험 전수 기반 멘토링 프로세스(안) .....	327





# I

## 조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청소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4. 정책 제언



# I 조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과 청년은 지역사회의 현재의 구성원이자 미래의 핵심 주체로서,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 급속한 환경 변동은 청소년과 청년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고용, 주거, 정신건강,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의 주요 영역에서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전국 단위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왔다. 성남시 역시 2008년부터 청소년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왔으나, 보다 일관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0년과 2022년의 조사가 개편됨에 따라, 과거 데이터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 한편 재단은 2020년 청년정책실 신설 이후에 청년 대상의 앙케이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정책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성남시 차원에서도 청년문제 실태연구,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1인가구 관련 연구조사 등을 운영하여 특정 현안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또한 청년 세대 전반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 청소년과 청년의 실태를 양적·질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청소년·청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정책 대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단절 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한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 청소년과 청년의 다차원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심층 면담으로 구성되며,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양적 조사(설문조사)

- 청년 :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성인 남녀(n=1,008)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사회 인식·미래설계, 관계 및 참여, 건강, 교육·훈련, 주거, 노동 등을 포함한다.

- 질적 조사(심층 인터뷰)

- 청년 집단 (총 15명) : 정책 당사자인 청년 사업 참여 청년(n=10)과 이해관계자인 사업 담당 지도자(n=5)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청년 정책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설계를 채택한다.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수행되었다.

### 3) 양적 연구 방법

■ 표본설계(Sampling Design)

구분	내용
모집단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8개(유효표본 기준)
조사지역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표본추출	온라인 패널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7\%$

■ 조사항목

분야	조사 항목
사전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출생연도</li> <li>• 거주지</li> </ul>
사회인식·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만족도</li> <li>• 삶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li> <li>•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li> <li>• 집단 간 갈등 인식</li> </ul>

분야	조사 항목
사회인식·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li> <li>• 우리사회 불평등 정도</li> <li>• 부의 대물림 인식</li> <li>•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li> <li>•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li> <li>• 향후 결혼 계획</li> <li>• 향후 자녀 출산 계획</li> </ul>
관계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효능감</li> <li>•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li> <li>• 외출 빈도</li> <li>• 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li> <li>• 은둔·고립 생활을 하게 된 이유</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 빈도</li> <li>• 외식 또는 매식 빈도</li> <li>•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li> <li>•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li> <li>• 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li> <li>•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li> <li>•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li> <li>•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li> <li>•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li> <li>•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 받았던 경험</li> <li>•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li> <li>•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li> <li>• 도움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li> <li>•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동거 여부</li> <li>• (부모 동거)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li> <li>• (부모 동거·독립 계획 있음) 독립하려는 이유</li> <li>• (부모 동거·독립 계획 없음) 독립 계획 없는 이유</li> <li>• (부모·보호자 비동거) 1인 가구 여부</li> <li>• (부모·보호자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li> <li>•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li> <li>•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li> <li>•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li> </ul>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li> <li>• 지난 주 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li> <li>•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고용계약기간, 현재 직장 재직기간, 근로형태,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한 구직활동 경험</li> <li>• (미취업자) 지난 4주 내에 구직 경험,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li> </ul>

## I. 조사개요

분야	조사 항목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구직 희망 여부,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구직하지 않은 이유</li> <li>• 지난 주 주된 활동 상태</li> <li>•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li> <li>• 지난 12개월 동안 일한 경험</li> <li>•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li> </ul>
청년 정책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li> <li>•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li> <li>•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콘텐츠</li> <li>•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다면 이용 목적</li> <li>•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사업 시간대</li> <li>•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 정도</li> <li>• 혼인상태</li> </ul>

### ▣ 자료처리 절차(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했다.

### ▣ 응답자 특성

구분 <sup>1)</sup>		가중치 반영 전 (Unweighted)		가중치 반영 후 <sup>2)</sup> (Weighted)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08)	100.0	(1,008)	100.0
성별	남성	(520)	51.6	(517)	51.3
	여성	(488)	48.4	(491)	48.7
연령	19세-24세	(215)	21.3	(214)	21.2
	25세-29세	(259)	25.7	(256)	25.4
	30세-34세	(281)	27.9	(282)	28.0
	35세-39세	(253)	25.1	(255)	25.3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7)	26.5	(268)	26.6
	성남시 중원구	(231)	22.9	(232)	23.0
	성남시 분당구	(510)	50.6	(508)	50.4
학력	고졸 이하	(146)	14.5	(146)	14.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1)	18.9	(190)	18.9
	대학 졸업 이상	(671)	66.6	(672)	66.7
혼인상태	미혼/비혼	(783)	77.7	(782)	77.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3)	19.1	(194)	19.3
	별거·이혼·사별	(32)	3.2	(32)	3.2

1) 조사표본은 실제로 조사된 응답자 수를 의미하며, 가중 표본은 가중치를 적용(자료 처리 시 학교급별, 학교소재지별, 성별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였을 경우 응답자 수를 의미함.

2) 본 보고서의 수치는 가중 표본을 기준으로 구성됨

### 3) 질적 연구 방법

#### ▣ 질적조사 (심층인터뷰)

구분	청년 집단(총 15명)
참여자 선정 <sup>3)</sup>	재단 사업 참여 청년 10명 청년사업 담당 지도자 3명

#### ▣ 자료수집 및 분석

단계	내용
1단계 (데이터 전처리)	인터뷰 전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Python(v3.13.5) 기반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py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 중심의 핵심어를 추출
2단계 (데이터 분석)	Voyant Tools와 Python 라이브러리(Gensim, pyLDAvis)를 활용하여 다각적 분석을 수행 단어 빈도 및 단어구름(Word Cloud)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산점도 분석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 3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성남시 청년 1,008명(남 517명, 여 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19~24세 214명(21.2%), 25~29세 256명(25.4%), 30~34세 282명(28.0%), 35~39세 255명(25.3%)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거주 지역은 수정구 268명(26.6%), 중원구 232명(23.0%), 분당구 508명(50.4%)으로, 분당구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146명(14.5%), 대학교 재학·수료·휴학·중퇴 190명(18.9%), 대학 졸업 이상 672명(66.7%)으로, 고학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미혼·비혼 782명(77.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명(19.3%), 별거·이혼·사별 32명(3.2%)\*으로 확인되었다.

### 1)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 사회인식조사 결과, 청년들은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6.4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다음은 '삶의 만족도(6.3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자유로운 선택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자유로운 선택, 사회 신뢰 수준이 모두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3) 연구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행정, 입법 관련)에 대하여 별도의 인터뷰(4인)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청소년, 청년 사업 실행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맥락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음. 본 보고서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주체들(청소년, 청년, 청소년/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학부모)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기에,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결과는 본문이 아닌 부록에 별도로 제시함.

- 갈등 인식에서는 ‘부유층-서민층(3.0점)’과 ‘남성-여성(3.0점)’ 사이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성세대-청년세대(2.9점)’와 ‘수도권-비수도권(2.9점)’ 갈등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외국인(2.7점)’ 갈등이 가장 낮았다. 한국 사회의 미래 위협 요소로는 ‘저출생·고령화(3.2점)’가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다음으로 ‘기후변화(3.1점)’가 뒤를 이었다. ‘불평등(2.9점)’, ‘기술·산업구조 변화(2.9점)’, ‘테러리즘(2.9점)’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의 경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6.9점)보다 소득 대물림 인식(7.4점)이 더 높아 세습 및 대물림 구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불평등 인식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삶에서의 중요도와 관련,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는 ‘원하는 일자리(3.4점)’와 ‘높은 소득과 자산(3.4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3%가 ‘일부는 실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7%였으며,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혼·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47%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2) 관계 및 참여

-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하여,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3.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3.4점)’가 뒤를 이었다. 한편,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점)’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사람과의 교류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가족·친척이 있다는 응답은 78.9%, 없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접촉을 제외하고 가족·친척 이외의 타인과 교류하는 경우는 75.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4.6%는 교류 대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외출 방식과 빈도는 외출 방식과 빈도는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 매일 외출한다’가 5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11.1%)’,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9.8%)’, ‘직장이나 학교로 주 3~4일 외출한다(8.7%)’,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을 위해 외출한다(7.4%)’,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4.1%)’,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1.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1.0%)’ 순으로 나타났다.
- 은둔생활 지속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년 이상~5년 미만(25.9%)’, ‘7년 이상(13.7%)’, ‘6개월 미만(13.5%)’, ‘6개월 이상~1년 미만(11.5%)’, ‘5년 이상~7년 미만(9.4%)’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생활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35.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34.5%)’, ‘장애 또는 신체적 불편(16.5%)’, ‘임신·출산(5.8%)’, ‘학업 중단(2.2%)’ 순으로 응답되었다.
-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한 은둔형 청년의 생활 방식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을 위해 외출한다’가 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29.6%)’,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10.3%)’,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5.6%)’ 순으로 나타났다.



- 은둔형 청년의 은둔 지속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2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26.0%)', '7년 이상(13.9%)', '6개월 미만(12.8%)', '6개월 이상~1년 미만(11.1%)', '5년 이상~7년 미만(7.4%)'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건강

- 규칙적인 운동 빈도는 '주 1~2회(33.8%)'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 3~4회(25.0%)', '주 1회 미만(19.7%)', '전혀 하지 않는다(13.4%)', '주 5회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또는 매식 빈도는 '주 1~2회(40.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3~4회(29.0%)', '주 5~6회(14.7%)', '하루 1회(9.3%)', '전혀 안 한다(4.2%)', '하루 2회 이상(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 동안 함께 식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48.6%)'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25.9%)',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25.4%)'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그렇지 않다(53.3%)'가 '그렇다(4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예(51.2%)'가 '아니오(48.8%)'보다 높았다. 번아웃을 느끼게 된 주요 이유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29.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23.0%)', '과중한 업무(19.8%)', '일과 삶의 불균형(14.8%)', '적은 보상(7.8%)', '일에 대한 보람 부족(5.3%)'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84.9%)'가 '예(15.1%)'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 또는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는 '아니오(48.5%)'가 가장 높았고, '상담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41.3%)', '예(10.2%)'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했으나 상담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22.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16.6%)', '혼자 방문하기 어려워서(15.8%)', '가까운 상담기관 부족(11.8%)', '시간 부족(10.7%)',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9.8%)', '주변의 시선 또는 반대(4.9%)' 순으로 나타났다.
-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좋음(44.1%)'이 '나쁨(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89.1%)'가 '예(10.9%)'보다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을 제외한 건강상의 이유로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경험에서는 '아니오(58.5%)'가 가장 높았고,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33.4%)', '예(8.1%)'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34.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혼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서(20.9%)',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서(17.4%)', '시간 부족(16.0%)',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9.9%)' 순으로 나타났다.

### 4) 교육·훈련

- 학교로부터 취업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다(66.5%)'가 '있다(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48.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기관의 취업 준비 지원 경험에서도 '없다(79.8%)'가 '있다(20.2%)'보다 높았으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43.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설기관의 취업 준비 지원 경험은 '없다(71.1%)', '있다(28.9%)' 순으로 나타났고,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58.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다

(64.6%)가 '있다(35.4%)'보다 높았으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50.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 및 선후배의 경우 '없다(57.3%)'가 '있다(42.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65.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질적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다(61.7%)'가 '있다(38.3%)'보다 높았으며, 도움을 받은 경우 60.6%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받고 싶은 교육·훈련 분야로는 '어학(2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정 직종 관련 직업훈련(22%)', '취업 준비 비용 지원(20%)', '받고 싶은 교육·훈련 없음(17.3%)', '고용 상담 서비스(9.8%)', '창업 교육(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5) 주거

-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56.4%)'가 '아니오(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독립 계획 여부에서는 '없다(54.3%)'가 '있다(45.7%)'보다 조금 높았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 부족(58.8%)'이었으며, 다음으로 '통학·통근의 편리함(17.8%)', '특별한 이유 없음(12%)', '가사·돌봄 부담(8.1%)', '자녀 양육 지원 필요(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3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동거 예정(24.6%)', '독립 가능한 경제적 여건 확보(22.3%)', '통학·통근 거리 문제(11.9%)', '가족 갈등(5.4%)' 순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 여부에서는 '예(59.8%)'가 '아니오(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선택한 1순위 이유는 '통학·통근에 좋은 위치(26.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주거비(26.2%)', '내부 환경 만족(12.6%)', '개인 공간 보장(11.1%)', '가족·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6.6%)', '자산 가치 고려(5.7%)', '편의 시설 접근성(5.3%)', '자연환경(4.6%)'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통학·통근 위치(45.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주거비(34.2%)', '내부환경(26.9%)', '개인 공간 보장(25.5%)', '편의시설 접근성(24.6%)', '인적 네트워크(16%)', '자산 가치(15.5%)', '자연환경(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주거 환경 만족도는 생활 인프라(3.7점), 치안·방범(3.7점), 녹지 공간(3.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3.6점)이 그 뒤를 이었다. 위생 환경(3.5점), 문화 부대시설(3.5점), 교육 환경(3.5점)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웃 관계(3.3점)가 가장 낮았다. 주택 위치는 '지상(88.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하(5.2%)', '옥상·옥탑(4.7%)', '반지하(1.7%)'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1순위로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25.8%)'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25.6%)', '전세 자금 대출(18.8%)', '공공임대 입주(17.1%)',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7.9%)',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4%)'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49.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48.0%)', '전세 자금 대출(36.5%)', '공공임대 입주(32.9%)',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20.5%)',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11.8%)' 순이었다.

## 6) 노동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서는 '예(76.9%)'가 '아니오(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보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94.4%)'가 '예(5.6%)'보다 높았다.

- 지난주에 일한 일자리가 자신 소유의 사업인지 여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 고용됨(93.0%)’이 ‘자영업자(7.0%)’보다 높았다. 지난주 일자리의 고용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음(43.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이상(34.2%)’, ‘1달 이상~1년 미만(18.5%)’, ‘1달 미만(3.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44.5%)’이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33.8%)’, ‘1년 미만(21.8%)’ 순이었다. 근로형태는 ‘전일제(82.2%)’가 ‘시간제(1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위해 추가 일자리를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57.1%)’가 ‘예(42.9%)’보다 높았다.
-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구해본 경험은 ‘구해 보지 않음(87.7%)’이 ‘구해 보았음(12.3%)’보다 높았다. 직장이 구해졌을 경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59.4%)’가 ‘아니오(40.6%)’보다 높았다. 구직 활동을 지속해 온 기간은 ‘1년 미만(24.9%)’이 가장 높고, 이어 ‘2년 이상(12.5%)’, ‘1년~2년 미만(6.2%)’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음(86.6%)’이 ‘원했음(13.4%)’보다 높았다. 직장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71.4%)’가 ‘아니오(28.6%)’보다 높았다. 구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기능·학력·능력 부족(25.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1.4%)’, ‘건강상 이유(18%)’, ‘취업 준비 중(14.3%)’, ‘어린 아이 돌봄(7.1%)’, ‘당분간 쉬고 싶어서(3.6%)’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주 주된 활동은 ‘정규 교육기관 통학(34.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쉬었음(22.9%)’, ‘취업준비(14.1%)’, ‘가사(7%)’, ‘취업 관련 학원·기관 통학(6.6%)’, ‘육아(4.2%)’ 순이었다.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요인은 ‘임금(52.4%)’이었으며, 이어 ‘근로시간(13.0%)’, ‘고용안정성(10.3%)’, ‘승진 가능성(4.5%)’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기준으로는 ‘임금(71.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시간(50.6%)’, ‘고용안정성(44.6%)’, ‘휴일(22.5%)’, ‘승진 가능성(12.9%)’ 순이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여부에서는 ‘아니오(76.3%)’가 ‘예(23.7%)’보다 높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하면서 경험한 업무 상황을 보면, ‘과중한 업무’는 ‘월 1회 이상~주 2회 미만(33.4%)’이 가장 많았다. 그 외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무서움(42.6%)’, ‘과도한 중량물 또는 기계 다루기(48.5%)’, ‘성과·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31.6%)’, ‘감정노동 상황(29.7%)’, ‘안전·보호 장비 미비(56.0%)’ 등은 모두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7) 청년 정책 및 사업

-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 있음(59.7%)’이 ‘관심 없음(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1순위 정책은 ‘소득지원(22.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용(20.6%)’, ‘주거 지원(16.8%)’, ‘자산형성지원(10.0%)’, ‘진로 설계 지원(9.1%)’, ‘공공일자리 제공(8.7%)’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으로는 ‘고용(44.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지원(30.7%)’, ‘소득지원(29.8%)’, ‘자산형성지원(20.5%)’, ‘공공일자리 제공(18.3%)’, ‘진로 설계 지원(17.1%)’, ‘심리·생활상담 제공(10.3%)’ 순이었다.
-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는 ‘금융·재테크(28.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일경험·근로(18.3%)’, ‘교육·학습(8.5%)’, ‘여행(7.7%)’, ‘진로(7.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용 청년 공간이 있을 경우 활용 목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23.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목적 공간(19.7%)’,

‘스터디(17.3%)’, ‘커뮤니티 모임·회의(15.3%)’, ‘공연·전시 공간(14.3%)’, ‘코워킹 공간(7.1%)’ 순으로 조사되었다.

▣ 평일 참여 가능 시간대는 ‘야간(18시~21시)(54.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오후(12시~18시)(34.8%)’, ‘오전(9시~12시)(10.7%)’ 순이었다. 주말 참여 가능 시간대는 ‘오후(12시~18시)(61.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오전(9시~12시)(21.6%)’, ‘야간(18시~21시)(17.1%)’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시설 또는 활동 이용 여부에서는 ‘작은도서관(58.9%)’, ‘강좌 수업(67.9%)’, ‘공간 사용(71.3%)’, ‘청년참여기구(75.1%)’, ‘자치조직·동아리 활동(74.7%)’, ‘심리지원 활동(74.6%)’, ‘창업·취업 역량 강화 활동(74.0%)’ 모두에서 ‘이용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설 또는 활동을 이용한 이유는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30.7%)’가 가장 높았고, 이어 ‘진로·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5.2%)’, ‘재미·의미(25.0%)’, ‘친구·지인과 함께(23.7%)’, ‘가족·주변의 권유(23.2%)’, ‘기관 추천(23%)’, ‘가까운 위치(22.3%)’, ‘시간·일정이 맞아서(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홍보·안내 부족으로 해당 시설·활동을 몰라서(34.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참여 방법을 몰라서(29.3%)’, ‘시간 부족(29.2%)’, ‘원하는 분야가 아님(22.8%)’, ‘관심 없음(21.9%)’,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16.1%)’, ‘거리·이동 불편(13.0%)’ 순이었다.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운영시설 인지도는 ‘유스센터(수정·중원·서현·정자·판교·야탑)(44.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40.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38.5%)’,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33.0%)’, ‘유스센터(양지·은행)(32.9%)’, ‘자유이용공간(29.6%)’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 관련 정보·프로그램 소식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경로는 ‘SNS(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58.2%)’가 가장 높았으며, ‘문자·이메일·뉴스레터(35.1%)’, ‘오프라인 홍보물(27.6%)’, ‘학교 내 공지(21.6%)’, ‘대외활동 플랫폼(18.9%)’, ‘커뮤니티 앱(13.8%)’, ‘지인 소개(10.5%)’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재단 시설 이용 횟수는 ‘이용한 적 없음(68.7%)’이 가장 높았고, 이어 ‘1~2회(11.8%)’, ‘3~5회(8.6%)’, ‘6~9회(8.2%)’, ‘10회 이상(2.7%)’ 순으로 나타났다.

## 4 정책 제언

## I

### 조 사 개 요

### 1) 청년-청년 전환기 연계 강화를 위한 퍼스트 터치 시스템의 구축

- 청년사업 담당자 토크모델링 분석 결과,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이 청년이 기관과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의 참여는 담당자 개인의 모집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내·모집 업무가 반복되는 구조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및 활동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생활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 이용 경험은 2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시설과 프로그램은 10% 내외의 낮은 이용률을 보여 초기 접점 자체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 청년의 재단과의 초기 접점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형성되지만 연령 상승에 따라 점차 약화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초등 시기에는 보호자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나,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업 중심의 생활로 기관 참여가 줄어들고, 대학 진학과 적응 과정에서도 연속성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취업 전후의 시점에서 재단과의 관계가 다시 필요해지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소속감이나 지속적 관계가 부족해 기관의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기의 최초 접점(퍼스트 터치)이 성인 초기까지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퍼스트 터치 시스템은 단일 시점의 안내 절차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최초 참여 경험 기록 → 전환기 공백 관리 → 청년기의 재연결 → 후기 청년 단계의 환류로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 이 과정에서 참여 이력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기록 및 관리 체계는 필수 요소이다. 주기적 동의 절차를 포함한 안정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할 때, 청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경험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지속적 관계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 2) 청년의 실패 경험에 대한 제도적 지지기반 구축

-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으며, 번아웃의 주요 원인은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2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 중심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년이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청년들은 “도전 이후 실패를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를 공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청년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와 공감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비슷한 진로 불안과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적 지지 구조는 개인의 고립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성공 사례 중심의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실패 경험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정서적 지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단 차원의 공공 캠페인을 통해 ‘빠른 성공보다 단단한 시도’와 같은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고, 도전에 대한 심리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실패 경험에 대한 지지는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학업·취업·창업·사회참여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실패는 재단의 개별 사업 안팎에서 발생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기록·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남형 청년정책은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인정하고, 지역이 축적해 온 정책 자산을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도전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지 체계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소진을 예방하고 재도전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 3) 청년 직장 초기 적응을 위한 경험 전수 멘토링 체계 구축

-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과중한 업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은 많은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청년으로부터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멘토링은 초기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다.
- 이에 청년들의 현장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멘토링 사례로 정리하는 ‘경험 전수 기반 멘토링 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공식 제도나 평가 중심 구조가 아니라, 청년 간 비공식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경험을 사례 단위로 수집·정리해 자원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뢰 기반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기록될 때, 이는 새로운 정책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 이를 위해 비공식 멘토링 경험을 짧은 사례 기록, 학습 노트, 프로젝트 수행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남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신규 청년이 선배 청년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배움을 사례 단위로 정리한다면, 개인 경험을 넘어 다른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청년이 연결될 수 있는 멘토링 공간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 초기 적응 가이드를 개발한다면, 업무 과중, 적응 스트레스 등 초기 단계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4)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전달 채널 혁신

- 실태조사 결과, 취업 준비에 있어 공공영역에서 청년이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주로 친구나 선배와 같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남시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을 통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또한 ‘온통청년’ 및 ‘경기청년포털’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공공의 지원 정책이 청년에게 도달하는 전달 방식의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전달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 기반의 홍보·정보 제공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 청년들은 SNS, 유튜브, 비공식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에 따라 ‘청년 맞춤형 SNS 채널’을 구축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청년 친화적 형식(밈, 인기 콘텐츠, 숏폼 등)을 활용해 정책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은 접근성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

❑ 또한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와 이용 과정을 영상 또는 숏폼 형태로 제작하여 청년과 공유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동년배 청년의 경험을 ‘청년의 이야기로 청년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공감을 형성하고, 간접경험을 학습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홍보 방식이 될 것이다.

## 5) 청년 취업준비기 의료비 경감 및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

❑ 조사 결과, 청년의 평균 취업 시점은 졸업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취업까지의 전환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의 주요 지출이 교육·훈련비 등 인적자본 투자에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상담·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의료적 접근성이 경제적 이유로 저해되는 문제는 청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장기적 사회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독립 세대주로 전환하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최대 1년 등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기본적 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6) 청년 생활권 기반의 연속적 정책 지원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청년들은 대학 시기에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지원 경로가 분절되어 있다는 공통적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지도자들 또한 청년의 상황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단기적 프로그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예: 창업, 직무지원) 중심의 지원 구조는 다른 청년 집단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 청년이 자신의 상황과 속도에 맞는 자원을 찾아 연속적인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 청년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생활 맥락(대학·직장·생활권) 속으로 정책과 지원이 스며드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유희부지 복합개발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오리역세권에는 ‘AI·모빌리티 R&D센터’가, 정자동에는 ‘마이스(MICE) 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들은 주거·산업·문화·국제교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구조를 지닌다. 이와 기존 청년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청년 주거 안정 → 일자리 기회 → 전문 역량 개발 → 참여와 교류라는 일련의 경로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단은 지역 내 정책 자원과 청년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 청년주택 입주 청년이 지역 소모임·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경로를 중개하고,
  - R&D센터와 협력해 AI·모빌리티 분야의 청년 역량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며,
  - MICE 단지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와 재단의 국제교류사업·청년참여단 활동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 이는 개인정보를 기관 간에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단이 정보의 매개자·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이 필요한 자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에서 제기된 지원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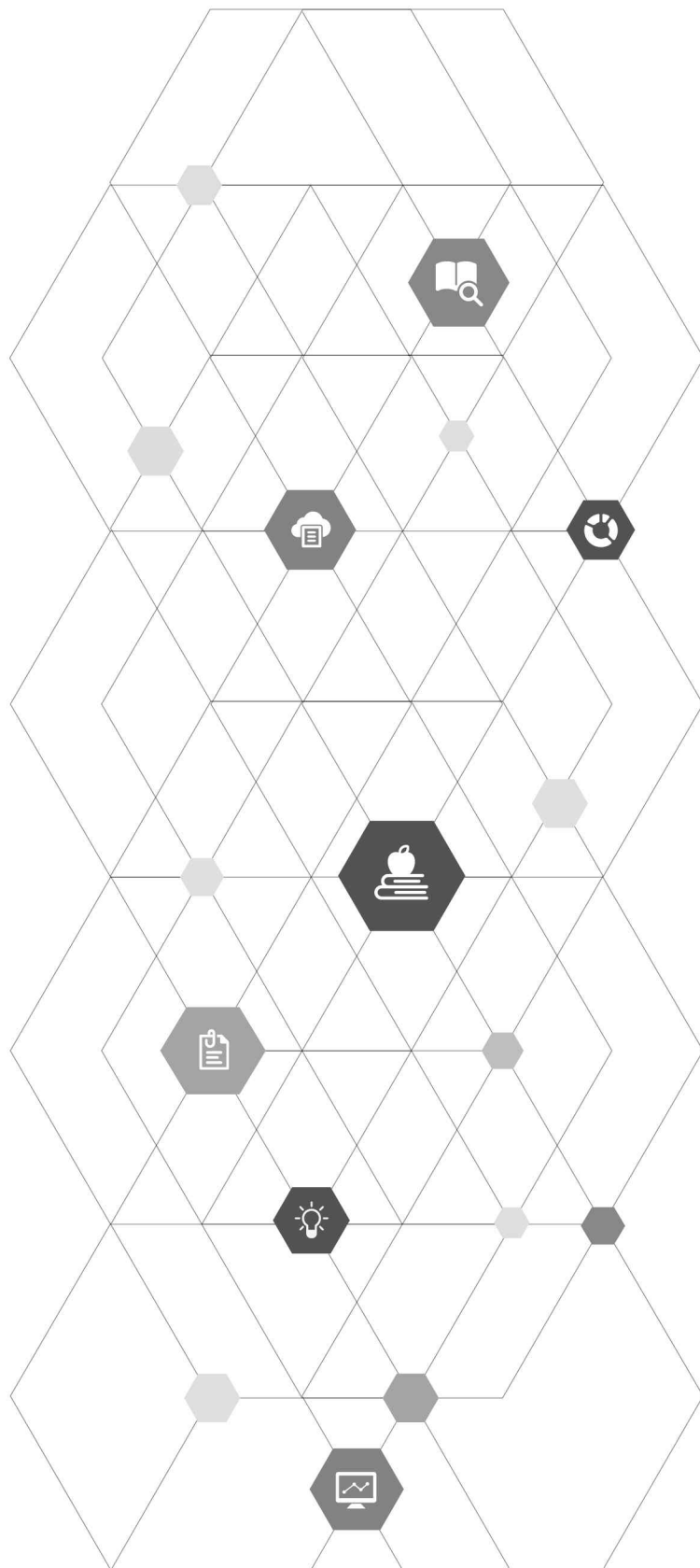
## 청년 실태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2. 사회인식·미래설계
3. 관계 및 참여
4. 건강
5. 교육·훈련
6. 주거
7. 노동
8. 청년 정책 및 사업



# 01

## 일반적 특성





## Ⅱ 청년 실태조사 결과

###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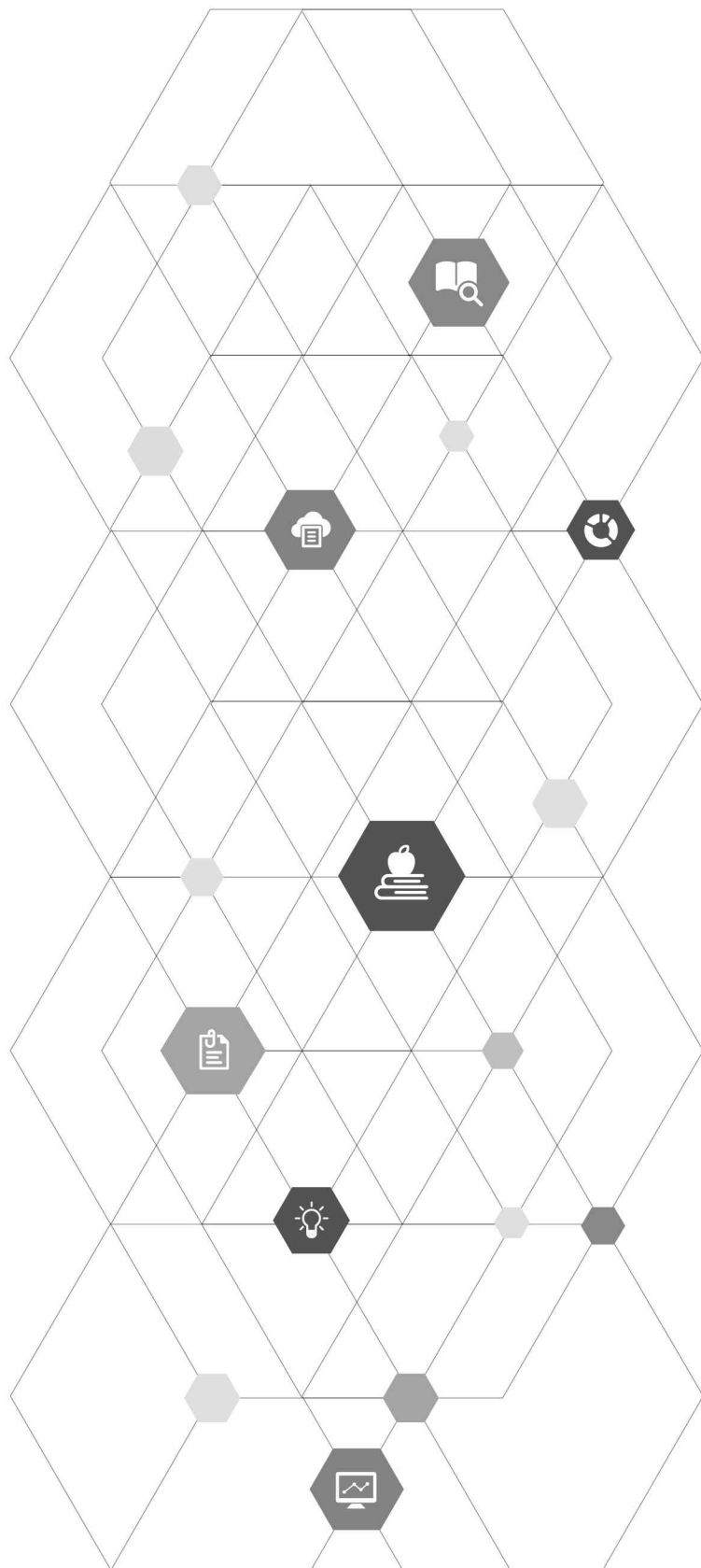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 1,008명을 최종 분석에서 활용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517명(51.3%), 여자는 491명(48.7%)이었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214명(21.2%), 25~29세가 256명(25.4%), 30세~34세가 282명(28%), 35세~39세가 255명(25.3%)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268명(26.6%), 중원구 232명(23.0%), 분당구 508명(50.4%)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46명(14.5%), 대학교 재학·수료·휴학·중퇴가 190명(18.9%), 대학 졸업 이상이 672명(66.7%)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비혼이 782명(77.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이 194명(19.3%) 그리고 별거·이혼·사별이 32명(3.2%)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
전체		(1,008)	100.0
성별	남성	(517)	51.3
	여성	(491)	48.7
연령	19세~24세	(214)	21.2
	25세~29세	(256)	25.4
	30세~34세	(282)	28.0
	35세~39세	(255)	25.3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6.6
	성남시 중원구	(232)	23.0
	성남시 분당구	(508)	50.4
학력	고졸 이하	(146)	14.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8.9
	대학 졸업 이상	(672)	66.7
혼인상태	미혼/비혼	(782)	77.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9.3
	별거·이혼·사별	(32)	3.2



# 02

## 사회인식· 미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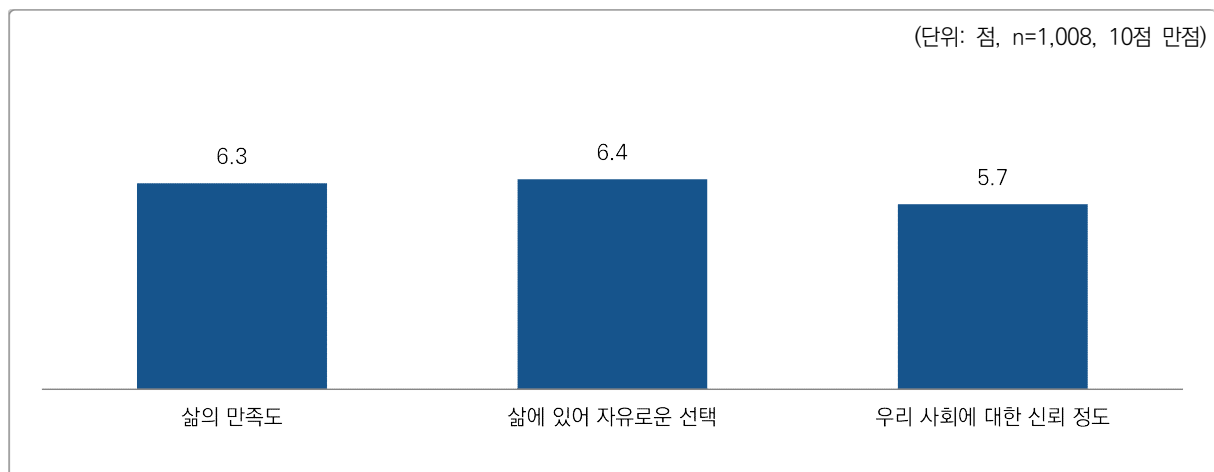
## 2 사회인식·미래설계

### 1) 사회인식

#### (1) 사회 인식

- 삶의 만족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6.3점,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5.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여성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삶의 만족도와 남성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4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여성의 삶의 만족도 6.2점, 남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6.0점 그리고 여성의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24세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39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 중원구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개의 지역에서 삶의 만족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모두 성남시 분당구가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의 삶의 만족도와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학력보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가 삶의 만족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 있음의 삶의 만족도가 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사회 인식



〈표 2-1〉 사회 인식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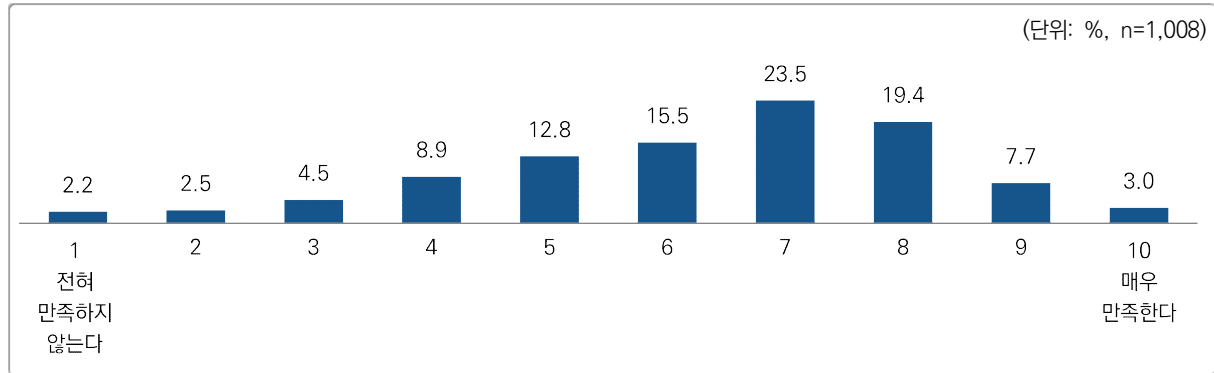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삶의 만족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전체		(1,008)	6.3	6.4	5.7
성별	남성	(517)	6.4	6.4	6.0
	여성	(491)	6.2	6.5	5.4
연령	19세-24세	(214)	6.7	6.8	6.3
	25세-29세	(256)	6.5	6.7	5.8
	30세-34세	(282)	6.3	6.4	5.5
	35세-39세	(255)	5.8	5.9	5.2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1	6.3	5.6
	성남시 중원구	(232)	6.0	6.1	5.4
	성남시 분당구	(508)	6.6	6.7	5.8
학력	고졸 이하	(146)	5.6	5.9	5.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9	6.9	6.4
	대학 졸업 이상	(672)	6.3	6.5	5.6
혼인상태	미혼/비혼	(782)	6.3	6.5	5.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6.7	6.5	5.6
	별거·이혼·사별	(32)	5.0	5.4	5.6

### ①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점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의 삶의 만족도는 7점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7점과 8점이 20.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8점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는 7점이 28.2%, 30~34세는 7점이 22.1%, 35~39세는 7점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7점이 27%, 성남시 중원구는 7점이 24.1%, 성남시 분당구는 7점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고졸 이하가 7점이 18.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가 7점이 20.3%, 대학 졸업 이상은 7점이 2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7점이 23.9%, 배우자 있음은 8점이 27.5%로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7점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점이 15.7%로 나타났다.

〈그림 2-2〉 사회 인식\_삶의 만족도



〈표 2-2〉 사회 인식\_삶의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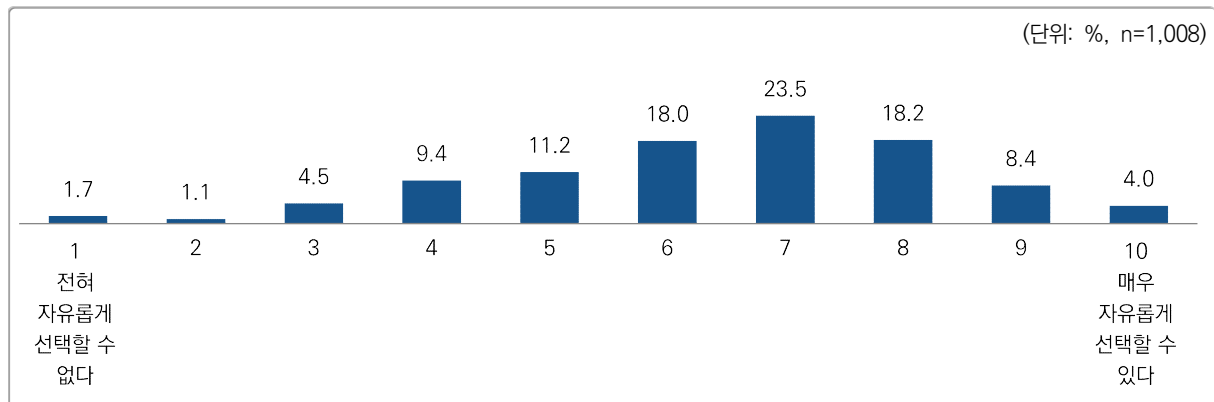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2	3	4	5	6	7	8	9	10 매우 만족 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2	2.5	4.5	8.9	12.8	15.5	23.5	19.4	7.7	3.0	100.0	(6.32)
성별	남성	(517)	1.7	2.9	2.5	9.6	11.4	14.8	26.5	18.6	9.2	2.7	100.0	(6.43)
	여성	(491)	2.7	2.1	6.6	8.2	14.3	16.2	20.3	20.3	6.1	3.3	100.0	(6.20)
연령	19세~24세	(214)	1.4	0.5	4.2	7.4	11.2	13.0	21.7	24.6	12.7	3.3	100.0	(6.74)
	25세~29세	(256)	1.9	1.2	2.8	8.9	13.9	14.7	28.2	15.4	9.2	3.8	100.0	(6.47)
	30세~34세	(282)	1.1	1.4	5.0	9.6	14.6	18.1	22.1	19.2	6.8	2.1	100.0	(6.29)
	35세~39세	(255)	4.3	6.7	5.9	9.5	11.0	15.4	21.8	19.4	3.2	2.8	100.0	(5.85)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6	1.9	5.2	10.8	14.2	13.9	27.0	16.5	5.6	2.2	100.0	(6.14)
	성남시 중원구	(232)	3.1	3.9	6.5	9.9	11.8	14.8	24.1	19.8	3.9	2.2	100.0	(6.02)
	성남시 분당구	(508)	1.6	2.2	3.2	7.5	12.6	16.7	21.3	20.8	10.5	3.7	100.0	(6.56)
학력	고졸 이하	(146)	4.8	3.4	6.9	12.3	17.9	16.4	18.4	13.7	4.8	1.4	100.0	(5.6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5	1.6	2.7	6.8	10.0	13.1	20.3	25.1	15.8	4.2	100.0	(6.94)
	대학 졸업 이상	(672)	2.1	2.6	4.5	8.8	12.5	16.0	25.5	19.1	6.1	3.0	100.0	(6.2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3	2.2	4.5	9.3	13.2	15.8	23.9	18.0	7.9	2.9	100.0	(6.2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5	1.6	3.6	7.8	11.4	14.5	22.8	27.5	6.7	3.6	100.0	(6.66)
	별거·이혼·사별	(32)	9.4	15.7	9.4	6.3	12.5	12.6	18.7	6.1	9.2	0.0	100.0	(4.96)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 ②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조사한 결과, 7점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의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은 7점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7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점이 28.3%, 25~29세는 7점이 25.2%, 30~34세는 7점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39세는 6점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7점이 22.5%, 성남시 중원구는 7점이 21.9%, 성남시 분당구는 7점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고졸 이하가 6점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가 7점이 29.2%, 대학 졸업 이상은 7점이 2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7점이 24.2%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배우자 있음은 6점이 24.9%, 별거·이혼·사별은 5점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 사회 인식\_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표 2-3〉 사회 인식\_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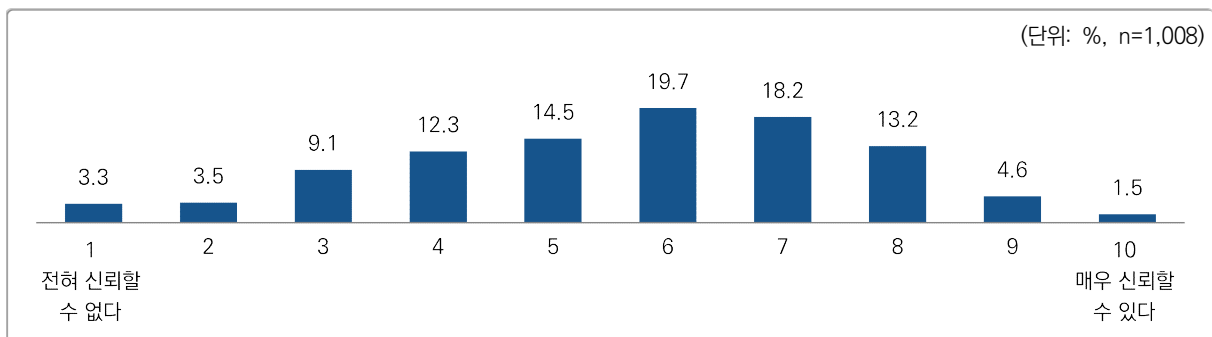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 전혀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없다	2	3	4	5	6	7	8	9	10 매우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7	1.1	4.5	9.4	11.2	18.0	23.5	18.2	8.4	4.0	100.0	(6.44)
성별													
남성	(517)	1.5	0.8	3.7	10.2	11.4	19.8	24.2	19.6	6.7	2.1	100.0	(6.38)
여성	(491)	1.8	1.4	5.3	8.6	11.1	16.2	22.8	16.8	10.1	5.9	100.0	(6.51)
연령													
19세~24세	(214)	1.4	0.9	4.2	7.4	6.5	14.8	28.3	18.2	15.0	3.3	100.0	(6.78)
25세~29세	(256)	0.8	0.4	3.1	8.6	10.9	17.3	25.2	19.9	5.8	8.1	100.0	(6.72)
30세~34세	(282)	1.1	0.7	3.6	8.9	13.2	20.6	23.8	17.5	8.2	2.5	100.0	(6.43)
35세~39세	(255)	3.5	2.4	7.1	12.6	13.4	18.6	17.4	17.4	5.5	2.0	100.0	(5.9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9	0.0	6.3	13.4	10.1	17.9	22.5	18.7	4.9	4.1	100.0	(6.26)
성남시 중원구	(232)	2.2	2.2	5.2	10.4	15.2	18.6	21.9	15.6	7.4	1.3	100.0	(6.09)
성남시 분당구	(508)	1.4	1.2	3.2	6.9	10.0	17.8	24.7	19.1	10.6	5.1	100.0	(6.70)
학력													
고졸 이하	(146)	2.8	0.0	6.9	15.1	17.9	19.1	17.8	12.9	3.4	4.1	100.0	(5.8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5	1.0	3.7	8.4	6.8	12.0	29.2	20.9	13.7	3.7	100.0	(6.86)
대학 졸업 이상	(672)	1.8	1.3	4.2	8.5	11.0	19.5	23.1	18.6	7.9	4.0	100.0	(6.4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8	1.0	4.5	10.2	10.2	16.3	24.2	18.9	8.3	4.5	100.0	(6.4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0	1.5	3.6	5.7	11.9	24.9	21.7	17.6	9.3	2.6	100.0	(6.50)
별거·이혼·사별	(32)	3.1	0.0	9.4	12.5	31.4	18.8	15.7	6.0	3.0	0.0	100.0	(5.37)

### ③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 6점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는 7점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6점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25~29세는 7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24세는 6점이 20.9%, 30~34세는 6점이 21.0%, 35~39세는 6점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7점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 중원구는 6점이 21.7%, 성남시 분당구는 6점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가 7점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가 6점이 19.2%, 대학 졸업 이상은 6점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6점과 7점이 19.5%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배우자 있음은 6점이 21.8%, 별거·이혼·사별은 5점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사회 인식\_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표 2-4〉 사회 인식\_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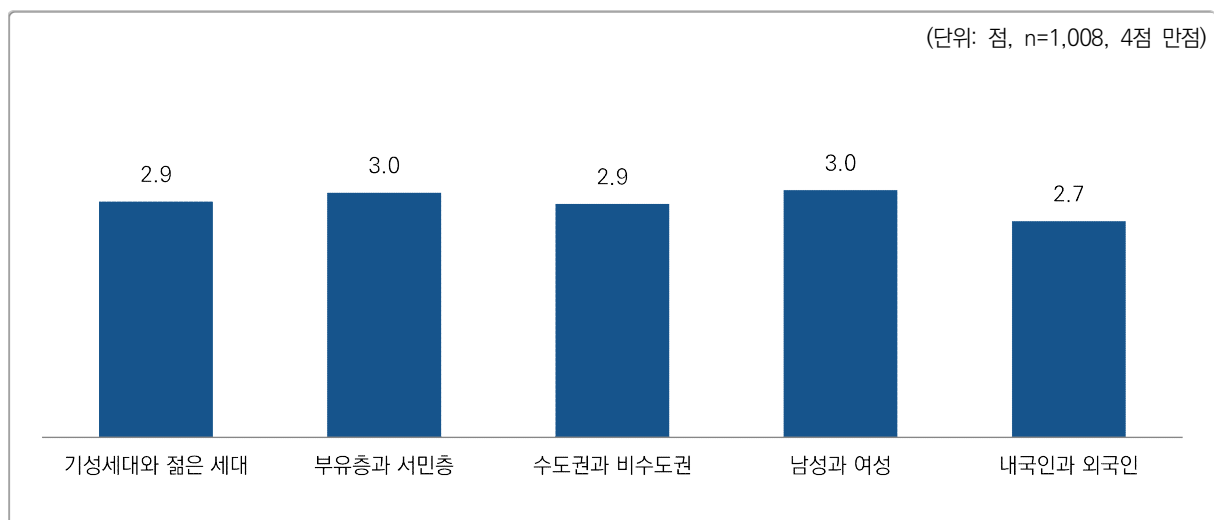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 전혀 신뢰 할 수 없다	2	3	4	5	6	7	8	9	10 매우 신뢰 할 수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3	3.5	9.1	12.3	14.5	19.7	18.2	13.2	4.6	1.5	100.0	(5.67)
성별	남성	(517)	2.9	3.5	6.4	8.4	14.9	19.0	21.7	16.8	5.0	1.4	100.0	(5.96)
	여성	(491)	3.7	3.5	12.1	16.4	14.1	20.5	14.5	9.4	4.1	1.6	100.0	(5.37)
연령	19세~24세	(214)	1.9	2.3	4.7	10.7	9.3	20.9	19.0	22.3	7.0	1.9	100.0	(6.29)
	25세~29세	(256)	2.3	1.2	12.1	10.8	14.2	16.6	22.8	13.4	3.8	2.7	100.0	(5.84)
	30세~34세	(282)	3.9	4.3	9.6	13.9	14.2	21.0	16.0	11.0	5.4	0.7	100.0	(5.49)
	35세~39세	(255)	4.7	5.9	9.5	13.4	19.4	20.6	15.4	7.9	2.4	0.8	100.0	(5.1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2	4.9	9.0	13.5	12.8	18.7	22.1	11.6	4.1	1.1	100.0	(5.65)
	성남시 중원구	(232)	5.2	3.1	12.2	10.8	14.3	21.7	16.7	11.6	3.5	0.9	100.0	(5.43)
	성남시 분당구	(508)	3.0	3.0	7.8	12.4	15.5	19.4	16.8	14.9	5.3	2.0	100.0	(5.80)
학력	고졸 이하	(146)	2.8	4.8	12.4	17.8	12.3	19.2	17.0	11.6	1.4	0.7	100.0	(5.2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1	2.1	5.3	6.8	11.0	19.4	19.7	23.6	7.9	2.1	100.0	(6.39)
	대학 졸업 이상	(672)	3.7	3.6	9.5	12.7	16.0	20.0	18.0	10.7	4.3	1.5	100.0	(5.5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6	3.6	8.6	12.0	13.5	19.5	19.5	13.7	4.3	1.5	100.0	(5.7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	3.6	11.4	13.0	15.6	21.8	14.0	10.4	6.2	1.5	100.0	(5.56)
	별거·이혼·사별	(32)	0.0	0.0	9.5	15.4	31.4	12.5	12.6	18.6	0.0	0.0	100.0	(5.59)

## (2) 갈등 인식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이 어느 정도라도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모두 3.0점으로 나타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2.9점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의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갈등 인식은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인식이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는 남성과 여성이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3.1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세~39세는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9점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 분당구는 남성과 여성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부유층과 서민층이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8점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3.1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이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부유층과 서민층이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갈등 인식



〈표 2-5〉 갈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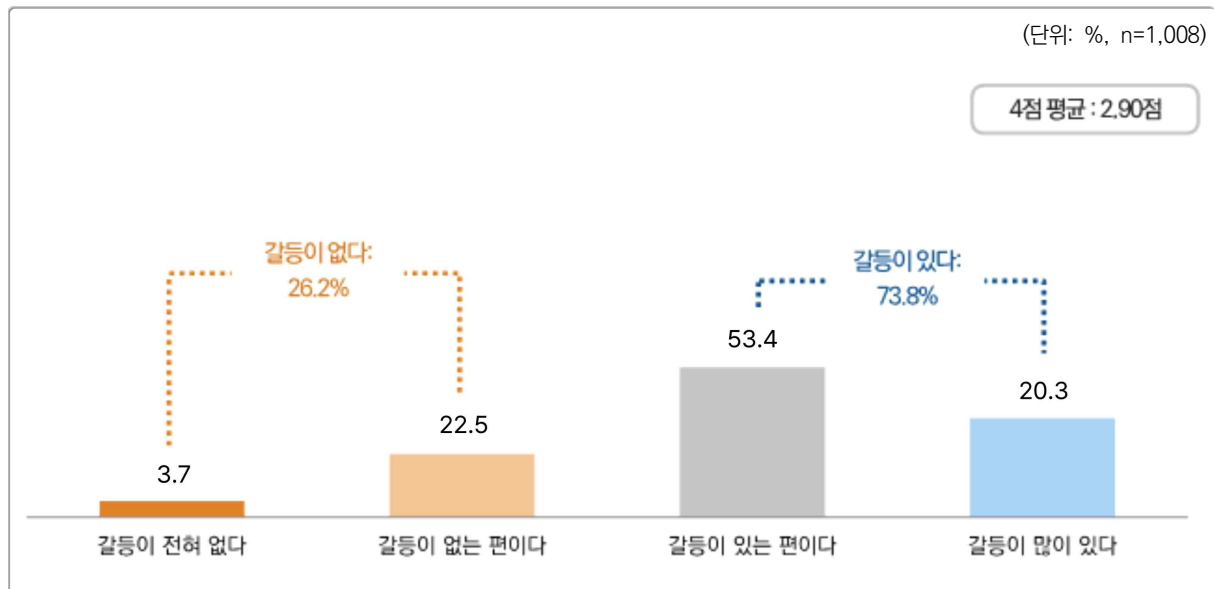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1,008)	2.9	3.0	2.9	3.0	2.7
성별	남성	(517)	2.8	2.9	2.7	2.9	2.6
	여성	(491)	3.0	3.1	3.0	3.2	2.7
연령	19세-24세	(214)	2.8	2.9	2.8	2.9	2.7
	25세-29세	(256)	2.8	2.9	2.8	3.0	2.6
	30세-34세	(282)	3.0	3.1	2.8	3.1	2.7
	35세-39세	(255)	3.0	3.2	3.1	3.2	2.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9	2.9	2.9	2.9	2.5
	성남시 중원구	(232)	2.9	3.1	2.9	3.1	2.7
	성남시 분당구	(508)	2.9	3.0	2.9	3.1	2.7
학력	고졸 이하	(146)	2.9	3.0	2.8	2.9	2.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8	2.8	2.8	2.8	2.7
	대학 졸업 이상	(672)	3.0	3.1	2.9	3.1	2.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9	3.0	2.9	3.0	2.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0	3.2	3.0	3.1	2.7
	별거·이혼·사별	(32)	2.4	2.5	2.4	2.5	2.8

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이 있는 편이다'가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2.5%, '갈등이 많이 있다'가 20.3%, '갈등이 전혀 없다'가 3.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26.2%, '갈등이 있다'는 73.8%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7%, 여성은 80.9%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68.7%, 25세~29세는 69.7%, 30세~34세는 77.2%, 35세~39세는 78.2%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2.6%, 성남시 중원구는 74.5%, 성남시 분당구는 74.1%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9.0%, 대학 졸업 이상은 76.5%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3.6%, 배우자 있음은 79.8%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9.7%로 '갈등이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갈등 인식\_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표 2-6〉 갈등 인식\_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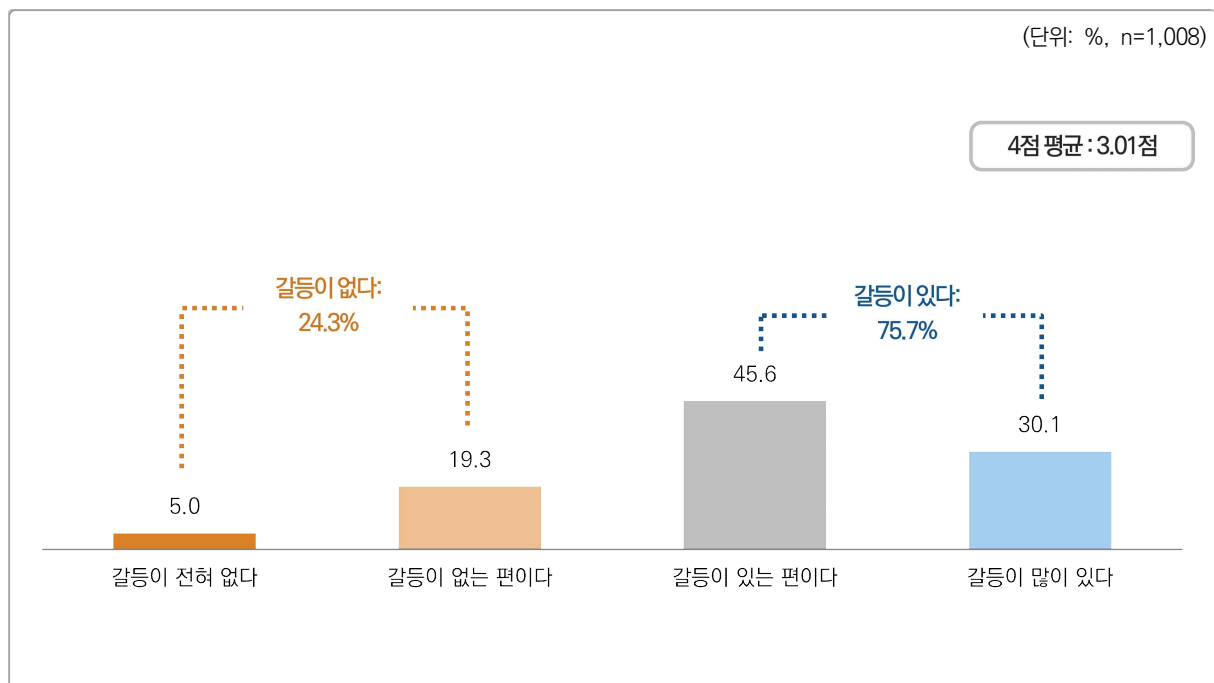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많이 있다	☉ 갈등이 없다	☉ 갈등이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7	22.5	53.4	20.3	26.2	73.8	100.0	(2.90)
성별	남성	(517)	4.8	28.1	48.4	18.7	33.0	67.0	100.0	(2.81)
	여성	(491)	2.5	16.6	58.8	22.1	19.1	80.9	100.0	(3.01)
연령	19세-24세	(214)	3.3	28.0	55.2	13.5	31.3	68.7	100.0	(2.79)
	25세-29세	(256)	5.5	24.8	51.7	18.0	30.3	69.7	100.0	(2.82)
	30세-34세	(282)	3.9	18.8	53.4	23.8	22.8	77.2	100.0	(2.97)
	35세-39세	(255)	2.0	19.8	53.7	24.5	21.8	78.2	100.0	(3.0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9	22.5	53.9	18.7	27.4	72.6	100.0	(2.86)
	성남시 중원구	(232)	3.9	21.6	54.0	20.5	25.5	74.5	100.0	(2.91)
	성남시 분당구	(508)	2.9	23.0	53.0	21.1	25.9	74.1	100.0	(2.92)
학력	고졸 이하	(146)	5.5	26.8	43.1	24.6	32.3	67.7	100.0	(2.8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4.2	26.8	55.4	13.6	31.0	69.0	100.0	(2.78)
	대학 졸업 이상	(672)	3.1	20.4	55.1	21.3	23.5	76.5	100.0	(2.9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5	22.9	54.6	19.0	26.4	73.6	100.0	(2.8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16.6	52.9	26.9	20.2	79.8	100.0	(3.03)
	별거·이혼·사별	(32)	9.5	50.2	27.9	12.4	59.7	40.3	100.0	(2.43)

〈주〉 4점 평균 산출시 해당 문항 긍정/부정 역코딩하였음

② 부유층과 서민층

-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이 있는 편이다'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가 30.1%,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19.3%, '갈등이 전혀 없다'가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24.3%, '갈등이 있다'는 75.7%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0.1%, 여성은 81.5%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67.3%, 25세~29세는 70.1%, 30세~34세는 79.4%, 35세~39세는 84.2%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0.0%, 성남시 중원구는 78.9%, 성남시 분당구는 77.3%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9.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5.8%, 대학 졸업 이상은 79.9%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4.7%, 배우자 있음은 84.5%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7.0%로 '갈등이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갈등 인식\_부유층과 서민층



〈표 2-7〉 갈등 인식\_부유층과 서민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많이 있다	☉ 갈등이 없다	☉ 갈등이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5.0	19.3	45.6	30.1	24.3	75.7	100.0	(3.01)
성별	남성	(517)	6.2	23.7	45.0	25.2	29.9	70.1	100.0	(2.89)
	여성	(491)	3.7	14.8	46.3	35.3	18.5	81.5	100.0	(3.13)
연령	19세-24세	(214)	8.0	24.7	41.8	25.5	32.7	67.3	100.0	(2.85)
	25세-29세	(256)	3.9	26.0	45.0	25.1	29.9	70.1	100.0	(2.91)
	30세-34세	(282)	5.3	15.3	47.0	32.4	20.6	79.4	100.0	(3.06)
	35세-39세	(255)	3.2	12.6	47.8	36.4	15.8	84.2	100.0	(3.1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4	23.6	41.9	28.1	30.0	70.0	100.0	(2.92)
	성남시 중원구	(232)	4.3	16.8	44.7	34.2	21.1	78.9	100.0	(3.09)
	성남시 분당구	(508)	4.5	18.2	48.0	29.3	22.7	77.3	100.0	(3.02)
학력	고졸 이하	(146)	2.8	28.0	38.3	31.0	30.8	69.2	100.0	(2.9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9.0	25.2	40.3	25.5	34.2	65.8	100.0	(2.82)
	대학 졸업 이상	(672)	4.3	15.8	48.7	31.2	20.1	79.9	100.0	(3.07)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5	19.8	44.5	30.2	25.3	74.7	100.0	(2.9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	12.4	51.3	33.2	15.5	84.5	100.0	(3.15)
	별거·이혼·사별	(32)	3.2	49.8	37.7	9.3	53.0	47.0	100.0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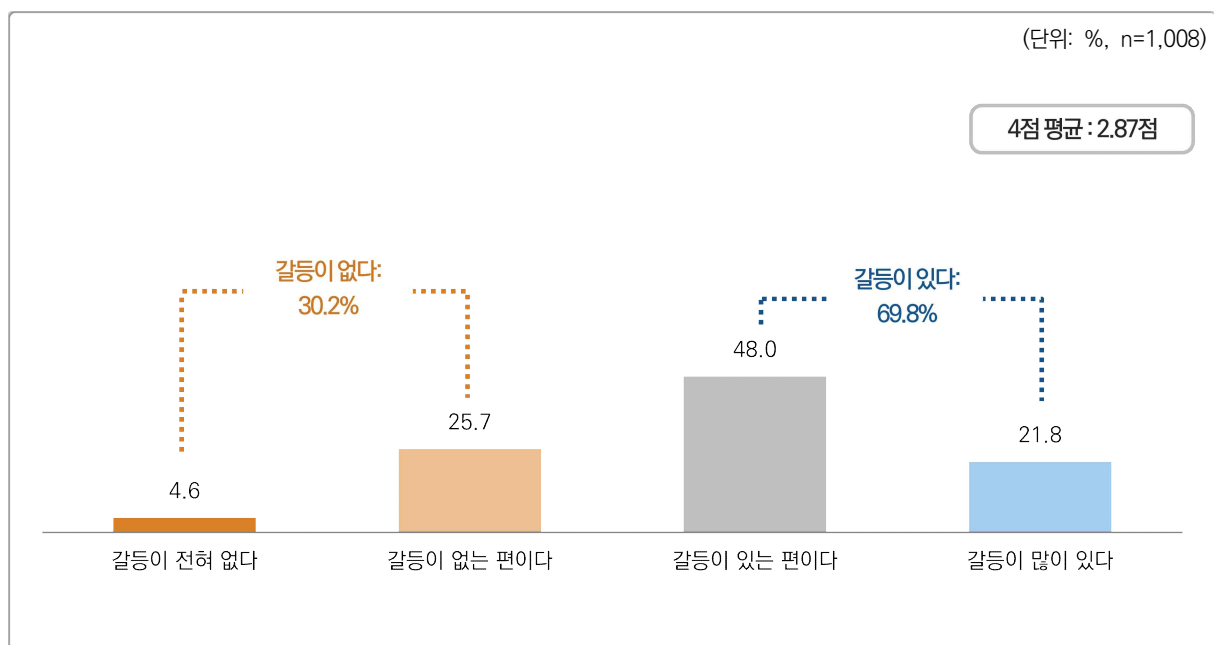
〈주〉 4점 평균 산출시 해당 문항 긍정/부정 역코딩하였음

###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이 있는 편이다'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5.7%, '갈등이 많이 있다'가 21.8%, '갈등이 전혀 없다'가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30.2%, '갈등이 있다'는 69.8%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3.6%, 여성은 76.2%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62.2%, 25세~29세는 65.9%, 30세~34세는 70.9%, 35세~39세는 78.7%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7%, 성남시 중원구는 73.2%, 성남시 분당구는 69.3%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5.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2.6%, 대학 졸업 이상은 72.6%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68.4%, 배우자 있음은 79.3%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6.4%로 '갈등이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갈등 인식\_수도권과 비수도권



〈표 2-8〉 갈등 인식\_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많이 있다	☉ 갈등이 없다	☉ 갈등이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6	25.7	48.0	21.8	30.2	69.8	100.0	(2.87)
성별	남성	(517)	6.6	29.8	47.9	15.7	36.4	63.6	100.0	(2.73)
	여성	(491)	2.4	21.3	48.1	28.1	23.8	76.2	100.0	(3.02)
연령	19세-24세	(214)	2.8	35.0	40.8	21.5	37.8	62.2	100.0	(2.81)
	25세-29세	(256)	7.0	27.1	45.4	20.5	34.1	65.9	100.0	(2.79)
	30세-34세	(282)	6.8	22.4	52.7	18.2	29.1	70.9	100.0	(2.82)
	35세-39세	(255)	1.2	20.1	51.4	27.2	21.3	78.7	100.0	(3.05)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0	26.2	44.6	23.2	32.3	67.7	100.0	(2.85)
	성남시 중원구	(232)	4.3	22.5	52.3	20.8	26.8	73.2	100.0	(2.90)
	성남시 분당구	(508)	3.9	26.8	47.8	21.4	30.7	69.3	100.0	(2.87)
학력	고졸 이하	(146)	6.2	28.0	46.5	19.3	34.2	65.8	100.0	(2.7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	34.2	42.7	19.9	37.4	62.6	100.0	(2.79)
	대학 졸업 이상	(672)	4.6	22.7	49.8	22.8	27.4	72.6	100.0	(2.9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6	26.9	46.2	22.3	31.6	68.4	100.0	(2.8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17.1	57.1	22.2	20.7	79.3	100.0	(2.98)
	별거·이혼·사별	(32)	9.3	47.0	37.4	6.2	56.4	43.6	100.0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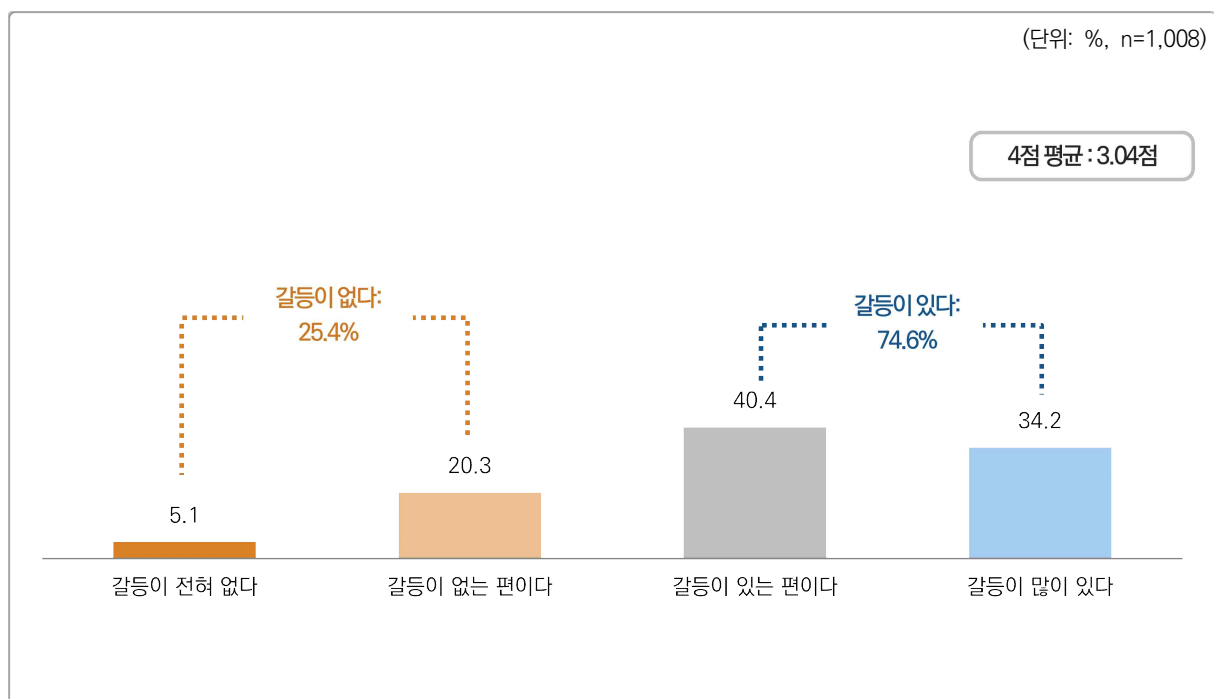
〈주〉 4점 평균 산출시 해당 문항 긍정/부정 역코딩하였음

④ 남성과 여성

■ 남성과 여성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이 있는 편이다'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가 34.2%,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0.3%, '갈등이 전혀 없다'가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25.4%, '갈등이 있다'는 74.6%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8.9%, 여성은 80.5%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68.2%, 25세~29세는 68.1%, 30세~34세는 77.2%, 35세~39세는 83.4%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9.2%, 성남시 중원구는 77.5%, 성남시 분당구는 76.1%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9.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4.7%, 대학 졸업 이상은 78.6%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4.4%, 배우자 있음은 80.4%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6.0%로 '갈등이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갈등 인식\_남성과 여성



〈표 2-9〉 갈등 인식\_남성과 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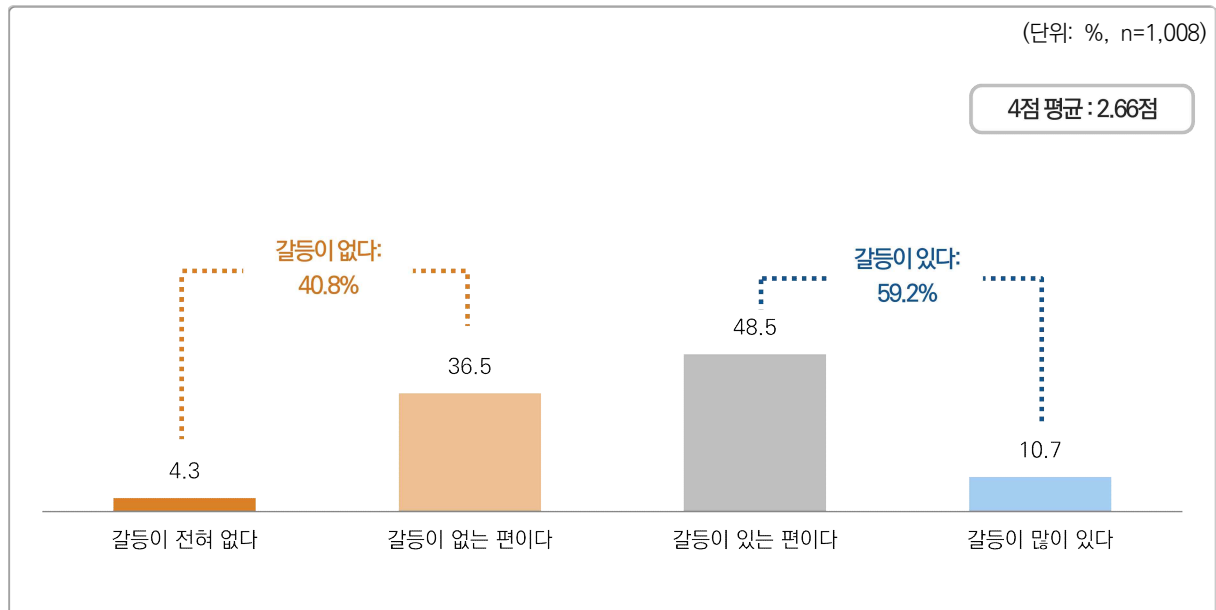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많이 있다	☉ 갈등이 없다	☉ 갈등이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5.1	20.3	40.4	34.2	25.4	74.6	100.0	(3.04)
성별	남성	(517)	6.4	24.7	42.4	26.5	31.1	68.9	100.0	(2.89)
	여성	(491)	3.7	15.8	38.3	42.2	19.5	80.5	100.0	(3.19)
연령	19세-24세	(214)	6.6	25.2	42.5	25.7	31.8	68.2	100.0	(2.87)
	25세-29세	(256)	4.7	27.1	33.2	35.0	31.9	68.1	100.0	(2.98)
	30세-34세	(282)	5.0	17.8	43.0	34.2	22.8	77.2	100.0	(3.06)
	35세-39세	(255)	4.3	12.2	43.1	40.4	16.6	83.4	100.0	(3.1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9	22.9	41.5	27.8	30.8	69.2	100.0	(2.89)
	성남시 중원구	(232)	3.9	18.6	38.8	38.7	22.5	77.5	100.0	(3.12)
	성남시 분당구	(508)	4.1	19.8	40.6	35.5	23.9	76.1	100.0	(3.07)
학력	고졸 이하	(146)	4.2	26.7	41.7	27.4	30.9	69.1	100.0	(2.9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4	26.8	39.0	25.7	35.3	64.7	100.0	(2.82)
	대학 졸업 이상	(672)	4.3	17.1	40.5	38.0	21.4	78.6	100.0	(3.1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3	20.3	40.0	34.4	25.6	74.4	100.0	(3.0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1	15.5	44.1	36.3	19.6	80.4	100.0	(3.13)
	별거·이혼·사별	(32)	6.2	49.8	28.4	15.6	56.0	44.0	100.0	(2.53)

〈주〉 4점 평균 산출시 해당 문항 긍정/부정 역코딩하였음

⑤ 내국인과 외국인

-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이 있는 편이다'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36.5%, '갈등이 많이 있다'가 10.7%, '갈등이 전혀 없다'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40.8%, '갈등이 있다'는 59.2%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6.8%, 여성은 61.9%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57.5%, 25세~29세는 55.7%, 30세~34세는 61.2%, 35세~39세는 62.1%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2.4%, 성남시 중원구는 63.9%, 성남시 분당구는 60.7%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3.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6.3%, 대학 졸업 이상은 59.1%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8.4%, 배우자 있음은 62.2%, 별거·이혼·사별은 62.5%로 '갈등이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 갈등 인식\_내국인과 외국인





〈표 2-10〉 갈등 인식\_내국인과 외국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많이 있다	☉ 갈등이 없다	☉ 갈등이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3	36.5	48.5	10.7	40.8	59.2	100.0	(2.66)
성별	남성	(517)	6.0	37.2	48.5	8.2	43.2	56.8	100.0	(2.59)
	여성	(491)	2.5	35.7	48.5	13.3	38.1	61.9	100.0	(2.73)
연령	19세-24세	(214)	3.3	39.2	45.4	12.1	42.5	57.5	100.0	(2.66)
	25세-29세	(256)	5.5	38.8	46.5	9.2	44.3	55.7	100.0	(2.59)
	30세-34세	(282)	3.9	34.9	51.6	9.6	38.8	61.2	100.0	(2.67)
	35세-39세	(255)	4.3	33.6	49.8	12.3	37.9	62.1	100.0	(2.7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5	40.1	44.1	8.2	47.6	52.4	100.0	(2.53)
	성남시 중원구	(232)	3.9	32.1	51.4	12.5	36.1	63.9	100.0	(2.73)
	성남시 분당구	(508)	2.8	36.5	49.5	11.2	39.3	60.7	100.0	(2.69)
학력	고졸 이하	(146)	4.1	32.3	50.5	13.0	36.4	63.6	100.0	(2.7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2	40.5	43.3	13.0	43.7	56.3	100.0	(2.66)
	대학 졸업 이상	(672)	4.6	36.2	49.6	9.6	40.9	59.1	100.0	(2.6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6	37.0	48.4	10.0	41.6	58.4	100.0	(2.6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	35.2	49.8	12.4	37.8	62.2	100.0	(2.72)
	별거·이혼·사별	(32)	6.3	31.2	43.9	18.6	37.5	62.5	100.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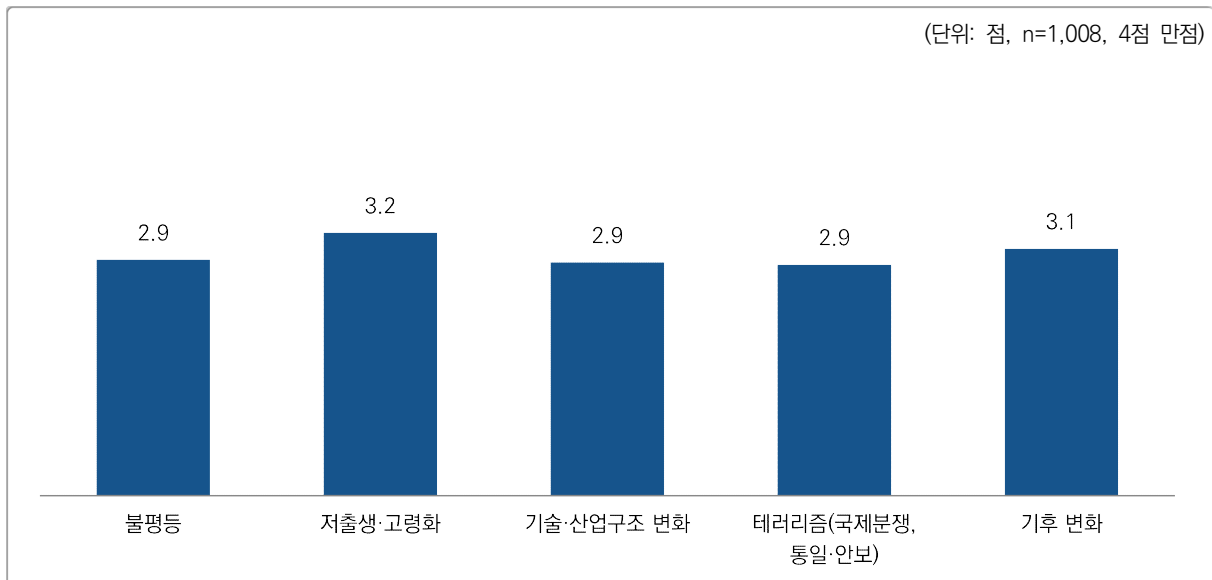
〈주〉 4점 평균 산출시 해당 문항 긍정/부정 역코딩하였음

### (3) 미래영향요소

■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술·산업구조 변화, 테러리즘 그리고 기후 변화의 상황들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출생·고령화’가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가 3.1점으로 나타났고, ‘불평등’, ‘기술·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테러리즘’은 모두 2.9점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2점, 여성은 3.3점으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3.1점, 25~29세는 3.2점, 30세~34세는 3.3점, 35세~39세도 3.3점으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1점, 성남시 중원구도 3.1점, 성남시 분당구는 3.4점으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1점,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2점, 대학 졸업 이상은 3.3점으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2점, 배우자 있음은 3.5점으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2.5점으로 ‘저출생·고령화’와 ‘기술·산업구조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 미래영향요소



〈표 2-11〉 미래영향요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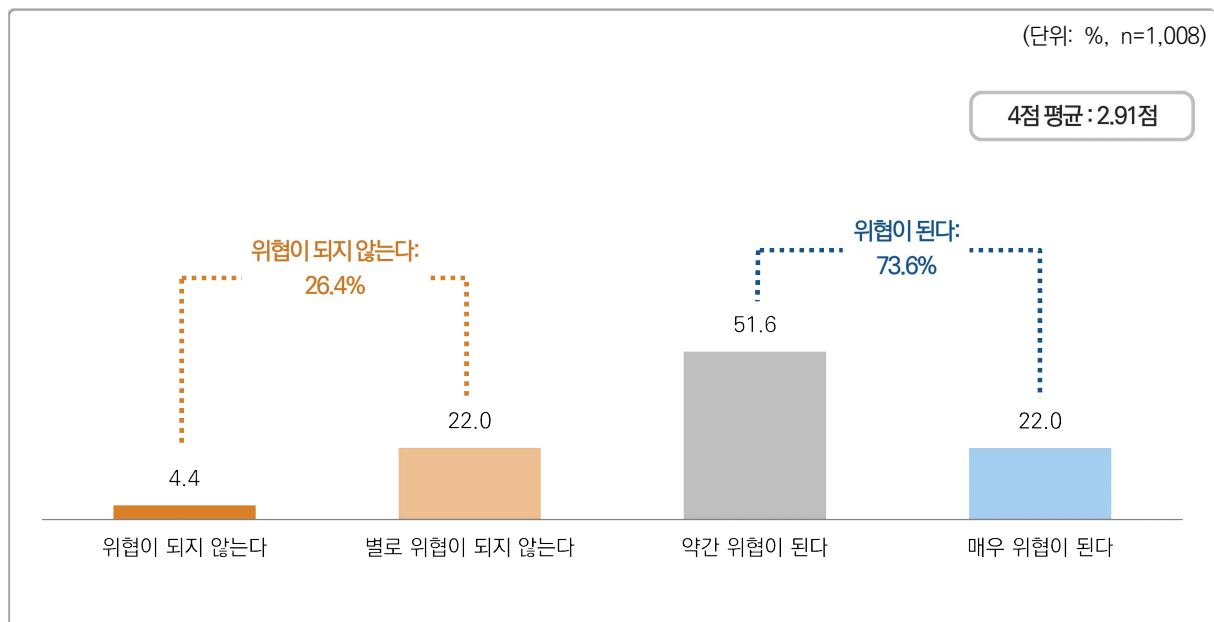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기술· 산업구조 변화	테러리즘 (국제분쟁, 통일·안보)	기후 변화
전체		(1,008)	2.9	3.2	2.9	2.9	3.1
성별	남성	(517)	2.8	3.2	2.9	2.8	2.9
	여성	(491)	3.0	3.3	2.9	2.9	3.2
연령	19세-24세	(214)	2.8	3.1	2.8	2.8	2.9
	25세-29세	(256)	2.9	3.2	2.9	2.9	3.1
	30세-34세	(282)	3.0	3.3	2.9	2.8	3.1
	35세-39세	(255)	3.0	3.3	3.0	2.9	3.2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9	3.1	2.8	2.8	3.0
	성남시 중원구	(232)	2.9	3.1	2.9	2.9	3.1
	성남시 분당구	(508)	3.0	3.4	2.9	2.9	3.1
학력	고졸 이하	(146)	2.9	3.1	2.8	2.8	2.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7	3.2	2.8	2.8	2.9
	대학 졸업 이상	(672)	3.0	3.3	2.9	2.9	3.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9	3.2	2.9	2.9	3.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0	3.5	2.9	2.9	3.1
	별거·이혼·사별	(32)	2.4	2.5	2.5	2.3	2.4

① 불평등

■ 불평등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위협이 된다'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우 위협이 된다'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동일하게 22%,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26.4%, '위협이 된다'는 73.6%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1.7%, 여성은 75.6%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67.4%, 25세~29세는 69.4%, 30세~34세는 77.2%, 35세~39세는 79.1%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8%, 성남시 중원구는 73.1%, 성남시 분당구는 76.9%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의 70.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6.4%, 대학 졸업 이상은 76.3%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2.9%, 배우자 있음은 81.9%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9.3%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 미래영향요소\_불평등



〈표 2-12〉 미래영향요소\_불평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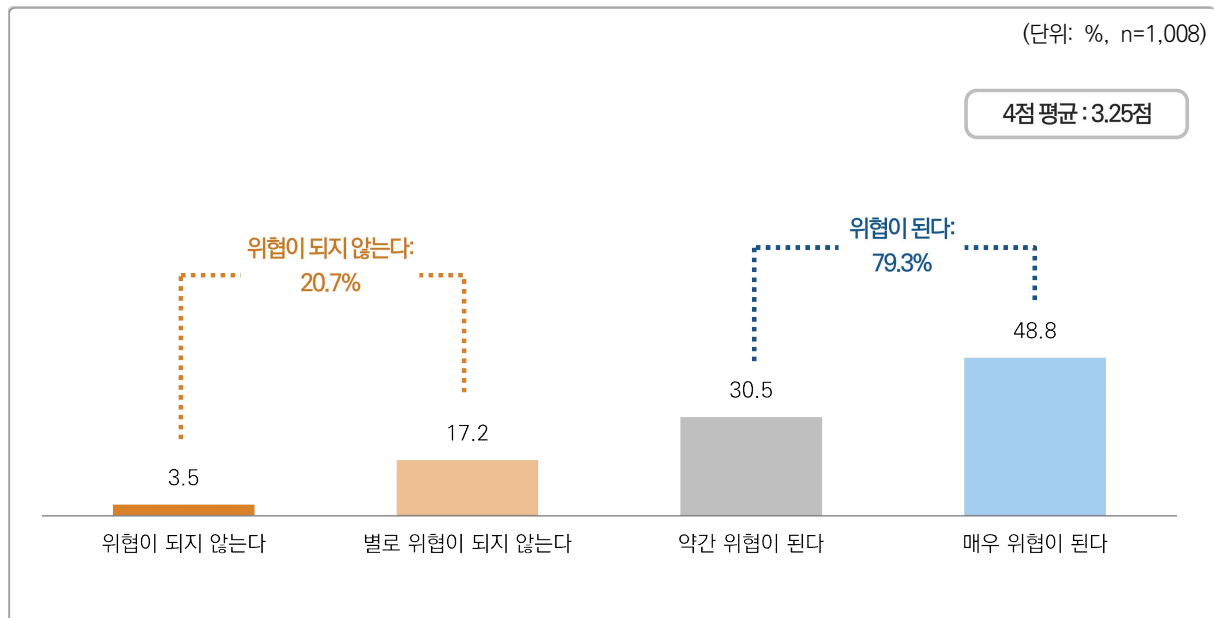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협이 된다	매우 위협이 된다	☉ 위협이 되지 않는다	☉ 위협이 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4	22.0	51.6	22.0	26.4	73.6	100.0	(2.91)
성별	남성	(517)	4.2	24.1	54.9	16.8	28.3	71.7	100.0	(2.84)
	여성	(491)	4.5	19.9	48.2	27.4	24.4	75.6	100.0	(2.99)
연령	19세-24세	(214)	10.3	22.3	49.2	18.2	32.6	67.4	100.0	(2.75)
	25세-29세	(256)	2.7	28.0	47.8	21.6	30.6	69.4	100.0	(2.88)
	30세-34세	(282)	2.1	20.7	55.8	21.4	22.8	77.2	100.0	(2.96)
	35세-39세	(255)	3.6	17.4	53.0	26.1	20.9	79.1	100.0	(3.02)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0	29.2	46.4	21.3	32.2	67.8	100.0	(2.86)
	성남시 중원구	(232)	3.9	22.9	54.0	19.2	26.9	73.1	100.0	(2.88)
	성남시 분당구	(508)	5.3	17.8	53.3	23.6	23.1	76.9	100.0	(2.95)
학력	고졸 이하	(146)	4.1	25.4	50.6	19.9	29.5	70.5	100.0	(2.8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9.5	24.2	50.7	15.7	33.6	66.4	100.0	(2.73)
	대학 졸업 이상	(672)	3.0	20.7	52.1	24.2	23.7	76.3	100.0	(2.9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0	22.1	50.1	22.8	27.1	72.9	100.0	(2.9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6	16.6	60.6	21.3	18.1	81.9	100.0	(3.02)
	별거·이혼·사별	(32)	6.2	53.1	34.5	6.3	59.3	40.7	100.0	(2.41)

## ② 저출생·고령화

❑ 저출생·고령화가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위협이 된다’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위협이 된다’가 30.5%,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17.2%,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20.7%, ‘위협이 된다는’ 79.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7.6%, 여성은 81.1%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5.3%, 25세~29세는 79.4%, 30세~34세는 82.6%, 35세~39세는 79.0%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2.6%, 성남시 중원구는 74.9%, 성남시 분당구는 84.8%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1.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7.9%, 대학 졸업 이상은 81.5%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8.3%, 배우자 있음은 88.6%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3.0%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3〉 미래영향요소\_저출생·고령화



〈표 2-13〉 미래영향요소\_저출생·고령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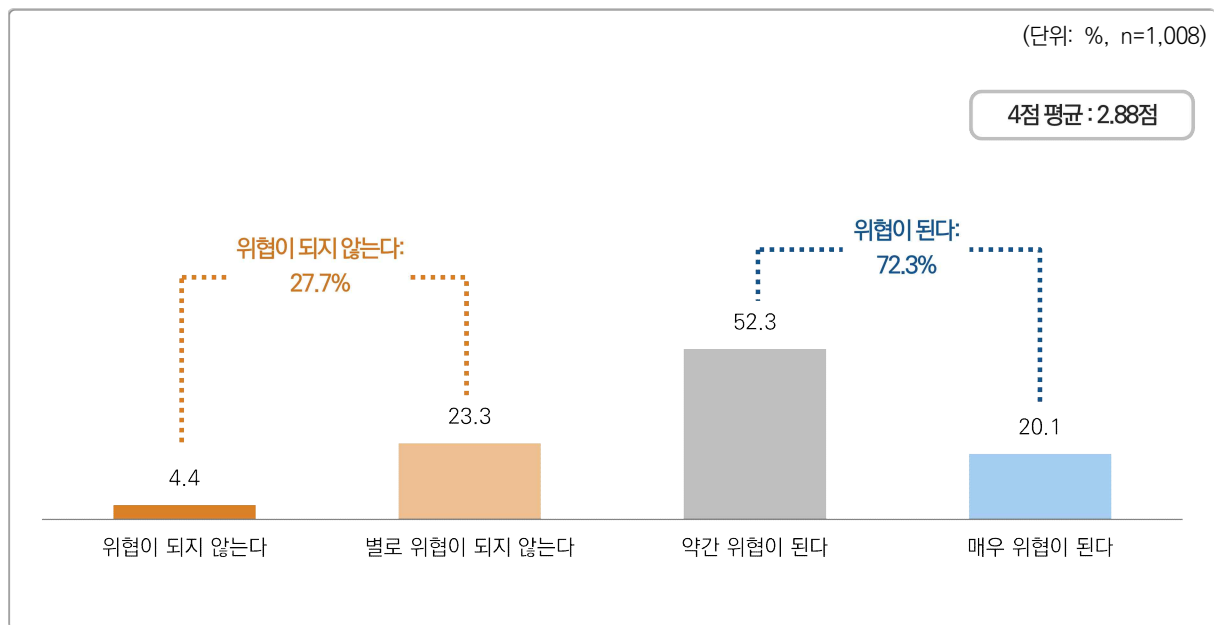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위험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험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험이 된다	매우 위험이 된다	☉ 위험이 되지 않는다	☉ 위험이 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5	17.2	30.5	48.8	20.7	79.3	100.0	(3.25)
성별	남성	(517)	2.7	19.7	29.2	48.5	22.4	77.6	100.0	(3.23)
	여성	(491)	4.3	14.6	32.0	49.2	18.9	81.1	100.0	(3.26)
연령	19세-24세	(214)	7.5	17.2	33.0	42.3	24.7	75.3	100.0	(3.10)
	25세-29세	(256)	2.3	18.3	34.8	44.6	20.6	79.4	100.0	(3.22)
	30세-34세	(282)	1.8	15.6	33.8	48.7	17.4	82.6	100.0	(3.29)
	35세-39세	(255)	3.2	17.8	20.6	58.5	21.0	79.0	100.0	(3.3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	24.0	31.1	41.6	27.4	72.6	100.0	(3.11)
	성남시 중원구	(232)	3.5	21.6	32.0	42.9	25.1	74.9	100.0	(3.14)
	성남시 분당구	(508)	3.5	11.6	29.5	55.3	15.2	84.8	100.0	(3.37)
학력	고졸 이하	(146)	3.4	25.4	33.5	37.7	28.8	71.2	100.0	(3.0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9	15.2	32.5	45.4	22.1	77.9	100.0	(3.16)
	대학 졸업 이상	(672)	2.5	16.0	29.3	52.2	18.5	81.5	100.0	(3.3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7	18.0	32.2	46.2	21.7	78.3	100.0	(3.2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6	9.8	22.8	65.9	11.4	88.6	100.0	(3.53)
	별거·이혼·사별	(32)	9.3	43.7	37.6	9.4	53.0	47.0	100.0	(2.47)

### ③ 기술·산업구조 변화

■ 기술·산업구조가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위협이 된다’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23.3%, ‘매우 위협이 된다’가 20.1%,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27.7%, 위협이 된다는 72.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1.9%, 여성은 72.7%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67.3%, 25세~29세는 68.6%, 30세~34세는 73.0%, 35세~39세는 79.5%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위협이 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8%, 성남시 중원구는 70.1%, 성남시 분당구는 75.7%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4.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8.0%, 대학 졸업 이상은 75.3%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위협이 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2.4%, 배우자 있음은 75.7%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0.0%로 ‘위협이 된다’와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2-14〉 미래영향요소\_기술·산업구조 변화





〈표 2-14〉 미래영향요소\_기술·산업구조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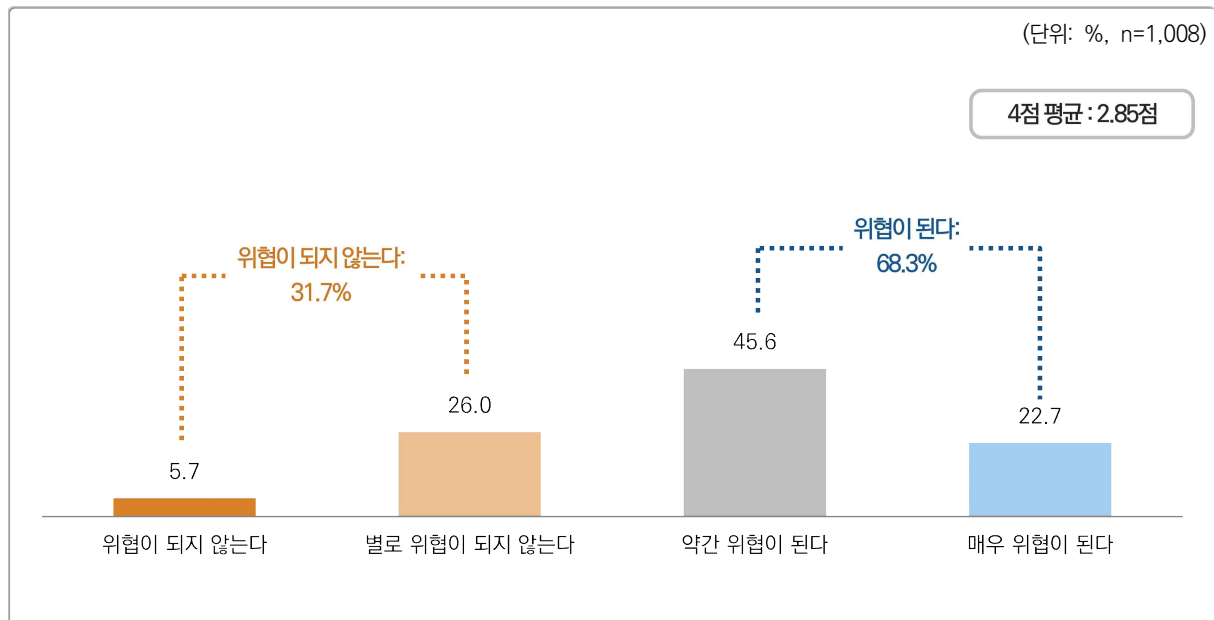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협이 된다	매우 위협이 된다	☉ 위협이 되지 않는다	☉ 위협이 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4	23.3	52.3	20.1	27.7	72.3	100.0	(2.88)
성별	남성	(517)	5.0	23.1	51.9	20.0	28.1	71.9	100.0	(2.87)
	여성	(491)	3.7	23.6	52.6	20.1	27.3	72.7	100.0	(2.89)
연령	19세-24세	(214)	8.4	24.3	50.6	16.7	32.7	67.3	100.0	(2.76)
	25세-29세	(256)	3.5	27.9	47.8	20.9	31.4	68.6	100.0	(2.86)
	30세-34세	(282)	5.0	22.0	52.0	21.0	27.0	73.0	100.0	(2.89)
	35세-39세	(255)	1.2	19.3	58.5	21.0	20.5	79.5	100.0	(2.9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4	25.8	49.8	18.0	32.2	67.8	100.0	(2.79)
	성남시 중원구	(232)	5.2	24.7	49.7	20.4	29.9	70.1	100.0	(2.85)
	성남시 분당구	(508)	2.9	21.4	54.7	21.0	24.3	75.7	100.0	(2.94)
학력	고졸 이하	(146)	4.1	31.6	46.4	17.9	35.7	64.3	100.0	(2.7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7.9	24.1	48.6	19.3	32.0	68.0	100.0	(2.79)
	대학 졸업 이상	(672)	3.4	21.3	54.5	20.7	24.7	75.3	100.0	(2.93)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6	23.0	51.8	20.6	27.6	72.4	100.0	(2.8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	21.7	55.5	20.2	24.3	75.7	100.0	(2.93)
	별거·이혼·사별	(32)	9.4	40.6	43.8	6.2	50.0	50.0	100.0	(2.47)

#### ④ 테러리즘

■ 테러리즘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위협이 된다'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26%, '매우 위협이 된다'가 22.7%,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31.7%, '위협이 된다'는 68.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7.4%, 여성은 69.2%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63.6%, 25세~29세는 72.9%, 30세~34세는 69.1%, 35세~39세는 66.8%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4.4%, 성남시 중원구는 68.8%, 성남시 분당구는 70.1%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4.8%, 대학 졸업 이상은 69.5%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9.3%, 배우자 있음은 70.5%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68.8%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5〉 미래영향요소\_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표 2-15〉 미래영향요소\_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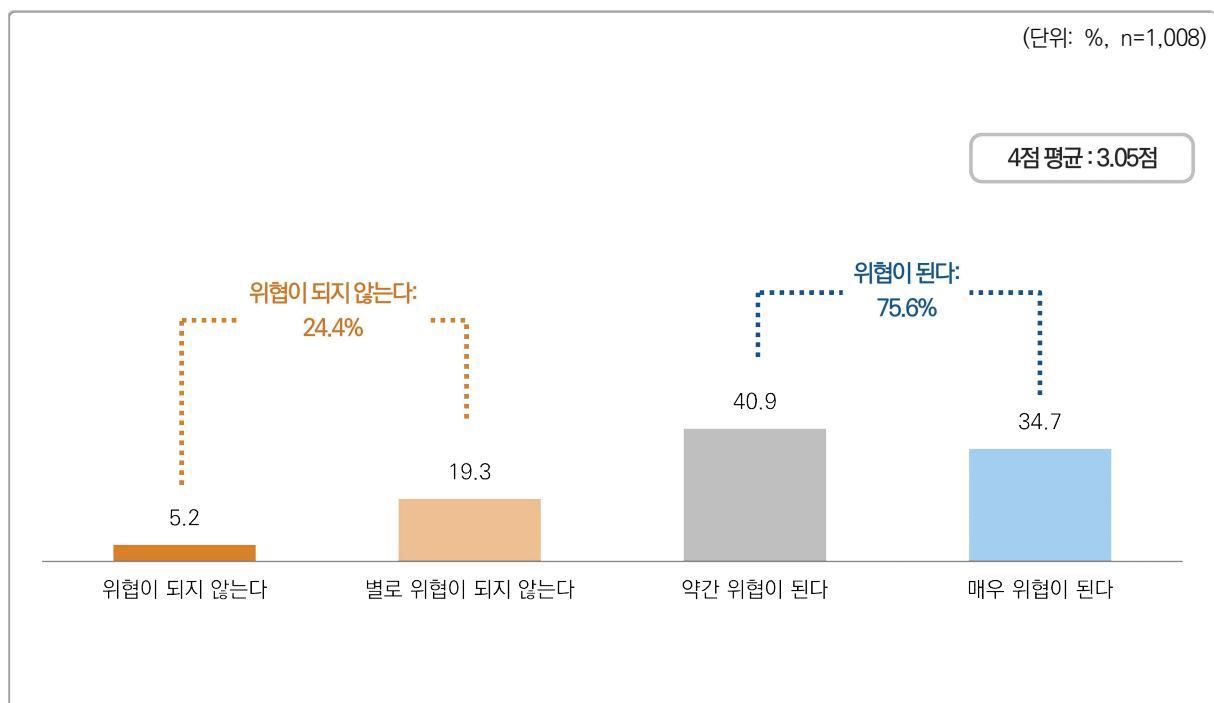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협이 된다	매우 위협이 된다	☉ 위협이 되지 않는다	☉ 위협이 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5.7	26.0	45.6	22.7	31.7	68.3	100.0	(2.85)
성별	남성	(517)	6.0	26.6	47.2	20.2	32.6	67.4	100.0	(2.82)
	여성	(491)	5.3	25.4	43.8	25.4	30.8	69.2	100.0	(2.89)
연령	19세-24세	(214)	8.4	28.0	41.7	21.8	36.4	63.6	100.0	(2.77)
	25세-29세	(256)	5.0	22.1	47.5	25.4	27.1	72.9	100.0	(2.93)
	30세-34세	(282)	5.7	25.3	48.0	21.0	30.9	69.1	100.0	(2.84)
	35세-39세	(255)	4.0	29.2	44.2	22.6	33.2	66.8	100.0	(2.85)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9	27.7	44.2	20.2	35.6	64.4	100.0	(2.77)
	성남시 중원구	(232)	5.6	25.6	45.8	22.9	31.2	68.8	100.0	(2.86)
	성남시 분당구	(508)	4.5	25.4	46.2	23.9	29.9	70.1	100.0	(2.89)
학력	고졸 이하	(146)	6.2	26.8	47.9	19.2	32.9	67.1	100.0	(2.8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0.0	25.2	44.5	20.3	35.2	64.8	100.0	(2.75)
	대학 졸업 이상	(672)	4.3	26.1	45.4	24.1	30.5	69.5	100.0	(2.8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8	25.0	46.3	23.0	30.7	69.3	100.0	(2.8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1	25.4	46.2	24.3	29.5	70.5	100.0	(2.91)
	별거·이혼·사별	(32)	12.3	56.5	24.9	6.2	68.8	31.2	100.0	(2.25)

### ⑤ 기후 변화

■ 기후 변화가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위협이 된다’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우 위협이 된다’가 34.7%,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19.3%,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24.4%, ‘위협이 된다’는 75.6%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0.5%, 여성의 80.9%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69.2%, 25세~29세는 76.4%, 30세~34세는 76.2%, 35세~39세는 79.5%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9.7%, 성남시 중원구는 78.3%, 성남시 분당구는 77.4%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의 65.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9.0%, 대학 졸업 이상은 79.7%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76.5%, 배우자 있음은 76.6%로 ‘위협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3.1%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6〉 미래영향요소\_기후 변화



〈표 2-16〉 미래영향요소\_기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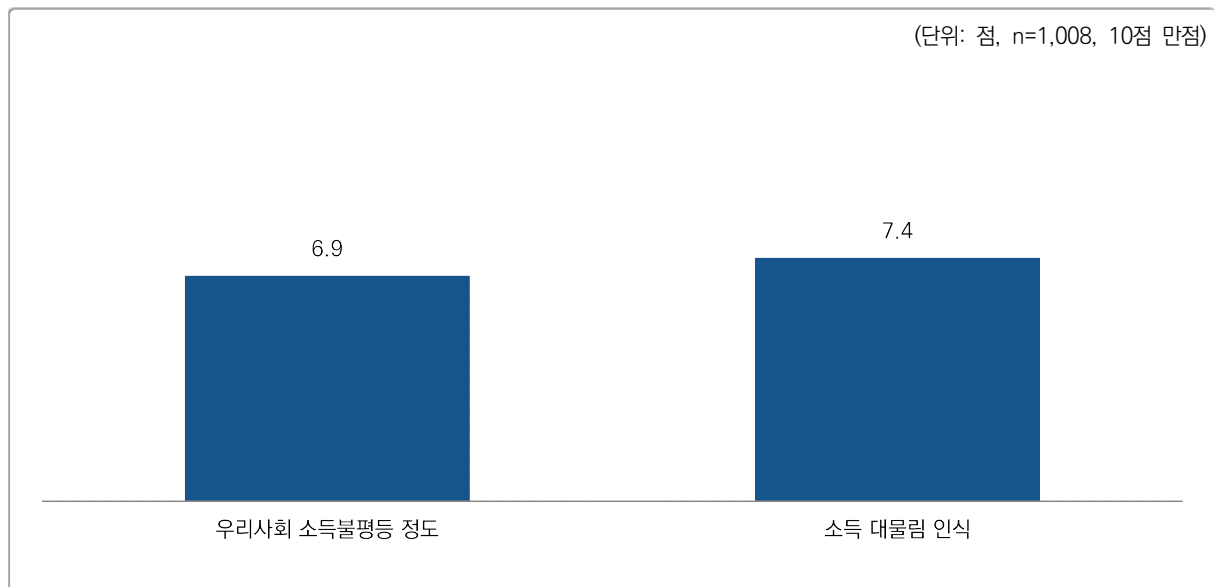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위험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험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험이 된다	매우 위험이 된다	☉ 위험이 되지 않는다	☉ 위험이 된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5.2	19.3	40.9	34.7	24.4	75.6	100.0	(3.05)
성별	남성	(517)	5.0	24.5	46.5	24.0	29.5	70.5	100.0	(2.90)
	여성	(491)	5.4	13.7	35.0	45.9	19.1	80.9	100.0	(3.21)
연령	19세-24세	(214)	10.8	20.0	40.7	28.5	30.8	69.2	100.0	(2.87)
	25세-29세	(256)	4.6	19.1	42.4	33.9	23.6	76.4	100.0	(3.06)
	30세-34세	(282)	3.9	19.9	40.9	35.2	23.8	76.2	100.0	(3.07)
	35세-39세	(255)	2.4	18.2	39.5	40.0	20.5	79.5	100.0	(3.1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0	24.3	37.4	32.3	30.3	69.7	100.0	(2.96)
	성남시 중원구	(232)	6.1	15.6	45.3	33.0	21.7	78.3	100.0	(3.05)
	성남시 분당구	(508)	4.3	18.3	40.7	36.7	22.6	77.4	100.0	(3.10)
학력	고졸 이하	(146)	6.1	28.9	34.1	30.9	35.0	65.0	100.0	(2.9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1.6	19.5	40.6	28.3	31.0	69.0	100.0	(2.86)
	대학 졸업 이상	(672)	3.1	17.1	42.5	37.3	20.3	79.7	100.0	(3.1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2	18.3	41.3	35.2	23.5	76.5	100.0	(3.0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19.7	39.3	37.3	23.4	76.6	100.0	(3.10)
	별거·이혼·사별	(32)	12.3	40.7	40.7	6.2	53.1	46.9	100.0	(2.41)

#### (4) 불평등 인식

-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와 소득 대물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정도는 6.9점, 소득 대물림 인식은 7.4점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8점, 여성은 7.0점으로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가 나타났다. 남성은 7.2점, 여성은 7.7점으로 ‘소득 대물림 인식’이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6.7점, 25~29세는 6.7점, 30세~34세는 6.9점, 35세~39세는 7.2점으로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가 나타났다. 19~24세는 7.3점, 25~29세는 7.3점, 30세~34세는 7.4점, 35세~39세는 7.8점으로 ‘소득 대물림 인식’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6점, 성남시 중원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7.0점으로 동일하게 ‘우리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는 7.1점, 성남시 중원구는 7.4점, 성남시 분당구는 7.7점으로 ‘소득 대물림 인식’이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점,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6점, 대학 졸업 이상은 7.0점으로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가 나타났다. 고졸 이하는 7.0점,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와 대학 졸업 이상은 7.5점으로 동일하게 ‘소득 대물림 인식’이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9점, 배우자 있음은 7.1점, 별거·이혼·사별은 5.2점으로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가 나타났다. 미혼/비혼은 7.4점, 배우자 있음은 7.9점, 별거·이혼·사별은 5.5점으로 ‘소득 대물림 인식’이 나타났다.

〈그림 2-17〉 불평등 인식



〈표 2-17〉 불평등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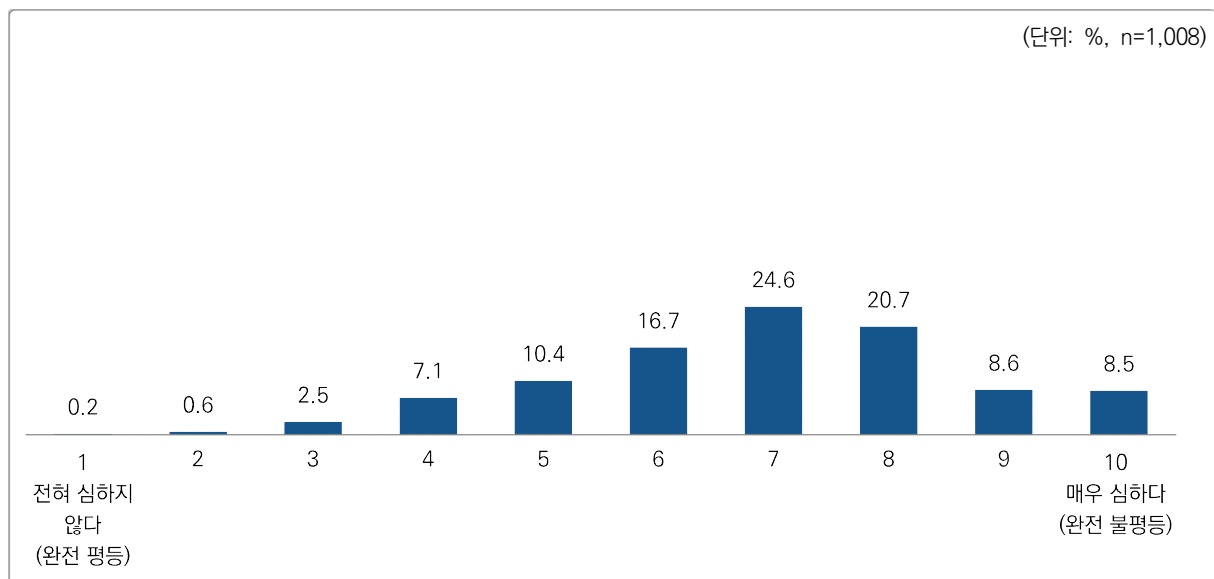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소득 대물림 인식
전체		(1,008)	6.9	7.4
성별	남성	(517)	6.8	7.2
	여성	(491)	7.0	7.7
연령	19세-24세	(214)	6.7	7.3
	25세-29세	(256)	6.7	7.3
	30세-34세	(282)	6.9	7.4
	35세-39세	(255)	7.2	7.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6	7.1
	성남시 중원구	(232)	7.0	7.4
	성남시 분당구	(508)	7.0	7.7
학력	고졸 이하	(146)	6.7	7.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6	7.5
	대학 졸업 이상	(672)	7.0	7.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6.9	7.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1	7.9
	별거·이혼·사별	(32)	5.2	5.5

①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점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8점이 20.7%, 6점이 16.7%, 5점이 10.4%, 9점이 8.6%, 10점(매우 심하다)이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2.8%, 여성은 26.4%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23.3%, 25~29세는 23.1%, 30~34세는 28.4%, 35~39세는 22.9%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수성구는 22.1%, 성남시 중원구는 23.4%, 성남시 분당구는 26.5%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고졸 이하는 24.7%, 대학 졸업 이상은 25.5%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2.5%로 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25.1%, 배우자 있음은 25.4%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21.9%로 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8〉 불평등 인식\_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표 2-18〉 불평등 인식\_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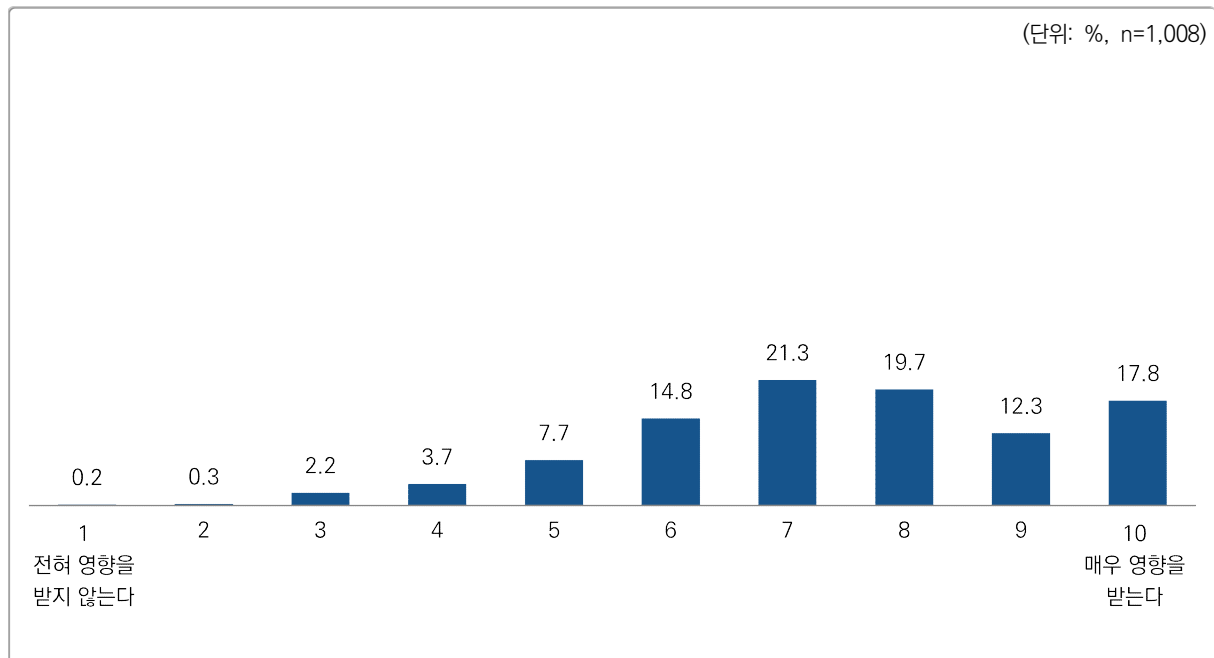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계	평균 (점)
전체		(1,008)	0.2	0.6	2.5	7.1	10.4	16.7	24.6	20.7	8.6	8.5	100.0	(6.90)
성별	남성	(517)	0.2	0.4	2.3	8.3	11.9	18.4	22.8	20.7	8.5	6.4	100.0	(6.77)
	여성	(491)	0.2	0.8	2.7	5.9	8.8	15.0	26.4	20.7	8.8	10.7	100.0	(7.04)
연령	19세~24세	(214)	0.0	1.4	2.8	7.9	13.4	15.3	23.3	20.9	9.4	5.6	100.0	(6.72)
	25세~29세	(256)	0.4	0.4	3.1	10.1	12.4	14.6	23.1	20.0	8.5	7.4	100.0	(6.73)
	30세~34세	(282)	0.4	0.4	2.5	6.0	8.6	18.1	28.4	20.0	7.5	8.2	100.0	(6.92)
	35세~39세	(255)	0.0	0.4	1.6	4.7	7.9	18.6	22.9	22.2	9.5	12.3	100.0	(7.2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0.0	1.1	4.9	11.6	10.8	14.2	22.1	19.8	6.7	8.6	100.0	(6.63)
	성남시 중원구	(232)	0.0	0.4	3.0	6.4	12.0	15.6	23.4	20.8	6.5	11.8	100.0	(6.96)
	성남시 분당구	(508)	0.4	0.4	1.0	5.1	9.4	18.6	26.5	21.2	10.6	6.9	100.0	(7.02)
학력	고졸 이하	(146)	0.0	0.7	3.4	8.2	13.0	19.8	24.7	13.7	6.2	10.4	100.0	(6.6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5	1.1	4.2	6.9	14.6	15.2	21.4	22.5	8.9	4.7	100.0	(6.64)
	대학 졸업 이상	(672)	0.1	0.5	1.8	7.0	8.6	16.5	25.5	21.8	9.1	9.1	100.0	(7.0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0.3	0.6	2.1	7.2	10.9	15.5	25.1	21.5	8.6	8.2	100.0	(6.9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0	0.0	2.1	4.6	6.7	20.7	25.4	20.2	9.9	10.4	100.0	(7.15)
	별거·이혼·사별	(32)	0.0	3.2	15.7	21.8	18.8	21.9	6.3	6.2	3.2	3.1	100.0	(5.18)

② 소득 대물림 인식

■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점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8점이 19.7%, 10점(매우 영향을 받는다)이 17.8%, 6점이 14.8%, 9점이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3.8%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1.9%로 1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28.2%, 30~34세는 21.0%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29세는 19.9%로 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39세는 24.9%로 1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성남시 수성구는 23.9%, 성남시 중원구는 21.9%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3.5%로 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고졸 이하가 22.7% 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가 25.7%로 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졸업 이상은 21.1%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는 미혼/비혼은 22.8%로 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23.9%로 1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4.2%로 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9〉 불평등 인식\_소득 대물림 인식



〈표 2-19〉 불평등 인식\_소득 대물림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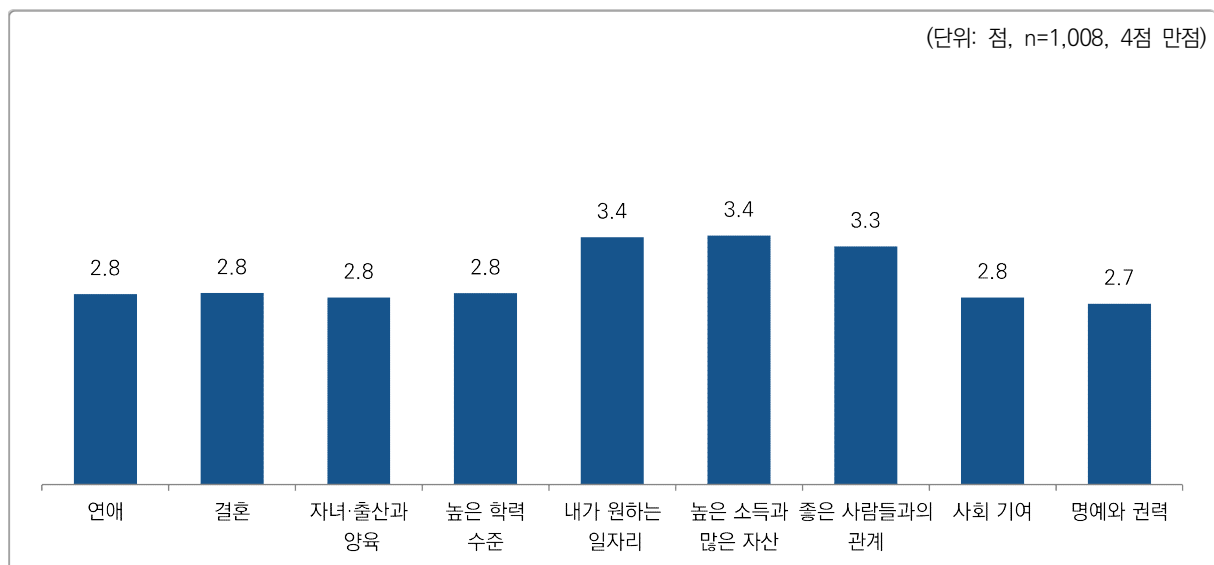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3	4	5	6	7	8	9	10 매우 영향을 받는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0.2	0.3	2.2	3.7	7.7	14.8	21.3	19.7	12.3	17.8	100.0	(7.45)
성별	남성	(517)	0.2	0.4	2.5	5.6	8.1	16.0	23.8	19.0	10.5	13.9	100.0	(7.20)
	여성	(491)	0.2	0.2	1.9	1.6	7.4	13.5	18.7	20.5	14.1	21.9	100.0	(7.72)
연령	19세-24세	(214)	0.0	0.5	1.9	1.8	7.4	17.2	28.2	21.0	9.3	12.7	100.0	(7.30)
	25세-29세	(256)	0.8	0.4	2.4	5.9	8.5	14.7	19.3	19.9	11.5	16.7	100.0	(7.27)
	30세-34세	(282)	0.0	0.4	2.5	3.6	7.8	14.9	21.0	20.6	12.8	16.4	100.0	(7.42)
	35세-39세	(255)	0.0	0.0	2.0	3.2	7.1	12.7	17.8	17.4	15.0	24.9	100.0	(7.7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0.8	0.8	4.1	5.6	8.3	13.1	23.9	17.6	9.7	16.1	100.0	(7.14)
	성남시 중원구	(232)	0.0	0.4	2.6	4.3	6.5	19.9	21.9	13.9	10.4	20.0	100.0	(7.36)
	성남시 분당구	(508)	0.0	0.0	1.0	2.4	8.0	13.3	19.6	23.5	14.5	17.7	100.0	(7.65)
학력	고졸 이하	(146)	0.7	0.7	4.8	6.2	6.8	22.7	19.0	14.4	6.1	18.6	100.0	(7.0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0	1.1	1.6	1.0	5.3	16.3	23.9	25.7	12.6	12.6	100.0	(7.47)
	대학 졸업 이상	(672)	0.2	0.0	1.8	3.9	8.6	12.6	21.1	19.2	13.5	19.1	100.0	(7.5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0.3	0.3	2.1	3.5	7.8	14.8	22.8	20.1	11.5	16.9	100.0	(7.4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0	0.0	1.0	2.1	7.7	11.4	16.6	20.2	17.1	23.9	100.0	(7.89)
	별거·이혼·사별	(32)	0.0	3.2	12.6	18.8	6.3	34.2	12.5	6.3	3.0	3.1	100.0	(5.52)

## 2) 미래설계

### (1) 삶에서의 중요도

-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3.3점으로 나타났고,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사회기여’ 모두 2.8점으로 나타났다. ‘명예와 권력’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3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와 30세~34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와 성남시 중원구 모두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3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2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5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3.4점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3.5점, 별거·이혼·사별은 2.9점으로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0〉 삶에서의 중요도



〈표 2-20〉 삶에서의 중요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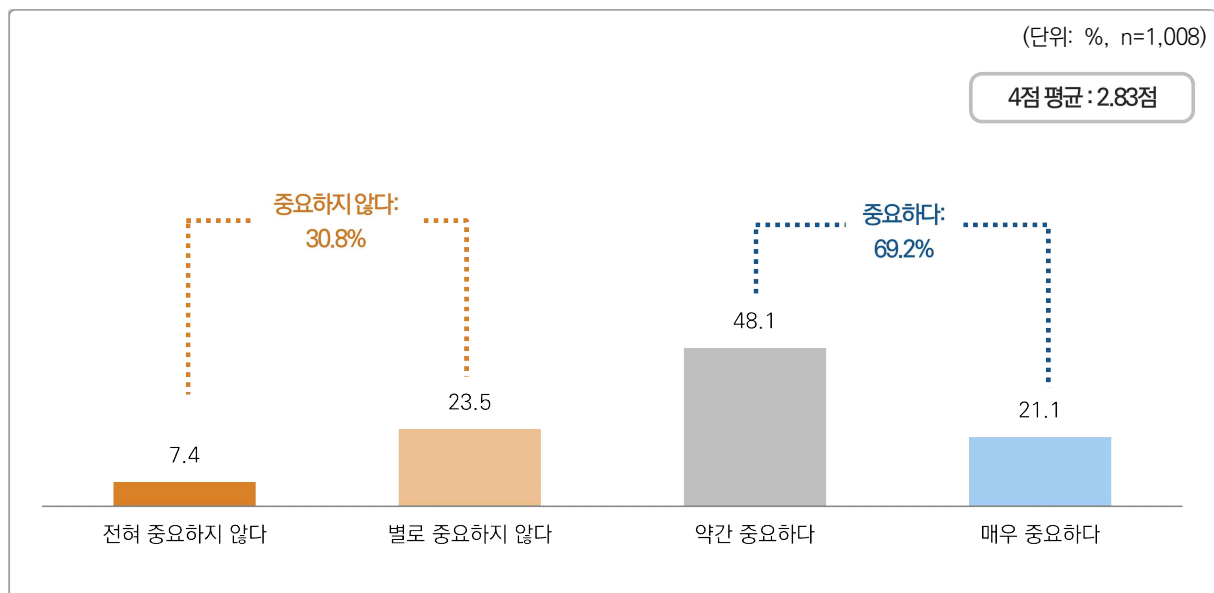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연애	결혼	자녀·출 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 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와 권력
전체		(1,008)	2.8	2.8	2.8	2.8	3.4	3.4	3.3	2.8	2.7
성별	남성	(517)	2.9	2.9	2.9	2.9	3.3	3.3	3.2	2.8	2.7
	여성	(491)	2.7	2.8	2.7	2.8	3.4	3.5	3.4	2.8	2.7
연령	19세-24세	(214)	3.0	3.0	3.0	3.1	3.5	3.4	3.4	2.9	2.9
	25세-29세	(256)	2.9	2.8	2.7	2.8	3.3	3.4	3.3	2.8	2.8
	30세-34세	(282)	2.8	2.8	2.8	2.8	3.3	3.4	3.3	2.8	2.7
	35세-39세	(255)	2.7	2.8	2.8	2.7	3.4	3.4	3.1	2.7	2.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7	2.7	2.6	2.8	3.3	3.3	3.2	2.8	2.7
	성남시 중원구	(232)	2.8	2.8	2.8	2.8	3.3	3.3	3.2	2.8	2.7
	성남시 분당구	(508)	2.9	2.9	2.9	2.9	3.4	3.4	3.3	2.8	2.8
학력	고졸 이하	(146)	2.8	2.7	2.7	2.7	3.2	3.2	3.1	2.6	2.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	3.1	3.1	3.2	3.5	3.5	3.4	3.1	3.0
	대학 졸업 이상	(672)	2.8	2.8	2.7	2.8	3.4	3.4	3.3	2.8	2.7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8	2.8	2.7	2.8	3.4	3.4	3.3	2.8	2.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0	3.2	3.2	2.8	3.4	3.5	3.3	2.8	2.6
	별거·이혼·사별	(32)	2.7	2.6	2.6	2.7	2.7	2.9	2.8	2.6	2.4

① 연애

■ 연애가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23.5%, ‘매우 중요하다’가 21.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0.8%, ‘중요하다’는 69.2%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3.8%, 여성은 64.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6.2%, 25세~29세는 70.1%, 30세~34세는 65.1%, 35세~39세는 66.8%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3.6%, 성남시 중원구는 68.3%, 성남시 분당구는 72.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6.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0.6%, 대학 졸업 이상은 66.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66.3%, 배우자 있음은 81.8%, 별거·이혼·사별은 62.6%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1〉 삶에서의 중요도\_연애



〈표 2-21〉 삶에서의 중요도\_연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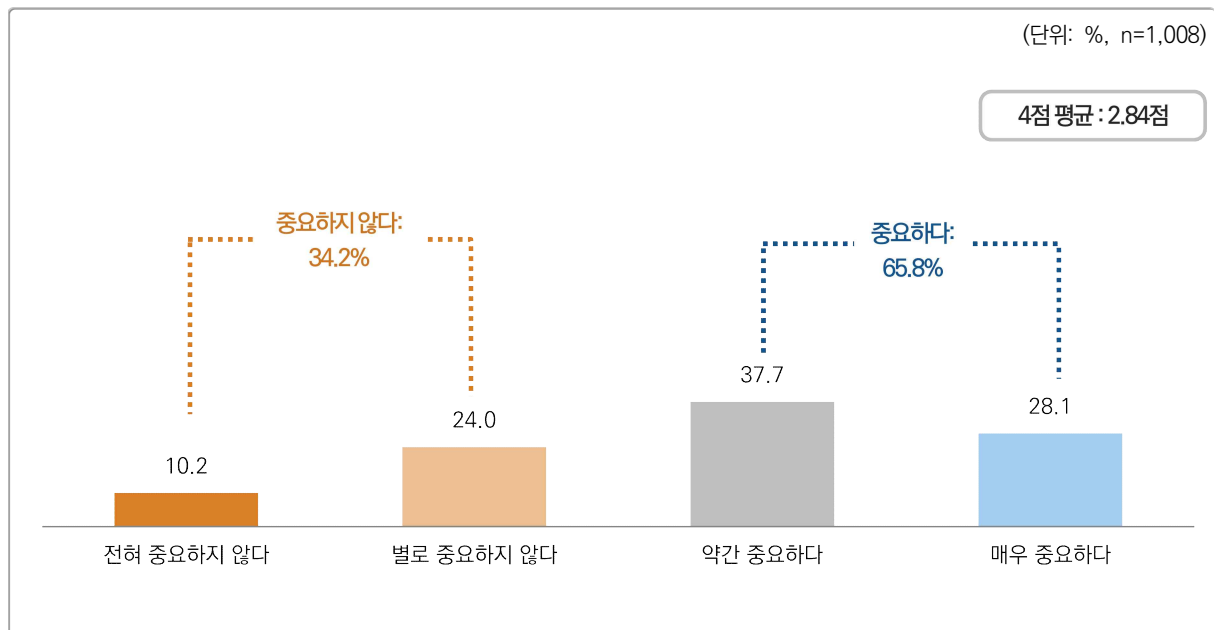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7.4	23.5	48.1	21.1	30.8	69.2	100.0	(2.83)
성별	남성	(517)	4.1	22.2	51.9	21.8	26.2	73.8	100.0	(2.92)
	여성	(491)	10.9	24.8	44.0	20.3	35.7	64.3	100.0	(2.74)
연령	19세~24세	(214)	4.7	19.1	46.3	29.9	23.8	76.2	100.0	(3.01)
	25세~29세	(256)	6.6	23.3	47.5	22.6	29.9	70.1	100.0	(2.86)
	30세~34세	(282)	6.8	28.1	44.9	20.2	34.9	65.1	100.0	(2.79)
	35세~39세	(255)	11.1	22.1	53.8	13.0	33.2	66.8	100.0	(2.6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8.6	27.8	45.3	18.3	36.4	63.6	100.0	(2.73)
	성남시 중원구	(232)	8.7	23.0	51.0	17.3	31.7	68.3	100.0	(2.77)
	성남시 분당구	(508)	6.1	21.4	48.3	24.2	27.5	72.5	100.0	(2.91)
학력	고졸 이하	(146)	7.6	26.1	45.8	20.5	33.7	66.3	100.0	(2.7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2	16.2	47.5	33.1	19.4	80.6	100.0	(3.11)
	대학 졸업 이상	(672)	8.5	24.9	48.7	17.8	33.5	66.5	100.0	(2.7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8.4	25.3	45.4	20.9	33.7	66.3	100.0	(2.7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	15.1	59.6	22.2	18.2	81.8	100.0	(3.01)
	별거·이혼·사별	(32)	9.3	28.2	43.8	18.8	37.4	62.6	100.0	(2.72)

② 결혼

■ 결혼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37.7%, ‘매우 중요하다’ 28.1%,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24%,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4.2%, ‘중요하다’는 65.8%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0.5%, 여성은 60.8%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1.6%, 25세~29세는 63.9%,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64.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8.0%, 성남시 중원구는 66.6%, 성남시 분당구는 69.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9.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4.4%, 대학 졸업 이상은 64.8%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2.5%, 배우자 있음은 80.3%, 별거·이혼·사별은 59.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2〉 삶에서의 중요도\_결혼





〈표 2-22〉 삶에서의 중요도\_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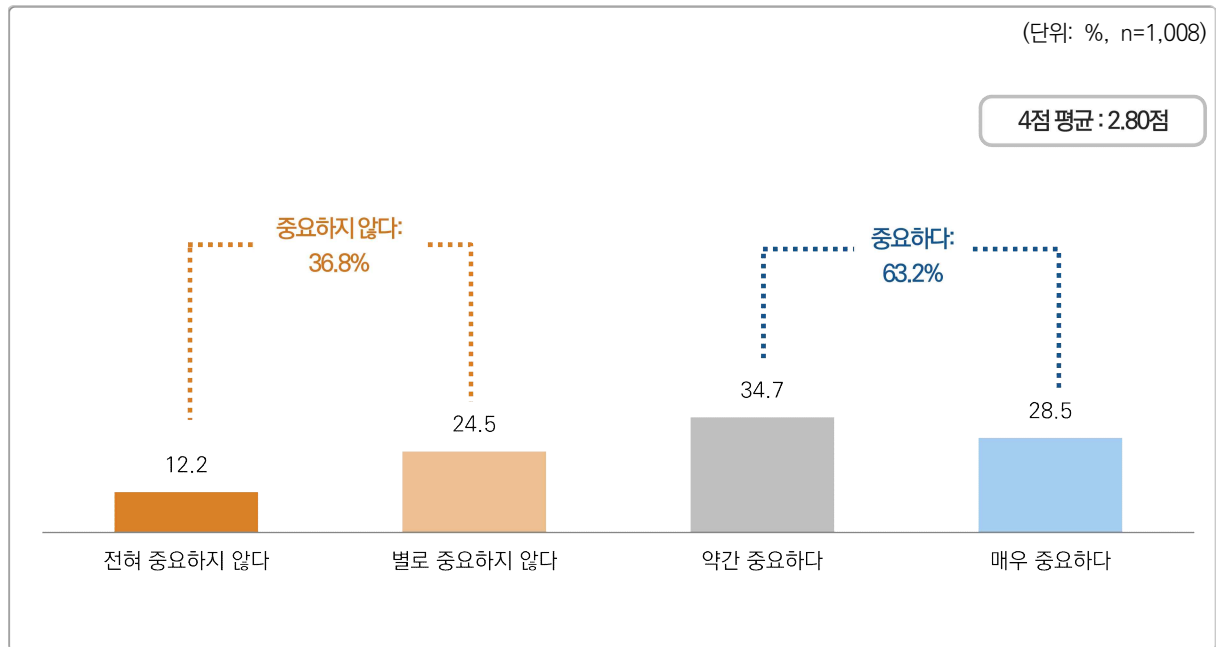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0.2	24.0	37.7	28.1	34.2	65.8	100.0	(2.84)
성별	남성	(517)	6.2	23.3	43.1	27.5	29.5	70.5	100.0	(2.92)
	여성	(491)	14.4	24.8	32.0	28.9	39.2	60.8	100.0	(2.75)
연령	19세~24세	(214)	7.5	20.9	37.9	33.7	28.4	71.6	100.0	(2.98)
	25세~29세	(256)	9.3	26.8	35.6	28.4	36.1	63.9	100.0	(2.83)
	30세~34세	(282)	9.3	26.3	38.1	26.3	35.6	64.4	100.0	(2.81)
	35세~39세	(255)	14.2	21.3	39.2	25.3	35.5	64.5	100.0	(2.7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1.6	30.4	34.5	23.6	42.0	58.0	100.0	(2.70)
	성남시 중원구	(232)	10.5	22.9	41.8	24.8	33.4	66.6	100.0	(2.81)
	성남시 분당구	(508)	9.2	21.2	37.5	32.1	30.5	69.5	100.0	(2.92)
학력	고졸 이하	(146)	9.0	31.6	38.2	21.2	40.5	59.5	100.0	(2.7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4	17.2	33.9	40.5	25.6	74.4	100.0	(3.06)
	대학 졸업 이상	(672)	10.9	24.3	38.6	26.1	35.2	64.8	100.0	(2.8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1.8	25.7	37.1	25.3	37.5	62.5	100.0	(2.7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	16.6	37.8	42.5	19.7	80.3	100.0	(3.20)
	별거·이혼·사별	(32)	12.5	28.1	50.1	9.3	40.6	59.4	100.0	(2.56)

### ③ 자녀·출산과 양육

- 자녀·출산과 양육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가 28.5%,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24.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6.8%, ‘중요하다’는 63.2%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6.7%, 여성의 59.6%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69.2%, 25세~29세는 58.9%, 30세~34세는 62.6%, 35세~39세는 63.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6.5%, 성남시 중원구는 64.0%, 성남시 분당구는 66.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1.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2.7%, 대학 졸업 이상은 60.9%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59.4%, 배우자 있음은 78.8%, 별거·이혼·사별은 62.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3〉 삶에서의 중요도\_자녀·출산과 양육



〈표 2-23〉 삶에서의 중요도\_자녀·출산과 양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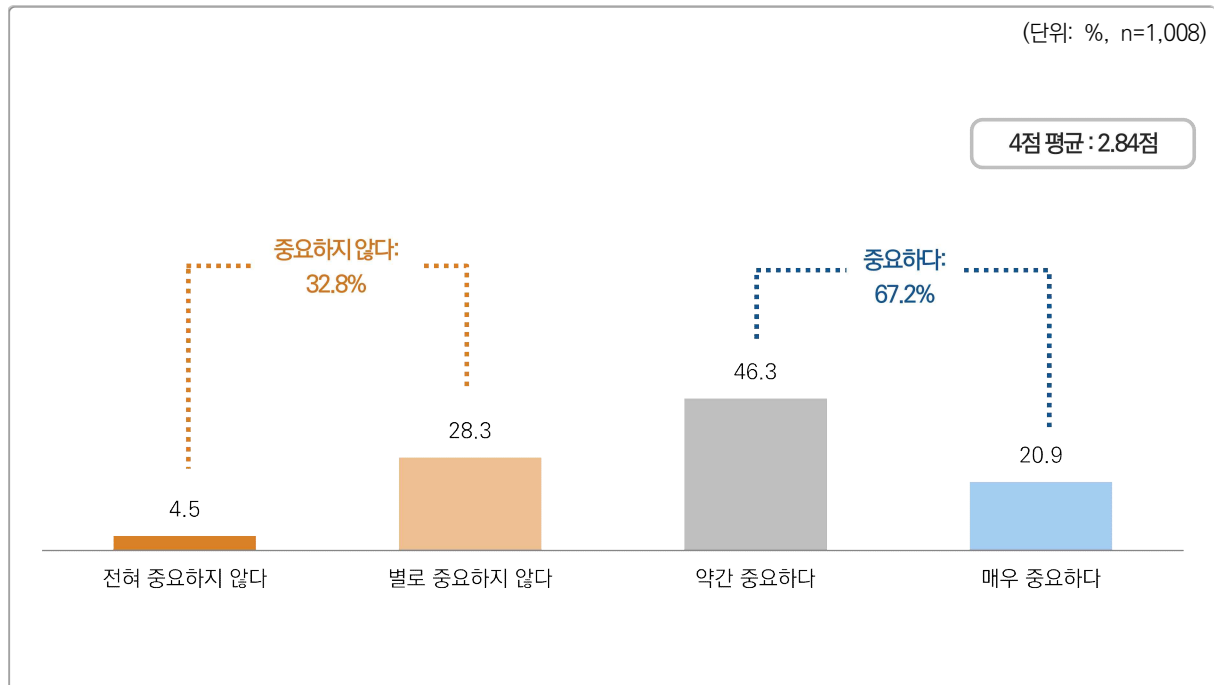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2.2	24.5	34.7	28.5	36.8	63.2	100.0	(2.80)
성별	남성	(517)	7.3	26.0	36.2	30.5	33.3	66.7	100.0	(2.90)
	여성	(491)	17.4	22.9	33.2	26.4	40.4	59.6	100.0	(2.69)
연령	19세~24세	(214)	8.0	22.8	33.4	35.8	30.8	69.2	100.0	(2.97)
	25세~29세	(256)	15.2	25.9	30.9	28.0	41.1	58.9	100.0	(2.72)
	30세~34세	(282)	10.7	26.7	38.4	24.2	37.4	62.6	100.0	(2.76)
	35세~39세	(255)	14.6	22.1	35.6	27.7	36.7	63.3	100.0	(2.7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4.6	28.8	36.0	20.6	43.5	56.5	100.0	(2.62)
	성남시 중원구	(232)	12.6	23.4	32.9	31.1	36.0	64.0	100.0	(2.82)
	성남시 분당구	(508)	10.8	22.7	34.9	31.5	33.6	66.4	100.0	(2.87)
학력	고졸 이하	(146)	12.4	26.0	40.4	21.2	38.4	61.6	100.0	(2.7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8	20.5	32.4	40.3	27.3	72.7	100.0	(3.06)
	대학 졸업 이상	(672)	13.8	25.3	34.2	26.8	39.1	60.9	100.0	(2.7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4.3	26.3	34.1	25.3	40.6	59.4	100.0	(2.7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1	17.1	34.8	44.0	21.2	78.8	100.0	(3.19)
	별거·이혼·사별	(32)	12.5	25.1	50.0	12.4	37.6	62.4	100.0	(2.62)

#### ④ 높은 학력 수준

■ 높은 학력 수준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28.3%, ‘매우 중요하다’가 20.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2.8%, ‘중요하다’는 67.2%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7.2%, 여성은 67.2%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의 82.8%, 25세~29세는 63.9%, 30세~34세는 63.7%, 35세~39세는 61.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4.4%, 성남시 중원구는 62.2%, 성남시 분당구는 71.0%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9.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6.9%, 대학 졸업 이상은 63.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8.0%, 배우자 있음은 65.3%, 별거·이혼·사별은 59.2%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4〉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학력 수준



〈표 2-24〉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학력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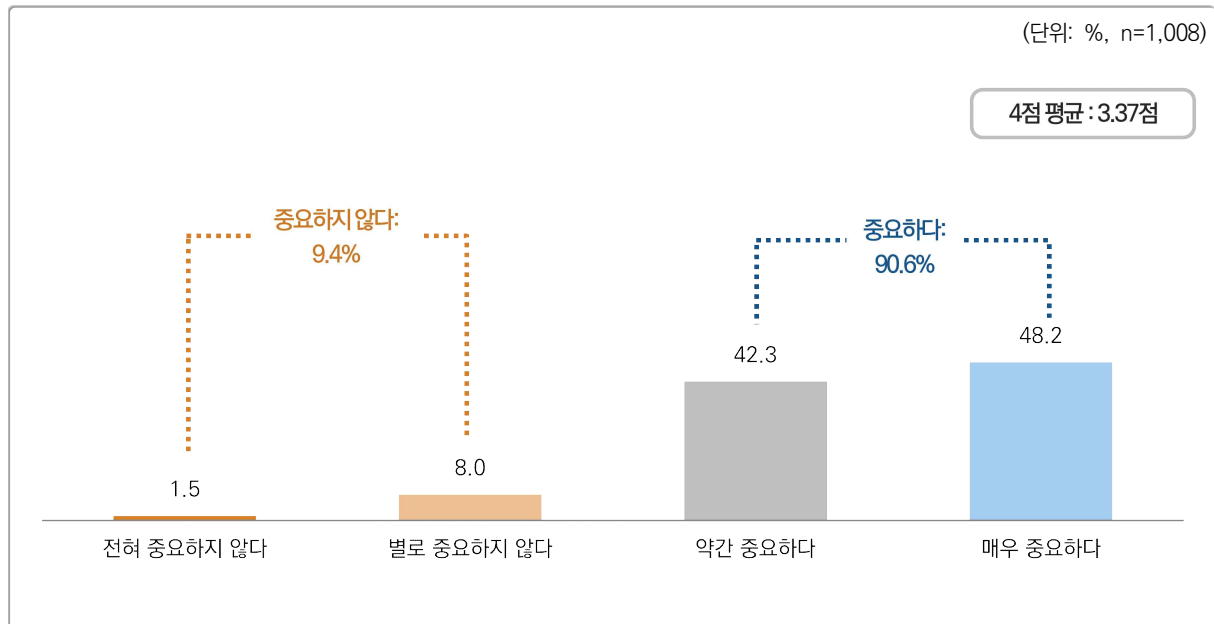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5	28.3	46.3	20.9	32.8	67.2	100.0	(2.84)
성별	남성	(517)	4.4	28.4	44.8	22.4	32.8	67.2	100.0	(2.85)
	여성	(491)	4.5	28.3	47.9	19.3	32.8	67.2	100.0	(2.82)
연령	19세~24세	(214)	3.3	14.0	49.7	33.1	17.2	82.8	100.0	(3.13)
	25세~29세	(256)	4.3	31.8	46.3	17.6	36.1	63.9	100.0	(2.77)
	30세~34세	(282)	5.0	31.3	44.2	19.5	36.3	63.7	100.0	(2.78)
	35세~39세	(255)	5.1	33.6	45.8	15.4	38.7	61.3	100.0	(2.72)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	32.2	48.3	16.1	35.6	64.4	100.0	(2.77)
	성남시 중원구	(232)	5.2	32.6	42.7	19.5	37.8	62.2	100.0	(2.76)
	성남시 분당구	(508)	4.7	24.3	46.9	24.1	29.0	71.0	100.0	(2.90)
학력	고졸 이하	(146)	6.2	34.3	43.8	15.6	40.5	59.5	100.0	(2.6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1	12.1	49.1	37.7	13.1	86.9	100.0	(3.24)
	대학 졸업 이상	(672)	5.1	31.6	46.0	17.3	36.7	63.3	100.0	(2.7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0	27.0	46.1	21.9	32.0	68.0	100.0	(2.8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1	32.6	48.2	17.1	34.7	65.3	100.0	(2.80)
	별거·이혼·사별	(32)	6.3	34.5	40.8	18.4	40.8	59.2	100.0	(2.71)

⑤ 내가 원하는 일자리

■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중요하다'가 42.3%,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9.4%, '중요하다'는 90.6%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87.6%, 여성은 93.6%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93.5%, 25세~29세는 90.6%, 30세~34세는 88.2%, 35세~39세는 90.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7.7%, 성남시 중원구는 87.4%, 성남시 분당구는 93.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82.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3.7%, 대학 졸업 이상은 91.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91.3%, 배우자 있음은 92.7%, 별거·이혼·사별은 59.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5〉 삶에서의 중요도\_내가 원하는 일자리



〈표 2-25〉 삶에서의 중요도\_내가 원하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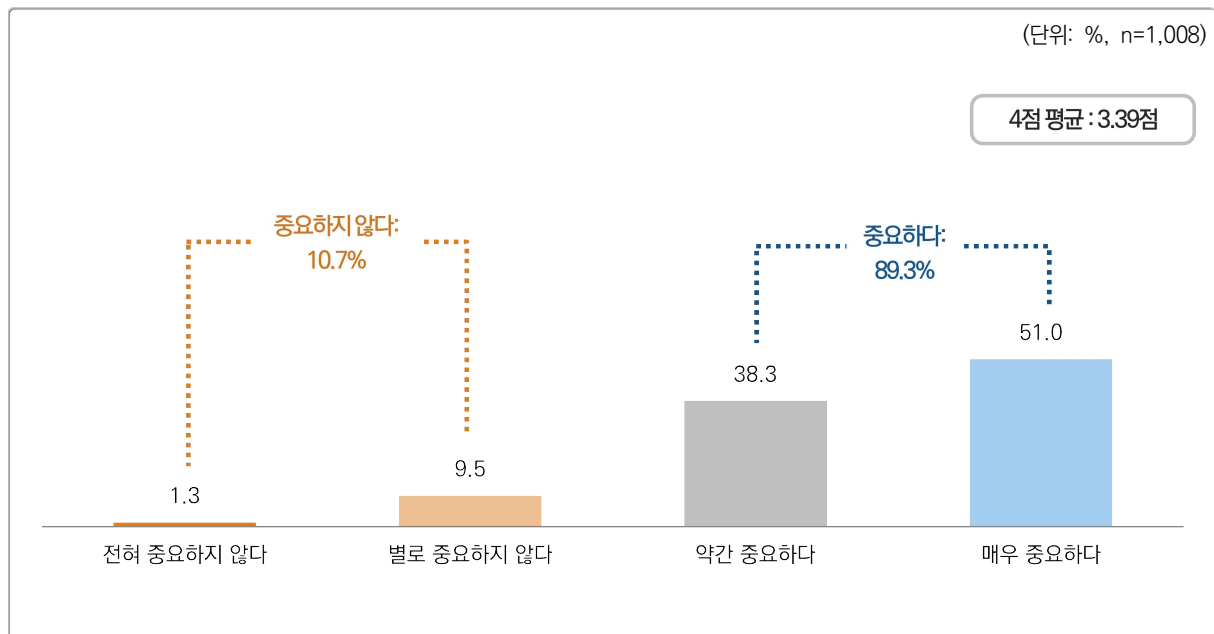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5	8.0	42.3	48.2	9.4	90.6	100.0	(3.37)
성별	남성	(517)	1.3	11.0	43.4	44.2	12.4	87.6	100.0	(3.30)
	여성	(491)	1.6	4.7	41.2	52.5	6.4	93.6	100.0	(3.44)
연령	19세~24세	(214)	0.4	6.0	40.3	53.2	6.5	93.5	100.0	(3.46)
	25세~29세	(256)	2.3	7.0	46.0	44.6	9.4	90.6	100.0	(3.33)
	30세~34세	(282)	1.4	10.3	40.9	47.4	11.8	88.2	100.0	(3.34)
	35세~39세	(255)	1.6	7.9	41.9	48.6	9.5	90.5	100.0	(3.3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5	10.8	42.3	45.3	12.3	87.7	100.0	(3.31)
	성남시 중원구	(232)	2.6	10.0	42.3	45.1	12.6	87.4	100.0	(3.30)
	성남시 분당구	(508)	1.0	5.5	42.3	51.2	6.5	93.5	100.0	(3.44)
학력	고졸 이하	(146)	2.0	15.8	43.1	39.1	17.9	82.1	100.0	(3.1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5	5.8	38.6	55.1	6.3	93.7	100.0	(3.48)
	대학 졸업 이상	(672)	1.6	6.9	43.2	48.3	8.5	91.5	100.0	(3.3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4	7.3	40.9	50.3	8.7	91.3	100.0	(3.4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5	6.8	48.2	44.5	7.3	92.7	100.0	(3.37)
	별거·이혼·사별	(32)	9.2	31.4	40.8	18.6	40.6	59.4	100.0	(2.69)

⑥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간 중요하다’가 38.3%,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9.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10.7%, ‘중요하다’는 89.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87.4%, 여성은 91.2%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92.6%, 25세~29세는 89.5%, 30세~34세는 87.2%, 35세~39세는 88.5%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8.8%, 성남시 중원구는 85.2%, 성남시 분당구는 91.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80.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1.6%, 대학 졸업 이상은 90.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90.1%, 배우자 있음은 90.7%, 별거·이혼·사별은 59.0%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6〉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표 2-26〉 삶에서의 중요도\_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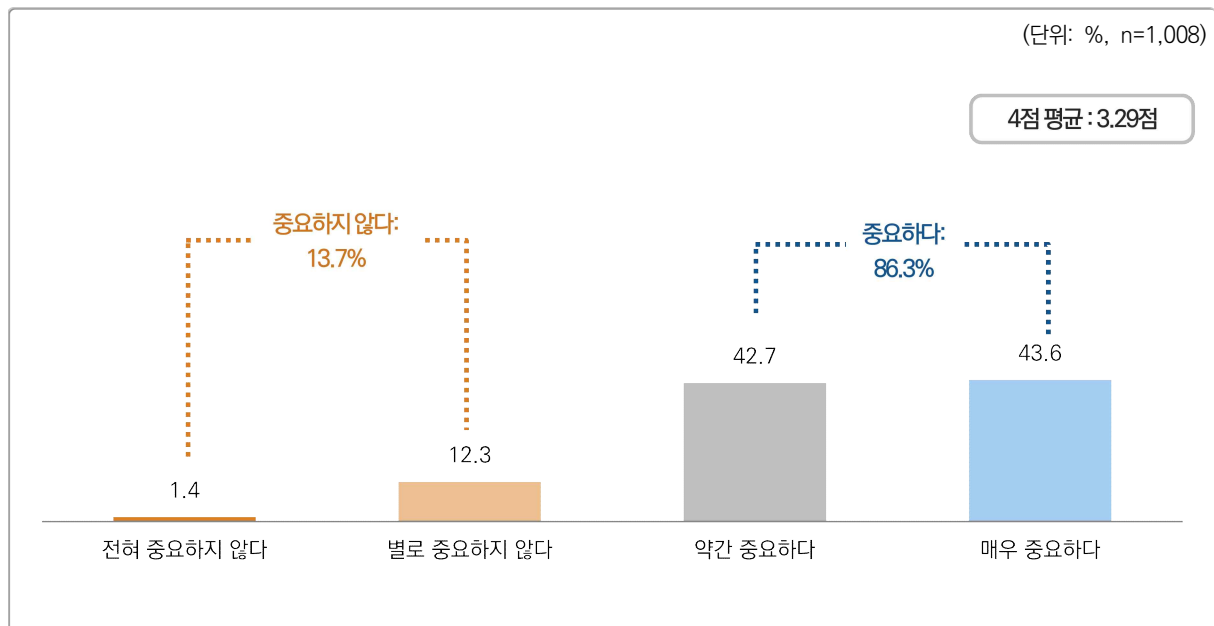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3	9.5	38.3	51.0	10.7	89.3	100.0	(3.39)
성별	남성	(517)	1.4	11.2	40.4	47.1	12.6	87.4	100.0	(3.33)
	여성	(491)	1.2	7.6	36.1	55.1	8.8	91.2	100.0	(3.45)
연령	19세~24세	(214)	0.5	7.0	39.9	52.6	7.4	92.6	100.0	(3.45)
	25세~29세	(256)	1.6	9.0	40.2	49.3	10.5	89.5	100.0	(3.37)
	30세~34세	(282)	1.1	11.7	36.6	50.6	12.8	87.2	100.0	(3.37)
	35세~39세	(255)	2.0	9.5	36.8	51.8	11.5	88.5	100.0	(3.3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5	9.7	41.2	47.6	11.2	88.8	100.0	(3.35)
	성남시 중원구	(232)	1.7	13.0	38.0	47.2	14.8	85.2	100.0	(3.31)
	성남시 분당구	(508)	1.0	7.7	36.8	54.5	8.7	91.3	100.0	(3.45)
학력	고졸 이하	(146)	2.1	17.2	43.2	37.6	19.2	80.8	100.0	(3.1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0.5	7.9	37.6	54.0	8.4	91.6	100.0	(3.45)
	대학 졸업 이상	(672)	1.4	8.2	37.4	53.0	9.6	90.4	100.0	(3.4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3	8.6	39.9	50.2	9.9	90.1	100.0	(3.3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0	8.3	33.7	57.0	9.3	90.7	100.0	(3.47)
	별거·이혼·사별	(32)	3.2	37.8	25.0	34.1	41.0	59.0	100.0	(2.90)

⑦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중요하다’가 42.7%,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12.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13.7%, ‘중요하다’는 86.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84.9%, 여성은 87.9%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92.1%, 25세~29세는 89.1%, 30세~34세는 86.4%, 35세~39세는 78.7%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2.0%, 성남시 중원구는 84.8%, 성남시 분당구는 89.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7.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1.6%, 대학 졸업 이상은 86.7%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86.8%, 배우자 있음은 88.0%, 별거·이혼·사별은 65.4%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7〉 삶에서의 중요도\_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표 2-27〉 삶에서의 중요도\_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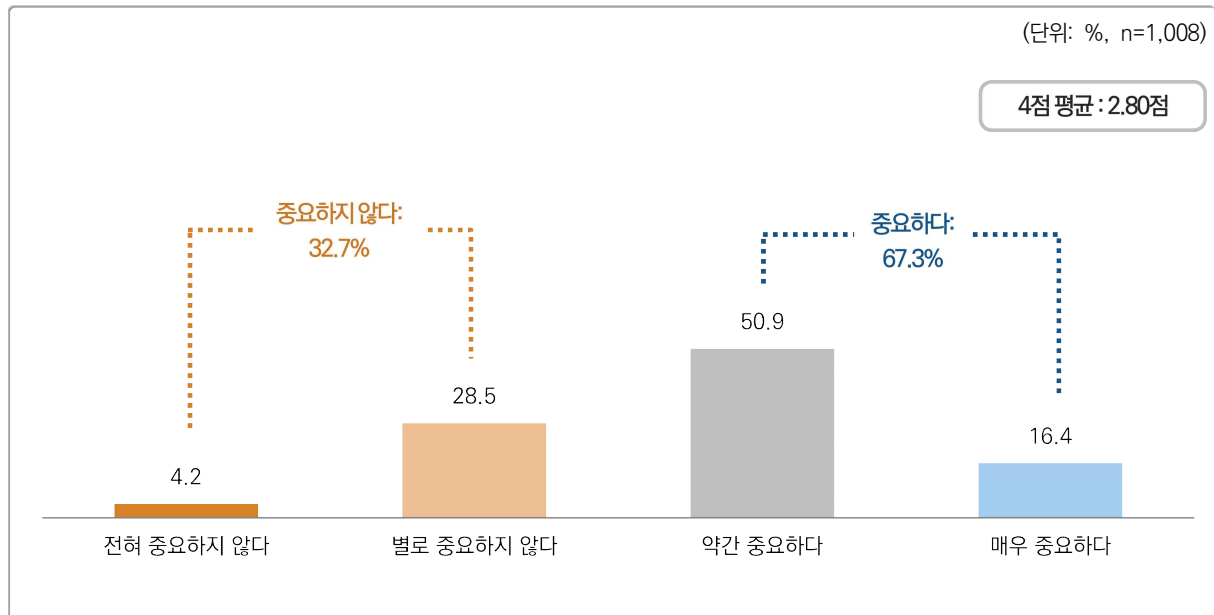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1.4	12.3	42.7	43.6	13.7	86.3	100.0	(3.29)
성별	남성	(517)	1.7	13.4	48.8	36.1	15.1	84.9	100.0	(3.19)
	여성	(491)	1.0	11.1	36.3	51.6	12.1	87.9	100.0	(3.38)
연령	19세~24세	(214)	1.8	6.1	40.8	51.4	7.9	92.1	100.0	(3.42)
	25세~29세	(256)	1.2	9.7	42.5	46.6	10.9	89.1	100.0	(3.35)
	30세~34세	(282)	1.1	12.5	43.0	43.4	13.6	86.4	100.0	(3.29)
	35세~39세	(255)	1.6	19.8	44.3	34.4	21.3	78.7	100.0	(3.1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9	16.1	38.5	43.5	18.0	82.0	100.0	(3.24)
	성남시 중원구	(232)	1.3	13.9	46.6	38.1	15.2	84.8	100.0	(3.22)
	성남시 분당구	(508)	1.2	9.5	43.1	46.2	10.7	89.3	100.0	(3.34)
학력	고졸 이하	(146)	2.8	19.3	39.6	38.3	22.1	77.9	100.0	(3.1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0	7.4	39.6	52.0	8.4	91.6	100.0	(3.43)
	대학 졸업 이상	(672)	1.2	12.1	44.3	42.4	13.3	86.7	100.0	(3.2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5	11.7	42.5	44.3	13.2	86.8	100.0	(3.3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0	12.0	44.1	44.0	12.0	88.0	100.0	(3.32)
	별거·이혼·사별	(32)	6.3	28.3	40.7	24.7	34.6	65.4	100.0	(2.84)

⑧ 사회 기여

■ 사회 기여가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28.5%, ‘매우 중요하다’가 16.4%,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2.7%, ‘중요하다’는 67.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8.0%, 여성은 66.6%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4.4%, 25세~29세는 69.1%, 30세~34세는 65.8%, 35세~39세는 61.2%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9.0%, 성남시 중원구는 67.8%, 성남시 분당구는 66.2%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0.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7.5%, 대학 졸업 이상은 65.9%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8.7%, 배우자 있음은 64.2%, 별거·이혼·사별은 53.1%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8〉 삶에서의 중요도\_사회 기여



〈표 2-28〉 삶에서의 중요도\_사회 기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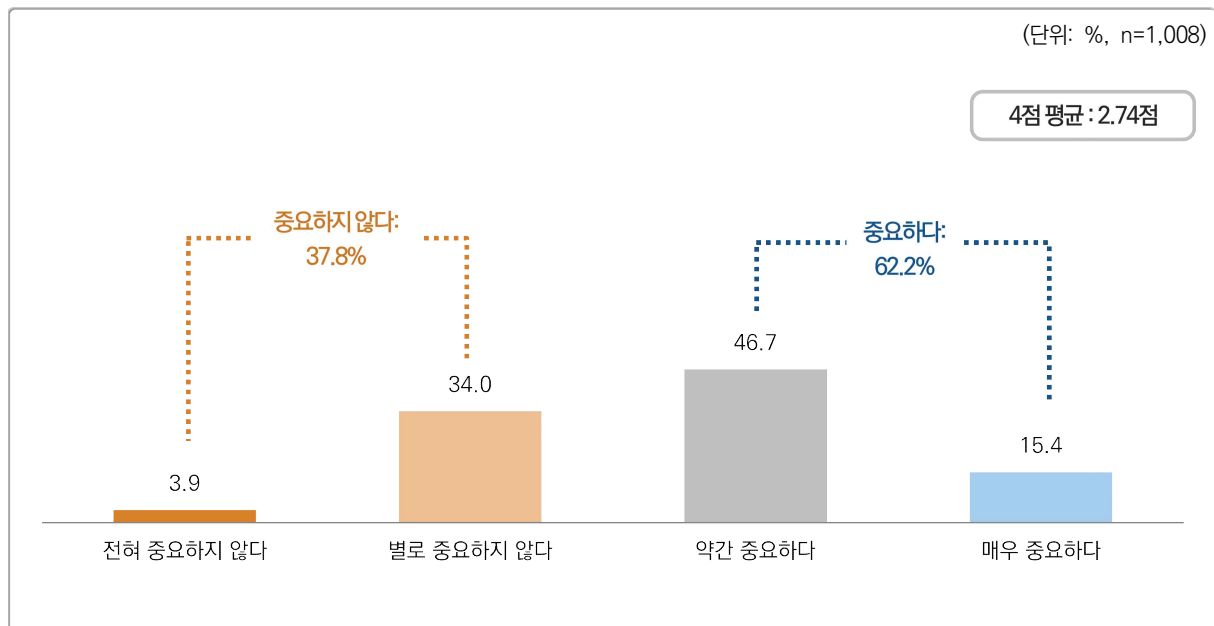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4.2	28.5	50.9	16.4	32.7	67.3	100.0	(2.80)
성별	남성	(517)	3.3	28.7	50.4	17.6	32.0	68.0	100.0	(2.82)
	여성	(491)	5.1	28.3	51.4	15.2	33.4	66.6	100.0	(2.77)
연령	19세~24세	(214)	4.2	21.4	50.2	24.2	25.6	74.4	100.0	(2.94)
	25세~29세	(256)	4.6	26.2	52.6	16.5	30.9	69.1	100.0	(2.81)
	30세~34세	(282)	3.6	30.6	52.0	13.9	34.2	65.8	100.0	(2.76)
	35세~39세	(255)	4.3	34.4	48.6	12.7	38.8	61.2	100.0	(2.7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7	27.3	56.2	12.7	31.0	69.0	100.0	(2.78)
	성남시 중원구	(232)	3.9	28.3	48.8	19.0	32.2	67.8	100.0	(2.83)
	성남시 분당구	(508)	4.5	29.2	49.0	17.2	33.8	66.2	100.0	(2.79)
학력	고졸 이하	(146)	9.0	30.2	50.0	10.9	39.1	60.9	100.0	(2.6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1	21.5	48.7	28.8	22.5	77.5	100.0	(3.05)
	대학 졸업 이상	(672)	4.0	30.1	51.7	14.1	34.1	65.9	100.0	(2.7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2	27.1	51.9	16.8	31.3	68.7	100.0	(2.8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	32.6	48.7	15.6	35.8	64.2	100.0	(2.77)
	별거·이혼·사별	(32)	9.3	37.6	40.8	12.2	46.9	53.1	100.0	(2.56)

⑨ 명예와 권력

■ 명예와 권력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중요하다'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34%, '매우 중요하다'가 15.4%,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37.8%, '중요하다'는 62.2%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2.6%, 여성은 61.7%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24세는 74.4%, 25세~29세는 62.6%, 30세~34세는 58.3%, 35세~39세는 55.7%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1.1%, 성남시 중원구는 60.9%, 성남시 분당구는 63.3%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의 54.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8.6%, 대학 졸업 이상은 59.1%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의 64.7%, 배우자 있음은 56.9%, 별거·이혼·사별은 31.1%로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9〉 삶에서의 중요도\_명예와 권력



〈표 2-29〉 삶에서의 중요도\_명예와 권력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9	34.0	46.7	15.4	37.8	62.2	100.0	(2.74)
성별	남성	(517)	2.9	34.5	48.1	14.5	37.4	62.6	100.0	(2.74)
	여성	(491)	4.9	33.4	45.3	16.4	38.3	61.7	100.0	(2.73)
연령	19세~24세	(214)	4.7	20.9	53.0	21.4	25.6	74.4	100.0	(2.91)
	25세~29세	(256)	3.1	34.3	44.5	18.1	37.4	62.6	100.0	(2.78)
	30세~34세	(282)	3.9	37.7	44.1	14.2	41.7	58.3	100.0	(2.69)
	35세~39세	(255)	4.0	40.3	46.6	9.1	44.3	55.7	100.0	(2.6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1	34.8	45.7	15.4	38.9	61.1	100.0	(2.72)
	성남시 중원구	(232)	4.8	34.4	47.5	13.3	39.1	60.9	100.0	(2.69)
	성남시 분당구	(508)	3.4	33.3	46.9	16.4	36.7	63.3	100.0	(2.76)
학력	고졸 이하	(146)	5.5	39.7	39.7	15.0	45.2	54.8	100.0	(2.6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6	19.9	53.4	25.2	21.4	78.6	100.0	(3.02)
	대학 졸업 이상	(672)	4.2	36.7	46.4	12.8	40.9	59.1	100.0	(2.6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5	31.8	47.6	17.1	35.3	64.7	100.0	(2.7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5.7	37.4	47.6	9.3	43.1	56.9	100.0	(2.61)
	별거·이혼·사별	(32)	3.2	65.7	18.8	12.3	68.9	31.1	100.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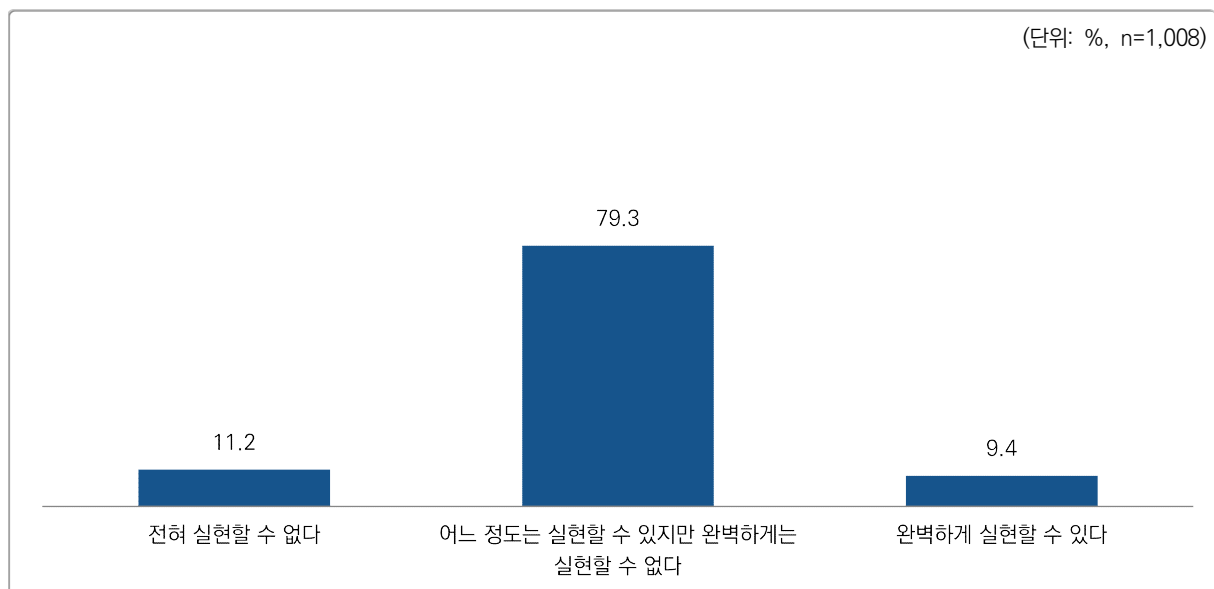
## (2) 미래의 실현 가능성 및 결혼·자녀 계획

### ①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혀 실현할 수 없다’가 11.2%,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가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77.6%, 여성은 81.1%로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4.7%, 25세~29세는 82.7%, 30세~34세는 79.3%, 35세~39세는 79.9%로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4.2%, 성남시 중원구는 80.0%, 성남시 분당구는 81.8%로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5.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0.0%, 대학 졸업 이상은 82.7%로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8.2%, 배우자 있음은 86.5%, 별거·이혼·사별은 62.5%로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표 2-30〉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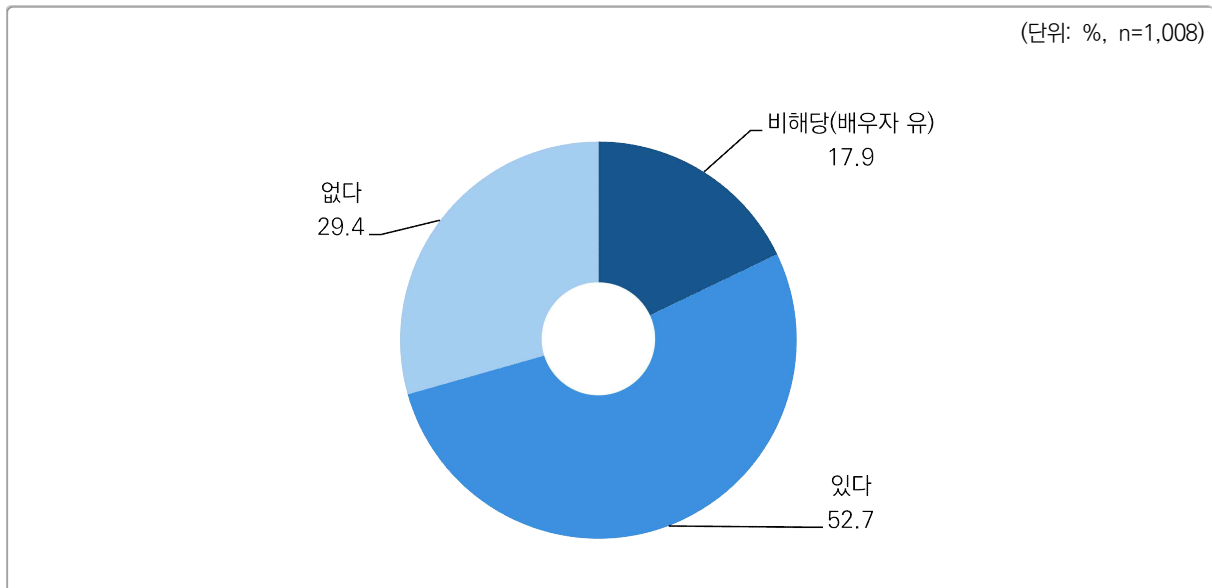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계
전체		(1,008)	11.2	79.3	9.4	100.0
성별	남성	(517)	13.2	77.6	9.2	100.0
	여성	(491)	9.2	81.1	9.6	100.0
연령	19세-24세	(214)	7.0	74.7	18.3	100.0
	25세-29세	(256)	10.5	82.7	6.9	100.0
	30세-34세	(282)	11.0	79.3	9.6	100.0
	35세-39세	(255)	15.8	79.9	4.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6.9	74.2	9.0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8.7	80.0	11.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9.4	81.8	8.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7.9	75.9	6.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7.9	70.0	22.1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0.7	82.7	6.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1.7	78.2	10.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2	86.5	6.2	100.0
	별거·이혼·사별	(32)	25.0	62.5	12.5	100.0

② 향후 결혼 계획

■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 계획 있다'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없다'가 29.4%, '비해당(배우자 유)'이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5.6%, 여성은 49.7%로 '결혼 계획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2.7%, 25세~29세는 61.5%, 30세~34세는 51.9%로 '결혼 계획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40.4%로 '배우자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7.1%, 성남시 중원구는 55.4%, 성남시 분당구는 54.5%로 '결혼 계획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4.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6.4%, 대학 졸업 이상은 48.6%로 '결혼 계획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0.2%, 별거·이혼·사별은 68.7%로 '결혼 계획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78.8%로 '비해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1〉 향후 결혼 계획



〈표 2-31〉 향후 결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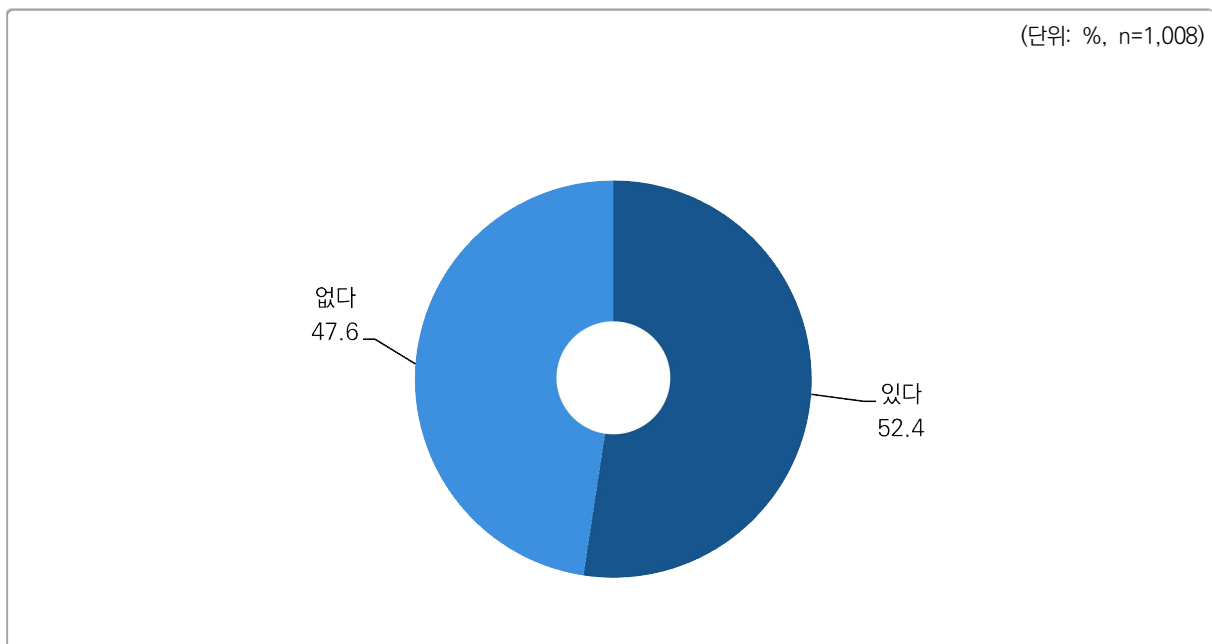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해당 (배우자 유)	있다	없다	계
전체		(1,008)	17.9	52.7	29.4	100.0
성별	남성	(517)	14.8	55.6	29.6	100.0
	여성	(491)	21.2	49.7	29.1	100.0
연령	19세-24세	(214)	2.8	62.7	34.5	100.0
	25세-29세	(256)	7.0	61.5	31.5	100.0
	30세-34세	(282)	18.9	51.9	29.2	100.0
	35세-39세	(255)	40.4	36.4	23.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6.2	47.1	36.8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7.5	55.4	27.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9.0	54.5	26.5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1.0	54.0	35.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3	66.4	27.3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2.6	48.6	28.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6	60.2	37.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8.8	20.2	1.0	100.0
	별거·이혼·사별	(32)	21.9	68.7	9.4	100.0

③ 향후 출산 계획

■ 향후 출산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가 52.4%, '없다'가 47.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5.0%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50.3%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1%, 25세~29세는 55.4%, 30세~34세는 54.4%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51.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5.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56.3%, 성남시 분당구는 55.0%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있다'와 '없다'가 5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0.3%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고, 대학 졸업 이상은 53.7%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0.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62.7%, 별거·이혼·사별은 65.6%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2〉 향후 출산 계획



〈표 2-32〉 향후 출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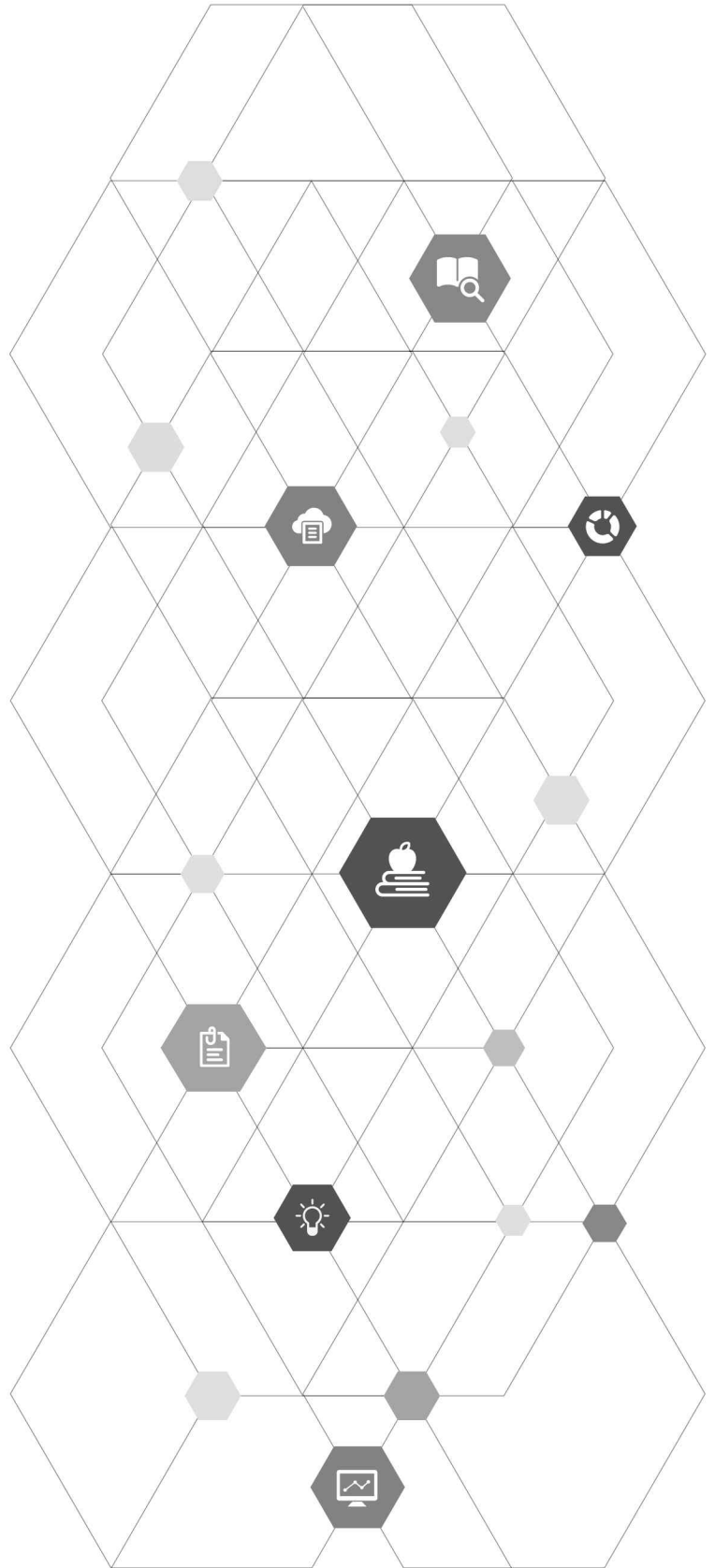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8)	52.4	47.6	100.0
성별	남성	(517)	55.0	45.0	100.0
	여성	(491)	49.7	50.3	100.0
연령	19세-24세	(214)	51.1	48.9	100.0
	25세-29세	(256)	55.4	44.6	100.0
	30세-34세	(282)	54.4	45.6	100.0
	35세-39세	(255)	48.2	51.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4.2	55.8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56.3	43.7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5.0	45.0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50.0	50.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49.7	50.3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53.7	46.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9.3	50.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62.7	37.3	100.0
	별거·이혼·사별	(32)	65.6	34.4	100.0



# 03

## 관계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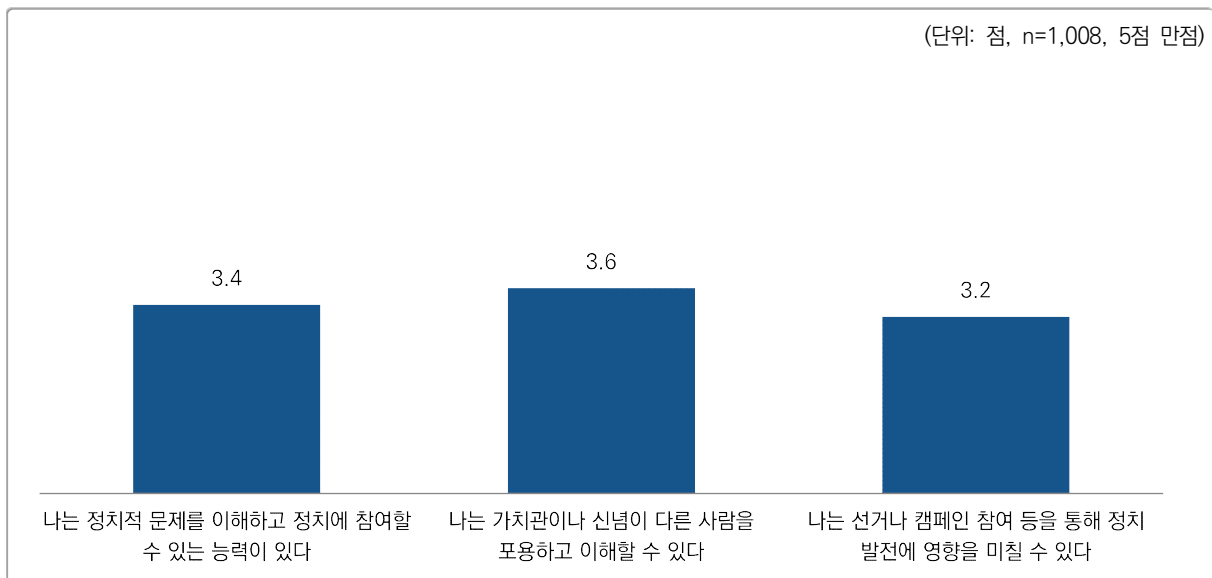
### 3 관계 및 참여

#### 1) 관계

##### (1) 정치적 효능감

-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4점,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6점, 여성은 3.5점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6점, 25세~29세는 3.6점, 30세~34세는 3.6점, 35세~39세는 3.4점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5점, 성남시 중원구는 3.5점, 성남시 분당구는 3.6점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3점,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7점, 대학 졸업 이상은 3.6점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6점, 배우자 있음은 3.6점, 별거·이혼·사별은 2.9점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3〉 정치적 효능감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3〉 정치적 효능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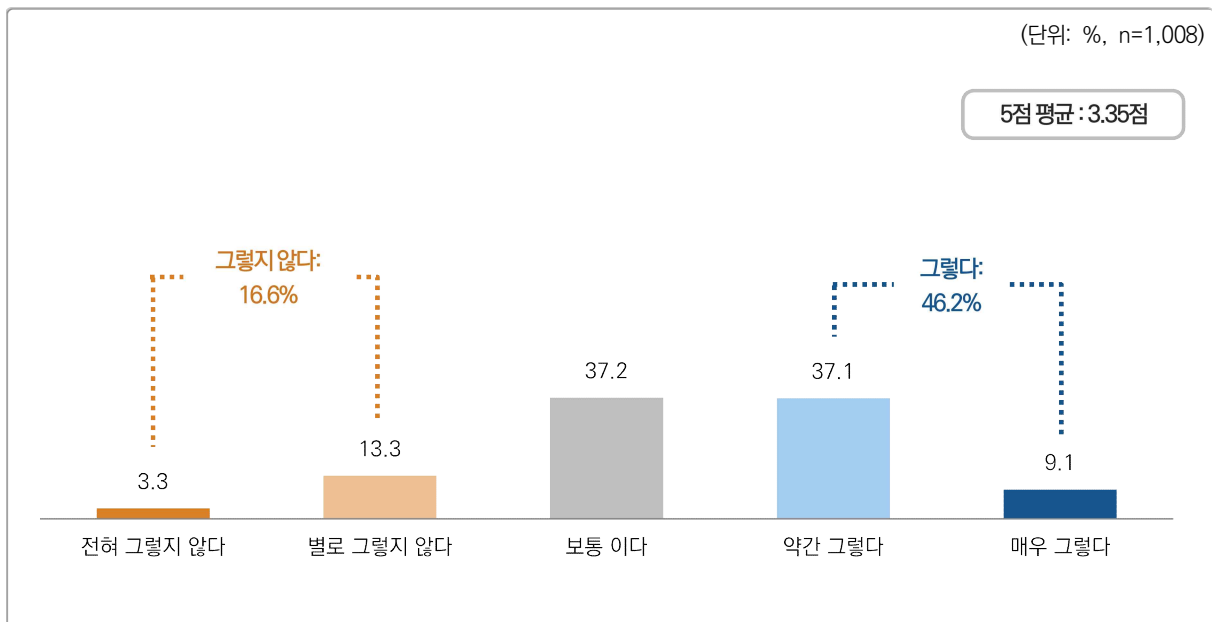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1,008)	3.4	3.6	3.2
성별	남성	(517)	3.5	3.6	3.3
	여성	(491)	3.2	3.5	3.1
연령	19세-24세	(214)	3.5	3.6	3.4
	25세-29세	(256)	3.4	3.6	3.2
	30세-34세	(282)	3.3	3.6	3.2
	35세-39세	(255)	3.3	3.4	3.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3	3.5	3.2
	성남시 중원구	(232)	3.3	3.5	3.2
	성남시 분당구	(508)	3.4	3.6	3.2
학력	고졸 이하	(146)	2.9	3.3	2.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6	3.7	3.5
	대학 졸업 이상	(672)	3.4	3.6	3.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4	3.6	3.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3	3.6	3.1
	별거·이혼·사별	(32)	2.7	2.9	2.7

①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자신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7.1%, '별로 그렇지 않다'가 13.3%, '매우 그렇다'가 9.1%,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46.2%, '그렇지 않다'가 16.6%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0.2%, 여성은 42.0%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2.5%, 25세~29세는 47.0%, 30세~34세는 43.7%, 35세~39세는 42.7%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2%, 성남시 중원구는 44.9%, 성남시 분당구는 47.8%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6.6%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0.1%, 대학 졸업 이상은 46.8%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7.7%, 배우자 있음은 45.1%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7%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4〉 정치적 효능감\_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4〉 정치적 효능감\_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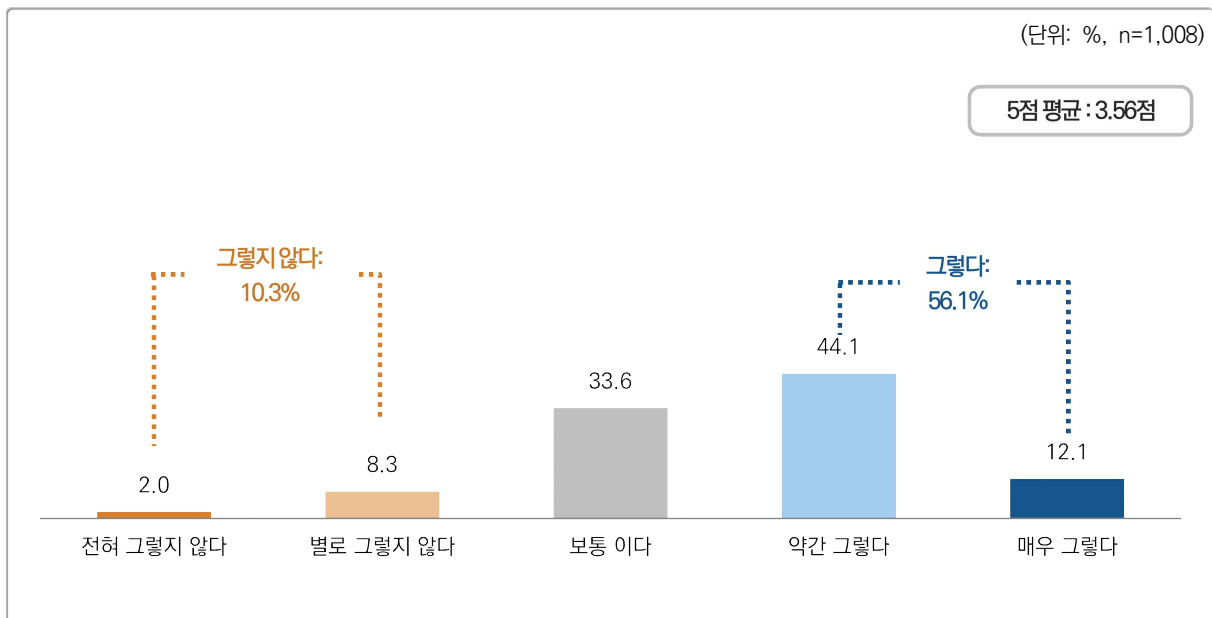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3	13.3	37.2	37.1	9.1	16.6	37.2	46.2	100.0	(3.35)
성별	남성	(517)	2.5	10.0	37.3	39.6	10.6	12.6	37.3	50.2	100.0	(3.46)
	여성	(491)	4.1	16.8	37.1	34.4	7.6	20.9	37.1	42.0	100.0	(3.25)
연령	19세-24세	(214)	2.8	9.8	34.9	41.3	11.2	12.6	34.9	52.5	100.0	(3.48)
	25세-29세	(256)	3.1	14.4	35.5	37.8	9.2	17.5	35.5	47.0	100.0	(3.36)
	30세-34세	(282)	3.9	12.5	39.9	34.1	9.6	16.4	39.9	43.7	100.0	(3.33)
	35세-39세	(255)	3.2	16.2	37.9	36.0	6.7	19.4	37.9	42.7	100.0	(3.2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5	15.0	36.3	32.6	11.6	19.5	36.3	44.2	100.0	(3.32)
	성남시 중원구	(232)	3.5	13.9	37.7	37.5	7.4	17.4	37.7	44.9	100.0	(3.31)
	성남시 분당구	(508)	2.6	12.2	37.5	39.2	8.6	14.7	37.5	47.8	100.0	(3.39)
학력	고졸 이하	(146)	6.9	21.3	46.6	21.8	3.4	28.2	46.6	25.2	100.0	(2.9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6	11.5	25.7	47.6	12.5	14.2	25.7	60.1	100.0	(3.56)
	대학 졸업 이상	(672)	2.7	12.1	38.4	37.4	9.4	14.8	38.4	46.8	100.0	(3.3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8	11.5	38.0	37.9	9.8	14.4	38.0	47.7	100.0	(3.4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7	16.6	33.6	37.8	7.3	21.3	33.6	45.1	100.0	(3.26)
	별거·이혼·사별	(32)	6.3	37.4	40.6	12.6	3.1	43.7	40.6	15.7	100.0	(2.69)

②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이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3.6%, ‘매우 그렇다’가 12.1%, ‘별로 그렇지 않다’가 8.3%, ‘전혀 그렇지 않다’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56.1%, ‘그렇지 않다’가 10.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8.1%, 여성은 54.1%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6.8%, 25세~29세는 61.7%, 30세~34세는 57.3%, 35세~39세는 48.6%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4.8%, 성남시 중원구는 55.4%, 성남시 분당구는 57.1%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1.8%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0.8%, 대학 졸업 이상은 58.4%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6.9%, 배우자 있음은 58.5%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9.8%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5〉 정치적 효능감\_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5〉 정치적 효능감\_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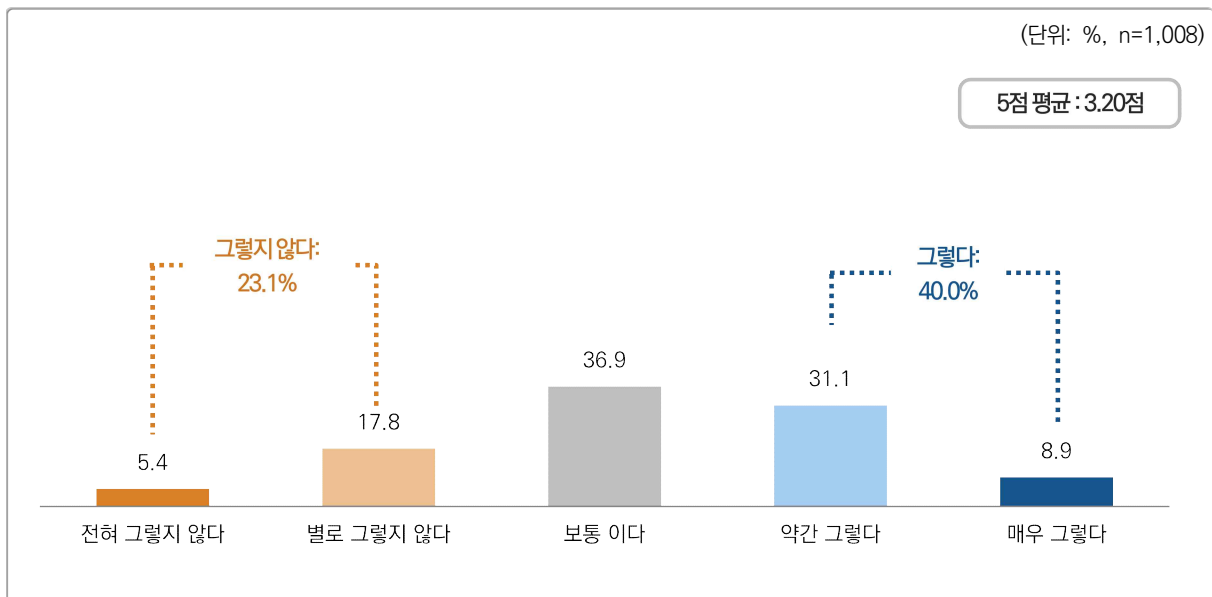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0	8.3	33.6	44.1	12.1	10.3	33.6	56.1	100.0	(3.56)
성별	남성	(517)	1.9	7.3	32.7	45.1	13.0	9.3	32.7	58.1	100.0	(3.60)
	여성	(491)	2.0	9.2	34.6	43.0	11.1	11.3	34.6	54.1	100.0	(3.52)
연령	19세-24세	(214)	2.8	7.0	33.3	39.6	17.2	9.8	33.3	56.8	100.0	(3.61)
	25세-29세	(256)	1.1	8.2	29.0	49.4	12.3	9.3	29.0	61.7	100.0	(3.64)
	30세-34세	(282)	0.7	6.4	35.6	44.9	12.4	7.1	35.6	57.3	100.0	(3.62)
	35세-39세	(255)	3.6	11.4	36.4	41.5	7.1	15.0	36.4	48.6	100.0	(3.3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6	7.9	34.8	43.5	11.2	10.5	34.8	54.8	100.0	(3.53)
	성남시 중원구	(232)	2.2	8.7	33.7	45.1	10.3	10.9	33.7	55.4	100.0	(3.53)
	성남시 분당구	(508)	1.6	8.3	33.0	43.9	13.3	9.9	33.0	57.1	100.0	(3.59)
학력	고졸 이하	(146)	4.1	14.5	41.8	29.3	10.3	18.6	41.8	39.6	100.0	(3.2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6	7.3	30.3	41.4	19.3	8.9	30.3	60.8	100.0	(3.70)
	대학 졸업 이상	(672)	1.6	7.2	32.8	48.0	10.4	8.8	32.8	58.4	100.0	(3.5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2	7.7	33.2	43.3	13.6	9.9	33.2	56.9	100.0	(3.5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5	8.3	32.7	51.8	6.7	8.8	32.7	58.5	100.0	(3.56)
	별거·이혼·사별	(32)	6.3	22.0	49.8	15.6	6.3	28.3	49.8	21.9	100.0	(2.94)

### ③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신이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1.1%, '별로 그렇지 않다'가 17.8%, '매우 그렇다'가 8.9%,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40.0%, '그렇지 않다'가 23.1%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3.4%, 여성은 36.5%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7.9%, 25세~29세는 41.6%로 '그렇다'가 나타났다. 30세~34세는 39.5%, 35세~39세는 40.8%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8.6%, 성남시 중원구는 39.2%, 성남시 분당구는 41.1%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2.5%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4.9%, 대학 졸업 이상은 38.9%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2.0%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37.9%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0.8%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6〉 정치적 효능감\_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6〉 정치적 효능감\_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5.4	17.8	36.9	31.1	8.9	23.1	36.9	40.0	100.0	(3.20)
성별	남성	(517)	4.1	14.8	37.8	34.7	8.6	18.8	37.8	43.4	100.0	(3.29)
	여성	(491)	6.7	20.9	35.9	27.3	9.2	27.6	35.9	36.5	100.0	(3.11)
연령	19세-24세	(214)	5.6	13.0	33.5	35.7	12.1	18.6	33.5	47.9	100.0	(3.36)
	25세-29세	(256)	5.8	19.7	32.8	31.3	10.4	25.5	32.8	41.6	100.0	(3.21)
	30세-34세	(282)	5.3	17.1	39.5	29.5	8.5	22.4	39.5	38.1	100.0	(3.19)
	35세-39세	(255)	4.7	20.5	40.8	28.8	5.1	25.3	40.8	34.0	100.0	(3.0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9	21.3	35.2	30.4	8.3	26.2	35.2	38.6	100.0	(3.16)
	성남시 중원구	(232)	4.3	19.2	37.3	30.1	9.1	23.5	37.3	39.2	100.0	(3.20)
	성남시 분당구	(508)	6.1	15.2	37.5	31.9	9.2	21.3	37.5	41.1	100.0	(3.23)
학력	고졸 이하	(146)	9.6	21.9	42.5	21.9	4.1	31.6	42.5	26.0	100.0	(2.8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5.3	11.5	28.4	39.2	15.7	16.8	28.4	54.9	100.0	(3.48)
	대학 졸업 이상	(672)	4.5	18.6	38.0	30.8	8.0	23.1	38.0	38.9	100.0	(3.1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6	16.8	36.6	32.7	9.3	21.5	36.6	42.0	100.0	(3.25)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8	19.2	37.9	26.9	8.3	26.9	37.9	35.2	100.0	(3.09)
	별거·이혼·사별	(32)	9.2	31.6	37.5	18.8	3.0	40.8	37.5	21.8	100.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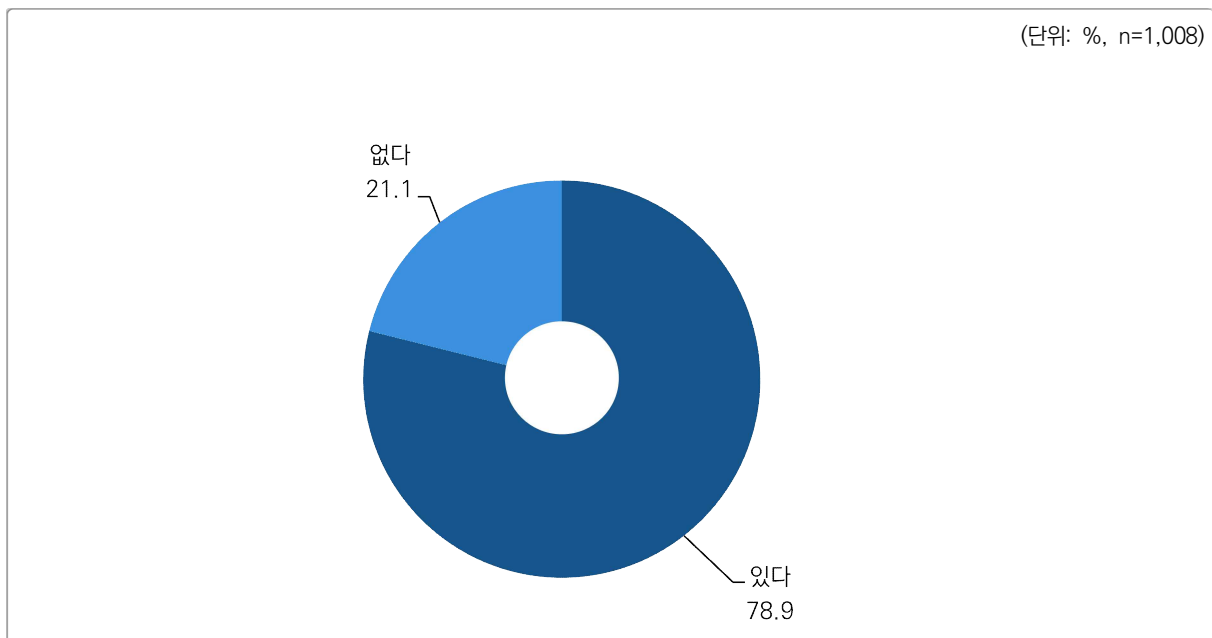


## (2)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 ① 가족 또는 친척

■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가족 또는 친척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있다'는 78.9%, '없다'는 21.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5.2%, 여성은 82.8%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3.9%, 25세~29세는 77.2%, 30세~34세는 78.3%, 35세~39세는 77.1%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6.4%, 성남시 중원구는 75.0%, 성남시 분당구는 82.0%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2.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2.8%, 대학 졸업 이상은 81.4%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8.9%, 배우자 있음은 84.0%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2.9%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7〉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7〉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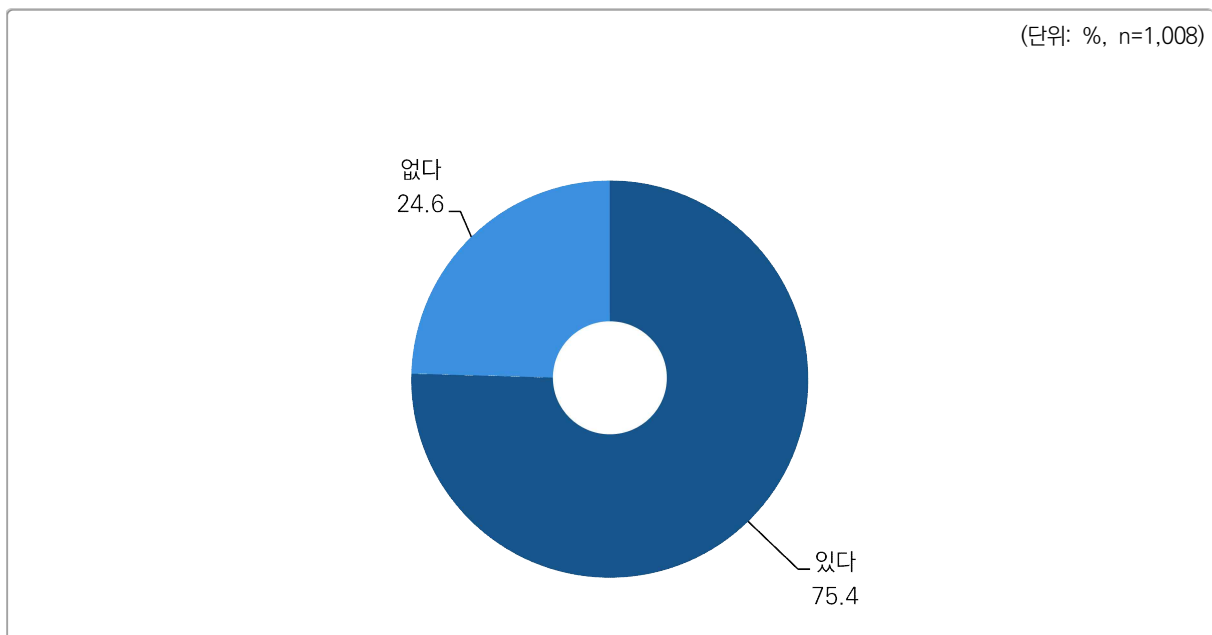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8)	78.9	21.1	100.0
성별	남성	(517)	75.2	24.8	100.0
	여성	(491)	82.8	17.2	100.0
연령	19세-24세	(214)	83.9	16.1	100.0
	25세-29세	(256)	77.2	22.8	100.0
	30세-34세	(282)	78.3	21.7	100.0
	35세-39세	(255)	77.1	22.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6.4	23.6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75.0	25.0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82.0	18.0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62.3	37.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2.8	17.2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81.4	18.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8.9	21.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84.0	16.0	100.0
	별거·이혼·사별	(32)	47.1	52.9	100.0

## ②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 업무상 접촉은 제외하고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있다'는 75.4%, '없다'는 24.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3.5%, 여성은 77.5%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4.7%, 25세~29세는 77.1%, 30세~34세는 71.5%, 35세~39세는 70.4%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0.8%, 성남시 중원구는 70.5%, 성남시 분당구는 80.2%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4.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6.3%, 대학 졸업 이상은 77.0%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6.7%, 배우자 있음은 73.1%, 별거·이혼·사별은 59.3%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3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_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8)	75.4	24.6	100.0
성별	남성	(517)	73.5	26.5	100.0
	여성	(491)	77.5	22.5	100.0
연령	19세-24세	(214)	84.7	15.3	100.0
	25세-29세	(256)	77.1	22.9	100.0
	30세-34세	(282)	71.5	28.5	100.0
	35세-39세	(255)	70.4	29.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0.8	29.2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70.5	29.5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80.2	19.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54.0	46.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6.3	13.7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77.0	23.0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6.7	23.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3.1	26.9	100.0
	별거·이혼·사별	(32)	59.3	4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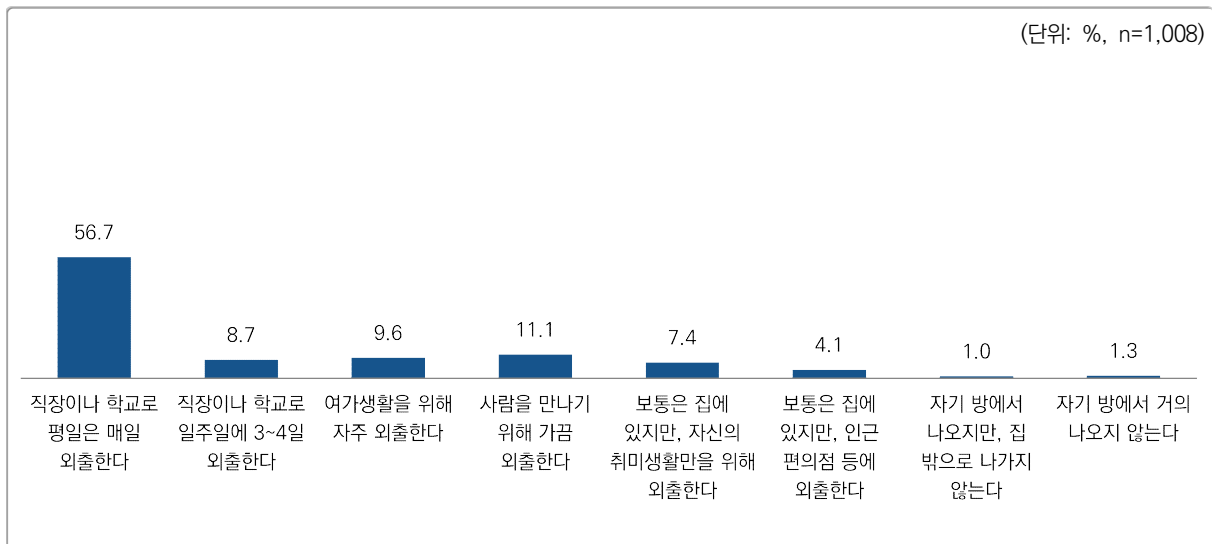
## 2) 참여

### (1) 외출 빈도

▣ 평소에 얼마나 외출하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가 11.1%,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가 9.8%,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가 8.7%,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7.4%,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가 4.1%,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1.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8.6%, 여성은 54.7%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6.2%, 25세~29세는 56.2%, 30세~34세는 59.0%, 35세~39세는 55.0%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8.0%, 성남시 중원구는 55.3%, 성남시 분당구는 61.9%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2.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8.5%, 대학 졸업 이상은 61.5%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7.3%, 배우자 있음은 63.2%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4.3%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9〉 외출 빈도



〈표 2-39〉 외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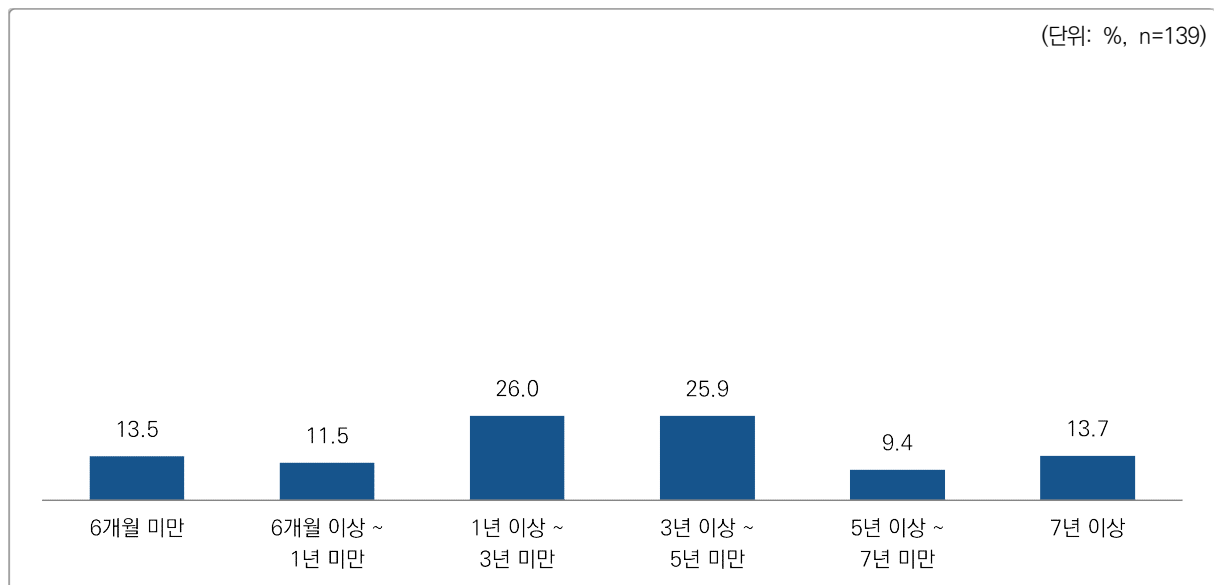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 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계
전체		(1,008)	56.7	8.7	9.6	11.1	7.4	4.1	1.0	1.3	100.0
성별	남성	(517)	58.6	6.0	9.3	10.6	8.5	4.6	1.0	1.6	100.0
	여성	(491)	54.7	11.6	10.0	11.7	6.4	3.5	1.0	1.0	100.0
연령	19세~24세	(214)	56.2	14.1	5.6	9.7	6.9	4.2	1.9	1.4	100.0
	25세~29세	(256)	56.2	10.8	10.4	10.5	7.0	3.5	0.8	0.8	100.0
	30세~34세	(282)	59.0	6.4	8.6	12.8	8.2	3.9	0.7	0.4	100.0
	35세~39세	(255)	55.0	4.7	13.4	11.1	7.5	4.7	0.8	2.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8.0	6.0	12.0	14.6	10.1	6.0	1.9	1.5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55.3	6.1	10.0	12.6	9.1	4.3	1.3	1.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61.9	11.4	8.2	8.7	5.3	2.9	0.4	1.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2.0	11.0	11.7	15.8	17.1	5.4	3.4	3.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58.5	11.5	8.5	9.9	6.3	3.7	1.6	-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61.5	7.4	9.5	10.5	5.7	3.9	0.3	1.2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7.3	9.6	8.7	11.0	6.6	4.3	1.0	1.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63.2	6.2	11.9	9.3	6.2	2.1	-	1.0	100.0
	별거·이혼·사별	(32)	3.1	3.2	18.9	25.0	34.3	9.3	6.3	-	100.0

## (2) 은둔생활 상태 지속 기간

- 현재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25.9%, '7년 이상'이 13.7%, '6개월 미만'이 13.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1.5%, '5년 이상~7년 미만'이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7.2%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1.1%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6.0%, 25세~29세는 25.8%, 30세~34세는 35.1%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세~39세는 32.5%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8.9%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29.7%, 성남시 분당구는 26.1%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7.4%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5.5%, 대학 졸업 이상은 24.4%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7.7%, 배우자 있음은 33.4%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7.7%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0〉 은둔생활 상태 지속 기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0〉 은둔생활 상태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계
전체		(139)	13.5	11.5	26.0	25.9	9.4	13.7	100.0
성별	남성	(81)	14.6	4.9	22.3	27.2	13.7	17.3	100.0
	여성	(58)	12.0	20.7	31.1	24.1	3.5	8.7	100.0
연령	19세~24세	(31)	19.0	19.6	26.0	25.7	6.5	3.1	100.0
	25세~29세	(31)	19.2	9.5	25.8	19.4	16.3	9.7	100.0
	30세~34세	(37)	10.8	13.6	35.1	24.3	8.1	8.1	100.0
	35세~39세	(40)	7.5	5.0	17.5	32.5	7.4	30.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2)	13.4	11.6	28.9	23.0	13.5	9.6	100.0
	성남시 중원구	(37)	13.3	10.9	27.2	29.7	8.2	10.8	100.0
	성남시 분당구	(50)	13.9	12.0	21.9	26.1	6.0	20.2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11.4	2.3	18.6	37.4	18.6	11.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22)	9.1	18.2	45.5	27.1	-	-	100.0
	대학 졸업 이상	(74)	16.1	14.9	24.4	18.9	6.8	18.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05)	14.1	12.4	27.7	23.8	6.7	15.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	16.6	11.2	33.4	27.7	5.6	5.6	100.0
	별거·이혼·사별	(16)	6.2	6.2	6.0	37.7	31.5	1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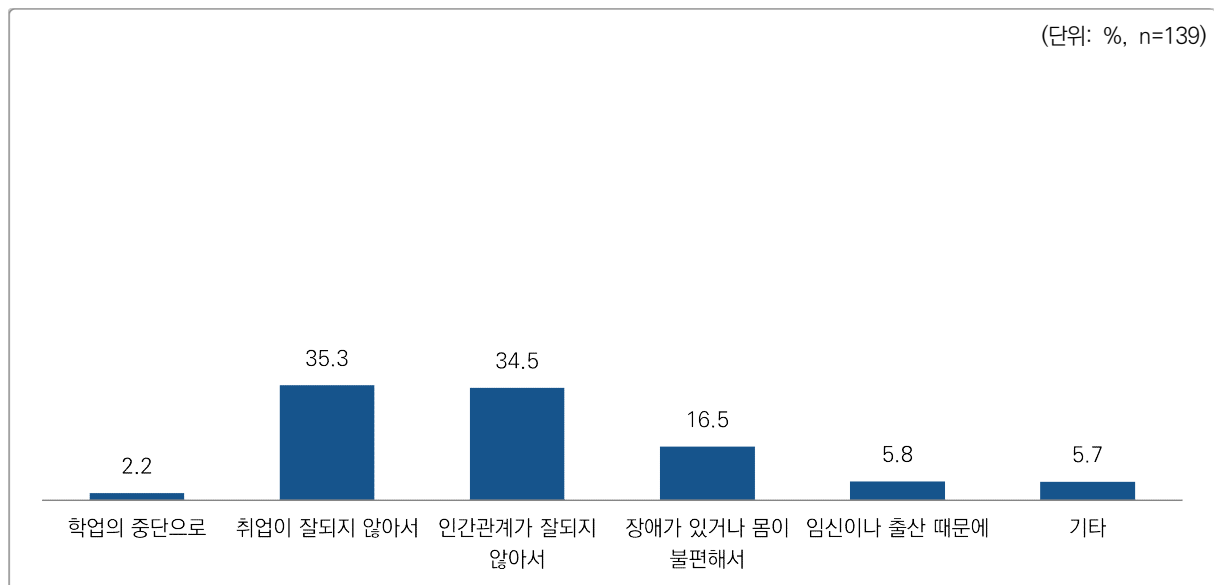


### (3) 은둔생활을 하게 된 이유

■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34.5%,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가 16.5%,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가 5.8% 그리고 '학업의 중단으로'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8.2%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4.5%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8.9%, 25세~29세는 38.7%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43.1%, 35세~39세는 40.0%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0.4%, 성남시 중원구는 37.9%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44.0%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7.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6.3%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43.2%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4.8%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39.1%, 별거·이혼·사별은 37.4%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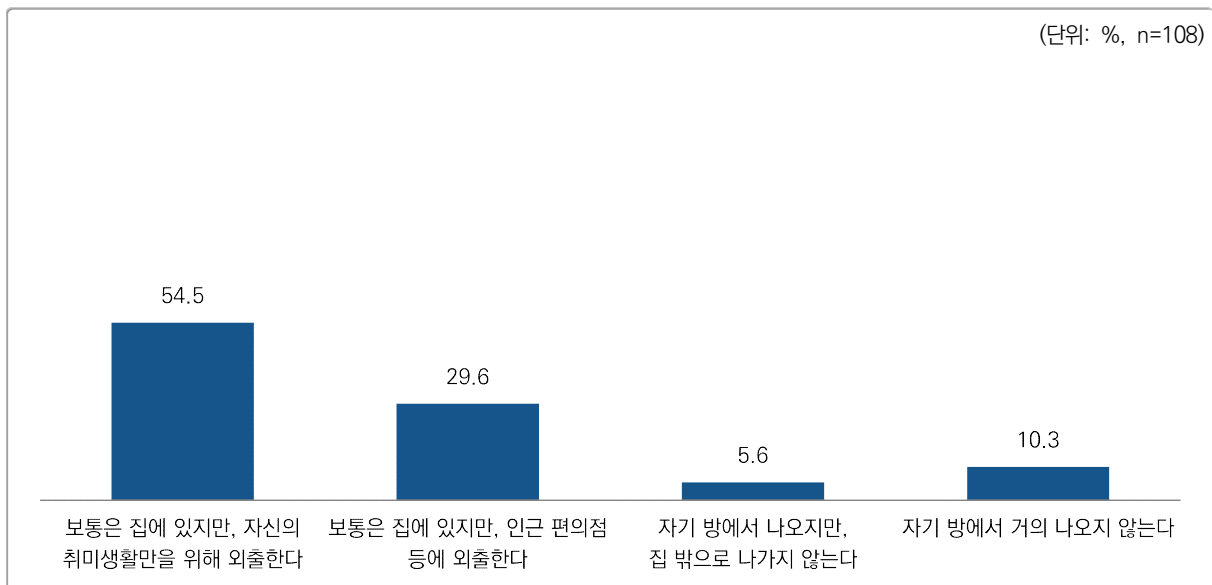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업의 중단으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139)	2.2	35.3	34.5	16.5	5.8	5.7	100.0
성별	남성	(81)	2.5	35.9	38.2	17.2	2.5	3.7	100.0
	여성	(58)	1.7	34.5	29.4	15.5	10.4	8.6	100.0
연령	19세-24세	(31)	3.3	38.9	25.8	25.6	-	6.5	100.0
	25세-29세	(31)	3.3	38.7	25.6	16.2	9.9	6.3	100.0
	30세-34세	(37)	-	38.0	43.1	10.8	2.7	5.4	100.0
	35세-39세	(40)	2.5	27.4	40.0	15.0	10.0	5.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2)	2.0	40.4	30.7	15.3	7.8	3.9	100.0
	성남시 중원구	(37)	2.7	37.9	27.1	24.1	5.5	2.7	100.0
	성남시 분당구	(50)	2.0	28.0	44.0	12.0	4.0	9.9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	23.3	37.2	27.7	9.5	2.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22)	-	31.9	36.3	18.1	9.1	4.6	100.0
	대학 졸업 이상	(74)	4.1	43.2	32.4	9.5	2.7	8.1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05)	1.9	44.8	33.3	14.3	1.0	4.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	-	11.1	39.1	5.5	27.7	16.6	100.0
	별거·이혼·사별	(16)	6.3	-	37.4	43.5	12.7	-	100.0

#### (4)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임신, 출산, 장애 제외)

-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가 29.6%,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10.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5.2%, 여성은 53.5%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9%, 25세~29세는 60.7%, 30세~34세는 62.6%, 35세~39세는 43.3%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0.1%, 성남시 중원구는 61.5%, 성남시 분당구는 54.5%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9.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2.2%, 대학 졸업 이상은 50.8%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0.4%, 배우자 있음은 66.8%, 별거·이혼·사별은 85.6%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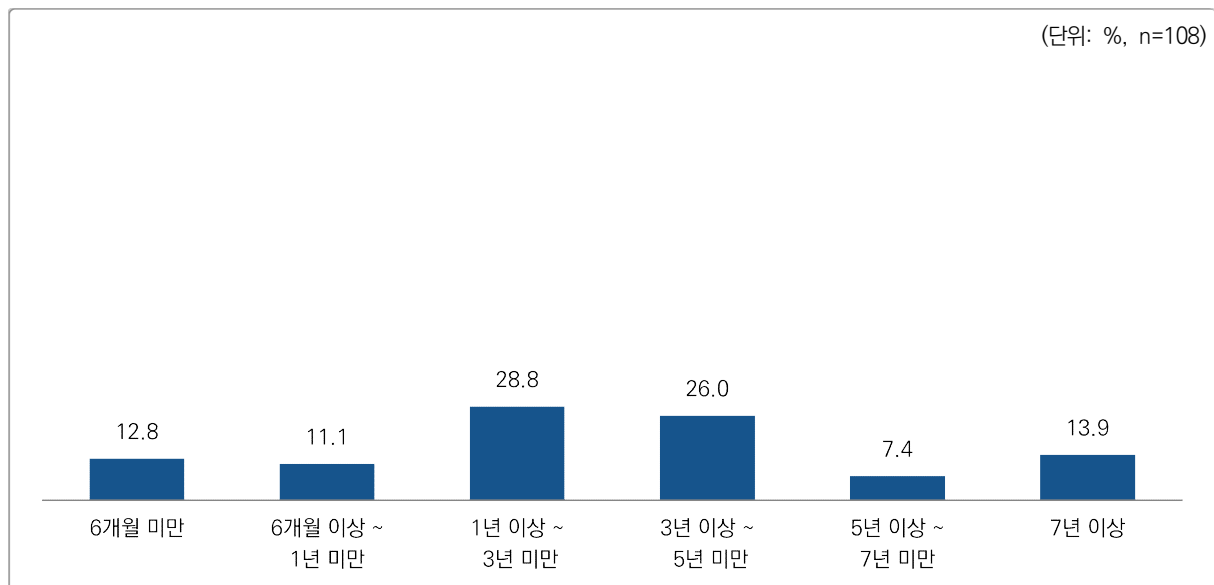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계
전체		(108)	54.5	29.6	5.6	10.3	100.0
성별	남성	(65)	55.2	29.2	4.7	10.9	100.0
	여성	(43)	53.5	30.3	6.9	9.3	100.0
연령	19세-24세	(23)	51.9	26.3	8.7	13.0	100.0
	25세-29세	(23)	60.7	26.0	8.8	4.5	100.0
	30세-34세	(32)	62.6	31.2	3.2	3.1	100.0
	35세-39세	(30)	43.3	33.3	3.3	20.1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40)	50.1	32.5	10.0	7.5	100.0
	성남시 중원구	(26)	61.5	26.9	3.9	7.7	100.0
	성남시 분당구	(42)	54.5	28.6	2.4	14.5	100.0
학력	고졸 이하	(27)	59.1	18.6	7.4	14.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6)	62.2	25.1	12.7	-	100.0
	대학 졸업 이상	(65)	50.8	35.3	3.1	10.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89)	50.4	31.5	6.8	11.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2)	66.8	24.9	-	8.3	100.0
	별거·이혼·사별	(7)	85.6	14.4	-	-	100.0

(5)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임신, 출산, 장애 제외)의 은둔 기간

■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26.0%, '7년 이상'이 13.9%, '6개월 미만'이 12.8%,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1.1%, '5년 이상~7년 미만'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6.2%, 여성은 32.6%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0.6%, 25세~29세는 35.0%, 30세~34세는 34.4%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36.7%로 '7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5.1%, 성남시 중원구는 30.9%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4.0%로 '3년 이상~5년 미만'과 '7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4.7%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0.1%, 대학 졸업 이상은 23.2%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9.3%, 배우자 있음은 33.4%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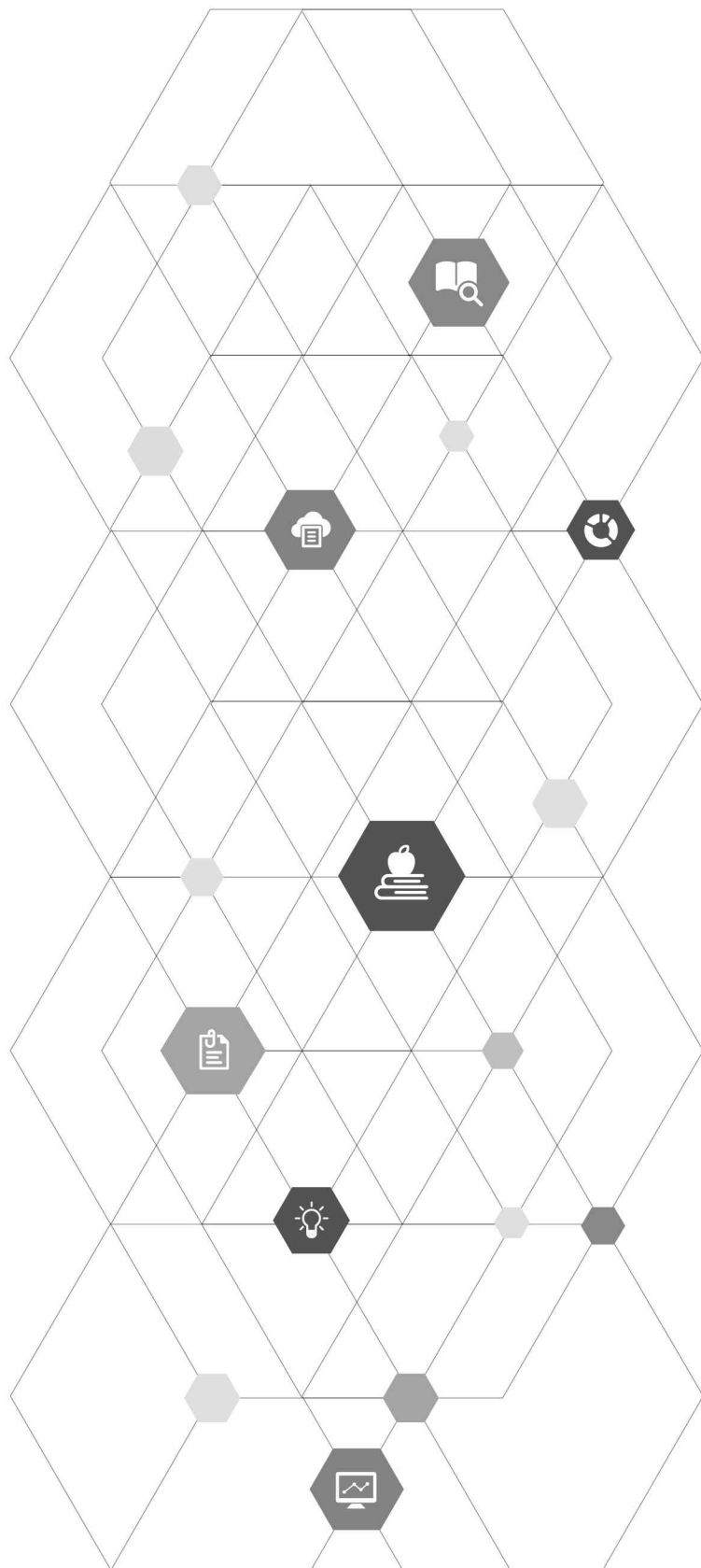
〈표 2-4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계
전체		(108)	12.8	11.1	28.8	26.0	7.4	13.9	100.0
성별	남성	(65)	13.6	6.1	26.2	24.7	10.8	18.6	100.0
	여성	(43)	11.6	18.6	32.6	27.9	2.3	7.0	100.0
연령	19세~24세	(23)	17.1	22.0	30.6	25.9	4.4	-	100.0
	25세~29세	(23)	25.9	8.6	35.0	13.2	13.1	4.2	100.0
	30세~34세	(32)	9.3	12.6	34.4	28.1	6.3	9.4	100.0
	35세~39세	(30)	3.3	3.4	16.7	33.3	6.6	36.7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40)	9.9	12.6	35.1	27.5	7.5	7.4	100.0
	성남시 중원구	(26)	11.3	11.6	30.9	26.9	11.6	7.8	100.0
	성남시 분당구	(42)	16.5	9.5	21.3	24.0	4.7	24.0	100.0
학력	고졸 이하	(27)	7.2	-	29.6	44.7	14.8	3.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6)	12.5	12.6	50.1	24.8	-	-	100.0
	대학 졸업 이상	(65)	15.2	15.4	23.2	18.5	6.2	21.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89)	13.3	12.4	29.3	23.6	5.6	15.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2)	8.2	8.4	33.4	33.3	8.4	8.3	100.0
	별거·이혼·사별	(7)	14.2	-	13.7	43.2	28.9	-	100.0

# 04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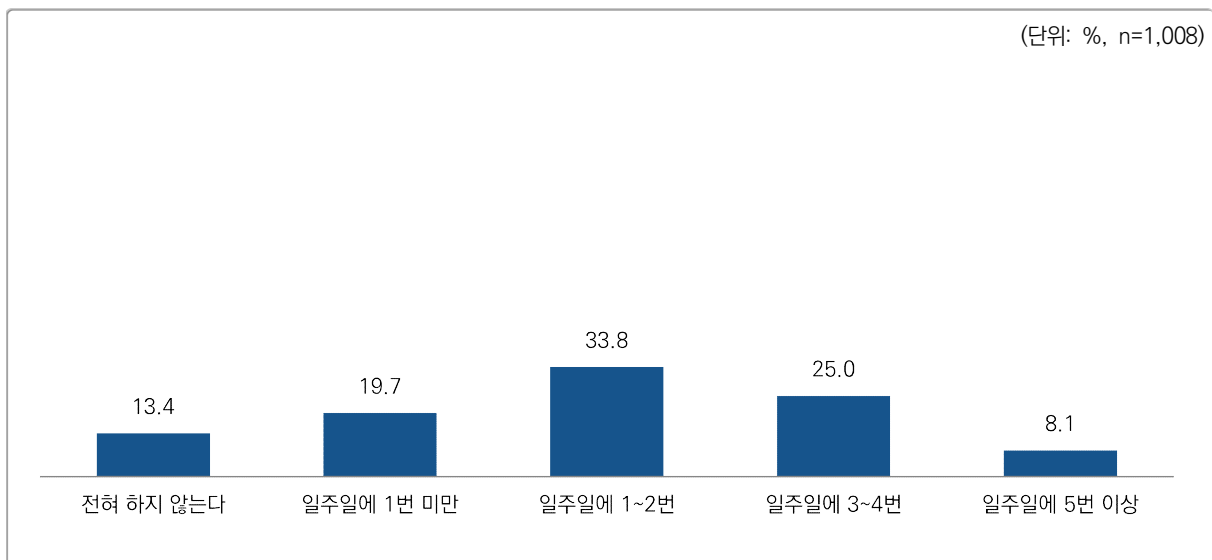
## 4 건강

### 1) 신체 및 정신

#### (1) 규칙적인 운동 빈도

■ 규칙적인 운동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번'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3~4번'이 25.0%, '일주일에 1번 미만'이 19.7%, '전혀 하지 않는다'이 13.4%, '일주일에 5번 이상'이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34.0%, 여성은 37.3%로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4.0%, 30세~34세는 35.2%, 35세~39세는 36.8%로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31.3%로 '일주일에 3~4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2.6%, 성남시 중원구는 33.4%, 성남시 분당구는 34.7%로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0.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5.6%, 대학 졸업 이상은 34.0%로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2.8%, 배우자 있음은 37.3%, 별거·이혼·사별은 37.5%로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4〉 규칙적인 운동 빈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4〉 규칙적인 운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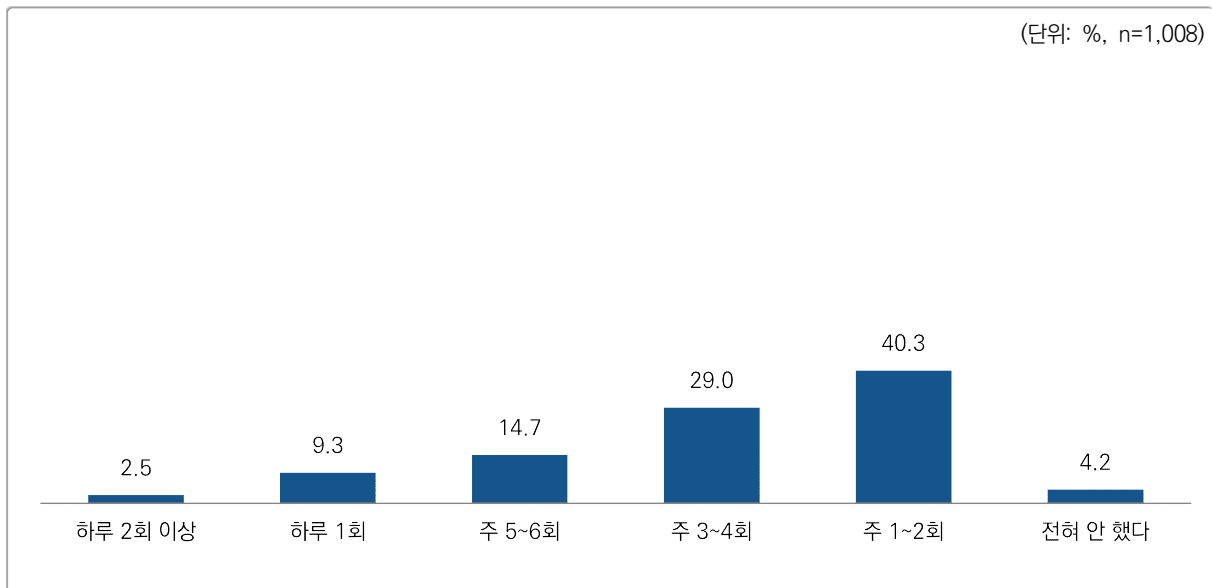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번 미만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번 이상	계
전체		(1,008)	13.4	19.7	33.8	25.0	8.1	100.0
성별	남성	(517)	11.7	20.6	30.6	27.5	9.7	100.0
	여성	(491)	15.2	18.6	37.3	22.3	6.6	100.0
연령	19세~24세	(214)	18.7	21.4	34.0	19.8	6.0	100.0
	25세~29세	(256)	14.7	17.4	29.3	31.3	7.3	100.0
	30세~34세	(282)	10.3	18.9	35.2	25.3	10.4	100.0
	35세~39세	(255)	11.1	21.4	36.8	22.5	8.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3.1	22.0	32.6	25.1	7.1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2.6	18.3	33.4	26.7	9.1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3.9	19.1	34.7	24.1	8.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1.3	24.6	30.9	15.0	8.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5.3	22.6	35.6	20.8	5.7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1.1	17.8	34.0	28.3	8.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3.5	19.4	32.8	26.3	7.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1.9	18.2	37.3	22.8	9.8	100.0
	별거·이혼·사별	(32)	18.7	34.4	37.5	6.3	3.2	100.0

## (2)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외식 또는 매식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1~2회'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3~4회'가 29.0%, '주 5~6회'가 14.7%, '하루 1회'가 9.3%, '전혀 안 했다'가 4.2%, '하루 2회 이상'이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36.0%, 여성은 44.9%로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8.7%, 25세~29세는 35.5%, 30세~34세는 46.7%, 35세~39세는 39.5%로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2.7%, 성남시 중원구는 40.0%, 성남시 분당구는 39.2%로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3.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6.9%, 대학 졸업 이상은 42.8%로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9.7%, 배우자 있음은 47.6%로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7.8%로 '주 3~4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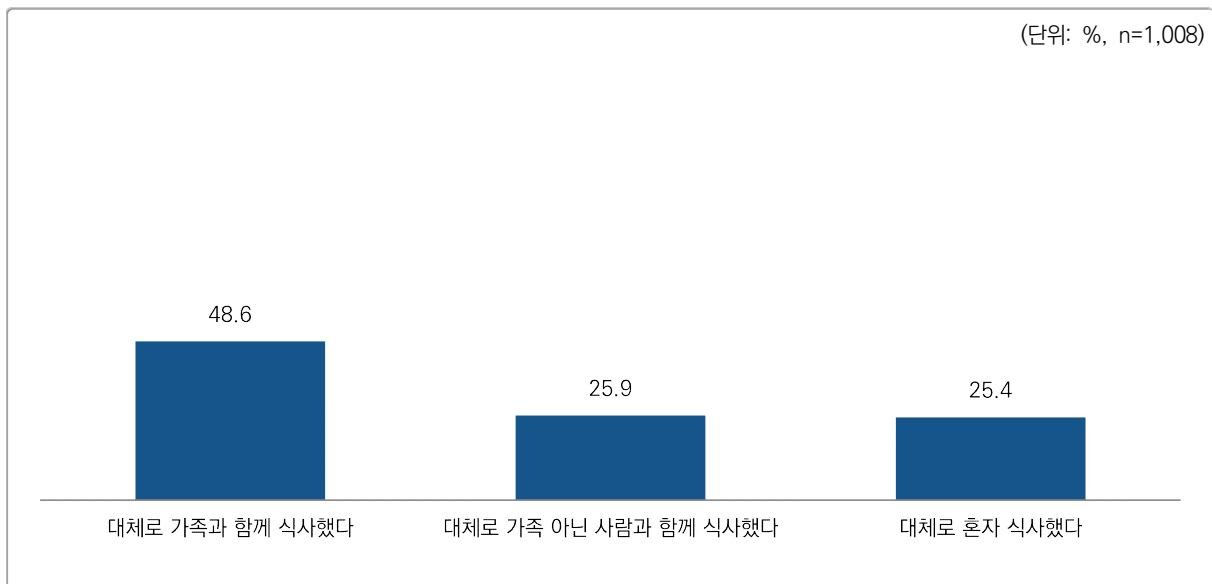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전혀 안 했다	계
전체		(1,008)	2.5	9.3	14.7	29.0	40.3	4.2	100.0
성별	남성	(517)	2.7	9.6	17.7	29.8	36.0	4.2	100.0
	여성	(491)	2.3	9.0	11.5	28.3	44.9	4.1	100.0
연령	19세~24세	(214)	2.3	7.4	16.2	30.2	38.7	5.1	100.0
	25세~29세	(256)	1.5	11.9	14.8	31.3	35.5	5.0	100.0
	30세~34세	(282)	3.9	9.3	15.3	22.0	46.7	2.9	100.0
	35세~39세	(255)	2.0	8.3	12.7	33.6	39.5	3.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6	8.6	17.2	24.0	42.7	4.9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2	11.3	16.4	26.2	40.0	3.9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2.5	8.8	12.6	33.0	39.2	3.9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7	13.0	16.5	27.4	33.5	6.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6	8.4	16.7	32.8	36.9	2.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4	8.8	13.7	28.3	42.8	4.0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4	9.6	14.0	29.2	39.7	5.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	7.8	14.5	27.0	47.6	0.5	100.0
	별거·이혼·사별	(32)	3.1	12.5	31.2	37.8	12.4	3.1	100.0

## (3)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체로 가족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가 25.9%,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가 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43.4%, 여성은 54.1%로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0.8%, 25세~29세는 39.9%, 30세~34세는 50.2%, 35세~39세는 53.8%로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5.0%, 성남시 중원구는 43.4%, 성남시 분당구는 53.0%로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2.4%로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8.2%, 대학 졸업 이상은 50.4%로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1.6%, 배우자 있음은 82.9%로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6.9%로 '대체로 가족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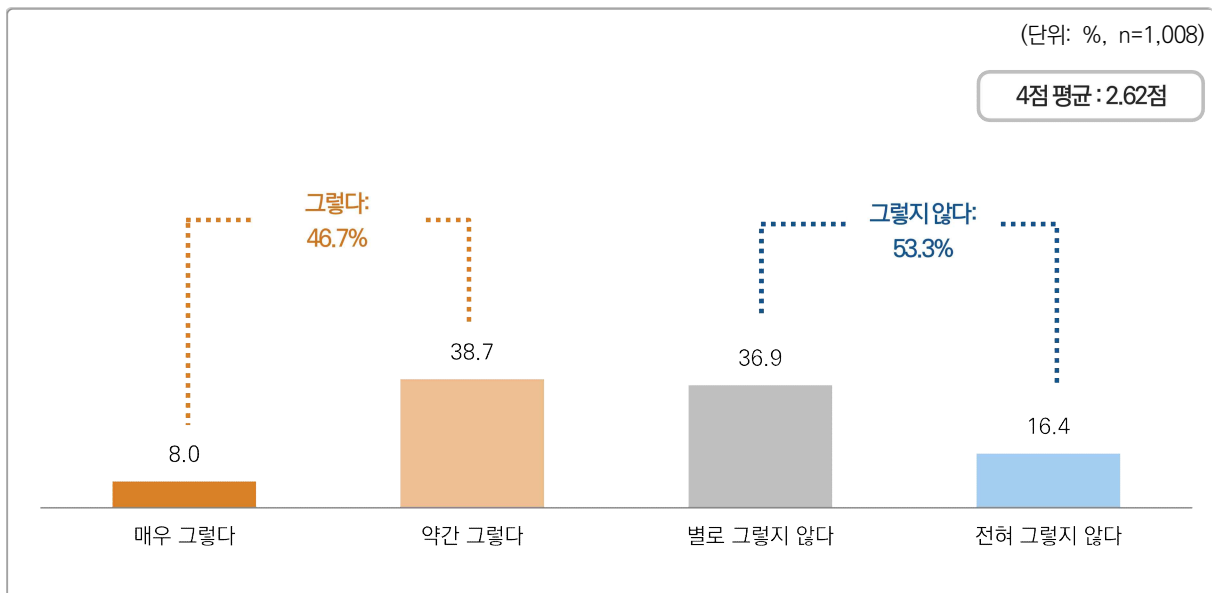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대체로 가족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	계
전체		(1,008)	48.6	25.9	25.4	100.0
성별	남성	(517)	43.4	29.6	27.0	100.0
	여성	(491)	54.1	22.1	23.8	100.0
연령	19세-24세	(214)	50.8	27.4	21.8	100.0
	25세-29세	(256)	39.9	31.7	28.4	100.0
	30세-34세	(282)	50.2	25.3	24.6	100.0
	35세-39세	(255)	53.8	19.7	26.5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5.0	24.0	31.1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43.4	30.6	25.9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3.0	24.8	22.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8.1	29.5	42.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58.2	27.6	14.2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50.4	24.7	24.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1.6	28.6	29.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82.9	11.9	5.2	100.0
	별거·이혼·사별	(32)	12.4	46.9	40.7	100.0

#### (4)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36.9%,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4%, ‘매우 그렇다’가 8.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53.3%, ‘그렇다’는 46.7%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9.0%로 ‘그렇지 않다’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52.7%로 ‘그렇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4.3%, 25세~29세는 56.3%, 30세~34세는 53.0%로 ‘그렇지 않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50.2%로 ‘그렇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중원구는 50.3%로 ‘그렇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는 52.8%, 성남시 분당구는 55.2%로 ‘그렇지 않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2.9%로 ‘그렇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8.0%, 대학 졸업 이상은 53.3%로 ‘그렇지 않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배우자 있음은 51.4%로 ‘그렇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비혼은 54.5%, 별거·이혼·사별은 53.1%로 ‘그렇지 않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7〉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7〉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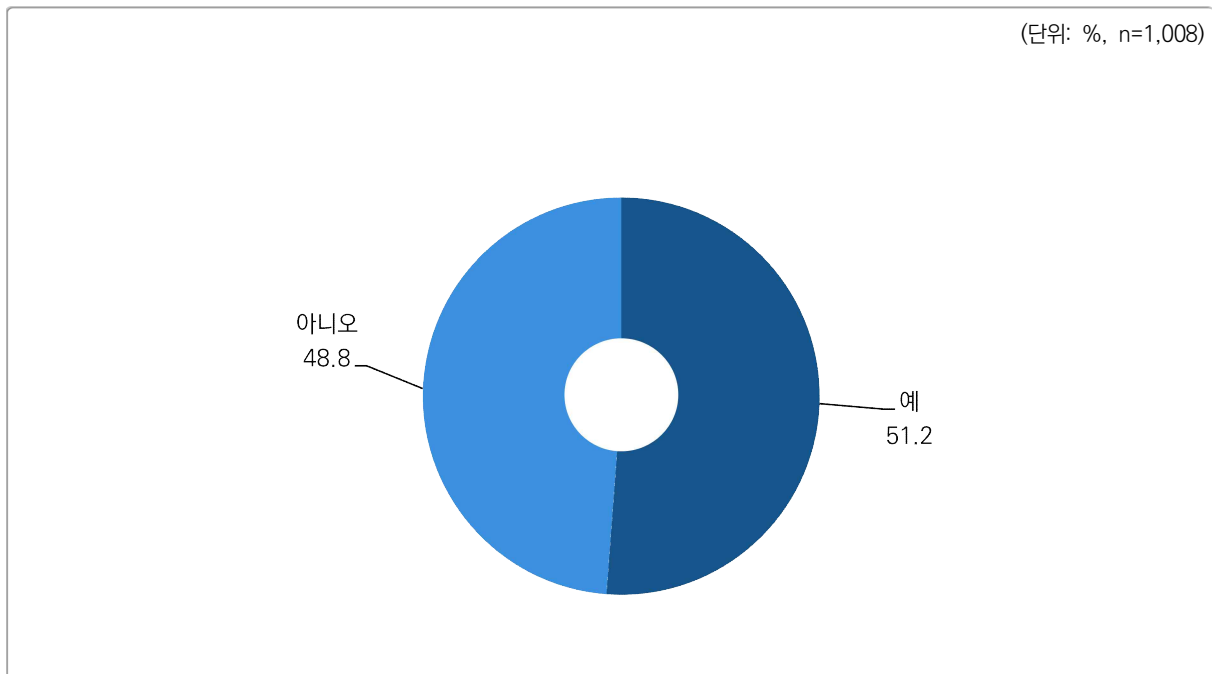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8.0	38.7	36.9	16.4	46.7	53.3	100.0	(2.62)
성별	남성	(517)	6.7	34.3	43.8	15.2	41.0	59.0	100.0	(2.67)
	여성	(491)	9.2	43.5	29.7	17.6	52.7	47.3	100.0	(2.56)
연령	19세-24세	(214)	9.3	36.3	37.0	17.3	45.7	54.3	100.0	(2.62)
	25세-29세	(256)	7.0	36.7	41.6	14.7	43.7	56.3	100.0	(2.64)
	30세-34세	(282)	9.6	37.4	33.1	19.9	47.0	53.0	100.0	(2.63)
	35세-39세	(255)	5.9	44.3	36.4	13.4	50.2	49.8	100.0	(2.5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9.0	38.2	34.4	18.4	47.2	52.8	100.0	(2.62)
	성남시 중원구	(232)	10.0	40.4	34.0	15.6	50.3	49.7	100.0	(2.55)
	성남시 분당구	(508)	6.5	38.3	39.5	15.7	44.8	55.2	100.0	(2.64)
학력	고졸 이하	(146)	12.4	40.5	34.8	12.4	52.9	47.1	100.0	(2.4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8	35.2	39.5	18.4	42.0	58.0	100.0	(2.70)
	대학 졸업 이상	(672)	7.3	39.4	36.6	16.7	46.7	53.3	100.0	(2.63)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6	38.0	37.1	17.4	45.5	54.5	100.0	(2.6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9	41.5	34.7	14.0	51.4	48.6	100.0	(2.53)
	별거·이혼·사별	(32)	6.1	40.8	46.8	6.3	46.9	53.1	100.0	(2.53)



### (5)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51.2%, '아니오'가 48.8%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8.5%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61.4%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2.7%, 25세~29세는 50.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59.5%, 35세~39세는 55.7%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3.9%, 성남시 중원구는 52.2%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50.7%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0.7%, 대학 졸업 이상은 55.3%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2.8%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0.4%, 배우자 있음은 58.1%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71.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8〉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48〉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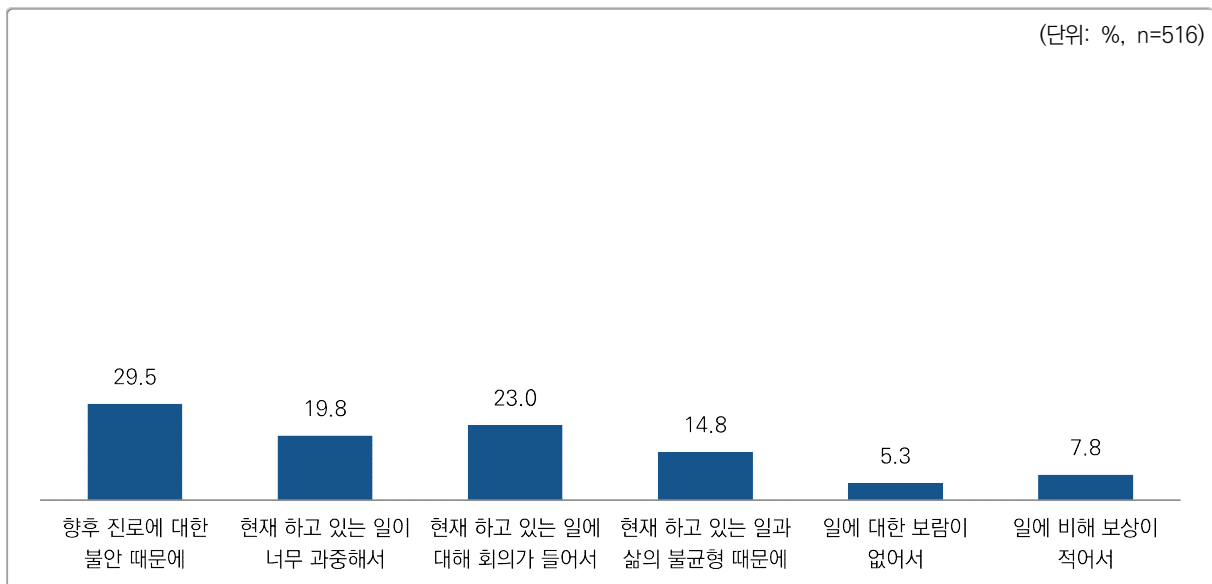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08)	51.2	48.8	100.0
성별	남성	(517)	41.5	58.5	100.0
	여성	(491)	61.4	38.6	100.0
연령	19세-24세	(214)	37.3	62.7	100.0
	25세-29세	(256)	49.1	50.9	100.0
	30세-34세	(282)	59.5	40.5	100.0
	35세-39세	(255)	55.7	44.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53.9	46.1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52.2	47.8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49.3	50.7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50.7	49.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7.2	62.8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55.3	44.7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0.4	49.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58.1	41.9	100.0
	별거·이혼·사별	(32)	28.1	71.9	100.0

## (6)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끼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가 23.0%,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가 19.8%,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가 14.8%,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가 7.8%,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가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6.4%, 여성은 31.6%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4.9%, 25세~29세는 32.2%, 30세~34세는 28.8%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24.8%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4.8%, 성남시 분당구는 28.6%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27.6%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5.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6.5%, 대학 졸업 이상은 27.0%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3.5%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28.6%, 별거·이혼·사별은 33.8%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표 2-4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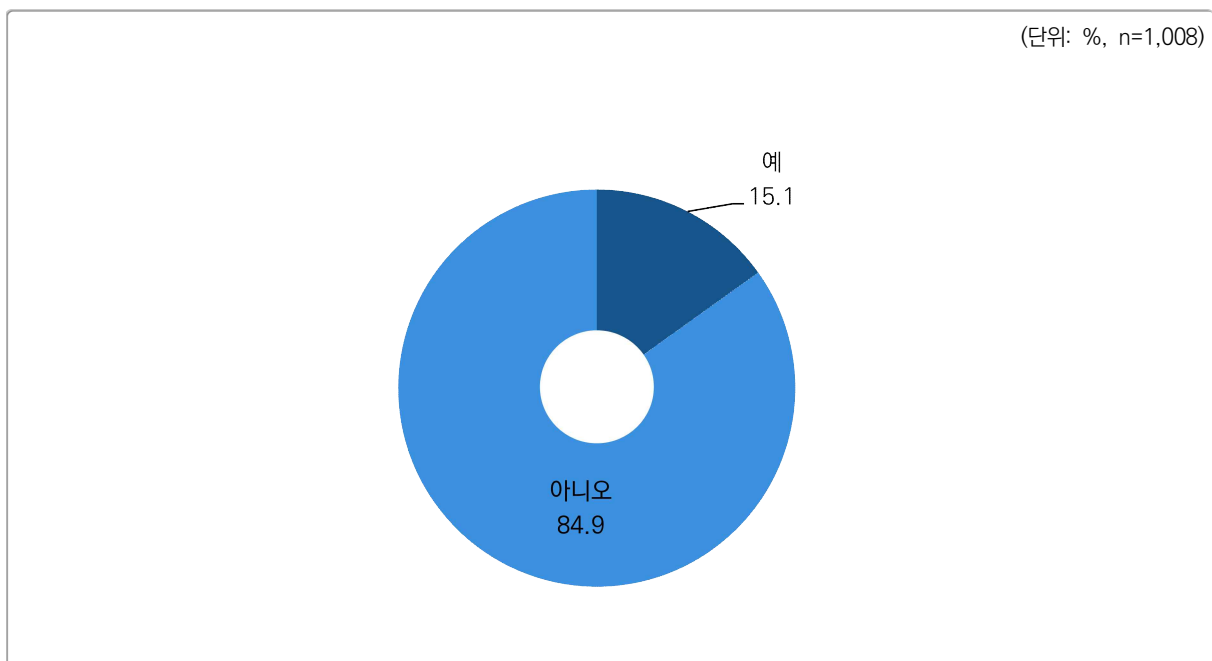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계
전체		(516)	29.5	19.8	23.0	14.8	5.3	7.8	100.0
성별	남성	(215)	26.4	25.6	24.3	13.0	5.1	5.6	100.0
	여성	(301)	31.6	15.6	22.0	16.0	5.3	9.3	100.0
연령	19세~24세	(80)	44.9	6.3	25.0	16.3	5.0	2.5	100.0
	25세~29세	(126)	32.2	21.9	22.2	13.4	3.2	7.1	100.0
	30세~34세	(168)	28.8	20.3	22.8	15.6	5.4	7.2	100.0
	35세~39세	(142)	19.1	24.8	22.7	14.2	7.1	12.1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44)	34.8	13.2	28.4	13.2	4.9	5.6	100.0
	성남시 중원구	(121)	24.8	19.2	27.6	15.0	3.3	10.0	100.0
	성남시 분당구	(250)	28.6	23.8	17.5	15.6	6.4	8.0	100.0
학력	고졸 이하	(74)	35.1	14.8	27.1	14.9	4.1	4.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71)	36.5	11.2	24.0	16.9	8.4	2.9	100.0
	대학 졸업 이상	(371)	27.0	22.4	21.9	14.4	4.9	9.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394)	33.5	19.2	21.1	14.5	4.3	7.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13)	17.0	20.5	28.6	15.2	8.9	9.8	100.0
	별거·이혼·사별	(9)	10.6	33.4	33.8	22.1	-	-	100.0

(7)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15.1%, '아니오'가 84.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7.3%, 여성은 82.4%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5.6%, 25세~29세는 88.4%, 30세~34세는 83.2%, 35세~39세는 82.6%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4.3%, 성남시 중원구는 81.3%, 성남시 분당구는 86.8%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8.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7.9%, 대학 졸업 이상은 85.5%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5.1%, 배우자 있음은 85.4%, 별거·이혼·사별은 75.1%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08)	15.1	84.9	100.0
성별	남성	(517)	12.7	87.3	100.0
	여성	(491)	17.6	82.4	100.0
연령	19세-24세	(214)	14.4	85.6	100.0
	25세-29세	(256)	11.6	88.4	100.0
	30세-34세	(282)	16.8	83.2	100.0
	35세-39세	(255)	17.4	82.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5.7	84.3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8.7	81.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3.2	86.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1.9	78.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2.1	87.9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4.5	85.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4.9	85.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4.6	85.4	100.0
	별거·이혼·사별	(32)	24.9	7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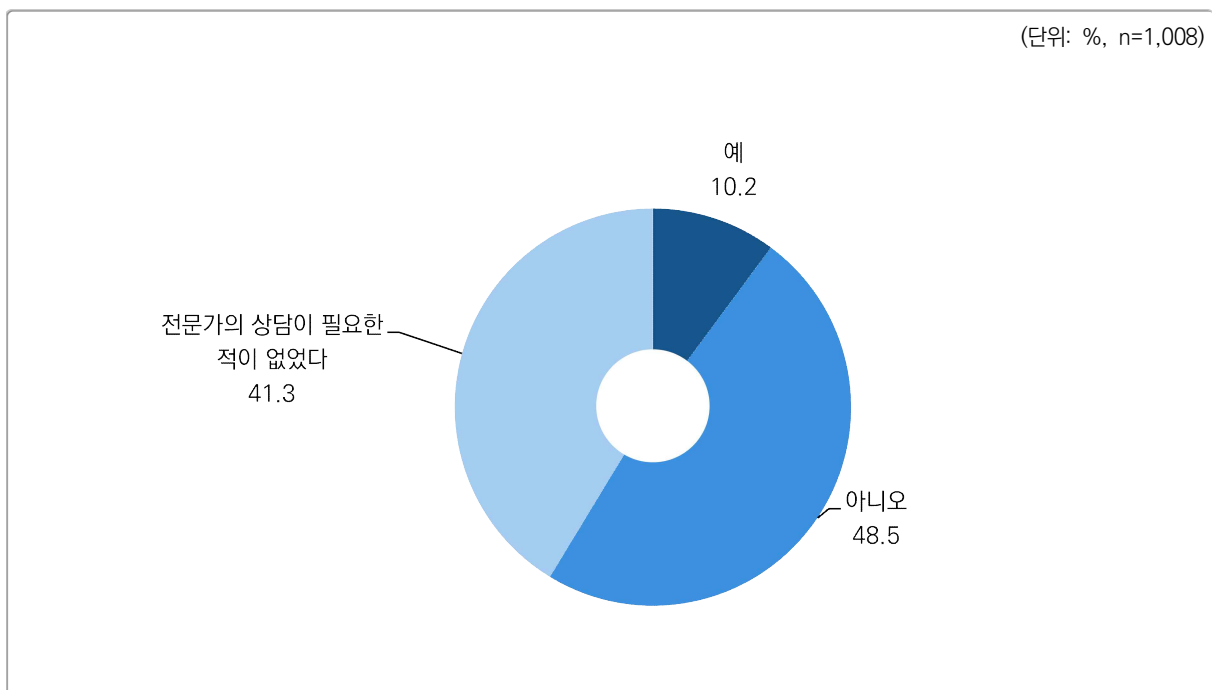
## 2) 상담 및 진료

### (1)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또는 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41.3%, '예'가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9.2%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52.6%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9.2%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47.1%, 30세~34세는 48.0%, 35세~39세는 56.5%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6%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46.0%, 성남시 분당구는 53.0%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4.5%, 대학 졸업 이상은 47.1%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0.7%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5.9%, 배우자 있음은 53.9%, 별거·이혼·사별은 81.3%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1〉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1〉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계
전체		(1,008)	10.2	48.5	41.3	100.0
성별	남성	(517)	6.7	44.7	48.6	100.0
	여성	(491)	13.7	52.6	33.6	100.0
연령	19세-24세	(214)	9.3	41.4	49.2	100.0
	25세-29세	(256)	9.7	47.1	43.2	100.0
	30세-34세	(282)	11.8	48.0	40.2	100.0
	35세-39세	(255)	9.5	56.5	34.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3.1	42.3	44.6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1.8	46.0	42.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7.9	53.0	39.1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3.7	64.5	21.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7.9	41.4	50.7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0.0	47.1	42.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9.6	45.9	44.5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2.0	53.9	34.2	100.0
	별거·이혼·사별	(32)	12.5	81.3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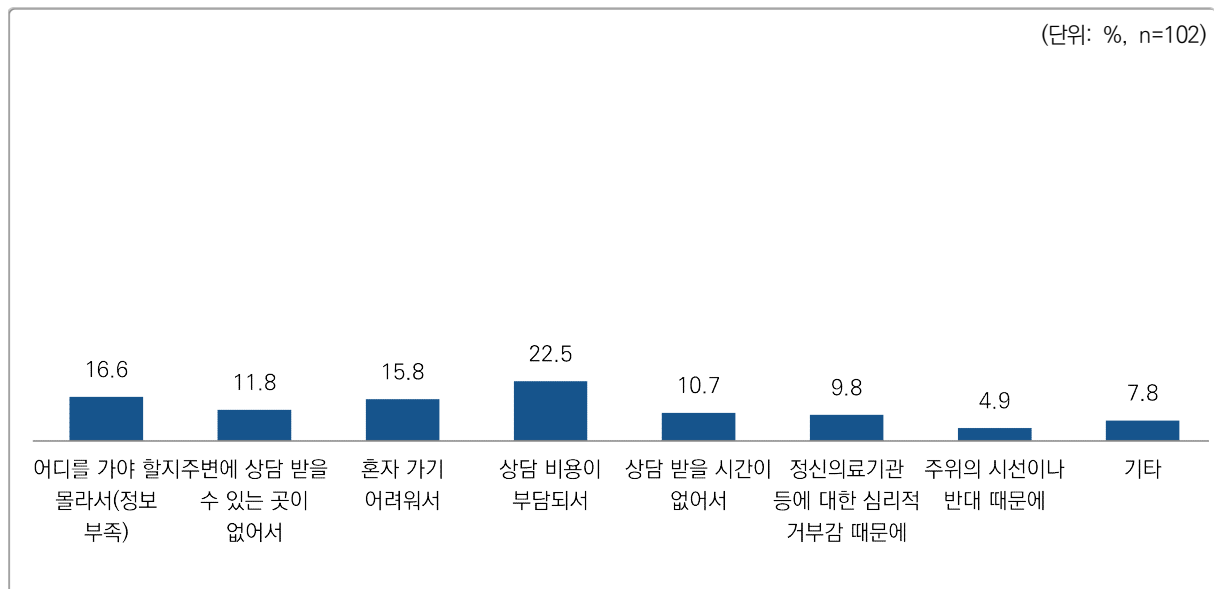


## (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가 16.6%, ‘혼자 가기 어려워서’가 15.8%, ‘주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가 11.8%,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10.7%, ‘정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가 9.8%,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3.2%로 ‘혼자 가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2.4%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4.9%, 25세~29세는 32.2%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27.3%로 ‘혼자 가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세~39세는 20.9%로 ‘주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1.4%, 성남시 중원구는 25.7%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19.8%로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0.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3.6%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16.5%로 ‘혼자 가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6.7%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21.8% ‘혼자 가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2〉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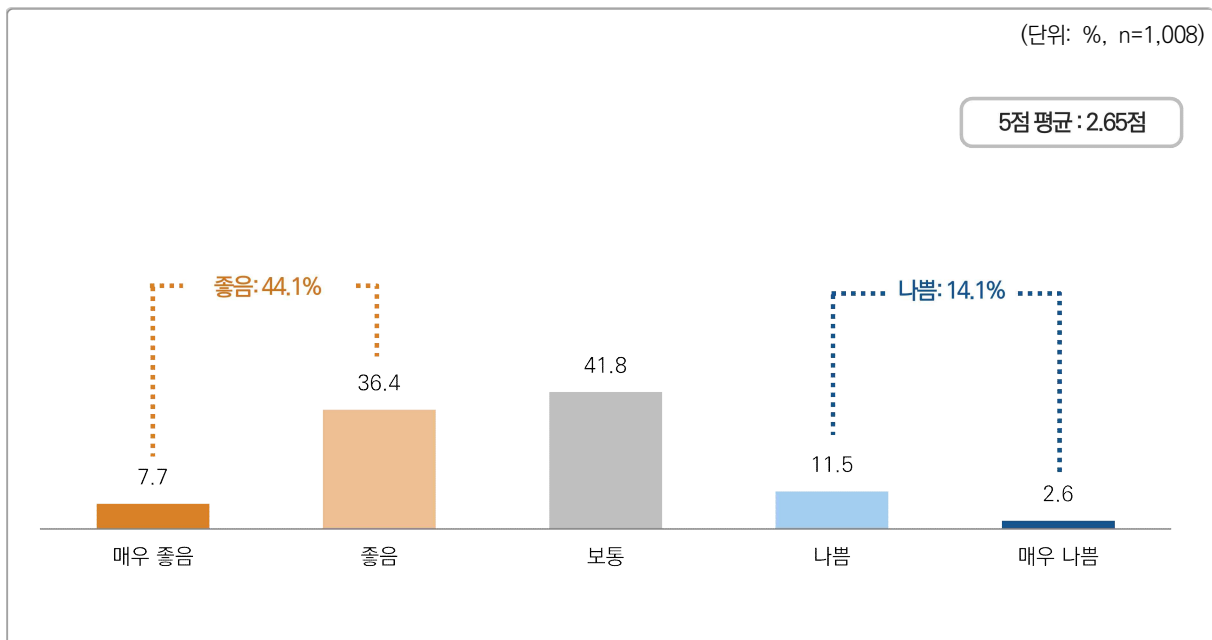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정보 부족)	주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혼자 가기 어려워서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정신의료 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기타	계
전체		(102)	16.6	11.8	15.8	22.5	10.7	9.8	4.9	7.8	100.0
성별	남성	(35)	22.9	14.4	23.2	22.8	8.2	2.8	5.7	-	100.0
	여성	(67)	13.4	10.5	11.9	22.4	11.9	13.5	4.5	11.9	100.0
연령	19세-24세	(20)	25.0	-	20.1	34.9	-	10.1	9.9	-	100.0
	25세-29세	(25)	11.9	7.9	4.1	32.2	19.7	12.2	-	12.0	100.0
	30세-34세	(33)	18.2	15.2	27.3	15.2	6.0	6.1	3.0	9.1	100.0
	35세-39세*	(24)	12.5	20.9	8.3	12.5	16.7	12.4	8.4	8.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35)	17.1	8.6	14.4	31.4	5.7	11.4	5.6	5.8	100.0
	성남시 중원구*	(27)	18.5	11.1	14.9	25.7	3.7	11.1	7.4	7.4	100.0
	성남시 분당구	(40)	14.9	15.1	17.6	12.5	19.8	7.5	2.5	9.9	100.0
학력	고졸 이하*	(20)	20.0	10.1	15.0	30.1	9.8	5.0	9.9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5)	13.4	6.4	13.6	53.6	6.4	-	-	6.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	16.3	13.5	16.5	13.4	11.9	13.5	4.5	10.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5)	18.6	10.7	13.4	26.7	7.8	12.1	4.0	6.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3)	8.8	13.1	21.8	8.6	21.7	4.3	8.7	13.0	100.0
	별거·이혼·사별*	(4)	25.4	25.1	25.1	24.5	-	-	-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 평소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좋음'이 36.4%, '나쁨'이 11.5%, '매우 좋음'이 7.7%, '매우 나쁨'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좋음'이 44.1%, '나쁨'이 14.1%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52.2%로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47.6%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1.3%, 25세~29세는 50.0%로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45.2%, 35세~39세는 53.7%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3.1%, 성남시 중원구는 42.1%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47.7%로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6.0%, 대학 졸업 이상은 44.6%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4.3%로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5.7%로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44.0%, 별거·이혼·사별은 53.2%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3〉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3〉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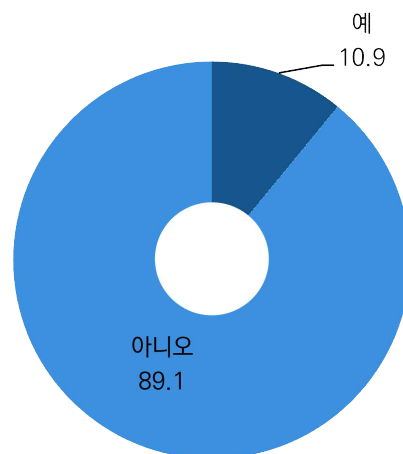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좋음	◎ 보통	◎ 나쁨	계	평균 (점)
전체		(1,008)	7.7	36.4	41.8	11.5	2.6	44.1	41.8	14.1	100.0	(2.65)
성별	남성	(517)	8.0	44.2	36.2	9.7	1.9	52.2	36.2	11.6	100.0	(2.53)
	여성	(491)	7.4	28.2	47.6	13.5	3.3	35.6	47.6	16.8	100.0	(2.77)
연령	19세-24세	(214)	17.3	44.0	28.4	9.8	0.4	61.3	28.4	10.3	100.0	(2.32)
	25세-29세	(256)	7.3	42.8	37.2	8.5	4.2	50.0	37.2	12.8	100.0	(2.60)
	30세-34세	(282)	5.3	34.9	45.2	12.5	2.1	40.2	45.2	14.6	100.0	(2.71)
	35세-39세	(255)	2.8	25.3	53.7	15.0	3.2	28.1	53.7	18.2	100.0	(2.9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8.2	31.1	43.1	14.2	3.4	39.3	43.1	17.6	100.0	(2.73)
	성남시 중원구	(232)	6.1	35.7	42.1	13.5	2.6	41.8	42.1	16.1	100.0	(2.71)
	성남시 분당구	(508)	8.2	39.5	40.9	9.2	2.1	47.7	40.9	11.4	100.0	(2.58)
학력	고졸 이하	(146)	2.7	28.6	46.0	18.6	4.1	31.4	46.0	22.7	100.0	(2.9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8.9	45.4	28.4	6.3	1.0	64.3	28.4	7.3	100.0	(2.25)
	대학 졸업 이상	(672)	5.6	35.6	44.6	11.5	2.7	41.2	44.6	14.2	100.0	(2.7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8.9	36.8	40.7	10.9	2.7	45.7	40.7	13.6	100.0	(2.6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	37.3	44.0	13.0	2.6	40.4	44.0	15.6	100.0	(2.75)
	별거·이혼·사별	(32)	6.3	21.7	53.2	18.8	-	28.0	53.2	18.8	100.0	(2.85)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10.9%, '아니오'가 89.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8.8%, 여성은 89.3%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0.7%, 25세~29세는 91.5%, 30세~34세는 87.1%, 35세~39세는 87.4%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4.7%, 성남시 중원구는 86.5%, 성남시 분당구는 92.5%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84.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0.6%, 대학 졸업 이상은 89.5%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9.0%, 배우자 있음은 90.6%, 별거·이혼·사별은 81.2%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단위: %, n=1,008)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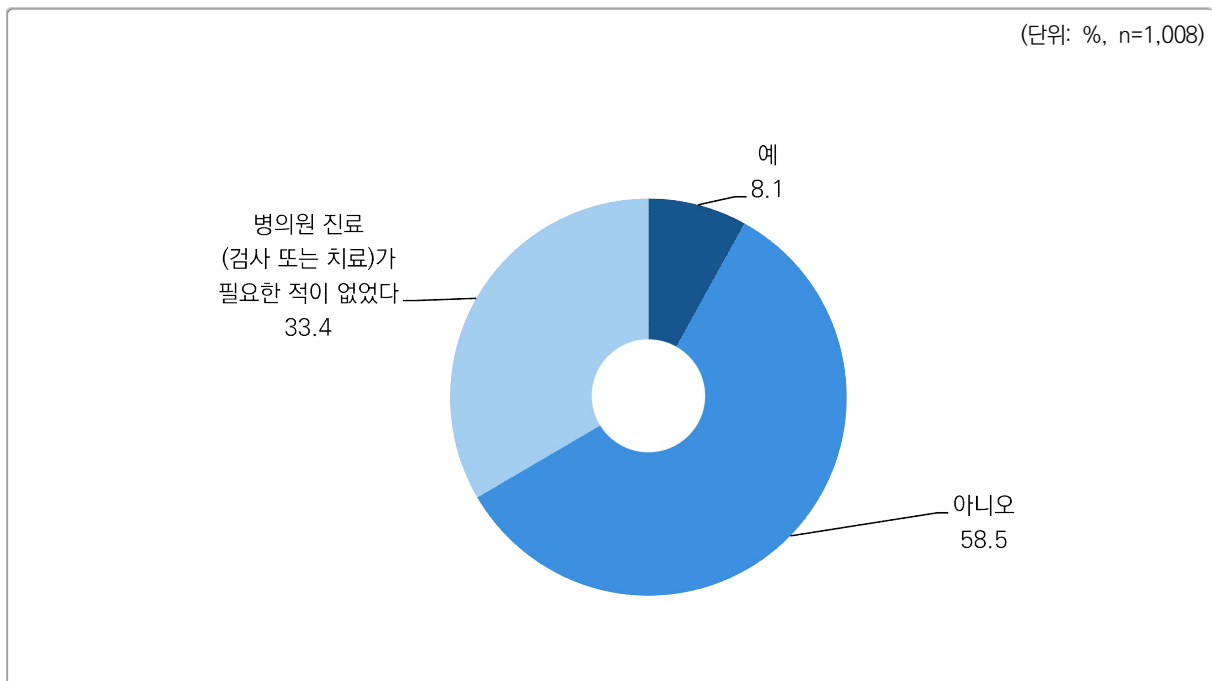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08)	10.9	89.1	100.0
성별	남성	(517)	11.2	88.8	100.0
	여성	(491)	10.7	89.3	100.0
연령	19세-24세	(214)	9.3	90.7	100.0
	25세-29세	(256)	8.5	91.5	100.0
	30세-34세	(282)	12.9	87.1	100.0
	35세-39세	(255)	12.6	87.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5.3	84.7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3.5	86.5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7.5	92.5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5.1	84.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9.4	90.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0.5	89.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1.0	89.0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4	90.6	100.0
	별거·이혼·사별	(32)	18.8	81.2	100.0

(5)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가 33.4%, '예'가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5.5%, 여성은 61.7%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4.5%, 25세~29세는 57.0%, 30세~34세는 56.5%, 35세~39세는 65.6%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3.9%, 성남시 중원구는 55.5%, 성남시 분당구는 62.4%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0.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9.2%, 대학 졸업 이상은 58.5%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7.4%, 배우자 있음은 60.1%, 별거·이혼·사별은 74.8%로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5〉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5〉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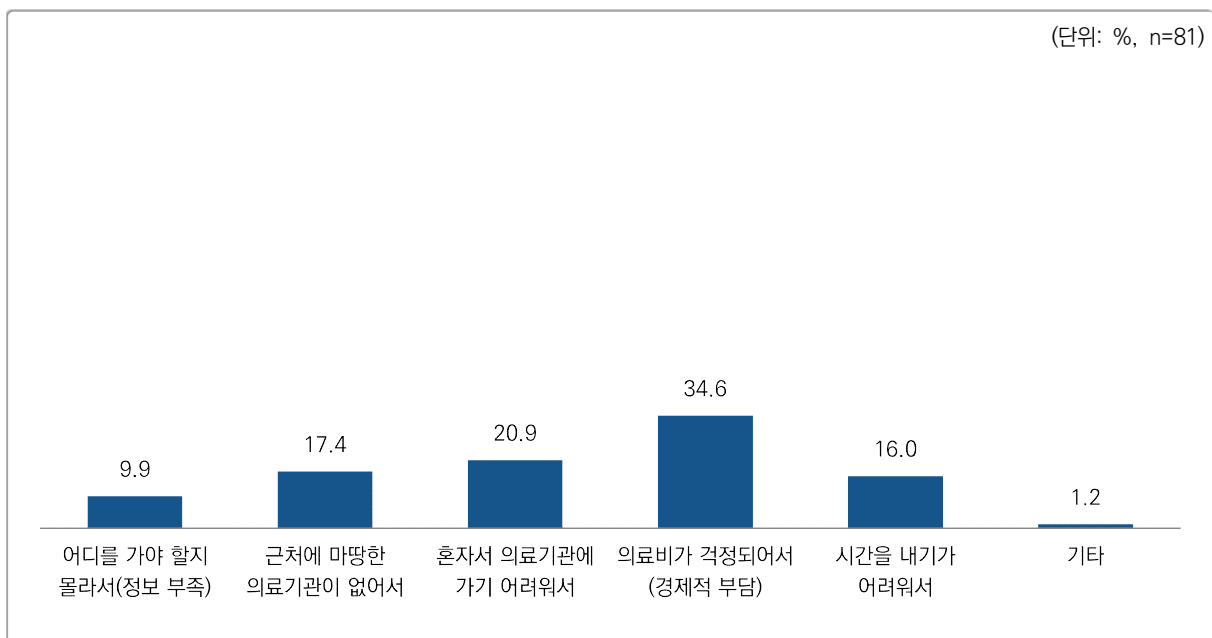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병의원 진료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계
전체		(1,008)	8.1	58.5	33.4	100.0
성별	남성	(517)	7.3	55.5	37.1	100.0
	여성	(491)	8.8	61.7	29.5	100.0
연령	19세~24세	(214)	5.6	54.5	39.9	100.0
	25세~29세	(256)	9.3	57.0	33.7	100.0
	30세~34세	(282)	9.3	56.5	34.2	100.0
	35세~39세	(255)	7.5	65.6	26.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0.1	53.9	36.0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0.5	55.5	34.0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9	62.4	31.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2.4	70.5	17.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3	49.2	44.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7.6	58.5	33.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3	57.4	35.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8.9	60.1	31.1	100.0
	별거·이혼·사별	(32)	22.1	74.8	3.1	100.0



## (6)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경제적 부담)’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가 20.9%,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가 17.4%,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가 16%,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가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9.3%로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44.0%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경제적 부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0.1%, 25세~29세는 41.8%, 30세~34세는 30.8%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26.4%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7.0%, 성남시 분당구는 40.1%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33.5%로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7.8%로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와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3.5%, 대학 졸업 이상은 37.2%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3.9%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29.6%로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6〉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6〉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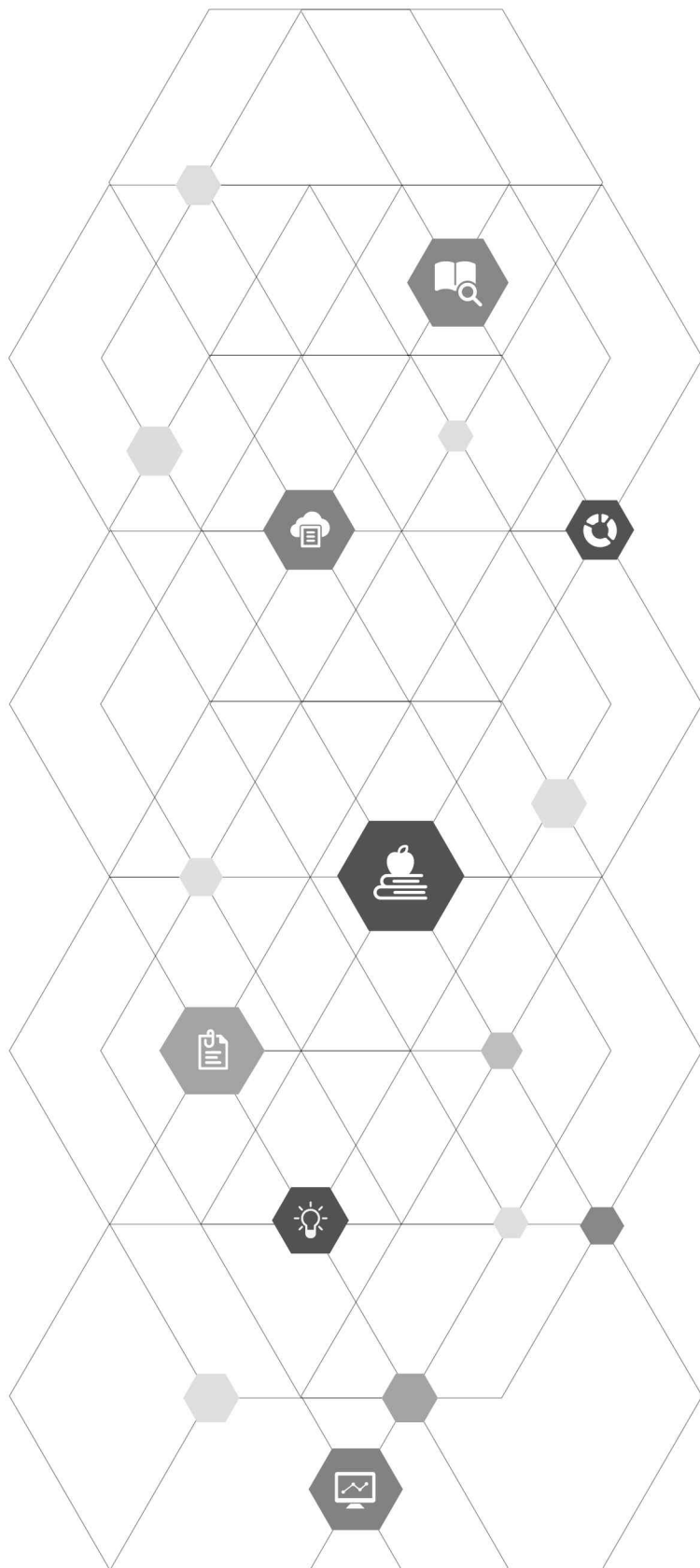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정보 부족)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 (경제적 부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기타	계
전체		(81)	9.9	17.4	20.9	34.6	16.0	1.2	100.0
성별	남성	(38)	5.2	29.3	28.8	23.8	10.3	2.6	100.0
	여성	(43)	14.0	6.9	14.0	44.0	21.1	-	100.0
연령	19세-24세*	(12)	16.8	8.2	8.2	50.1	16.8	-	100.0
	25세-29세*	(24)	8.2	16.9	20.8	41.8	12.3	-	100.0
	30세-34세*	(26)	7.7	27.1	22.9	30.8	11.6	-	100.0
	35세-39세*	(19)	10.5	10.6	26.3	21.1	26.4	5.2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7)	11.1	11.1	25.9	37.0	11.2	3.7	100.0
	성남시 중원구*	(24)	8.3	33.5	20.8	25.0	12.4	-	100.0
	성남시 분당구	(30)	10.0	10.0	16.5	40.1	23.3	-	100.0
학력	고졸 이하*	(18)	16.7	11.2	27.8	27.8	16.5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2)	-	33.4	24.6	33.5	8.4	-	100.0
	대학 졸업 이상	(51)	9.8	15.9	17.6	37.2	17.7	1.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57)	12.3	12.3	15.7	43.9	14.0	1.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	5.9	29.6	17.5	17.7	29.4	-	100.0
	별거·이혼·사별*	(7)	-	28.5	71.5	-	-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05

##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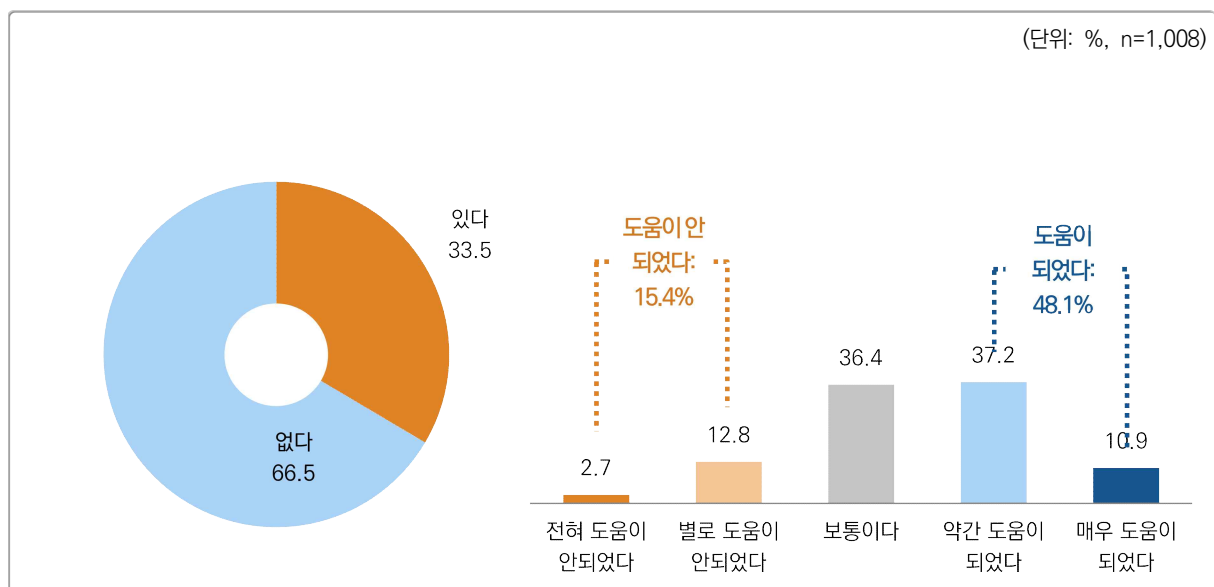
## 5 교육·훈련

### 1) 취업 준비 관련 도움받은 기관 및 도움 정도

#### (1) 학교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66.5%, '있다'가 33.5%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6.4%, '도움이 안 되었다'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8.5%, 여성은 64.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8.4%, 25세~29세는 62.6%,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71.1%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5.9%, 성남시 중원구는 68.4%, 성남시 분당구는 65.9%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5.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9.2%, 대학 졸업 이상은 65.9%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7.8%, 배우자 있음은 61.7%, 별거·이혼·사별은 62.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7〉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학교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7〉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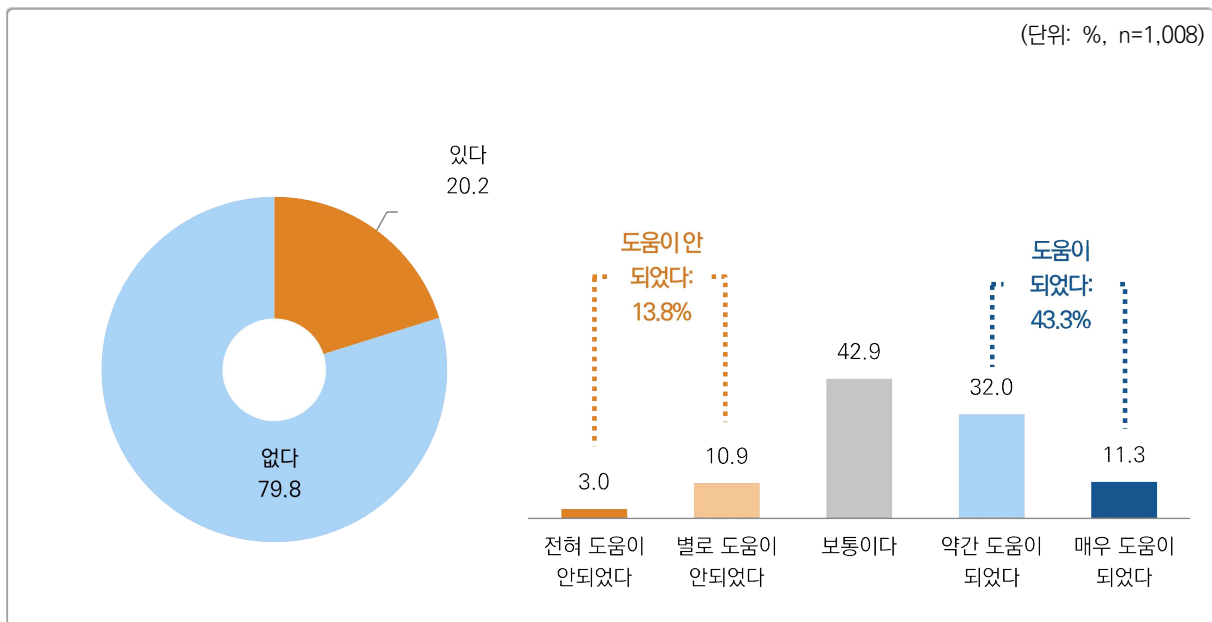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 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33.5	2.7	12.8	36.4	37.2	10.9	15.4	36.4	48.1	66.5	100.0
성별	남성	(517)	31.5	3.7	9.2	39.7	37.2	10.2	12.9	39.7	47.4	68.5	100.0
	여성	(491)	35.6	1.7	16.1	33.4	37.3	11.5	17.8	33.4	48.8	64.4	100.0
연령	19세~24세	(214)	31.6	2.9	4.4	44.2	33.7	14.8	7.3	44.2	48.5	68.4	100.0
	25세~29세	(256)	37.4	2.1	14.5	33.0	41.2	9.1	16.7	33.0	50.3	62.6	100.0
	30세~34세	(282)	35.6	2.0	16.0	35.0	35.0	12.0	18.0	35.0	47.0	64.4	100.0
	35세~39세	(255)	28.9	4.1	13.7	35.6	38.4	8.2	17.8	35.6	46.6	71.1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1	5.5	9.9	40.7	37.3	6.6	15.4	40.7	43.9	65.9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31.6	4.1	20.5	32.9	38.4	4.1	24.7	32.9	42.5	68.4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34.1	0.6	11.0	35.7	36.7	16.1	11.5	35.7	52.8	65.9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4.2	4.0	20.0	48.0	22.1	6.0	24.0	48.0	28.1	65.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0.8	3.4	3.4	35.8	38.7	18.7	6.8	35.8	57.4	69.2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34.1	2.2	13.6	34.1	40.2	10.0	15.8	34.1	50.1	65.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2.2	2.4	11.2	36.6	38.8	11.0	13.6	36.6	49.9	67.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8.3	1.4	14.8	35.0	36.6	12.2	16.2	35.0	48.8	61.7	100.0
	별거·이혼·사별	(32)	37.6	16.7	33.6	41.3	8.4	-	50.3	41.3	8.4	62.4	100.0

## (2) 공공기관

-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79.8%, ‘있다’가 20.2%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2.9%, ‘도움이 안 되었다’가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81.3%, 여성은 78.3%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6.5%, 25세~29세는 81.1%, 30세~34세는 71.9%, 35세~39세는 81.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9.0%, 성남시 중원구는 75.2%, 성남시 분당구는 82.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3.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9.0%, 대학 졸업 이상은 78.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0.7%, 배우자 있음은 77.2%, 별거·이혼·사별은 75.0%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8〉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공공기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8〉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공공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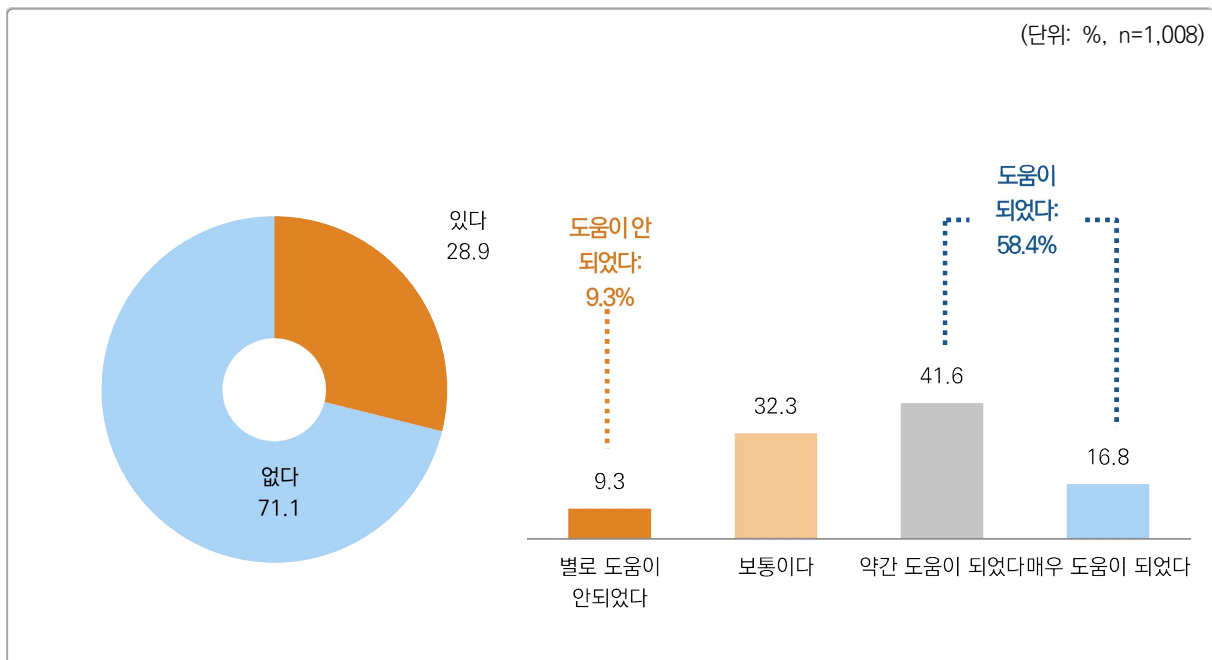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 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20.2	3.0	10.9	42.9	32.0	11.3	13.8	42.9	43.3	79.8	100.0
성별	남성	(517)	18.7	4.1	11.4	39.3	30.9	14.3	15.5	39.3	45.2	81.3	100.0
	여성	(491)	21.7	1.9	10.4	46.2	33.0	8.5	12.3	46.2	41.5	78.3	100.0
연령	19세-24세	(214)	13.5	3.5	10.1	51.9	27.5	7.0	13.6	51.9	34.5	86.5	100.0
	25세-29세	(256)	18.9	4.2	10.4	38.8	32.6	14.0	14.6	38.8	46.6	81.1	100.0
	30세-34세	(282)	28.1	1.3	5.1	50.7	31.6	11.4	6.3	50.7	43.0	71.9	100.0
	35세-39세	(255)	18.2	4.3	21.7	28.3	34.8	10.9	26.0	28.3	45.7	81.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1.0	5.4	17.8	39.3	30.4	7.2	23.2	39.3	37.6	79.0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4.8	3.5	12.3	45.7	28.0	10.5	15.7	45.7	38.6	75.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7.6	1.1	5.6	43.4	35.6	14.3	6.7	43.4	49.9	82.4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6.8	5.2	23.1	46.0	18.1	7.6	28.3	46.0	25.7	73.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1.0	9.6	9.6	43.0	28.4	9.4	19.2	43.0	37.8	89.0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1.3	1.4	7.7	42.1	36.3	12.5	9.1	42.1	48.8	78.7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9.3	3.3	9.3	41.1	37.1	9.1	12.6	41.1	46.2	80.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2.8	-	9.1	52.3	20.4	18.3	9.1	52.3	38.7	77.2	100.0
	별거·이혼·사별	(32)	25.0	12.4	50.0	24.8	-	12.8	62.4	24.8	12.8	75.0	100.0



### (3) 사설기관

-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사설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71.1%, '있다'가 28.9%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3%, '도움이 안 되었다'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71.3%, 여성은 70.9%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1.4%, 25세~29세는 70.7%,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70.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0%, 성남시 중원구는 72.6%, 성남시 분당구는 72.6%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5.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3.8%, 대학 졸업 이상은 68.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2.9%, 배우자 있음은 63.7%, 별거·이혼·사별은 71.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9〉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사설기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59〉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사설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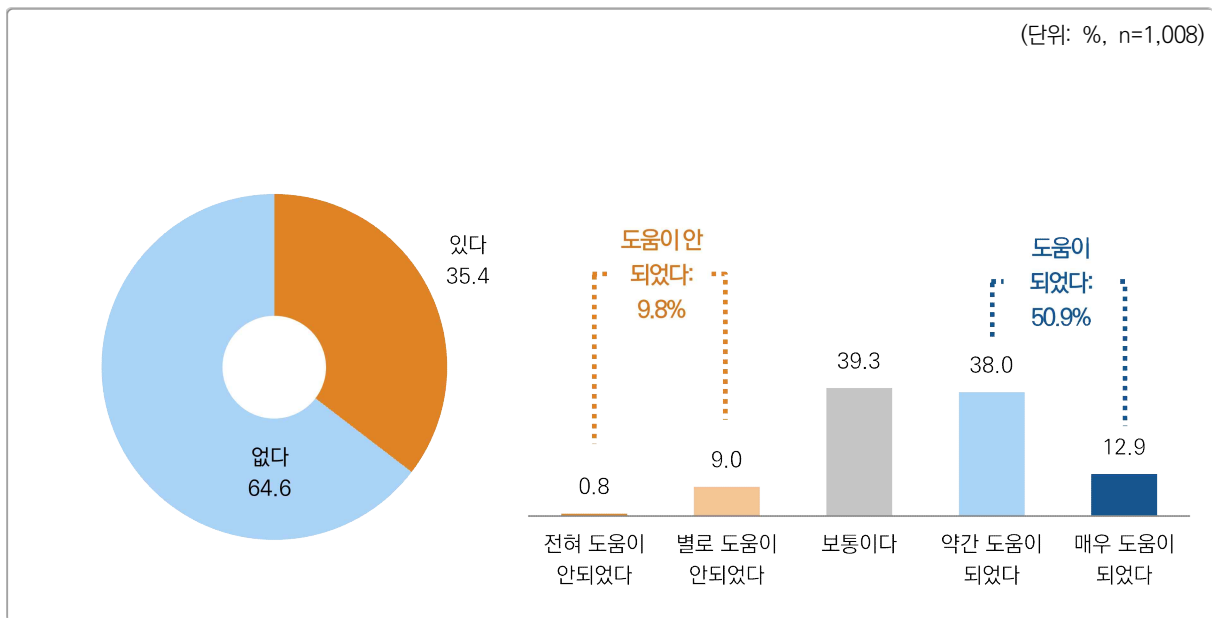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사례수 (명)	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28.9	9.3	32.3	41.6	16.8	9.3	32.3	58.4	71.1	100.0
성별	남성	(517)	28.7	8.8	30.9	36.2	24.1	8.8	30.9	60.3	71.3	100.0
	여성	(491)	29.1	9.8	33.8	47.2	9.2	9.8	33.8	56.4	70.9	100.0
연령	19세-24세	(214)	18.6	10.1	40.0	37.3	12.6	10.1	40.0	49.9	81.4	100.0
	25세-29세	(256)	29.3	13.2	35.6	37.0	14.2	13.2	35.6	51.1	70.7	100.0
	30세-34세	(282)	35.6	5.0	25.0	52.0	18.0	5.0	25.0	70.0	64.4	100.0
	35세-39세	(255)	29.6	10.7	34.7	34.6	20.0	10.7	34.7	54.6	70.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3.0	9.1	35.2	45.5	10.2	9.1	35.2	55.6	67.0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7.4	9.5	30.1	45.9	14.4	9.5	30.1	60.3	72.6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27.4	9.3	31.5	37.1	22.1	9.3	31.5	59.2	72.6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4.3	16.1	42.1	29.8	11.9	16.1	42.1	41.8	65.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6.2	9.8	44.8	29.2	16.1	9.8	44.8	45.3	83.8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31.3	7.6	28.2	46.2	18.0	7.6	28.2	64.2	68.7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7.1	9.5	31.2	43.4	15.9	9.5	31.2	59.3	72.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3	5.6	34.3	41.5	18.6	5.6	34.3	60.1	63.7	100.0
	별거·이혼·사별	(32)	28.3	33.6	44.0	-	22.4	33.6	44.0	22.4	71.7	100.0

#### (4) 부모님이나 친인척

-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64.6%, '있다'가 35.4%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9.3%, '도움이 안 되었다'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65.2%, 여성은 64.0%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2.8%, 25세~29세는 65.4%,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65.6%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0%, 성남시 중원구는 72.6%, 성남시 분당구는 72.6%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6.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9.0%, 대학 졸업 이상은 64.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5.7%, 배우자 있음은 60.7%, 별거·이혼·사별은 62.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0〉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부모님이나 친인척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0〉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부모님이나 친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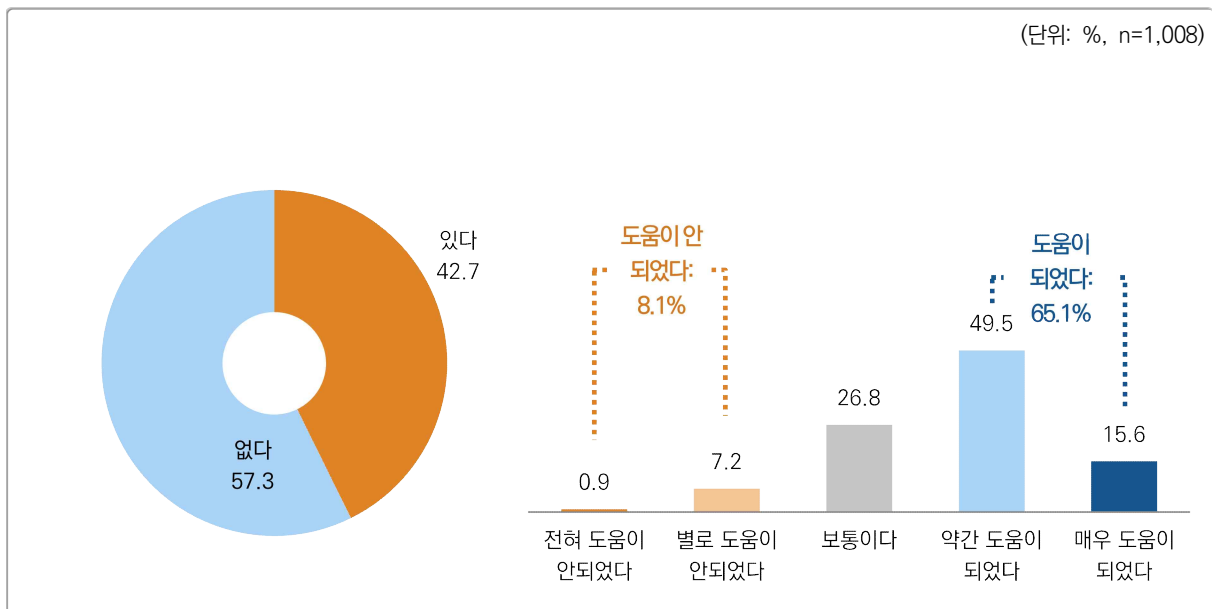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 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35.4	0.8	9.0	39.3	38.0	12.9	9.8	39.3	50.9	64.6	100.0
성별	남성	(517)	34.8	-	8.9	39.3	41.9	9.9	8.9	39.3	51.8	65.2	100.0
	여성	(491)	36.0	1.7	9.1	39.2	34.1	15.9	10.8	39.2	50.0	64.0	100.0
연령	19세-24세	(214)	37.2	-	6.2	32.5	41.1	20.1	6.2	32.5	61.2	62.8	100.0
	25세-29세	(256)	34.6	2.3	10.2	36.7	38.7	12.2	12.4	36.7	50.9	65.4	100.0
	30세-34세	(282)	35.6	-	7.0	42.0	42.0	9.0	7.0	42.0	51.0	64.4	100.0
	35세-39세	(255)	34.4	1.2	12.6	44.8	29.9	11.5	13.8	44.8	41.4	65.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3.2	-	16.8	40.5	32.6	10.1	16.8	40.5	42.6	66.8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33.8	1.3	10.3	35.9	41.0	11.5	11.6	35.9	52.5	66.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37.3	1.1	4.8	40.1	39.3	14.8	5.8	40.1	54.1	62.7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41.7	-	13.2	46.2	27.6	13.0	13.2	46.2	40.6	58.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0	-	5.1	23.9	47.3	23.8	5.1	23.9	71.1	69.0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35.3	1.3	8.9	41.3	38.4	10.1	10.2	41.3	48.5	64.7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4.3	1.1	7.1	39.5	39.3	13.0	8.2	39.5	52.3	65.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9.3	-	9.1	42.1	34.2	14.5	9.1	42.1	48.7	60.7	100.0
	별거·이혼·사별	(32)	37.6	-	50.2	16.5	33.3	-	50.2	16.5	33.3	62.4	100.0

### (5) 친구 및 선후배

-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친구 및 선후배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57.3%, '있다'가 42.7%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6.8%, '도움이 안 되었다'가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54.0%, 여성은 60.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9.7%, 25세~29세는 56.5%, 30세~34세는 57.6%, 35세~39세는 55.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0.4%, 성남시 중원구는 59.3%, 성남시 분당구는 54.7%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0.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0.4%, 대학 졸업 이상은 55.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4%, 별거·이혼·사별은 74.9%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53.9%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64.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친구, 선후배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친구, 선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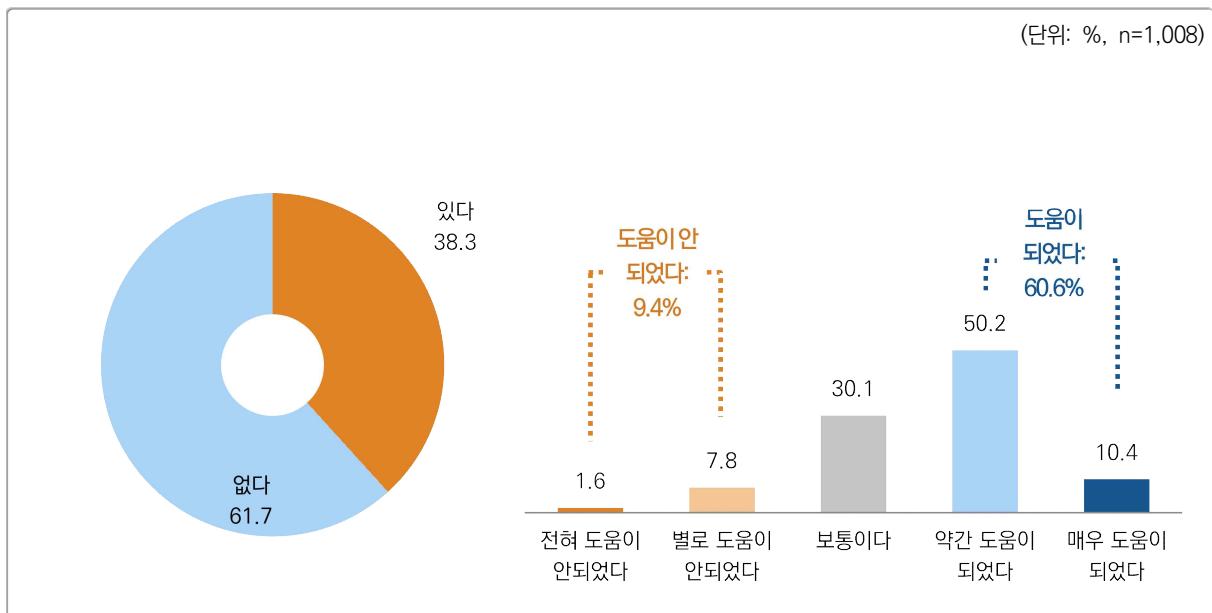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 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42.7	0.9	7.2	26.8	49.5	15.6	8.1	26.8	65.1	57.3	100.0
성별	남성	(517)	46.0	0.8	6.7	25.6	52.1	14.7	7.6	25.6	66.8	54.0	100.0
	여성	(491)	39.3	1.0	7.8	28.1	46.4	16.7	8.8	28.1	63.0	60.7	100.0
연령	19세-24세	(214)	40.3	1.2	4.6	28.9	46.9	18.5	5.8	28.9	65.4	59.7	100.0
	25세-29세	(256)	43.5	0.9	9.8	21.3	55.7	12.4	10.7	21.3	68.0	56.5	100.0
	30세-34세	(282)	42.4	1.7	9.3	28.6	44.5	15.9	11.0	28.6	60.5	57.6	100.0
	35세-39세	(255)	44.3	-	4.5	28.6	50.9	16.1	4.5	28.6	67.0	55.7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9.6	1.9	9.5	26.4	51.9	10.4	11.3	26.4	62.3	60.4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40.7	1.1	9.7	28.9	51.8	8.6	10.8	28.9	60.4	59.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45.3	0.4	5.2	26.1	47.5	20.8	5.6	26.1	68.3	54.7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9.6	-	20.7	36.2	32.7	10.3	20.7	36.2	43.0	60.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9.6	1.3	4.0	19.9	54.9	19.8	5.3	19.9	74.7	60.4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44.2	1.0	5.4	26.6	51.4	15.5	6.4	26.6	67.0	55.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0.6	1.3	6.6	25.8	51.9	14.5	7.9	25.8	66.4	59.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53.9	-	5.8	29.8	44.3	20.1	5.8	29.8	64.4	46.1	100.0
	별거·이혼·사별	(32)	25.1	-	50.4	25.0	24.6	-	50.4	25.0	24.6	74.9	100.0

## (6)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가 61.7%, ‘있다’가 38.3%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1%, ‘도움이 안 되었다’가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에서 남성은 63.3%, 여성은 60.1%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8.8%, 25세~29세는 61.1%, 30세~34세는 56.2%, 35세~39세는 62.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5.2%, 성남시 중원구는 61.0%, 성남시 분당구는 60.2%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8.6%, 대학 졸업 이상은 58.6%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4.1%, 배우자 있음은 52.3%, 별거·이혼·사별은 59.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_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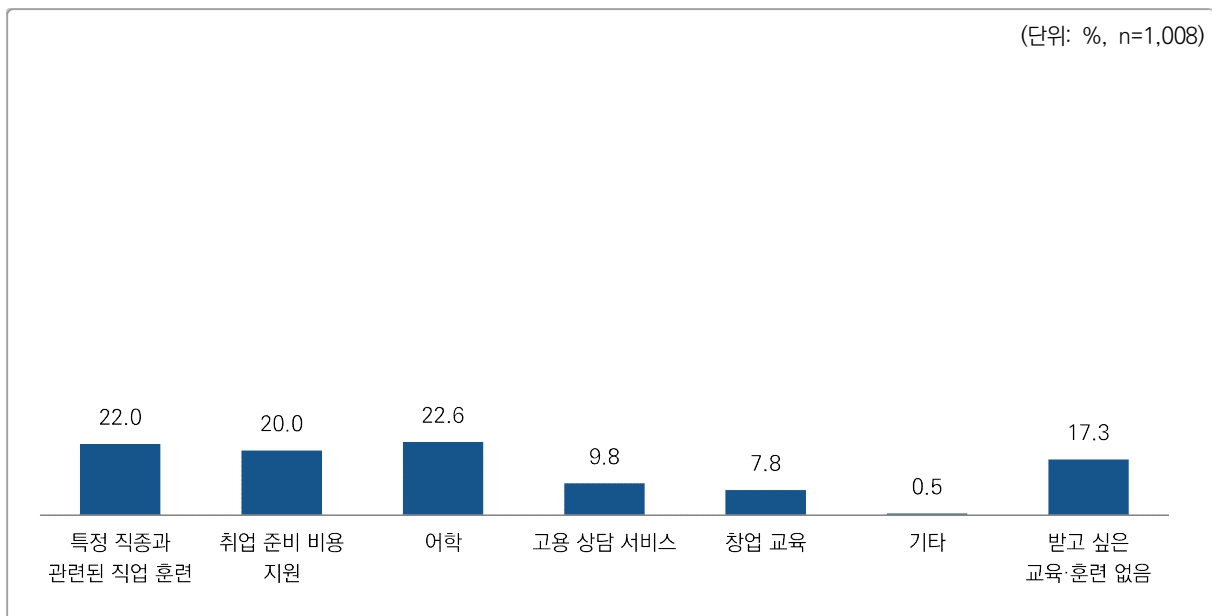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 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 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안되 었다	◎ 보통 이다	◎ 도움이 되었다	없다	계
전체		(1,008)	38.3	1.6	7.8	30.1	50.2	10.4	9.4	30.1	60.6	61.7	100.0
성별	남성	(517)	36.7	1.6	9.0	29.3	51.7	8.4	10.6	29.3	60.1	63.3	100.0
	여성	(491)	39.9	1.5	6.7	30.8	48.7	12.3	8.2	30.8	61.0	60.1	100.0
연령	19세-24세	(214)	31.2	1.4	6.0	33.0	52.1	7.5	7.4	33.0	59.6	68.8	100.0
	25세-29세	(256)	38.9	1.0	7.0	33.7	45.4	12.9	8.1	33.7	58.3	61.1	100.0
	30세-34세	(282)	43.8	1.6	9.0	29.3	49.6	10.6	10.6	29.3	60.2	56.2	100.0
	35세-39세	(255)	37.6	2.1	8.4	25.3	54.7	9.5	10.5	25.3	64.2	62.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8	2.2	8.6	30.1	49.4	9.7	10.8	30.1	59.1	65.2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39.0	1.1	11.2	27.8	51.0	9.0	12.2	27.8	60.0	61.0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39.8	1.5	5.9	31.0	50.2	11.3	7.4	31.0	61.5	60.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2.8	6.2	16.9	49.9	26.9	-	23.1	49.9	26.9	67.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4	-	5.0	33.6	51.5	9.9	5.0	33.6	61.4	68.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41.4	1.1	6.9	25.9	54.0	12.2	7.9	25.9	66.2	58.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5.9	1.1	7.5	30.6	50.5	10.3	8.6	30.6	60.8	64.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7.7	1.1	4.4	30.4	52.2	12.0	5.4	30.4	64.2	52.3	100.0
	별거·이혼·사별	(32)	40.6	15.2	38.7	15.4	30.7	-	53.9	15.4	30.7	59.4	100.0



## 2)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학'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22%,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이 20%, '받고 싶은 교육·훈련 없음'이 17.3%, '고용 상담 서비스'가 9.8%, '창업 교육'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2.1%로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5.8%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3.7%로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22.0%로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 34세는 25.3%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세~39세는 21.4%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과 '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2.5%, 성남시 중원구는 25.0%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4.9%로 '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1.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5.2%로 '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졸업 이상은 22.4%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3.0%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이, 배우자 있음은 27.5%로 '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4.3%로 '어학'과 '고용 상담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3〉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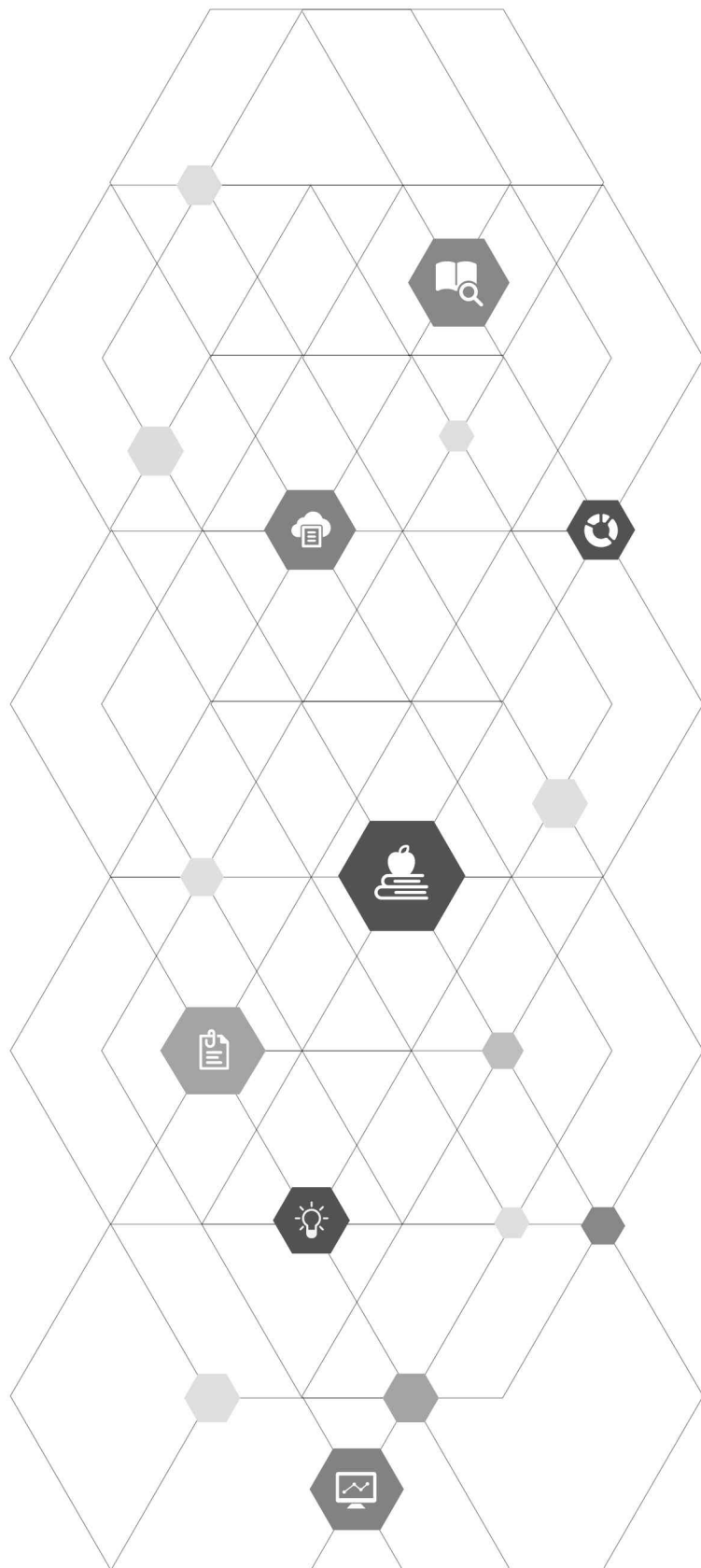
〈표 2-63〉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어학	고용 상담 서비스	창업 교육	기타	받고 싶은 교육· 훈련 없음	계
전체		(1,008)	22.0	20.0	22.6	9.8	7.8	0.5	17.3	100.0
성별	남성	(517)	18.4	22.1	20.0	11.3	7.9	0.6	19.7	100.0
	여성	(491)	25.8	17.8	25.4	8.2	7.6	0.4	14.8	100.0
연령	19세-24세	(214)	22.8	23.7	23.3	7.8	5.6	-	16.8	100.0
	25세-29세	(256)	18.5	22.0	22.0	10.5	7.4	0.8	18.9	100.0
	30세-34세	(282)	25.3	19.6	23.9	7.5	7.4	0.4	16.0	100.0
	35세-39세	(255)	21.4	15.4	21.4	13.4	10.3	0.8	17.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2.5	19.5	21.0	10.8	9.7	-	16.5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5.0	22.9	19.6	10.3	6.5	0.4	15.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20.4	19.0	24.9	9.0	7.3	0.8	18.6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8.4	17.8	21.9	16.3	12.4	-	13.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3.4	24.1	25.2	7.9	4.2	-	15.3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2.4	19.3	22.1	9.0	7.8	0.7	18.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3.0	22.2	20.9	8.5	6.3	0.4	18.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1.2	13.5	27.5	10.9	11.4	1.0	14.5	100.0
	별거·이혼·사별	(32)	3.1	6.4	34.3	34.3	21.9	-	-	100.0

# 06

##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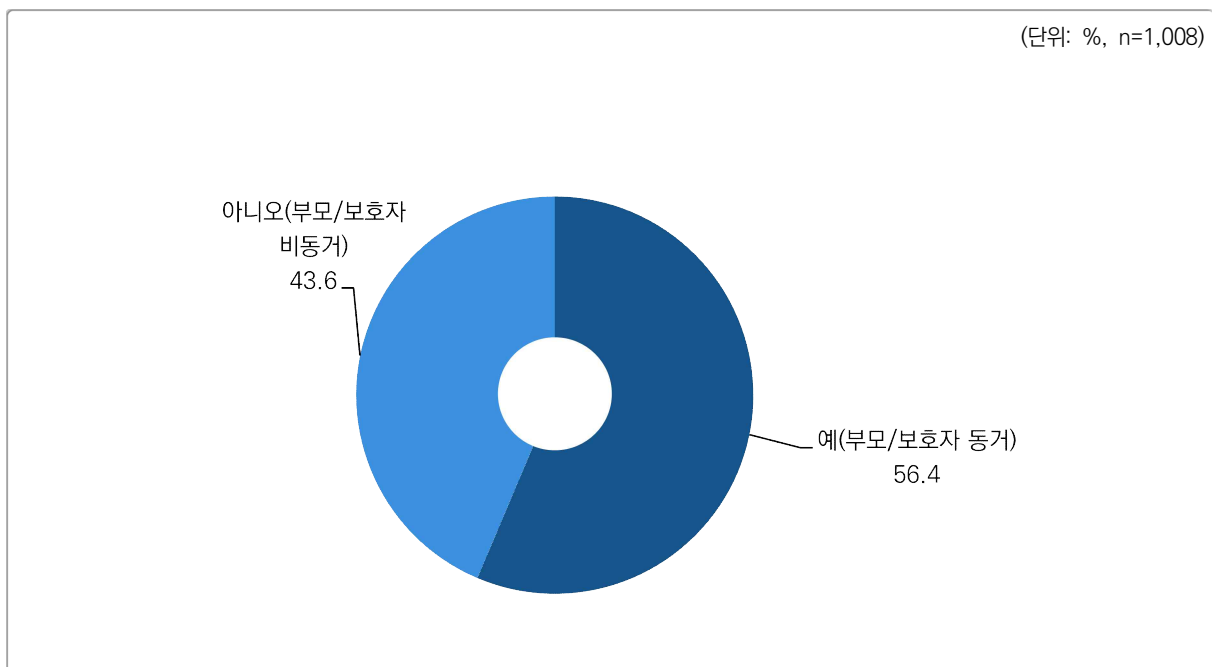
## 6 주거

### 1) 동거

#### (1) 부모 동거 여부

▣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56.4%, '아니오'가 43.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5.0%, 여성은 57.8%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4.4%, 25세~29세는 58.6%, 30세~34세는 55.6%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60.1%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3.6%, 성남시 중원구는 57.9%, 성남시 분당구는 57.1%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4.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6.4%, 대학 졸업 이상은 51.2%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1.6%, 별거·이혼·사별은 53.3%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64.2%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4〉 부모 동거 여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4〉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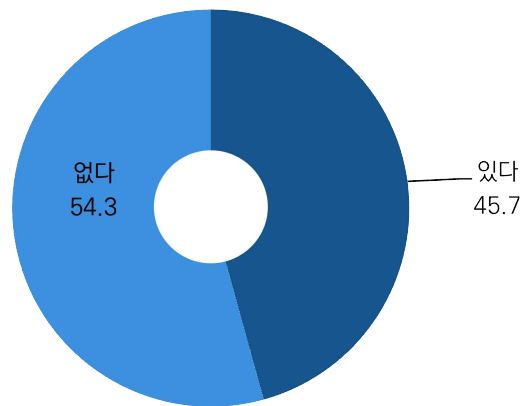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예 (부모/보호자 동거)	아니오 (부모/보호자 비동거)	계
전체		(1,008)	56.4	43.6	100.0
성별	남성	(517)	55.0	45.0	100.0
	여성	(491)	57.8	42.2	100.0
연령	19세-24세	(214)	74.4	25.6	100.0
	25세-29세	(256)	58.6	41.4	100.0
	30세-34세	(282)	55.6	44.4	100.0
	35세-39세	(255)	39.9	60.1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53.6	46.4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57.9	42.1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7.1	42.9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54.1	45.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76.4	23.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51.2	48.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61.6	38.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5.8	64.2	100.0
	별거·이혼·사별	(32)	53.3	46.7	100.0

## (2)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 부모님(보호자)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가 45.7%, '없다'가 54.3%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3.2%, 여성은 55.4%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9.3%, 25세~29세는 48.0%, 30세~34세는 42.3%, 35세~39세는 58.5%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3.9%, 성남시 중원구는 52.8%, 성남시 분당구는 55.2%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1.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7.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50.9%로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4.8%, 배우자 있음은 50.8%로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5〉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단위: %, n=568)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5〉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568)	45.7	54.3	100.0
성별	남성	(285)	46.8	53.2	100.0
	여성	(283)	44.6	55.4	100.0
연령	19세-24세	(159)	30.7	69.3	100.0
	25세-29세	(150)	52.0	48.0	100.0
	30세-34세	(157)	57.7	42.3	100.0
	35세-39세	(102)	41.5	58.5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43)	46.1	53.9	100.0
	성남시 중원구	(134)	47.2	52.8	100.0
	성남시 분당구	(290)	44.8	55.2	100.0
학력	고졸 이하	(79)	48.1	51.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45)	32.2	67.8	100.0
	대학 졸업 이상	(344)	50.9	49.1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482)	45.2	54.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70)	49.2	50.8	100.0
	별거·이혼·사별*	(17)	47.0	5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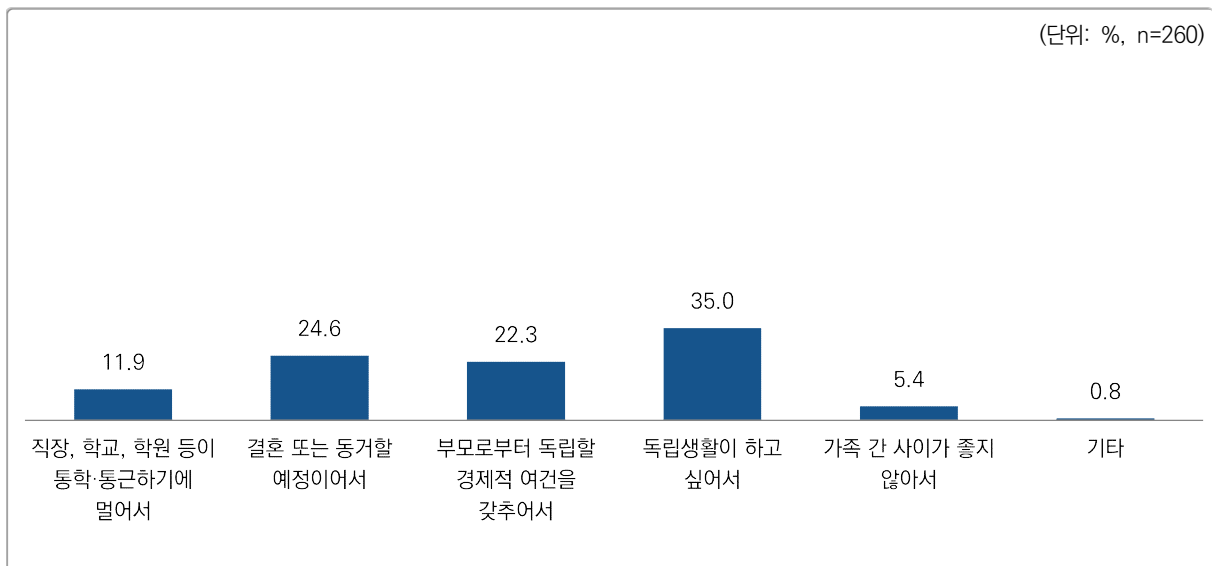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 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가 24.6%,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가 22.3%,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가 11.9%,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9.8%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42.0%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1%, 25세~29세는 39.3%, 30세~34세는 29.0%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33.4%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1.9%, 성남시 분당구는 36.8%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38.2%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9.0%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와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4.7%, 대학 졸업 이상은 35.4%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9.1%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가, 배우자 있음은 64.9%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6〉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6〉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 통근하기에 멀어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계
전체		(260)	11.9	24.6	22.3	35.0	5.4	0.8	100.0
성별	남성	(133)	11.9	24.7	29.8	28.4	5.2	-	100.0
	여성	(126)	11.9	24.6	14.3	42.0	5.5	1.6	100.0
연령	19세-24세	(49)	20.5	6.0	18.3	51.1	4.0	-	100.0
	25세-29세	(78)	10.0	29.1	13.9	39.3	5.1	2.6	100.0
	30세-34세	(90)	12.1	26.8	28.8	29.0	3.3	-	100.0
	35세-39세	(42)	4.8	33.4	28.5	21.5	11.9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66)	9.1	18.2	30.2	31.9	10.6	-	100.0
	성남시 중원구	(63)	6.4	38.2	15.9	34.8	3.2	1.6	100.0
	성남시 분당구	(130)	16.0	21.3	21.4	36.8	3.8	0.8	100.0
학력	고졸 이하	(38)	7.8	29.0	29.0	21.2	13.0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47)	19.2	10.6	21.2	44.7	4.2	-	100.0
	대학 졸업 이상	(175)	10.8	27.5	21.1	35.4	4.0	1.1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17)	13.3	17.8	22.5	39.1	6.4	0.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34)	5.7	64.9	11.7	17.6	-	-	100.0
	별거·이혼·사별*	(8)	-	37.7	62.3	-	-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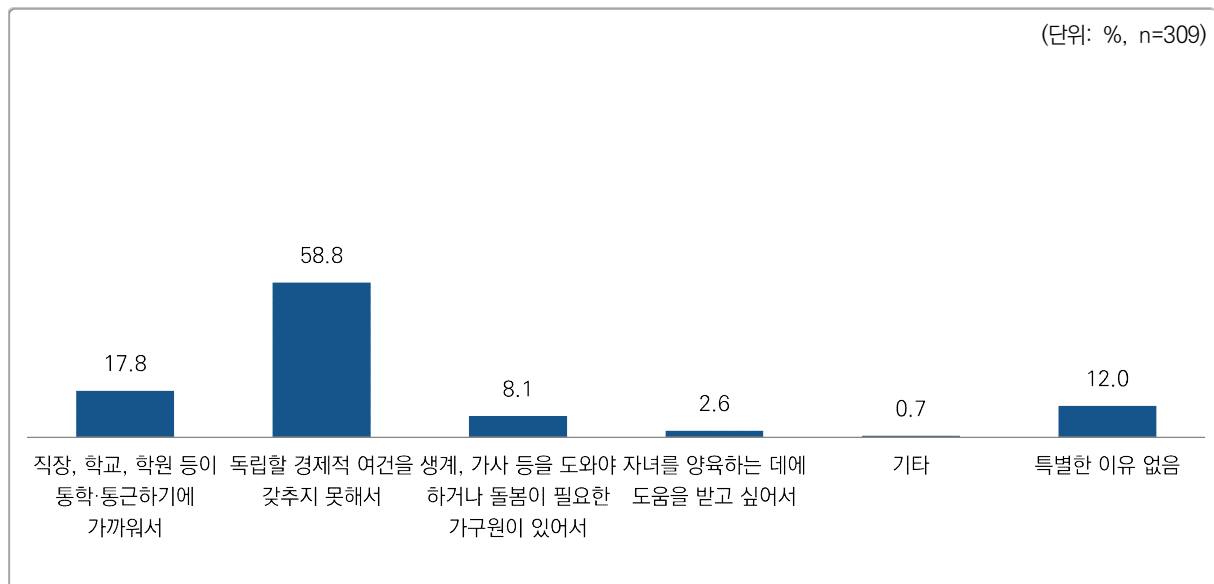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가 17.8%, ‘특별한 이유 없음’이 12%,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가 8.1%,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61.9%, 여성은 55.8%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1.1%, 25세~29세는 68.5%, 30세~34세는 60.6%, 35세~39세는 40.7%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3.6%, 성남시 중원구는 53.3%, 성남시 분당구는 58.9%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1.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7.4%, 대학 졸업 이상은 59.1%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2.9%, 배우자 있음은 28.6%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7〉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표 2-67〉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 하기에 가까워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계
전체		(309)	17.8	58.8	8.1	2.6	0.7	12.0	100.0
성별	남성	(151)	11.0	61.9	9.9	2.7	-	14.5	100.0
	여성	(157)	24.3	55.8	6.4	2.6	1.3	9.6	100.0
연령	19세-24세	(111)	19.0	61.1	4.4	-	0.9	14.5	100.0
	25세-29세	(72)	19.0	68.5	7.0	-	-	5.5	100.0
	30세-34세	(66)	15.1	60.6	6.1	-	1.5	16.7	100.0
	35세-39세	(60)	17.0	40.7	18.6	13.6	-	10.2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77)	16.9	63.6	10.4	3.9	-	5.2	100.0
	성남시 중원구	(71)	19.8	53.3	12.7	4.3	1.4	8.6	100.0
	성남시 분당구	(160)	17.3	58.9	5.0	1.3	0.6	16.9	100.0
학력	고졸 이하	(41)	7.1	61.0	19.6	4.9	-	7.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22.4	57.4	4.0	-	1.0	15.2	100.0
	대학 졸업 이상	(169)	17.7	59.1	7.8	3.6	0.6	11.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64)	18.5	62.9	6.0	-	0.8	11.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35)	14.1	28.6	17.2	22.9	-	17.2	100.0
	별거·이혼·사별*	(9)	11.2	55.3	33.4	-	-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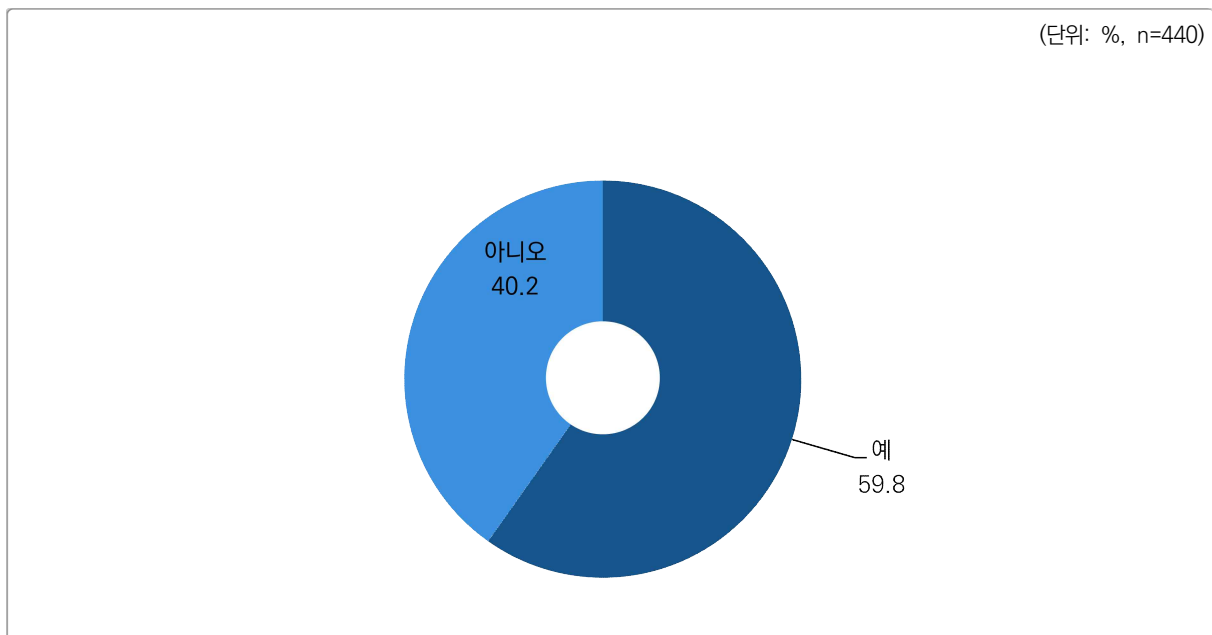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 비동거

### (1) 1인 가구 여부

■ 1인 가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59.8%, '아니오'가 40.2%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6.4%, 여성은 52.4%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5.5%, 25세~29세는 74.8%, 30세~34세는 62.4%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54.7%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6.1%, 성남시 중원구는 57.7%, 성남시 분당구는 57.2%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6.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9.9%, 대학 졸업 이상은 60.4%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3.3%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고, 별거·이혼·사별은 53.3%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96.0%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8〉 1인 가구 여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8〉 1인 가구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440)	59.8	40.2	100.0
성별	남성	(233)	66.4	33.6	100.0
	여성	(207)	52.4	47.6	100.0
연령	19세-24세	(55)	65.5	34.5	100.0
	25세-29세	(106)	74.8	25.2	100.0
	30세-34세	(125)	62.4	37.6	100.0
	35세-39세	(153)	45.3	54.7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24)	66.1	33.9	100.0
	성남시 중원구	(98)	57.7	42.3	100.0
	성남시 분당구	(218)	57.2	42.8	100.0
학력	고졸 이하	(67)	56.7	43.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45)	59.9	40.1	100.0
	대학 졸업 이상	(328)	60.4	39.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300)	83.3	16.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25)	4.0	96.0	100.0
	별거·이혼·사별*	(15)	53.3	46.7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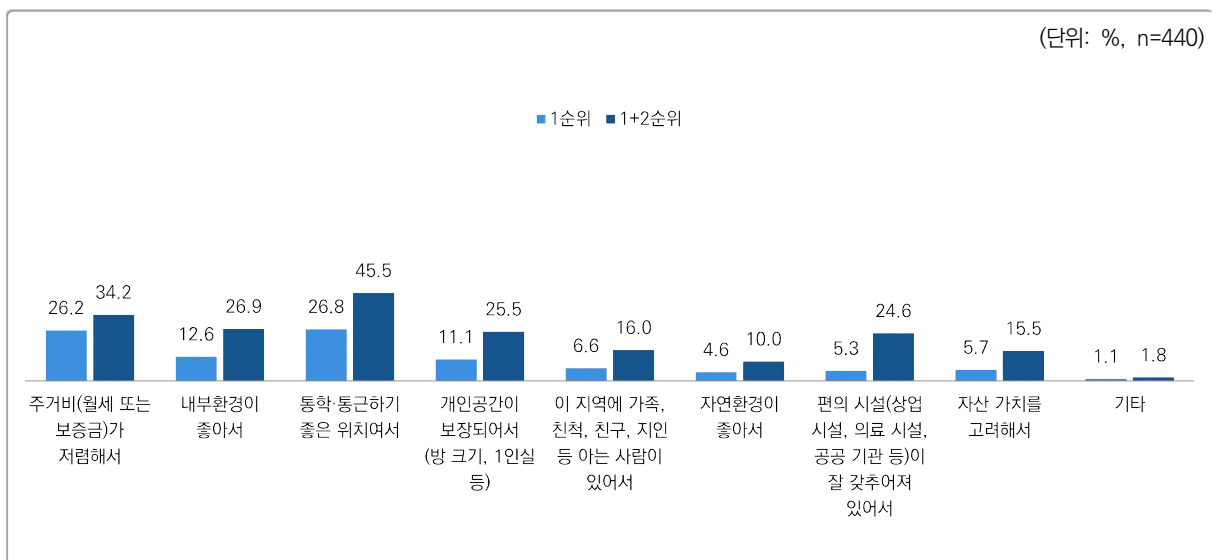
### ① 1순위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의 1순위를 조사한 결과,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가 26.2%, ‘내부환경이 좋아서’가 12.6%,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방 크기, 1인실등)’가 11.1%,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6.6%,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가 5.7%, ‘편의 시설(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가 5.3%,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9.6%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9.1%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2.8%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세~29세는 44.1%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27.1%, 35세~39세는 21.7%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6.4%, 성남시 중원구는 26.6%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9.7%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7.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3.0%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27.5%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9.9%, 배우자 있음은 21.7%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1+2순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6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	내부 환경이 좋아서	통학·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 (방 크기, 1인실 등)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편의 시설 (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계
전체		(440)	26.2	12.6	26.8	11.1	6.6	4.6	5.3	5.7	1.1	100.0
성별	남성	(233)	29.6	12.5	24.8	13.3	6.5	4.3	4.3	4.4	0.4	100.0
	여성	(207)	22.3	12.6	29.1	8.7	6.8	4.9	6.3	7.3	2.0	100.0
연령	19세-24세	(55)	23.5	14.6	32.8	10.9	9.2	5.4	1.8	1.8	-	100.0
	25세-29세	(106)	44.1	8.4	30.7	7.4	2.8	1.8	2.8	1.9	-	100.0
	30세-34세	(125)	24.8	10.4	27.1	17.6	8.0	1.6	5.6	4.1	0.8	100.0
	35세-39세	(153)	15.8	16.5	21.7	8.5	7.3	8.6	7.9	11.2	2.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24)	36.4	10.5	25.8	11.2	3.2	1.6	4.8	6.5	-	100.0
	성남시 중원구	(98)	26.6	12.4	21.6	14.4	8.3	3.0	2.1	8.3	3.1	100.0
	성남시 분당구	(218)	20.1	13.8	29.7	9.6	7.8	6.9	6.9	4.2	0.9	100.0
학력	고졸 이하	(67)	25.3	10.4	27.0	14.9	13.5	2.9	4.4	1.5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45)	17.8	15.8	33.0	17.7	8.9	4.5	-	2.3	-	100.0
	대학 졸업 이상	(328)	27.5	12.5	25.9	9.5	4.9	4.9	6.1	7.1	1.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300)	32.0	10.3	29.9	12.7	4.3	5.0	3.3	2.0	0.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25)	11.3	18.5	21.7	5.6	10.5	4.0	10.5	14.5	3.2	100.0
	별거·이혼·사별*	(15)	33.1	6.8	6.8	26.5	20.1	-	-	6.7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② 1+2순위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의 1+2순위를 조사한 결과,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가 34.2%, ‘내부환경이 좋아서’가 26.9%,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방 크기, 1인실등)’가 25.5%, ‘편의 시설(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가 24.6%,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16%,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가 15.5%,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0.2%, 여성은 51.4%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7.5%, 30세~34세는 50.4%, 35세~39세는 36.2%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53.6%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7.7%로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40.2%, 성남시 분당구는 51.6%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3.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5.3%, 대학 졸업 이상은 44.5%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0.9%, 배우자 있음은 36.2%로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6.9%로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0〉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2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	내부 환경이 좋아서	통학· 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 (방 크기, 1인실 등)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편의 시설 (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전체		(440)	34.2	26.9	45.5	25.5	16.0	10.0	24.6	15.5	1.8
성별	남성	(233)	39.1	31.0	40.2	27.4	14.6	9.0	22.3	15.1	1.3
	여성	(207)	28.6	22.4	51.4	23.3	17.5	11.2	27.2	16.1	2.4
연령	19세~24세	(55)	34.4	27.3	47.5	27.3	18.2	14.6	18.2	12.6	-
	25세~29세	(106)	53.6	30.2	52.0	25.2	12.2	5.6	14.8	6.5	-
	30세~34세	(125)	33.6	28.8	50.4	27.2	16.8	8.0	23.2	10.5	1.6
	35세~39세	(153)	21.1	23.0	36.2	23.6	17.1	13.2	34.9	27.0	4.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24)	47.7	34.8	38.7	24.9	12.0	8.1	19.4	14.5	-
	성남시 중원구	(98)	33.9	27.8	40.2	25.8	18.6	8.2	23.7	17.6	4.2
	성남시 분당구	(218)	26.6	22.0	51.6	25.7	17.0	12.0	28.0	15.2	1.9
학력	고졸 이하	(67)	32.9	18.0	43.4	31.2	27.0	8.9	29.8	8.8	-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45)	24.5	33.6	55.3	26.6	20.0	15.6	15.4	9.0	-
	대학 졸업 이상	(328)	35.7	27.8	44.5	24.2	13.2	9.5	24.8	17.8	2.5
혼인 상태	미혼/비혼	(300)	41.0	26.7	50.9	30.7	10.3	9.0	20.0	10.7	0.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25)	17.7	28.2	36.2	12.1	25.8	11.3	35.5	28.3	4.9
	별거·이혼·사별*	(15)	33.1	20.3	13.2	33.3	46.9	20.0	26.5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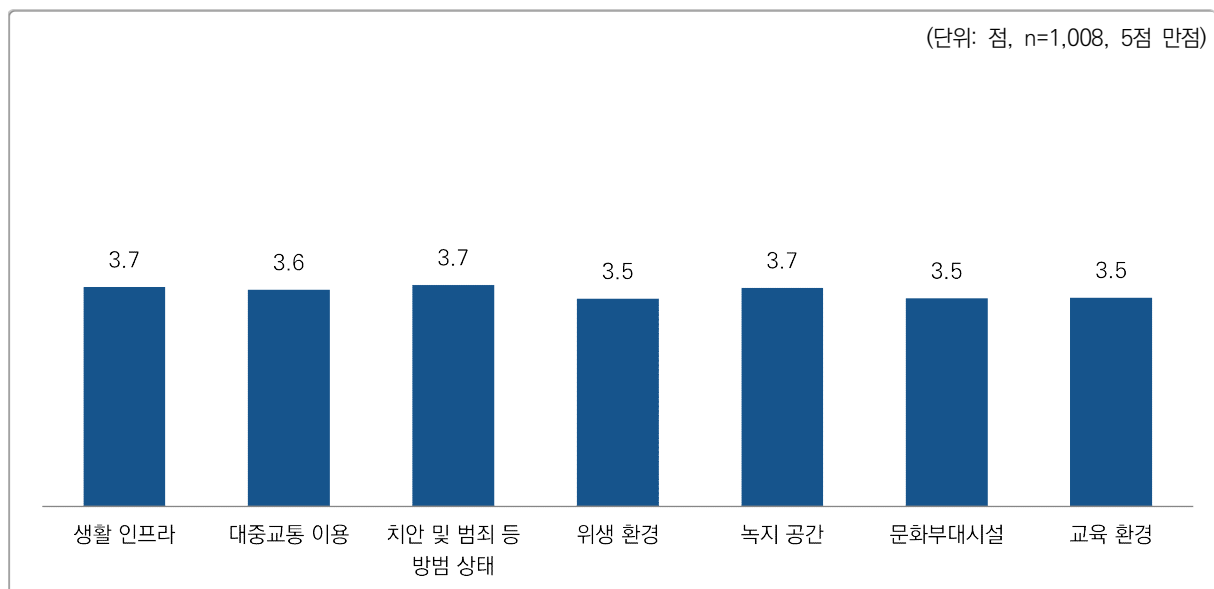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주거 만족 및 형태

#### (1) 현재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현재의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 인프라,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녹지 공간 모두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3.6점, 위생 환경과 문화 부대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모두 3.5점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녹지 공간이 모두 3.7점 동일한 점수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생활 인프라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녹지 공간이 3.8점 동일한 점수로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와 30세~34세는 생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녹지공간이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생활인프라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모두 3.5점 동일한 점수로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생활 인프라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녹지 공간이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생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생활 인프라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교육 환경이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생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이용,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그리고 녹지 공간이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생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녹지 공간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0〉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표 2-7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위생 환경	녹지 공간	문화 부대시설	교육 환경	이웃과의 관계
전체		(1,008)	3.7	3.6	3.7	3.5	3.7	3.5	3.5	3.3
성별	남성	(517)	3.6	3.6	3.7	3.5	3.6	3.5	3.6	3.3
	여성	(491)	3.7	3.7	3.7	3.5	3.7	3.5	3.5	3.2
연령	19세-24세	(214)	3.8	3.7	3.8	3.7	3.8	3.7	3.8	3.5
	25세-29세	(256)	3.7	3.7	3.7	3.5	3.6	3.5	3.5	3.2
	30세-34세	(282)	3.7	3.7	3.7	3.5	3.6	3.5	3.5	3.3
	35세-39세	(255)	3.5	3.5	3.6	3.4	3.7	3.5	3.4	3.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	3.4	3.5	3.3	3.4	3.4	3.3	3.2
	성남시 중원구	(232)	3.5	3.5	3.5	3.3	3.3	3.4	3.4	3.2
	성남시 분당구	(508)	3.9	3.8	3.9	3.7	3.9	3.7	3.7	3.3
학력	고졸 이하	(146)	3.3	3.3	3.3	3.1	3.2	3.2	3.2	2.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9	3.8	3.9	3.8	3.8	3.7	3.9	3.5
	대학 졸업 이상	(672)	3.7	3.7	3.7	3.6	3.7	3.6	3.5	3.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7	3.7	3.7	3.5	3.6	3.5	3.6	3.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7	3.5	3.8	3.6	3.9	3.6	3.5	3.3
	별거·이혼·사별	(32)	2.9	2.7	3.2	3.0	3.0	3.1	3.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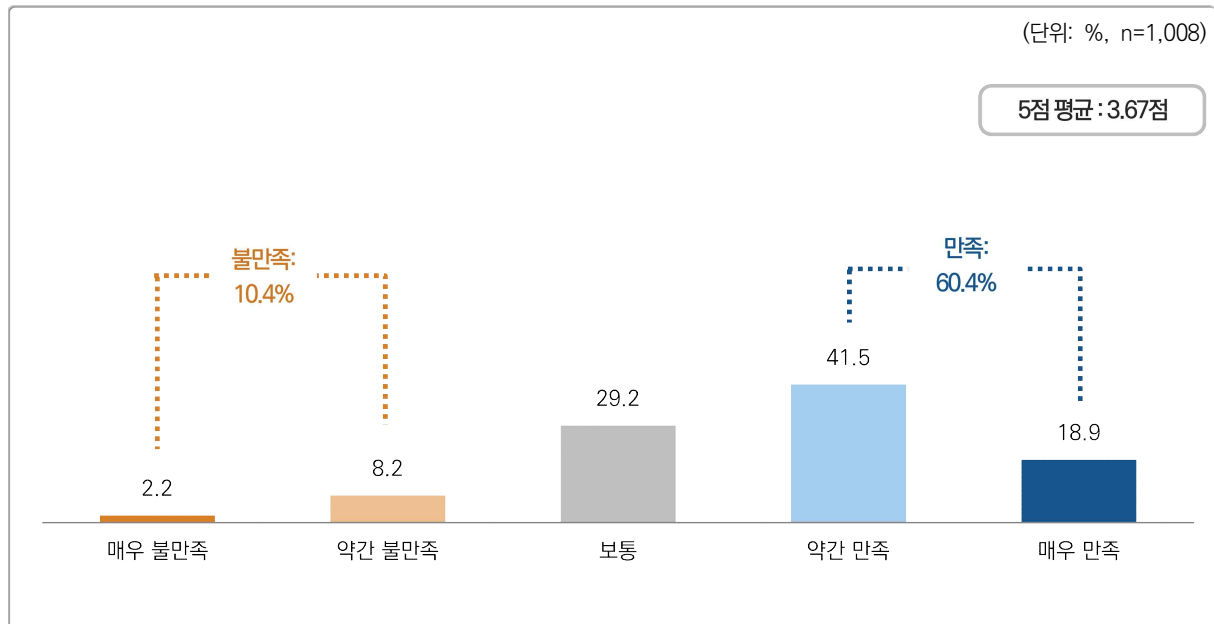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 ① 생활 인프라

■ 생활 인프라(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기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29.2%, '매우 만족'이 18.9%, '약간 불만족'이 8.2%, '매우 불만족'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60.4%, '불만족'이 10.4%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9.9%, 여성은 61.0%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5.2%, 25세~29세는 62.7%, 30세~34세는 64.0%, 35세~39세는 50.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9.1%, 성남시 중원구는 56.2%, 성남시 분당구는 68.4%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2.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9.5%, 대학 졸업 이상은 61.8%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1.7%, 배우자 있음은 62.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0.0%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생활 인프라



〈표 2-7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생활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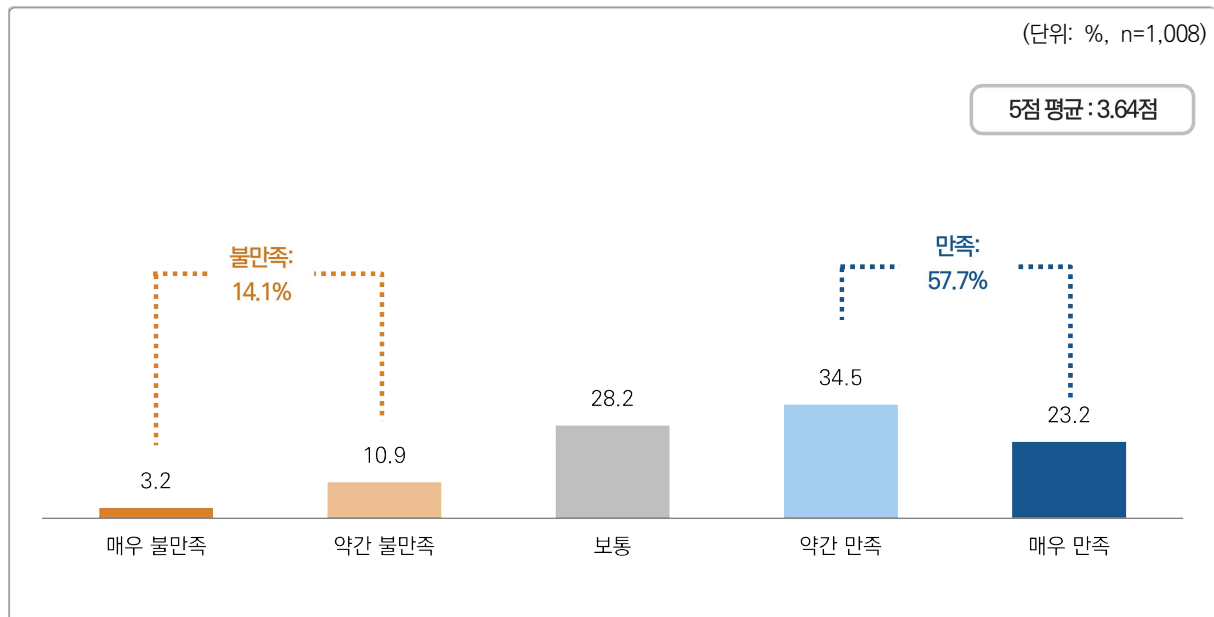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2.2	8.2	29.2	41.5	18.9	10.4	29.2	60.4	100.0	(3.67)
성별	남성	(517)	1.9	8.1	30.1	44.3	15.5	10.1	30.1	59.9	100.0	(3.63)
	여성	(491)	2.5	8.2	28.3	38.5	22.5	10.7	28.3	61.0	100.0	(3.70)
연령	19세~24세	(214)	2.3	5.1	27.4	42.7	22.5	7.5	27.4	65.2	100.0	(3.78)
	25세~29세	(256)	1.6	10.2	25.6	43.9	18.8	11.7	25.6	62.7	100.0	(3.68)
	30세~34세	(282)	2.1	7.5	26.4	44.8	19.2	9.6	26.4	64.0	100.0	(3.71)
	35세~39세	(255)	2.8	9.5	37.5	34.4	15.8	12.3	37.5	50.2	100.0	(3.5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0	12.0	35.9	35.2	13.9	15.0	35.9	49.1	100.0	(3.45)
	성남시 중원구	(232)	3.0	10.5	30.4	44.4	11.8	13.5	30.4	56.2	100.0	(3.51)
	성남시 분당구	(508)	1.4	5.1	25.1	43.5	24.9	6.5	25.1	68.4	100.0	(3.85)
학력	고졸 이하	(146)	4.1	14.4	39.1	28.7	13.7	18.5	39.1	42.4	100.0	(3.3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1	4.8	23.7	44.3	25.2	6.8	23.7	69.5	100.0	(3.86)
	대학 졸업 이상	(672)	1.8	7.8	28.6	43.5	18.3	9.6	28.6	61.8	100.0	(3.6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2	6.7	29.4	42.7	19.0	8.9	29.4	61.7	100.0	(3.7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	10.4	24.9	41.4	20.7	13.0	24.9	62.2	100.0	(3.67)
	별거·이혼·사별	(32)	-	31.1	50.0	12.6	6.3	31.1	50.0	18.9	100.0	(2.94)

## ② 대중교통 이용

■ 대중교통 이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28.2%, '매우 만족'이 23.2%, '약간 불만족'이 10.9%, '매우 불만족'이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57.7%, '불만족'이 14.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7.6%, 여성은 57.8%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9.7%, 25세~29세는 55.8%,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50.6%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0.2%, 성남시 중원구는 52.9%, 성남시 분당구는 63.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3.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4.4%, 대학 졸업 이상은 58.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7%, 배우자 있음은 55.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8%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대중교통 이용



〈표 2-7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대중교통 이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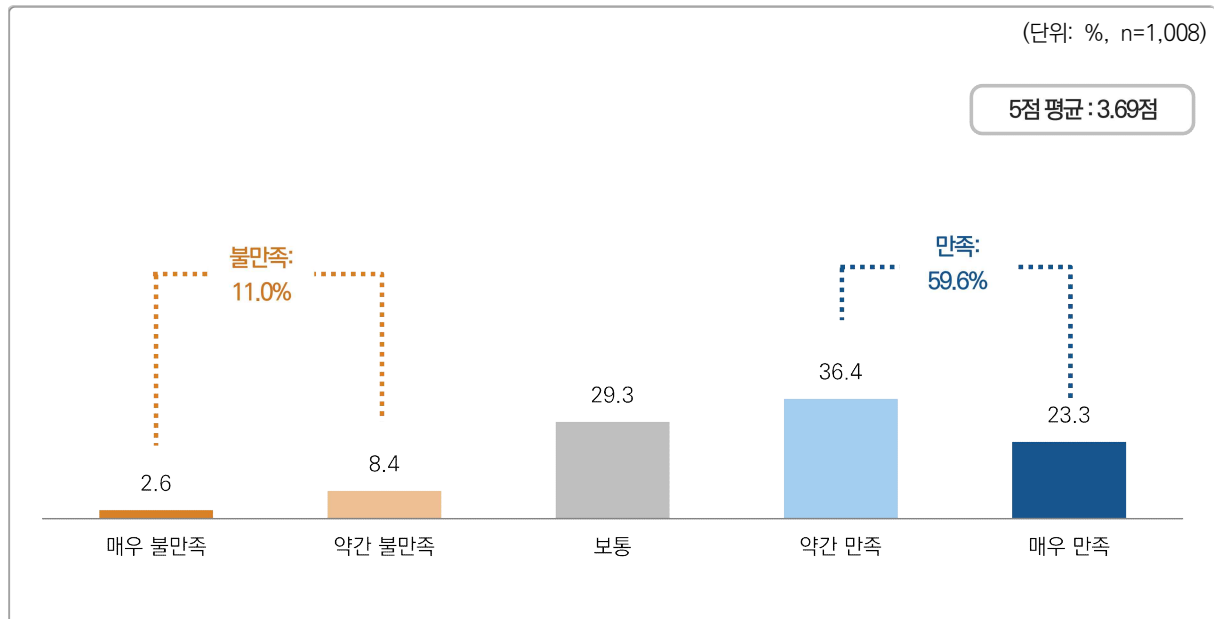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3.2	10.9	28.2	34.5	23.2	14.1	28.2	57.7	100.0	(3.64)
성별	남성	(517)	2.3	12.2	27.9	36.9	20.7	14.5	27.9	57.6	100.0	(3.62)
	여성	(491)	4.1	9.7	28.5	32.0	25.8	13.8	28.5	57.8	100.0	(3.66)
연령	19세-24세	(214)	2.3	10.2	27.8	33.5	26.1	12.5	27.8	59.7	100.0	(3.71)
	25세-29세	(256)	2.3	10.5	31.4	30.8	25.0	12.8	31.4	55.8	100.0	(3.66)
	30세-34세	(282)	3.9	8.2	23.5	41.3	23.1	12.2	23.5	64.4	100.0	(3.71)
	35세-39세	(255)	4.0	15.0	30.5	31.6	19.0	19.0	30.5	50.6	100.0	(3.4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5	14.6	30.7	33.3	16.9	19.1	30.7	50.2	100.0	(3.43)
	성남시 중원구	(232)	4.3	13.0	29.8	36.0	16.9	17.4	29.8	52.9	100.0	(3.48)
	성남시 분당구	(508)	2.0	8.1	26.1	34.5	29.4	10.0	26.1	63.9	100.0	(3.81)
학력	고졸 이하	(146)	6.2	14.4	36.2	25.4	17.8	20.6	36.2	43.2	100.0	(3.3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	10.5	22.0	34.5	29.9	13.7	22.0	64.4	100.0	(3.77)
	대학 졸업 이상	(672)	2.6	10.3	28.2	36.5	22.4	12.9	28.2	58.9	100.0	(3.6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3	9.7	28.3	35.4	24.4	12.0	28.3	59.7	100.0	(3.7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6.2	11.4	26.4	33.7	22.2	17.7	26.4	55.9	100.0	(3.54)
	별거·이혼·사별	(32)	6.2	37.6	37.4	18.8	-	43.8	37.4	18.8	100.0	(2.69)

### ③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29.3%, '매우 만족'이 23.3%, '약간 불만족'이 8.4%, '매우 불만족'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59.6%, '불만족'이 11.0%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7.6%, 여성은 57.8%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5.2%, 25세~29세는 58.1%, 30세~34세는 62.2%, 35세~39세는 53.8%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9.8%, 성남시 중원구는 52.3%, 성남시 분당구는 68.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2.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7.5%, 대학 졸업 이상은 61.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9%, 배우자 있음은 63.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0.6%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표 2-7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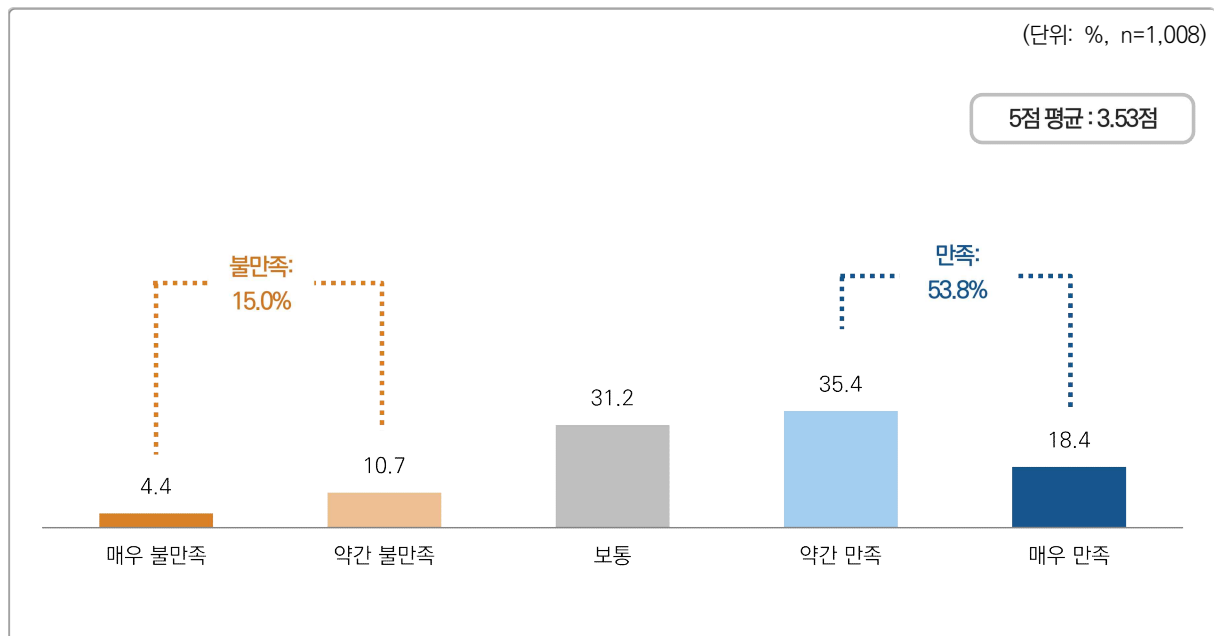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2.6	8.4	29.3	36.4	23.3	11.0	29.3	59.6	100.0	(3.69)
성별	남성	(517)	2.3	7.7	31.3	35.5	23.2	10.0	31.3	58.7	100.0	(3.70)
	여성	(491)	2.9	9.2	27.3	37.3	23.4	12.1	27.3	60.6	100.0	(3.69)
연령	19세-24세	(214)	0.9	7.0	26.9	39.1	26.1	7.9	26.9	65.2	100.0	(3.82)
	25세-29세	(256)	3.5	7.4	31.1	35.8	22.3	10.9	31.1	58.1	100.0	(3.66)
	30세-34세	(282)	2.5	8.2	27.1	39.8	22.4	10.7	27.1	62.2	100.0	(3.71)
	35세-39세	(255)	3.2	11.1	32.0	30.8	22.9	14.2	32.0	53.8	100.0	(3.5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	11.9	34.9	33.0	16.8	15.3	34.9	49.8	100.0	(3.48)
	성남시 중원구	(232)	4.3	8.2	35.1	34.6	17.7	12.6	35.1	52.3	100.0	(3.53)
	성남시 분당구	(508)	1.4	6.7	23.8	39.0	29.2	8.1	23.8	68.2	100.0	(3.88)
학력	고졸 이하	(146)	6.2	16.5	35.0	25.9	16.5	22.7	35.0	42.3	100.0	(3.3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0	6.3	25.2	40.3	27.2	7.4	25.2	67.5	100.0	(3.86)
	대학 졸업 이상	(672)	2.2	7.3	29.3	37.5	23.6	9.6	29.3	61.2	100.0	(3.73)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8	7.9	29.3	37.6	22.3	10.8	29.3	59.9	100.0	(3.6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6	7.8	27.5	34.7	28.5	9.3	27.5	63.2	100.0	(3.81)
	별거·이혼·사별	(32)	3.1	25.1	40.6	15.4	15.8	28.2	40.6	31.2	100.0	(3.16)

④ 위생 환경

■ 위생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31.2%, '매우 만족'이 18.4%, '약간 불만족'이 10.7%, '매우 불만족'이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53.8%, '불만족'이 15.0%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4.5%, 여성은 53.0%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8.2%, 25세~29세는 52.6%, 30세~34세는 52.9%, 35세~39세는 52.2%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6.1%, 성남시 중원구는 46.3%, 성남시 분당구는 61.3%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6.9%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2.3%, 대학 졸업 이상은 55.5%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3.4%, 배우자 있음은 58.5%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4.5%로 '불만족'과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위생 환경



〈표 2-7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위생 환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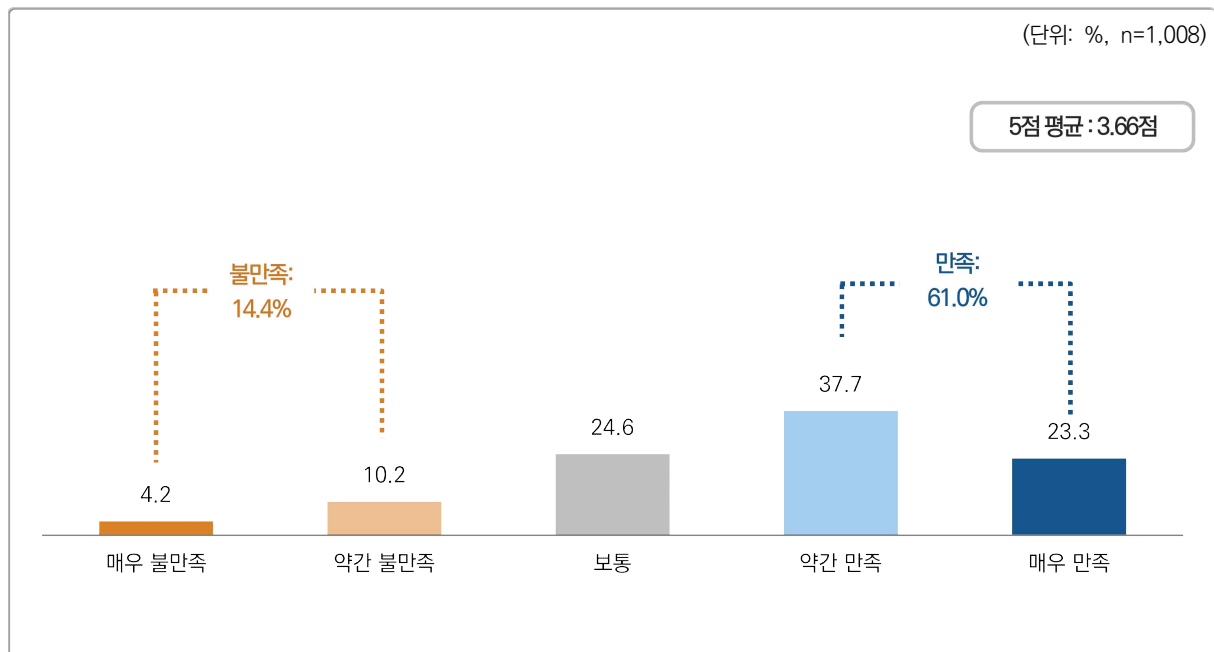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4.4	10.7	31.2	35.4	18.4	15.0	31.2	53.8	100.0	(3.53)
성별	남성	(517)	4.0	10.2	31.2	38.8	15.7	14.3	31.2	54.5	100.0	(3.52)
	여성	(491)	4.7	11.1	31.1	31.8	21.3	15.8	31.1	53.0	100.0	(3.54)
연령	19세-24세	(214)	2.8	7.0	32.0	33.9	24.3	9.7	32.0	58.2	100.0	(3.70)
	25세-29세	(256)	6.6	10.5	30.2	35.0	17.6	17.1	30.2	52.6	100.0	(3.47)
	30세-34세	(282)	3.2	10.0	33.8	35.2	17.8	13.2	33.8	52.9	100.0	(3.54)
	35세-39세	(255)	4.7	14.6	28.5	37.1	15.1	19.3	28.5	52.2	100.0	(3.43)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5.3	16.5	32.2	33.3	12.8	21.8	32.2	46.1	100.0	(3.32)
	성남시 중원구	(232)	7.4	12.1	34.2	35.0	11.3	19.5	34.2	46.3	100.0	(3.31)
	성남시 분당구	(508)	2.5	6.9	29.3	36.6	24.7	9.4	29.3	61.3	100.0	(3.74)
학력	고졸 이하	(146)	8.3	19.9	36.9	25.3	9.6	28.2	36.9	34.9	100.0	(3.0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	7.9	26.7	34.5	27.9	11.0	26.7	62.3	100.0	(3.76)
	대학 졸업 이상	(672)	3.9	9.4	31.2	37.8	17.7	13.3	31.2	55.5	100.0	(3.5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3	10.1	32.1	35.6	17.9	14.5	32.1	53.4	100.0	(3.5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10.3	27.5	36.3	22.2	14.0	27.5	58.5	100.0	(3.63)
	별거·이혼·사별	(32)	9.5	25.0	31.0	25.0	9.5	34.5	31.0	34.5	100.0	(3.00)

⑤ 녹지 공간

■ 녹지 공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24.6%, '매우 만족'이 23.3%, '약간 불만족'이 10.2%, '매우 불만족'이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61.0%, '불만족'이 14.4%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9.5%, 여성은 62.7%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7.9%, 25세~29세는 57.7%, 30세~34세는 57.9%, 35세~39세는 62.1%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2.4%, 성남시 중원구는 47.9%, 성남시 분당구는 71.6%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1.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1.2%, 대학 졸업 이상은 62.4%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9%, 배우자 있음은 70.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7%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녹지 공간



〈표 2-7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녹지 공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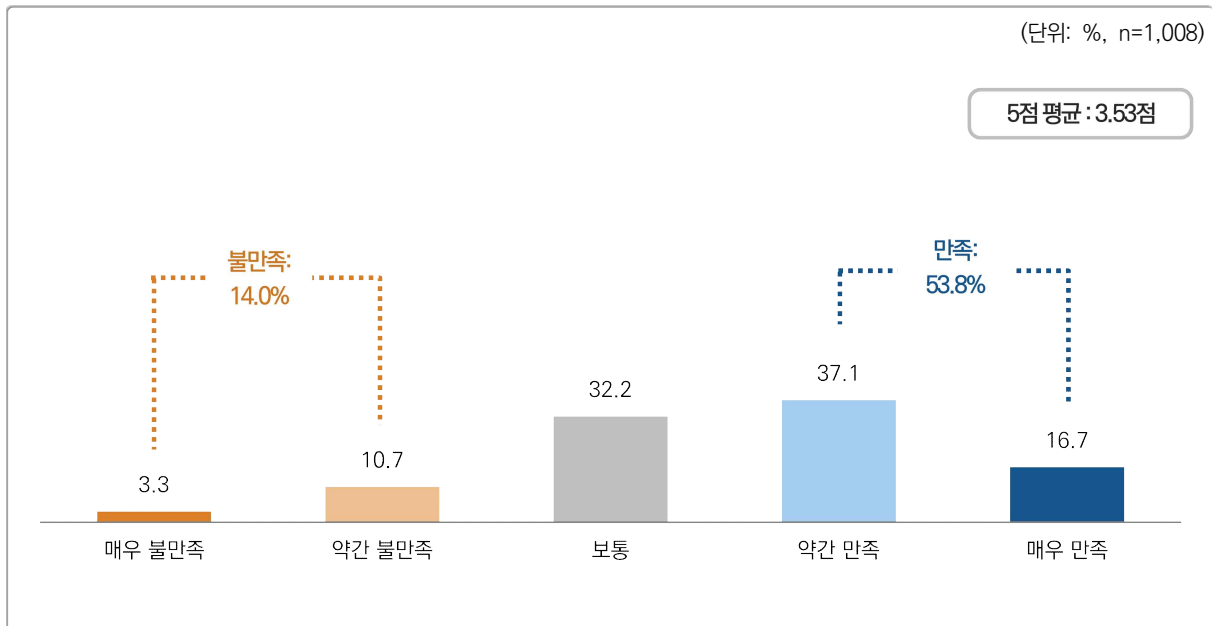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4.2	10.2	24.6	37.7	23.3	14.4	24.6	61.0	100.0	(3.66)
성별	남성	(517)	2.9	9.7	27.9	39.3	20.2	12.6	27.9	59.5	100.0	(3.64)
	여성	(491)	5.6	10.7	21.1	36.0	26.6	16.2	21.1	62.7	100.0	(3.67)
연령	19세-24세	(214)	2.8	8.4	20.9	40.3	27.6	11.2	20.9	67.9	100.0	(3.82)
	25세-29세	(256)	3.5	12.1	26.7	37.7	20.0	15.6	26.7	57.7	100.0	(3.58)
	30세-34세	(282)	5.0	9.3	27.8	35.9	22.0	14.3	27.8	57.9	100.0	(3.61)
	35세-39세	(255)	5.2	10.6	22.1	37.5	24.5	15.8	22.1	62.1	100.0	(3.6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2	14.6	25.8	34.8	17.6	21.8	25.8	52.4	100.0	(3.41)
	성남시 중원구	(232)	6.1	14.3	31.7	36.2	11.7	20.4	31.7	47.9	100.0	(3.33)
	성남시 분당구	(508)	1.8	5.9	20.7	39.9	31.6	7.7	20.7	71.6	100.0	(3.94)
학력	고졸 이하	(146)	9.6	13.0	35.7	29.3	12.3	22.7	35.7	41.6	100.0	(3.2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6	9.5	16.7	43.3	27.8	12.1	16.7	71.2	100.0	(3.84)
	대학 졸업 이상	(672)	3.5	9.7	24.4	37.9	24.4	13.2	24.4	62.4	100.0	(3.7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1	10.8	25.2	38.4	21.4	14.9	25.2	59.9	100.0	(3.6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2	5.7	19.2	36.8	34.2	9.9	19.2	70.9	100.0	(3.91)
	별거·이혼·사별	(32)	6.3	21.7	43.7	25.1	3.2	28.0	43.7	28.3	100.0	(2.97)

⑥ 문화부대시설

■ 문화부대시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32.2%, '매우 만족'이 16.7%, '약간 불만족'이 10.7%, '매우 불만족'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53.8%, '불만족'이 14.0%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3.4%, 여성은 54.3%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8.6%, 25세~29세는 50.4%, 30세~34세는 55.5%, 35세~39세는 51.4%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8.3%, 성남시 중원구는 48.8%, 성남시 분당구는 59.0%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7.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3.3%, 대학 졸업 이상은 54.6%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3.1%, 배우자 있음은 60.6%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7%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문화부대시설



〈표 2-7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문화부대시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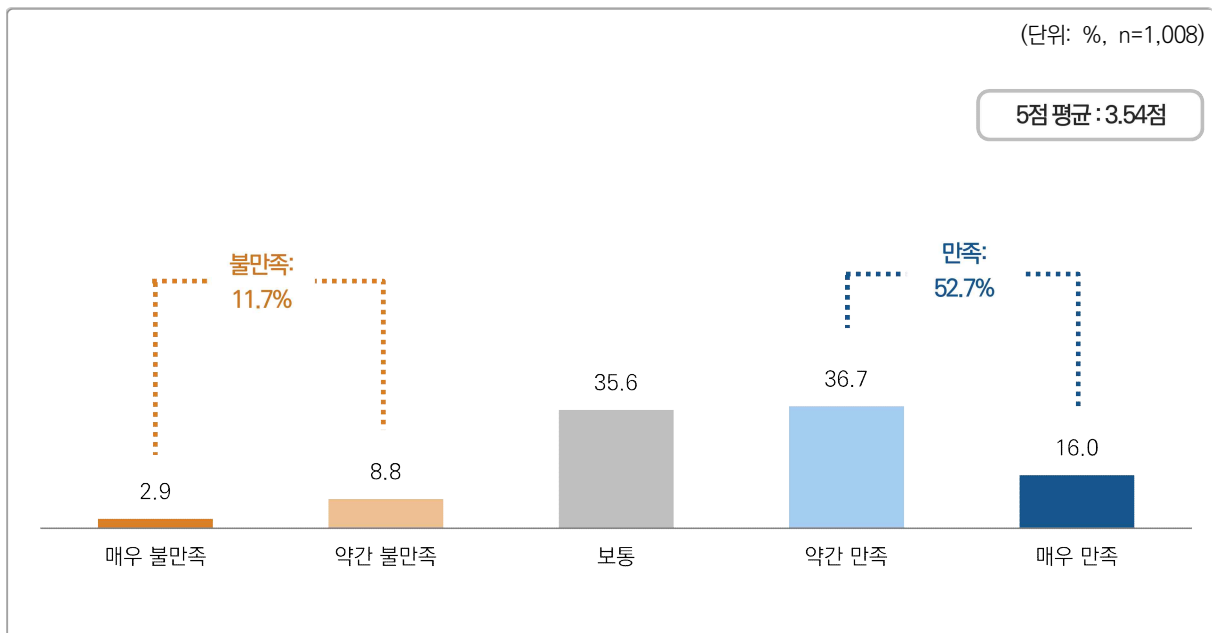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3.3	10.7	32.2	37.1	16.7	14.0	32.2	53.8	100.0	(3.53)
성별	남성	(517)	1.7	12.6	32.3	38.6	14.7	14.3	32.3	53.4	100.0	(3.52)
	여성	(491)	4.9	8.8	32.0	35.5	18.8	13.7	32.0	54.3	100.0	(3.54)
연령	19세~24세	(214)	2.8	8.4	30.1	36.7	21.9	11.2	30.1	58.6	100.0	(3.66)
	25세~29세	(256)	3.1	12.8	33.7	33.9	16.5	15.9	33.7	50.4	100.0	(3.48)
	30세~34세	(282)	3.6	8.9	32.1	41.3	14.2	12.5	32.1	55.5	100.0	(3.54)
	35세~39세	(255)	3.6	12.6	32.4	36.0	15.4	16.2	32.4	51.4	100.0	(3.4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1	13.9	33.7	33.7	14.6	18.0	33.7	48.3	100.0	(3.41)
	성남시 중원구	(232)	4.8	11.7	34.6	39.4	9.5	16.5	34.6	48.8	100.0	(3.37)
	성남시 분당구	(508)	2.2	8.6	30.2	37.8	21.2	10.8	30.2	59.0	100.0	(3.67)
학력	고졸 이하	(146)	7.6	17.1	37.6	26.1	11.6	24.8	37.6	37.7	100.0	(3.1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6	7.4	26.7	41.3	22.0	10.0	26.7	63.3	100.0	(3.73)
	대학 졸업 이상	(672)	2.5	10.3	32.5	38.3	16.3	12.8	32.5	54.6	100.0	(3.5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2	10.8	33.0	36.6	16.4	14.0	33.0	53.1	100.0	(3.5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8.8	26.9	40.9	19.7	12.4	26.9	60.6	100.0	(3.64)
	별거·이혼·사별	(32)	3.2	22.0	43.7	25.1	6.1	25.2	43.7	31.2	100.0	(3.09)

⑦ 교육 환경

■ 교육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 35.6%, '매우 만족'이 16.0%, '약간 불만족'이 8.8%, '매우 불만족'이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52.7%, '불만족'이 11.7%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4.3%, 여성은 51.0%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0.5%, 25세~29세는 51.9%, 30세~34세는 56.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43.1%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6%, 성남시 중원구는 45.3%, 성남시 분당구는 60.3%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1.8%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7.5%, 대학 졸업 이상은 52.1%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3.5%, 배우자 있음은 53.9%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7.0%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교육 환경





〈표 2-78〉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교육 환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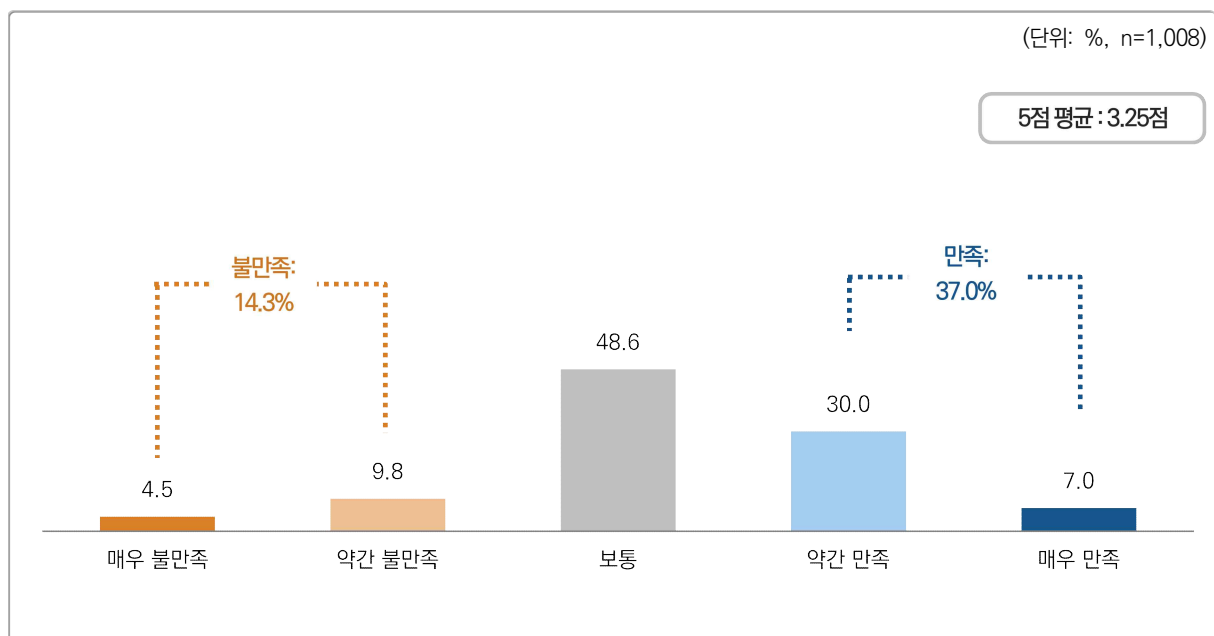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2.9	8.8	35.6	36.7	16.0	11.7	35.6	52.7	100.0	(3.54)
성별	남성	(517)	2.3	9.7	33.8	38.8	15.5	12.0	33.8	54.3	100.0	(3.55)
	여성	(491)	3.5	8.0	37.5	34.4	16.6	11.5	37.5	51.0	100.0	(3.53)
연령	19세-24세	(214)	2.4	4.2	33.0	34.4	26.1	6.5	33.0	60.5	100.0	(3.78)
	25세-29세	(256)	1.9	11.7	34.5	36.6	15.3	13.6	34.5	51.9	100.0	(3.52)
	30세-34세	(282)	2.5	8.9	31.7	44.8	12.0	11.4	31.7	56.9	100.0	(3.55)
	35세-39세	(255)	4.7	9.9	43.1	29.6	12.7	14.6	43.1	42.3	100.0	(3.3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2	13.5	37.8	33.7	10.9	17.6	37.8	44.6	100.0	(3.34)
	성남시 중원구	(232)	4.4	10.0	40.3	33.4	12.0	14.4	40.3	45.3	100.0	(3.39)
	성남시 분당구	(508)	1.6	5.9	32.2	39.7	20.6	7.4	32.2	60.3	100.0	(3.72)
학력	고졸 이하	(146)	5.6	16.4	41.8	27.4	8.9	22.0	41.8	36.2	100.0	(3.1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6	5.3	25.7	38.2	29.3	6.9	25.7	67.5	100.0	(3.88)
	대학 졸업 이상	(672)	2.7	8.2	37.0	38.3	13.8	10.9	37.0	52.1	100.0	(3.5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4	8.1	36.0	37.8	15.8	10.5	36.0	53.5	100.0	(3.5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2	9.9	32.1	35.2	18.7	14.0	32.1	53.9	100.0	(3.54)
	별거·이혼·사별	(32)	6.3	21.8	47.0	18.9	6.1	28.1	47.0	24.9	100.0	(2.97)

⑧ 이웃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간 만족'이 30.0%, '약간 불만족'이 9.8%, '매우 만족'이 7.0%, '매우 불만족'이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37%, '불만족'이 14.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5.6%, 여성은 51.8%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6%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45.5%, 30세~34세는 52.3%, 35세~39세는 55.3%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4.7%, 성남시 중원구는 43.8%, 성남시 분당구는 47.7%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2.0%, 대학 졸업 이상은 51.9%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4.9%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8.1%, 배우자 있음은 50.3%, 별거·이혼·사별은 52.9%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8〉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관계



〈표 2-79〉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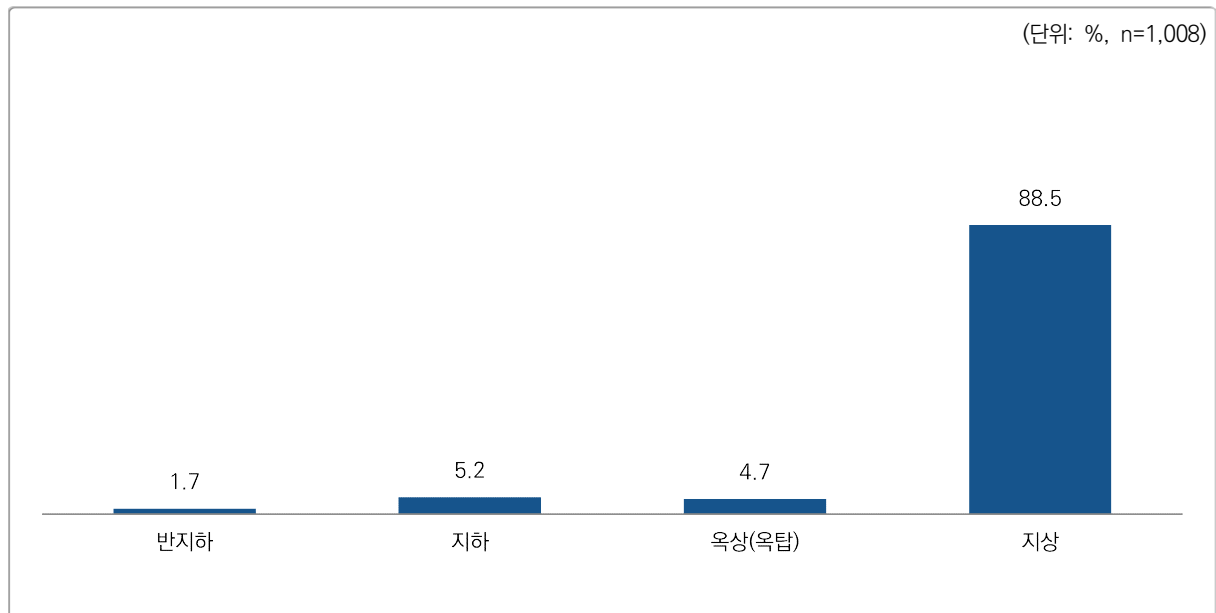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계	평균 (점)
전체		(1,008)	4.5	9.8	48.6	30.0	7.0	14.3	48.6	37.0	100.0	(3.25)
성별	남성	(517)	3.9	8.9	45.6	33.6	8.1	12.7	45.6	41.6	100.0	(3.33)
	여성	(491)	5.1	10.8	51.8	26.3	5.9	16.0	51.8	32.2	100.0	(3.17)
연령	19세~24세	(214)	2.8	6.1	39.5	41.3	10.3	8.9	39.5	51.6	100.0	(3.50)
	25세~29세	(256)	3.9	12.8	45.5	31.7	6.1	16.6	45.5	37.8	100.0	(3.23)
	30세~34세	(282)	4.6	7.8	52.3	28.1	7.1	12.5	52.3	35.2	100.0	(3.25)
	35세~39세	(255)	6.3	12.2	55.3	20.9	5.2	18.6	55.3	26.1	100.0	(3.0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1	11.2	54.7	24.7	5.2	15.4	54.7	30.0	100.0	(3.16)
	성남시 중원구	(232)	6.1	11.7	43.8	34.9	3.5	17.8	43.8	38.3	100.0	(3.18)
	성남시 분당구	(508)	3.9	8.2	47.7	30.6	9.6	12.2	47.7	40.2	100.0	(3.34)
학력	고졸 이하	(146)	9.6	15.8	52.0	20.5	2.0	25.4	52.0	22.5	100.0	(2.8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6	7.9	34.6	41.8	13.1	10.5	34.6	54.9	100.0	(3.55)
	대학 졸업 이상	(672)	3.9	9.1	51.9	28.7	6.4	13.0	51.9	35.1	100.0	(3.2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5	10.0	48.1	30.5	7.0	14.5	48.1	37.5	100.0	(3.2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6	8.8	50.3	29.0	8.3	12.4	50.3	37.3	100.0	(3.30)
	별거·이혼·사별	(32)	9.5	12.5	52.9	25.1	-	22.0	52.9	25.1	100.0	(2.94)

(2)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상'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하' 5.2%, '옥상(옥탑)' 4.7%, '반지하'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5.7%, 여성은 91.4%로 '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0.8%, 25세~29세는 84.8%, 30세~34세는 90.0%, 35세~39세는 88.6%로 '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3.2%, 성남시 중원구는 82.2%, 성남시 분당구는 94.1%로 '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6.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0.0%, 대학 졸업 이상은 92.8%로 '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지상에 살고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9.5%, 배우자 있음은 94.8%로 '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거·이혼·사별은 40.6%로 '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9〉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총)



〈표 2-80〉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계
전체		(1,008)	1.7	5.2	4.7	88.5	100.0
성별	남성	(517)	1.9	6.0	6.4	85.7	100.0
	여성	(491)	1.4	4.3	2.9	91.4	100.0
연령	19세-24세	(214)	-	5.1	4.2	90.8	100.0
	25세-29세	(256)	3.5	6.3	5.4	84.8	100.0
	30세-34세	(282)	1.8	3.6	4.7	90.0	100.0
	35세-39세	(255)	1.2	5.9	4.3	88.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9	8.6	6.3	83.2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3.1	7.8	6.9	82.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0	2.2	2.7	94.1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5.5	17.9	10.3	66.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	5.8	4.2	90.0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3	2.2	3.6	92.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7	4.2	4.6	89.5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	3.1	2.1	94.8	100.0
	별거·이혼·사별	(32)	12.6	40.6	21.9	2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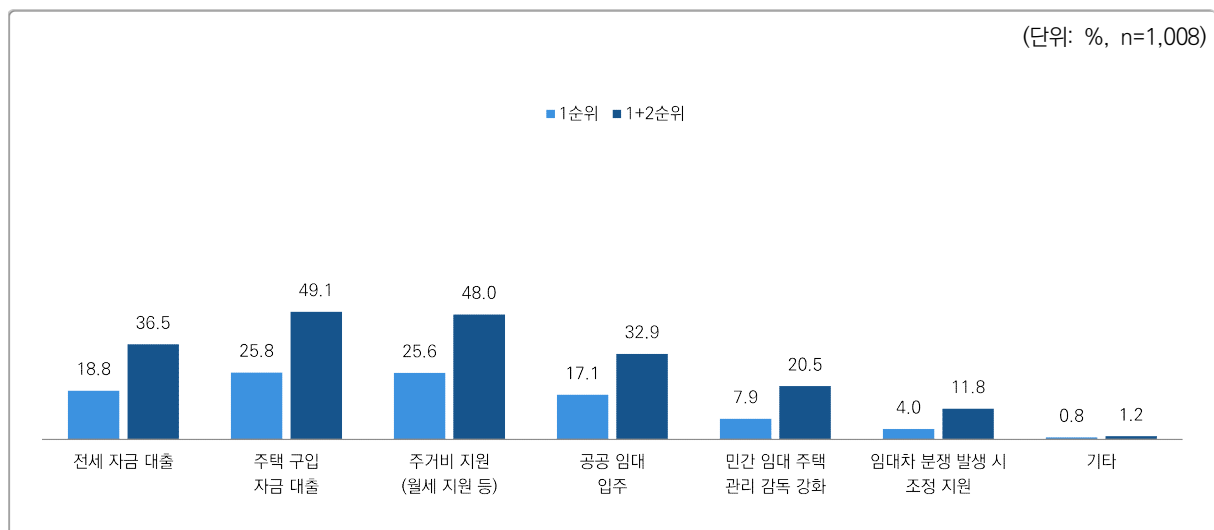
### (3)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 ① 1순위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이 25.6%, '전세 자금 대출'이 18.8%, '공공 임대 입주'가 17.1%,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가 7.9%,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25.5%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6.5%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6.9%, 25세~29세는 25.5%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26.0%, 35세~39세는 42.7%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6.9%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29.0%, 성남시 분당구는 25.6%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8.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8.9%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30.1%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8.4%로 '주거비 지원'이, 배우자 있음은 46.7%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28.0%로 '공공 임대 입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0〉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1+2순위)



〈표 2-81〉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등)	공공 임대 입주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 (불법 건축물 감독, 전세 사기 처벌, 불공정 공인 중개 처벌)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계
전체		(1,008)	18.8	25.8	25.6	17.1	7.9	4.0	0.8	100.0
성별	남성	(517)	19.2	25.1	25.5	18.6	6.4	4.8	0.4	100.0
	여성	(491)	18.4	26.5	25.6	15.6	9.6	3.1	1.2	100.0
연령	19세-24세	(214)	17.6	13.4	36.9	20.9	8.0	2.8	0.5	100.0
	25세-29세	(256)	22.3	19.0	25.5	18.2	9.7	4.3	1.2	100.0
	30세-34세	(282)	19.5	26.0	24.9	18.5	6.4	3.6	1.1	100.0
	35세-39세	(255)	15.4	42.7	17.0	11.4	7.9	5.1	0.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1.0	23.2	26.9	16.1	8.3	3.7	0.7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6.8	29.0	24.8	19.0	7.3	2.2	0.9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8.5	25.6	25.3	16.8	8.0	4.9	0.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5.8	15.8	28.7	24.0	11.7	2.7	1.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8.7	18.3	28.9	20.5	10.5	3.1	-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9.5	30.1	24.0	14.7	6.4	4.5	0.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9.2	21.2	28.4	18.5	8.1	3.8	0.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8.6	46.7	13.5	9.8	5.7	4.6	1.0	100.0
	별거·이혼·사별	(32)	9.4	9.3	31.3	28.0	18.9	3.2	-	100.0

② 1+2순위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1+2순위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이 48.0%, '전세 자금 대출'이 36.5%, '공공 임대 입주'가 32.9%,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가 20.5%,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이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0.1%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여성은 49.4%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0.2%, 25세~29세는 49.8%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52.3%, 35세~39세는 64.5%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9.1%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51.2%, 성남시 분당구는 49.3%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9.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5.2%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55.4%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0.9%, 별거·이혼·사별은 59.3%로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68.5%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82〉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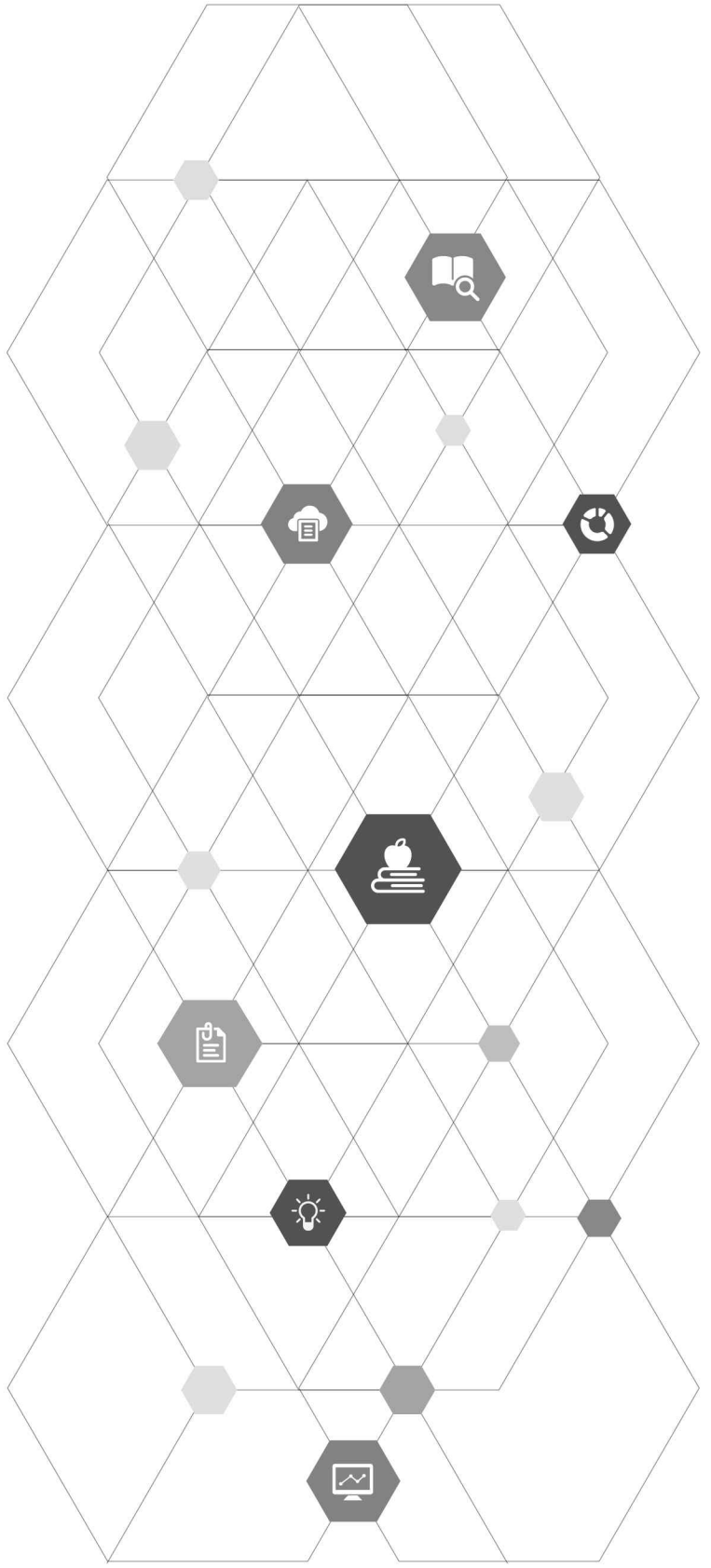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등)	공공 임대 입주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 (불법 건축물 감독, 전세 사기 처벌, 불공정 공인 중개 처벌)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체		(1,008)	36.5	49.1	48.0	32.9	20.5	11.8	1.2
성별	남성	(517)	37.2	50.1	46.7	36.3	18.3	10.6	0.8
	여성	(491)	35.8	48.0	49.4	29.3	22.8	13.1	1.6
연령	19세~24세	(214)	37.5	32.5	60.2	38.6	21.5	9.3	0.5
	25세~29세	(256)	41.7	44.0	49.8	31.7	20.1	11.6	1.2
	30세~34세	(282)	36.9	52.3	43.8	34.9	19.6	11.0	1.4
	35세~39세	(255)	30.0	64.5	40.7	27.2	20.9	15.0	1.6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7.5	46.8	49.1	32.9	21.0	12.0	0.7
	성남시 중원구	(232)	34.4	51.2	46.0	36.3	18.6	12.2	1.3
	성남시 분당구	(508)	37.0	49.3	48.4	31.3	21.0	11.6	1.4
학력	고졸 이하	(146)	28.7	39.0	49.3	39.1	28.9	13.7	1.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8.1	34.5	55.2	38.7	23.6	10.0	-
	대학 졸업 이상	(672)	37.8	55.4	45.7	29.9	17.7	11.9	1.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7.2	45.5	50.9	35.4	19.7	10.5	0.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7.2	68.5	34.8	21.7	18.6	16.5	2.6
	별거·이혼·사별	(32)	15.7	18.7	59.3	40.6	50.2	15.7	-



07

07H





## 7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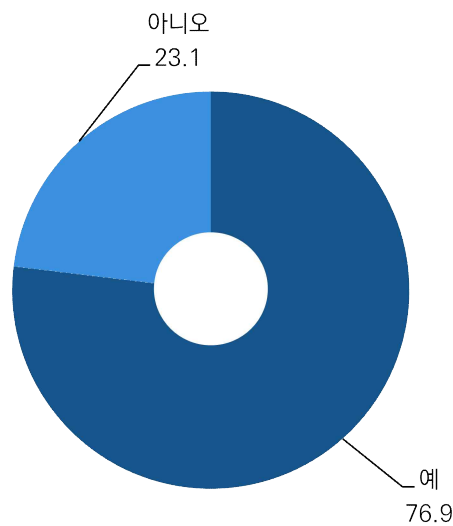
## 1) 일의 여부

## (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는 76.9%, '아니오'는 23.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8.0%, 여성은 75.8%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8.2%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84.5%, 30세~34세는 85.0%, 35세~39세는 89.7%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6.8%, 성남시 중원구는 73.8%, 성남시 분당구는 78.3%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3.0%, 대학 졸업 이상은 89.0%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5.0%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4.6%, 배우자 있음은 88.6%, 별거·이혼·사별은 62.4%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 n=1,008)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3〉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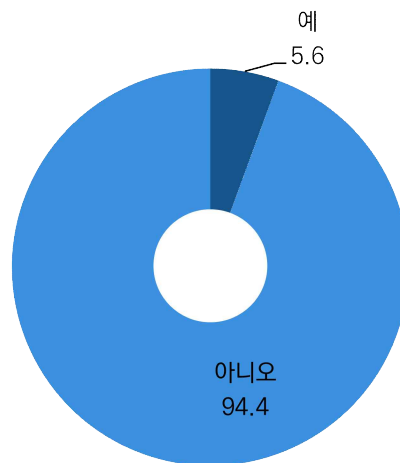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08)	76.9	23.1	100.0
성별	남성	(517)	78.0	22.0	100.0
	여성	(491)	75.8	24.2	100.0
연령	19세-24세	(214)	41.8	58.2	100.0
	25세-29세	(256)	84.5	15.5	100.0
	30세-34세	(282)	85.0	15.0	100.0
	35세-39세	(255)	89.7	10.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6.8	23.2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73.8	26.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78.3	21.7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63.0	37.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45.0	55.0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89.0	11.0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4.6	25.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88.6	11.4	100.0
	별거·이혼·사별	(32)	62.4	37.6	100.0

(2)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지난주에 일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는 5.6%, '아니오'는 94.4%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93.9%, 여성은 94.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8.4%, 25세~29세는 95.0%, 30세~34세는 83.3%, 35세~39세는 92.3%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93.5%, 성남시 중원구는 91.8%, 성남시 분당구는 96.4%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94.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9.0%, 대학 졸업 이상은 87.8%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95.5%, 배우자 있음은 81.7%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2〉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단위: %, n=233)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4〉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233)	5.6	94.4	100.0
성별	남성	(114)	6.1	93.9	100.0
	여성	(119)	5.1	94.9	100.0
연령	19세-24세	(125)	1.6	98.4	100.0
	25세-29세	(40)	5.0	95.0	100.0
	30세-34세	(42)	16.7	83.3	100.0
	35세-39세*	(26)	7.7	92.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62)	6.5	93.5	100.0
	성남시 중원구	(61)	8.2	91.8	100.0
	성남시 분당구	(110)	3.6	96.4	100.0
학력	고졸 이하	(54)	5.5	94.5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05)	1.0	99.0	100.0
	대학 졸업 이상	(74)	12.2	87.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99)	4.5	95.5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2)	18.3	81.7	100.0
	별거·이혼·사별*	(12)	-	100.0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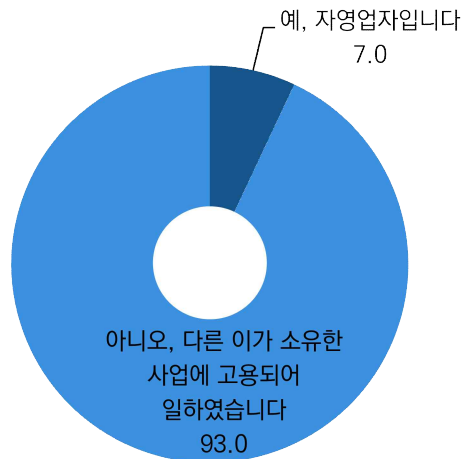
## 2) 취업자

### (1) 자영업 해당 여부

■ 지난주에 일한 일자리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자영업자입니다'는 7.0%,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는 93.0%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92.2%, 여성은 93.9%로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6.8%, 25세~29세는 92.8%, 30세~34세는 90.6%, 35세~39세는 94.3%로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93.8%, 성남시 중원구는 89.1%, 성남시 분당구는 94.3%로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90.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7.7%, 대학 졸업 이상은 92.7%로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94.9%, 배우자 있음은 88.5%로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3〉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단위: %, n=788)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5〉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자영업자입니다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	계
전체		(788)	7.0	93.0	100.0
성별	남성	(410)	7.8	92.2	100.0
	여성	(378)	6.1	93.9	100.0
연령	19세-24세	(92)	3.2	96.8	100.0
	25세-29세	(218)	7.2	92.8	100.0
	30세-34세	(247)	9.4	90.6	100.0
	35세-39세	(231)	5.7	94.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10)	6.2	93.8	100.0
	성남시 중원구	(176)	10.9	89.1	100.0
	성남시 분당구	(402)	5.7	94.3	100.0
학력	고졸 이하	(95)	9.4	90.6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87)	2.3	97.7	100.0
	대학 졸업 이상	(607)	7.3	92.7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592)	5.1	94.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6)	11.5	88.5	100.0
	별거·이혼·사별*	(20)	24.6	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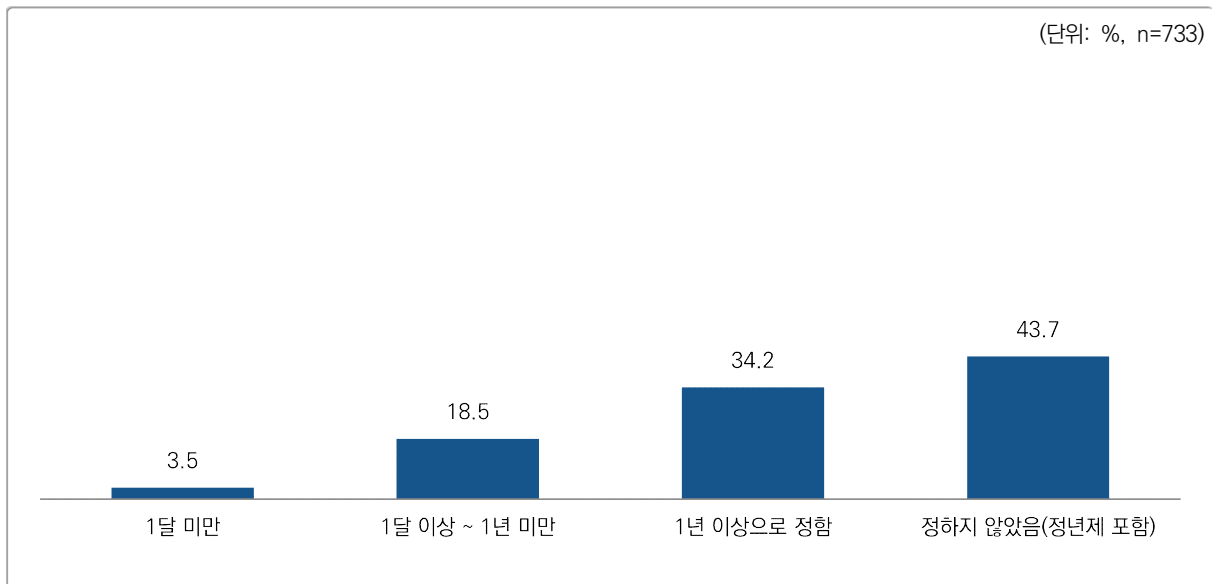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 고용계약기간

■ 지난주에 일한 일자리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하지 않았음'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함'은 34.2%, '1달 이상~1년 미만'은 18.5%, '1달 미만'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46.4%, 여성은 40.8%로 '정하지 않았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7.0%, 25세~29세는 42.5%, 30세~34세는 52.4%, 35세~39세는 42.6%로 '정하지 않았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9.4%, 성남시 중원구는 46.2%, 성남시 분당구는 44.9%로 '정하지 않았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6.1%로 '1년 이상으로 정함'이,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0.0%로 '1달 이상~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50.4%로 '정하지 않았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2.8%, 배우자 있음은 51.0%로 '정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4〉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기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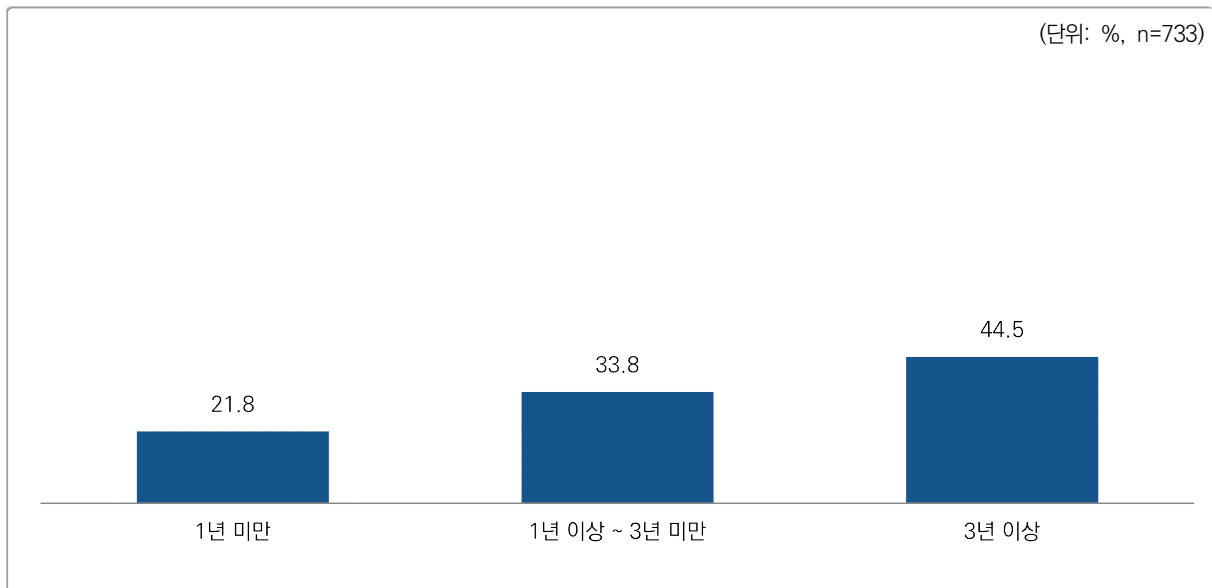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달 미만	1달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정함	정하지 않았음 (정년제 포함)	계
전체		(733)	3.5	18.5	34.2	43.7	100.0
성별	남성	(378)	4.2	18.7	30.8	46.4	100.0
	여성	(355)	2.8	18.4	38.0	40.8	100.0
연령	19세-24세	(89)	10.1	39.3	23.6	27.0	100.0
	25세-29세	(203)	3.9	20.1	33.5	42.5	100.0
	30세-34세	(224)	0.9	13.0	33.6	52.4	100.0
	35세-39세	(218)	3.2	14.3	39.8	42.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97)	6.1	20.4	34.2	39.4	100.0
	성남시 중원구	(157)	2.6	18.5	32.7	46.2	100.0
	성남시 분당구	(379)	2.6	17.6	34.9	44.9	100.0
학력	고졸 이하	(86)	7.0	36.0	36.1	20.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85)	8.2	40.0	29.4	22.4	100.0
	대학 졸업 이상	(563)	2.3	12.6	34.7	50.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562)	3.7	19.7	33.7	42.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56)	1.3	10.3	37.4	51.0	100.0
	별거·이혼·사별*	(15)	20.0	60.0	20.0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년 이상'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은 33.8%, '1년 미만'은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45.2%, 여성은 43.7%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7%로 '1년 미만'이, 25세~29세는 47.2%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52.9%, 35세~39세는 65.3%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4%, 성남시 분당구는 47.5%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42.3%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8.4%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1.8%로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50.1%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9.0%, 배우자 있음은 63.9%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5〉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7〉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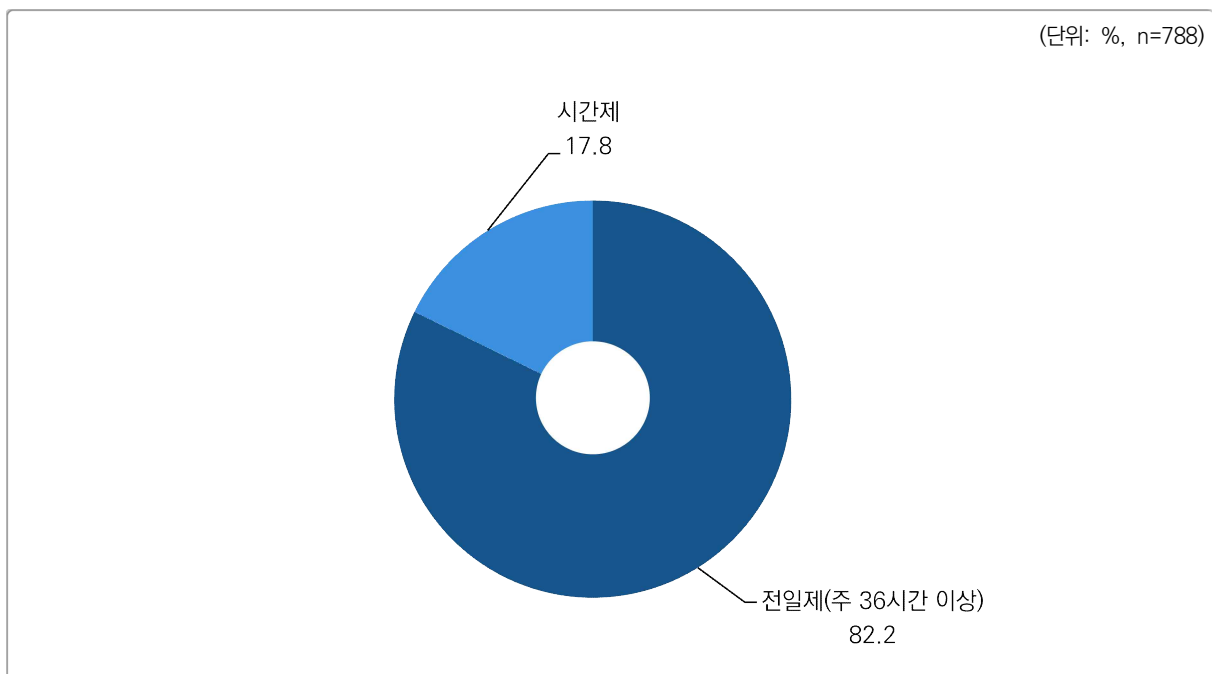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계
전체		(733)	21.8	33.8	44.5	100.0
성별	남성	(378)	19.6	35.1	45.2	100.0
	여성	(355)	24.1	32.3	43.7	100.0
연령	19세-24세	(89)	51.7	37.2	11.2	100.0
	25세-29세	(203)	25.4	47.2	27.4	100.0
	30세-34세	(224)	13.9	33.2	52.9	100.0
	35세-39세	(218)	14.3	20.4	65.3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97)	26.0	29.7	44.4	100.0
	성남시 중원구	(157)	20.4	42.3	37.3	100.0
	성남시 분당구	(379)	20.2	32.4	47.5	100.0
학력	고졸 이하	(86)	26.5	38.4	35.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85)	51.8	31.8	16.5	100.0
	대학 졸업 이상	(563)	16.5	33.4	50.1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562)	25.2	35.8	39.0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56)	11.6	24.5	63.9	100.0
	별거·이혼·사별*	(15)	-	53.6	46.4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근로형태

■ 근로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일제’가 82.2%, ‘시간제’가 17.8%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3.0%, 여성은 81.4%로 ‘전일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1%, 25세~29세는 78.6%, 30세~34세는 93.5%, 35세~39세는 86.0%로 ‘전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6.1%, 성남시 중원구는 85.8%, 성남시 분당구는 83.9%로 ‘전일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3.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2.9%, 대학 졸업 이상은 89.4%로 ‘전일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0.4%, 배우자 있음은 92.0%로 ‘전일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근로형태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8〉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 근로형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일제 (주 36시간 이상)	시간제	계
전체		(788)	82.2	17.8	100.0
성별	남성	(410)	83.0	17.0	100.0
	여성	(378)	81.4	18.6	100.0
연령	19세-24세	(92)	51.1	48.9	100.0
	25세-29세	(218)	78.6	21.4	100.0
	30세-34세	(247)	93.5	6.5	100.0
	35세-39세	(231)	86.0	14.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10)	76.1	23.9	100.0
	성남시 중원구	(176)	85.8	14.2	100.0
	성남시 분당구	(402)	83.9	16.1	100.0
학력	고졸 이하	(95)	63.1	36.9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87)	52.9	47.1	100.0
	대학 졸업 이상	(607)	89.4	10.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592)	80.4	19.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6)	92.0	8.0	100.0
	별거·이혼·사별*	(20)	49.9	5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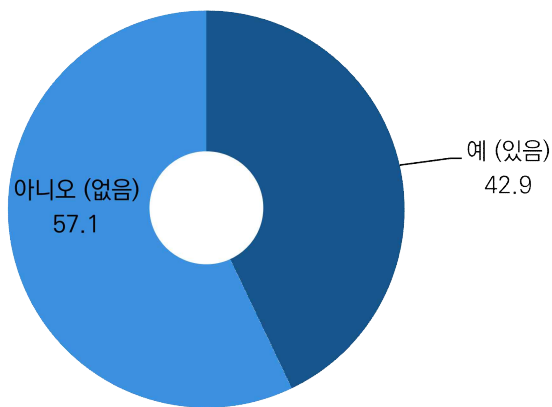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5) 지난 4주 동안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42.9%, '아니오'가 57.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1.4%, 여성은 52.8%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3.4%, 30세~34세는 56.1%로 '예'가 더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61.5%, 35세~39세는 71.8%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0.0%, 성남시 중원구는 64.0%, 성남시 분당구는 59.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1.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3.4%, 대학 졸업 이상은 62.4%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6.8%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7〉 지난 4주 동안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단위: %, n=140)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89〉 지난 4주 동안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있음)	아니오 (없음)	계
전체		(140)	42.9	57.1	100.0
성별	남성	(70)	38.6	61.4	100.0
	여성	(70)	47.2	52.8	100.0
연령	19세-24세	(45)	53.4	46.6	100.0
	25세-29세	(47)	38.5	61.5	100.0
	30세-34세*	(16)	56.1	43.9	100.0
	35세-39세	(32)	28.2	71.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0)	50.0	50.0	100.0
	성남시 중원구*	(25)	36.0	64.0	100.0
	성남시 분당구	(65)	40.1	59.9	100.0
학력	고졸 이하	(35)	48.4	51.6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41)	46.6	53.4	100.0
	대학 졸업 이상	(64)	37.6	62.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16)	43.2	56.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4)	42.6	57.4	100.0
	별거·이혼·사별*	(10)	39.8	60.2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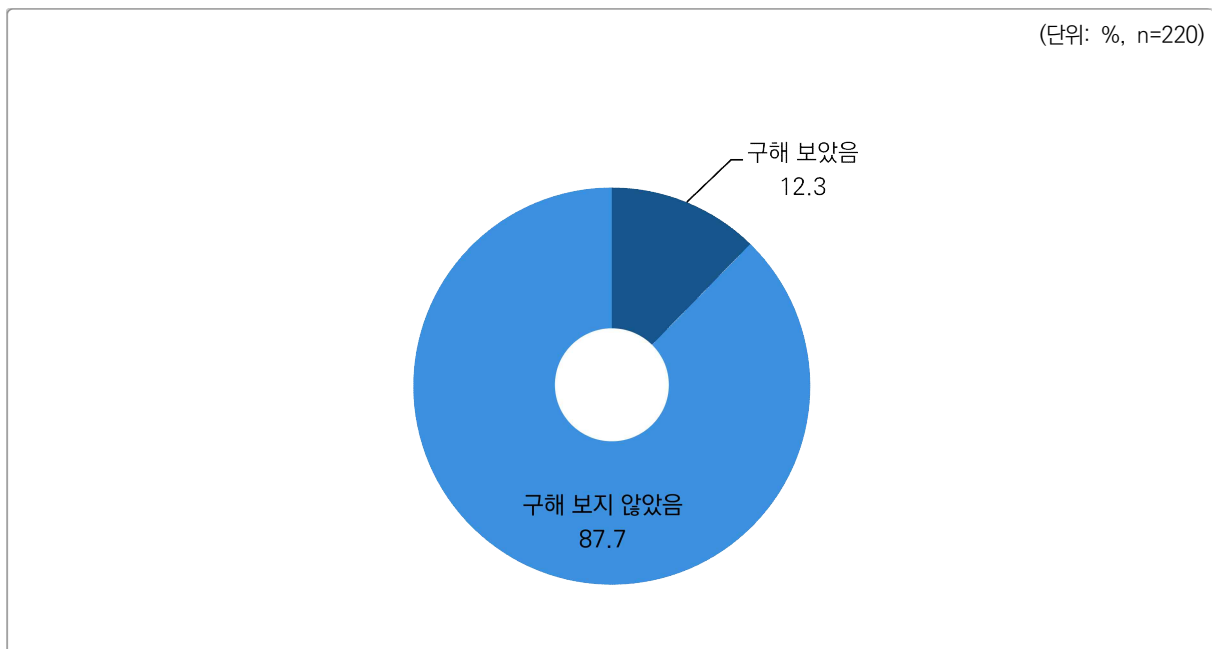


## 2) 미취업자

### (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해 보았음’이 12.3%, ‘구해 보지 않았음’이 87.7%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5.1%, 여성은 90.2%로 ‘구해 보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6.8%, 25세~29세는 81.7%, 30세~34세는 74.2%, 35세~39세는 70.8%로 ‘구해 보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7.9%, 성남시 중원구는 85.4%, 성남시 분당구는 88.8%로 ‘구해 보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90.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4.2%, 대학 졸업 이상은 75.4%로 ‘구해 보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7.9%로 ‘구해 보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8〉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90〉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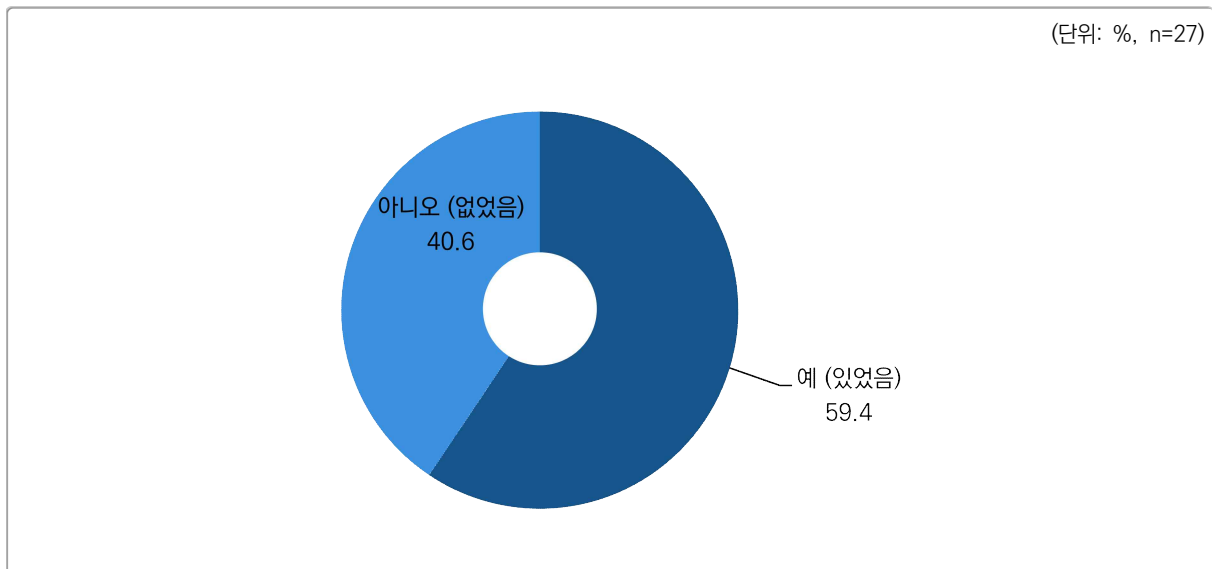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구해 보았음	구해 보지 않았음	계
전체		(220)	12.3	87.7	100.0
성별	남성	(107)	14.9	85.1	100.0
	여성	(113)	9.8	90.2	100.0
연령	19세-24세	(123)	3.2	96.8	100.0
	25세-29세	(38)	18.3	81.7	100.0
	30세-34세	(35)	25.8	74.2	100.0
	35세-39세*	(24)	29.2	70.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8)	12.1	87.9	100.0
	성남시 중원구	(56)	14.6	85.4	100.0
	성남시 분당구	(106)	11.2	88.8	100.0
학력	고졸 이하	(51)	9.8	90.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04)	5.8	94.2	100.0
	대학 졸업 이상	(65)	24.6	75.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90)	12.1	87.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	5.6	94.4	100.0
	별거·이혼·사별*	(12)	25.2	74.8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지난 주에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59.4%, ‘아니오’가 40.6%로 나타났다. 다만, 본 질문의 응답자 수는 27명으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9〉 (미취업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표 2-91〉 (미취업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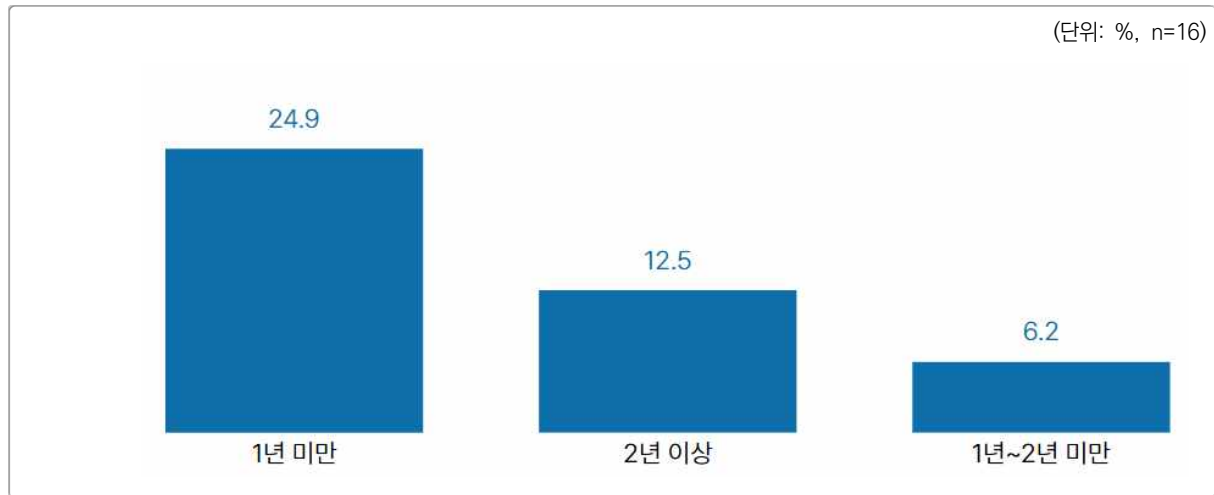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예 (있었음)	아니오 (없었음)	계
전체*		(27)	59.4	40.6	100.0
성별	남성*	(16)	68.9	31.1	100.0
	여성*	(11)	45.7	54.3	100.0
연령	19세~24세*	(4)	100.0	-	100.0
	25세~29세*	(7)	57.7	42.3	100.0
	30세~34세*	(9)	44.8	55.2	100.0
	35세~39세*	(7)	57.0	43.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7)	85.7	14.3	100.0
	성남시 중원구*	(8)	74.9	25.1	100.0
	성남시 분당구*	(12)	33.3	66.7	100.0
학력	고졸 이하*	(5)	59.6	40.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6)	100.0	-	100.0
	대학 졸업 이상*	(16)	44.1	55.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3)	61.0	39.0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	-	100.0	100.0
	별거·이혼·사별*	(3)	66.9	33.1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얼마나 계속 해왔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년 이상'이 12.5%, '1년~2년 미만'이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질문의 응답자 수는 16명으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0〉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표 2-92〉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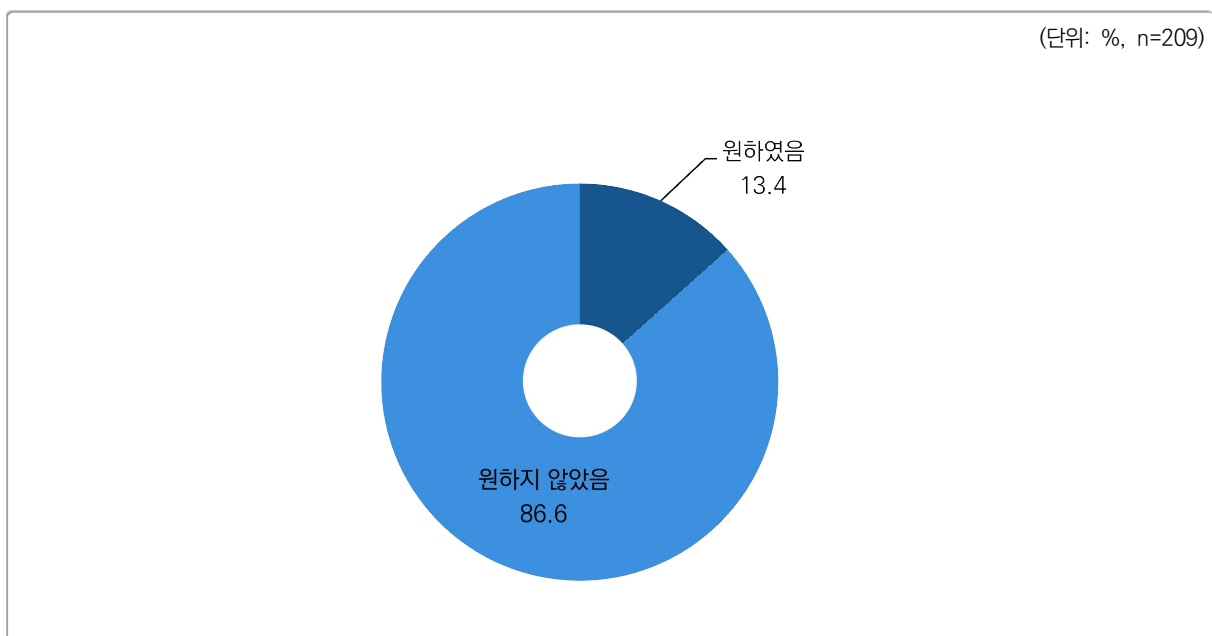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계
전체*		(16)	24.9	6.2	12.5	100.0
성별	남성*	(11)	36.3	-	9.1	100.0
	여성*	(5)	-	19.8	20.0	100.0
연령	19세~24세*	(4)	74.9	-	25.1	100.0
	25세~29세*	(4)	-	25.1	-	100.0
	30세~34세*	(4)	25.1	-	24.8	100.0
	35세~39세*	(4)	-	-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6)	16.3	16.6	-	100.0
	성남시 중원구*	(6)	16.8	-	16.6	100.0
	성남시 분당구*	(4)	50.5	-	25.3	100.0
학력	고졸 이하*	(3)	-	-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6)	49.5	-	16.6	100.0
	대학 졸업 이상*	(7)	14.5	14.2	14.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4)	28.5	7.1	14.3	100.0
	벌거·이혼·사별*	(2)	-	-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지난 주 직장(일) 희망 여부

■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였음’이 13.4%, ‘원하지 않았음’이 86.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83.5%, 여성은 89.6%로 ‘원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91.9%, 25세~29세는 74.6%, 30세~34세는 83.2%, 35세~39세는 80.9%로 ‘원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84.2%, 성남시 중원구는 83.0%, 성남시 분당구는 90.0%로 ‘원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94.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91.3%, 대학 졸업 이상은 71.5%로 ‘원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85.1%로 ‘원하지 않았음’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1〉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 여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93〉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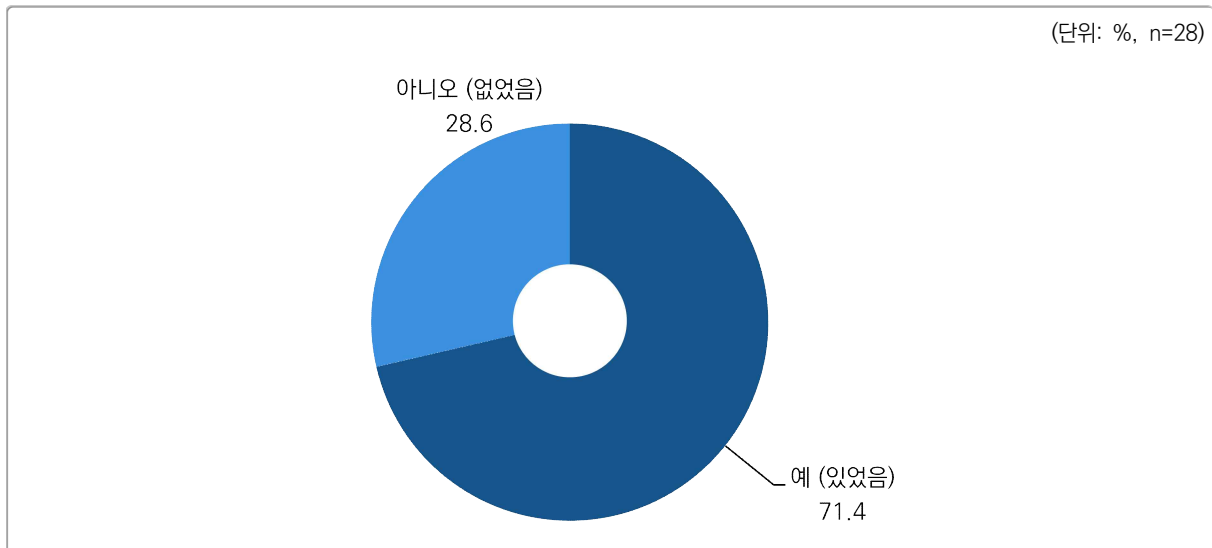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원하였음	원하지 않았음	계
전체		(209)	13.4	86.6	100.0
성별	남성	(102)	16.5	83.5	100.0
	여성	(107)	10.4	89.6	100.0
연령	19세-24세	(123)	8.1	91.9	100.0
	25세-29세	(35)	25.4	74.6	100.0
	30세-34세	(30)	16.8	83.2	100.0
	35세-39세*	(21)	19.1	80.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7)	15.8	84.2	100.0
	성남시 중원구	(54)	17.0	83.0	100.0
	성남시 분당구	(98)	10.0	90.0	100.0
학력	고졸 이하	(49)	6.0	94.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04)	8.7	91.3	100.0
	대학 졸업 이상	(56)	28.5	71.5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81)	14.9	85.1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	-	100.0	100.0
	별거·이혼·사별*	(11)	9.2	90.8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5)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지난 주에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71.4%, ‘아니오’가 28.6%로 나타났다. 다만, 본 질문의 응답자 수는 28명으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2〉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표 2-94〉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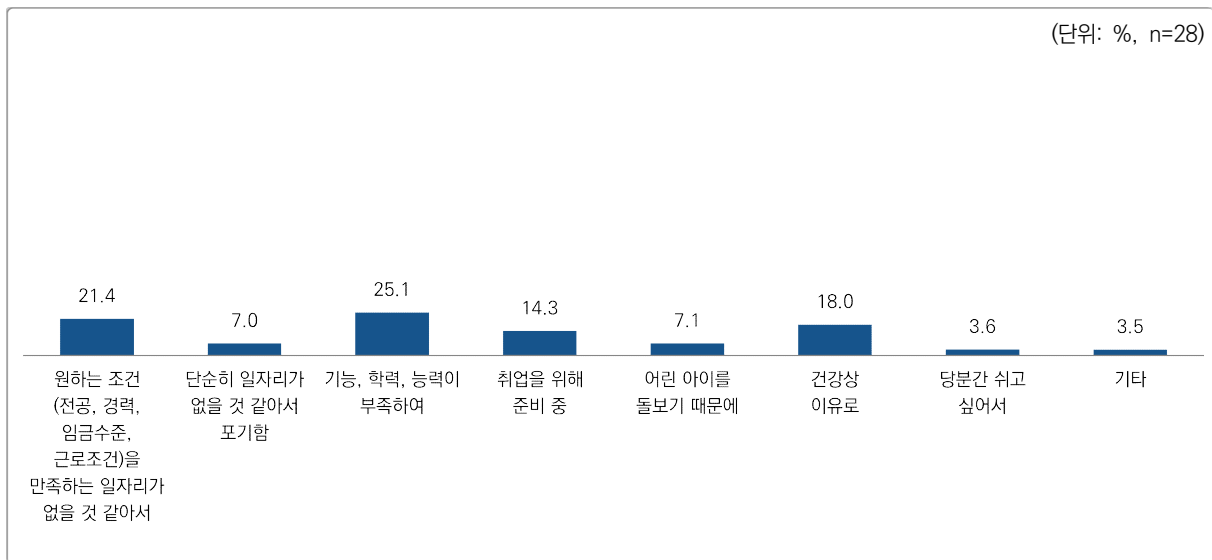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예 (있었음)	아니오 (없었음)	계
전체*		(28)	71.4	28.6	100.0
성별	남성*	(17)	76.5	23.5	100.0
	여성*	(11)	63.5	36.5	100.0
연령	19세-24세*	(10)	80.1	19.9	100.0
	25세-29세*	(9)	77.8	22.2	100.0
	30세-34세*	(5)	80.1	19.9	100.0
	35세-39세*	(4)	25.0	75.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9)	77.9	22.1	100.0
	성남시 중원구*	(9)	55.6	44.4	100.0
	성남시 분당구*	(10)	80.0	20.0	100.0
학력	고졸 이하*	(3)	32.5	67.5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	78.1	21.9	100.0
	대학 졸업 이상*	(16)	74.8	25.2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7)	74.1	25.9	100.0
	별거·이혼·사별*	(1)	-	100.0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6)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구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21.4%, ‘건강상 이유로’가 18%,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 14.3%,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가 7.1%, ‘당분간 쉬고 싶어서’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질문의 응답자 수는 28명으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3〉 (지난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





〈표 2-95〉 (지난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원하는 조건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을 위해 준비 중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계
전체*		(28)	21.4	7.0	25.1	14.3	7.1	18.0	3.6	3.5	100.0
성별	남성*	(17)	23.6	5.7	23.6	17.6	11.7	12.0	-	5.8	100.0
	여성*	(11)	18.2	9.1	27.3	9.2	-	27.3	9.0	-	100.0
연령	19세~24세*	(10)	20.1	-	30.2	10.0	9.8	20.1	-	9.8	100.0
	25세~29세*	(9)	22.1	10.8	22.3	10.8	11.2	11.4	11.3	-	100.0
	30세~34세*	(5)	-	-	19.9	40.2	-	40.0	-	-	100.0
	35세~39세*	(4)	50.0	24.9	25.0	-	-	-	-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9)	11.1	11.2	22.4	11.3	10.9	11.1	11.1	10.9	100.0
	성남시 중원구*	(9)	22.2	-	22.2	11.2	10.9	33.4	-	-	100.0
	성남시 분당구*	(10)	30.1	9.7	30.1	19.9	-	10.1	-	-	100.0
학력	고졸 이하*	(3)	34.4	32.5	-	-	33.2	-	-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	22.4	-	33.8	21.8	-	11.1	-	10.9	100.0
	대학 졸업 이상*	(16)	18.5	6.3	24.8	12.7	6.2	25.2	6.2	-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7)	18.5	7.3	26.0	14.8	7.3	18.7	3.7	3.6	100.0
	별거·이혼·사별*	(1)	100.0	-	-	-	-	-	-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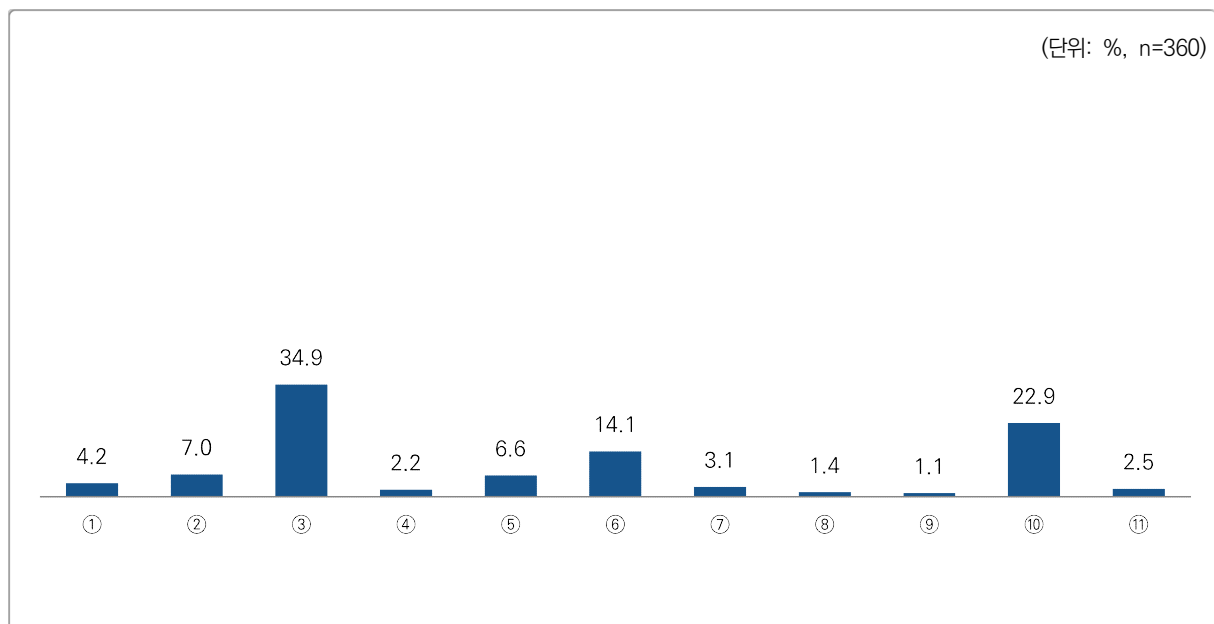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평소 및 일 경험

#### (1) 평소 활동 상태

■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교육기관통학’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쉬었음’이 22.9%, ‘취업준비’가 14.1%, ‘가사’가 7%,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이 6.6%, ‘육아’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39.7%, 여성은 39.7%로 ‘정규교육기관통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1.9%로 ‘정규교육기관통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30.7%, 30세~34세는 33.4%, 35세~39세는 28.6%로 ‘쉬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6.9%로 ‘쉬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35.4%, 성남시 분당구는 43.4%로 ‘정규교육기관통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6.8%, 대학 졸업 이상은 34.9%로 ‘쉬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6.8%로 ‘정규교육기관통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8.1%로 ‘정규교육과정통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40.8%로 ‘육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4〉 평소활동상태



〈표 2-96〉 평소활동상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 교육 기관 통학	④ 입시 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고시 학원, 직업 훈련 기관 등)	⑥ 취업 준비 (학원 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⑦ 진학 준비 (학원 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⑧ 질병 등에 따른 요양	⑨ 군입대 대기	⑩ 쉬었음	⑪ 기타	계
전체		(360)	4.2	7.0	34.9	2.2	6.6	14.1	3.1	1.4	1.1	22.9	2.5	100.0
성별	남성	(177)	1.1	5.6	39.7	3.4	7.8	15.7	3.4	1.1	2.3	18.1	1.7	100.0
	여성	(183)	7.2	8.2	30.3	1.1	5.5	12.6	2.7	1.6	-	27.5	3.3	100.0
연령	19세~24세	(167)	-	2.4	61.9	0.6	6.5	8.3	3.0	-	1.8	13.8	1.8	100.0
	25세~29세	(84)	-	13.0	16.4	3.5	10.6	19.9	2.4	1.2	-	30.7	2.3	100.0
	30세~34세	(51)	7.8	7.8	9.8	2.0	5.9	23.5	2.0	1.9	-	33.4	5.9	100.0
	35세~39세	(57)	19.7	10.7	5.3	5.3	1.8	14.3	5.3	5.3	1.8	28.6	1.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08)	7.5	11.1	21.1	2.8	7.4	17.7	2.8	1.8	0.9	26.9	-	100.0
	성남시 중원구	(81)	3.8	8.7	35.4	2.4	9.9	8.6	3.7	-	-	25.0	2.5	100.0
	성남시 분당구	(171)	2.4	3.5	43.4	1.7	4.6	14.5	2.9	1.8	1.8	19.3	4.1	100.0
학력	고졸 이하	(86)	1.2	12.8	25.6	4.6	10.4	10.4	2.4	1.2	2.3	26.8	2.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44)	0.7	2.1	66.8	0.7	5.5	8.3	3.4	-	1.4	9.8	1.4	100.0
	대학 졸업 이상	(129)	10.1	8.5	5.4	2.3	5.4	23.2	3.1	3.1	-	34.9	3.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306)	0.7	3.3	38.1	1.0	7.2	16.0	2.9	1.0	1.3	26.0	2.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32)	40.8	24.8	15.6	-	-	3.1	3.2	6.2	-	3.1	3.1	100.0
	별거·이혼·사별*	(22)	-	32.0	18.0	22.5	9.1	4.6	4.6	-	-	9.2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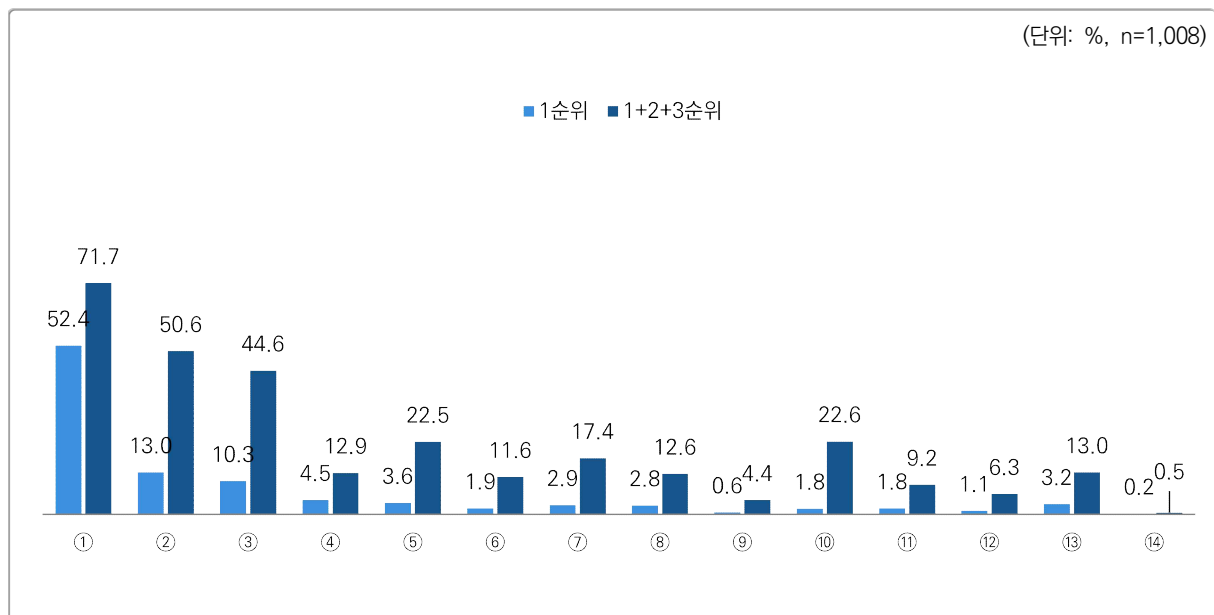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이직 또는 구직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요인

■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순위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13.0%, '고용안정성'이 10.3%, '승진가능성'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1.2%, 여성은 53.6%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9.4%, 25세~29세는 54.0%, 30세~34세는 56.2%, 35세~39세는 49.0%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9.8%, 성남시 중원구는 52.9%, 성남시 분당구는 53.5%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2.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5.7%, 대학 졸업 이상은 56.5%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3.6%, 배우자 있음은 53.8%로 '임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25.0%로 '승진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5〉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1+2+3순위)



〈표 2-9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고용 안정성	④ 승진 가능성	⑤ 휴일 (주5일제)	⑥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⑦ 회사전망	⑧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전체		(1,008)	52.4	13.0	10.3	4.5	3.6	1.9	2.9	2.8
성별	남성	(517)	51.2	12.2	11.2	6.8	3.8	2.1	2.7	2.1
	여성	(491)	53.6	14.0	9.4	2.1	3.3	1.6	3.1	3.5
연령	19세-24세	(214)	49.4	13.0	9.3	6.0	2.3	2.8	4.2	0.9
	25세-29세	(256)	54.0	11.6	8.9	4.3	3.9	0.4	3.1	3.4
	30세-34세	(282)	56.2	11.4	10.3	2.9	3.6	3.2	3.6	1.8
	35세-39세	(255)	49.0	16.2	12.6	5.1	4.3	1.2	0.8	4.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49.8	16.1	10.5	3.3	6.4	1.1	2.6	2.3
	성남시 중원구	(232)	52.9	12.6	7.8	6.5	3.5	2.6	0.9	1.7
	성남시 분당구	(508)	53.5	11.6	11.4	4.1	2.1	2.0	3.9	3.5
학력	고졸 이하	(146)	42.3	17.1	9.7	8.3	4.8	2.7	2.8	2.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45.7	13.6	8.4	7.9	3.1	1.6	5.2	2.1
	대학 졸업 이상	(672)	56.5	12.0	11.0	2.7	3.4	1.8	2.2	3.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3.6	12.7	9.6	3.7	3.7	1.9	2.8	2.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53.8	15.1	11.4	4.2	2.6	1.0	2.1	3.6
	별거·이혼·사별	(32)	12.5	9.5	21.9	25.0	6.2	6.1	9.4	-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98〉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 계속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⑨ 스카우트 제의	⑩ 복지수준	⑪ 대기업	⑫ 공기업	⑬ 정규직	⑭ 기타	계
전체		(1,008)	0.6	1.8	1.8	1.1	3.2	0.2	100.0
성별	남성	(517)	1.0	1.2	2.4	1.3	1.7	0.4	100.0
	여성	(491)	0.2	2.5	1.2	0.8	4.7	-	100.0
연령	19세-24세	(214)	1.4	2.4	4.5	0.9	2.8	-	100.0
	25세-29세	(256)	0.8	1.5	2.7	1.1	4.3	-	100.0
	30세-34세	(282)	-	1.1	0.7	0.4	4.3	0.7	100.0
	35세-39세	(255)	0.4	2.4	-	2.0	1.2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0.8	2.6	0.8	0.4	3.0	0.4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0.9	0.4	4.2	2.2	3.5	0.4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0.4	2.0	1.3	1.0	3.1	-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1	1.4	0.7	2.1	4.1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6	2.1	5.1	1.5	2.1	-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	1.8	1.2	0.7	3.3	0.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0.8	1.7	2.3	1.0	3.3	0.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	2.6	-	1.0	2.6	-	100.0
	별거·이혼·사별	(32)	-	-	3.1	3.2	3.2	-	100.0

② 이직 또는 구직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2+3순위 요인

■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2+3순위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50.6%, '고용안정성'이 44.6%, '휴일'이 22.5%, '승진가능성'이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9.1%, 여성은 74.6%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1.7%, 25세~29세는 69.9%, 30세~34세는 75.1%, 35세~39세는 70.0%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9.7%, 성남시 중원구는 68.0%, 성남시 분당구는 74.6%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8.8%로 '근로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7.1%, 대학 졸업 이상은 76.2%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3.7%, 배우자 있음은 72.0%로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1.3%로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99〉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2+3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고용안정성	④ 승진가능성	⑤ 휴일 (주5일제)	⑥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⑦ 회사전망
전체		(1,008)	71.7	50.6	44.6	12.9	22.5	11.6	17.4
성별	남성	(517)	69.1	52.4	45.9	15.9	20.5	10.2	19.2
	여성	(491)	74.6	48.8	43.3	9.7	24.6	13.1	15.6
연령	19세~24세	(214)	71.7	51.7	46.6	14.9	18.6	10.2	18.6
	25세~29세	(256)	69.9	51.8	39.1	13.4	23.1	15.4	15.3
	30세~34세	(282)	75.1	48.1	43.0	11.0	22.1	11.4	20.6
	35세~39세	(255)	70.0	51.4	50.2	12.7	25.7	9.1	15.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9.7	56.9	50.1	10.5	24.7	9.7	13.9
	성남시 중원구	(232)	68.0	47.3	41.2	15.2	21.2	12.1	16.5
	성남시 분당구	(508)	74.6	48.8	43.3	13.1	21.9	12.3	19.8
학력	고졸 이하	(146)	57.4	58.8	41.8	17.1	30.0	12.2	7.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7.1	48.3	41.5	15.8	18.9	10.0	19.9
	대학 졸업 이상	(672)	76.2	49.5	46.1	11.1	21.9	11.9	18.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3.7	51.5	45.9	12.4	21.3	11.6	16.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2.0	50.8	41.5	11.9	28.0	10.4	19.2
	별거·이혼·사별	(32)	21.8	28.1	31.3	31.1	18.5	18.5	18.8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0〉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2+3순위) - 계속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⑧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⑨ 스카우트 제의	⑩ 복지수준	⑪ 대기업	⑫ 공기업	⑬ 정규직	⑭ 기타
전체		(1,008)	12.6	4.4	22.6	9.2	6.3	13.0	0.5
성별	남성	(517)	12.1	5.3	19.4	11.0	7.3	11.4	0.4
	여성	(491)	13.1	3.5	26.0	7.2	5.3	14.7	0.6
연령	19세~24세	(214)	10.2	3.7	20.9	12.9	10.2	9.8	-
	25세~29세	(256)	11.9	3.9	20.5	11.9	7.7	15.5	0.4
	30세~34세	(282)	13.5	4.6	23.2	7.5	3.9	14.9	1.1
	35세~39세	(255)	14.2	5.2	25.7	5.1	4.4	11.1	0.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9.7	3.0	26.6	5.3	5.2	13.9	0.7
	성남시 중원구	(232)	14.3	6.5	21.1	13.6	7.3	15.2	0.4
	성남시 분당구	(508)	13.3	4.1	21.2	9.2	6.4	11.5	0.4
학력	고졸 이하	(146)	9.7	8.3	18.6	12.4	10.2	15.1	0.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3.5	5.8	22.5	12.9	12.0	11.5	0.5
	대학 졸업 이상	(672)	13.0	3.2	23.6	7.4	3.9	13.0	0.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3.3	3.9	20.9	9.0	5.8	13.4	0.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3	4.7	29.5	6.7	5.2	9.8	1.0
	별거·이혼·사별	(32)	15.8	15.7	22.0	28.0	25.0	22.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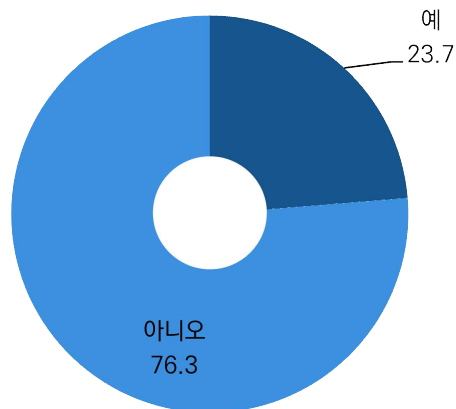


### (3)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유무

■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가 23.7%, '아니오'가 76.3%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6.7%, 여성은 75.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83.6%, 25세~29세는 65.8%, 30세~34세는 68.5%, 35세~39세는 66.9%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7.5%, 성남시 중원구는 76.5%, 성남시 분당구는 75.5%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2.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88.4%, 대학 졸업 이상은 60.0%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7.3%로 '아니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6〉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유무

(단위: %, n=220)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1〉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전체		(220)	23.7	76.3	100.0
성별	남성	(107)	23.3	76.7	100.0
	여성	(113)	24.1	75.9	100.0
연령	19세-24세	(123)	16.4	83.6	100.0
	25세-29세	(38)	34.2	65.8	100.0
	30세-34세	(35)	31.5	68.5	100.0
	35세-39세*	(24)	33.1	66.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58)	22.5	77.5	100.0
	성남시 중원구	(56)	23.5	76.5	100.0
	성남시 분당구	(106)	24.5	75.5	100.0
학력	고졸 이하	(51)	27.5	72.5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04)	11.6	88.4	100.0
	대학 졸업 이상	(65)	40.0	60.0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90)	22.7	77.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	44.5	55.5	100.0
	별거·이혼·사별*	(12)	8.4	91.6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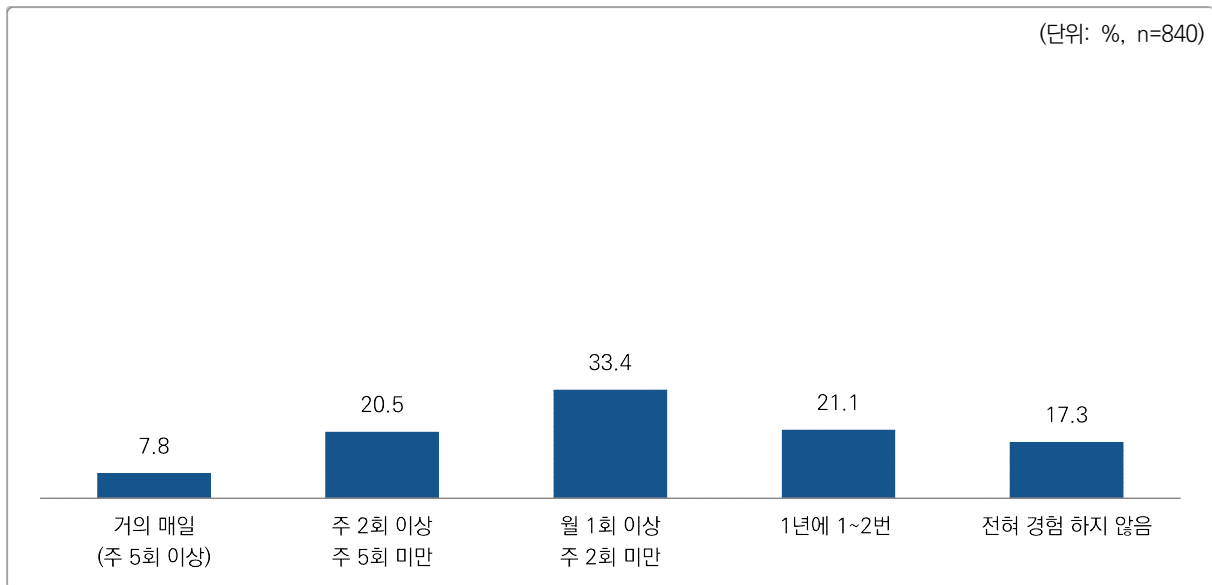
#### (4)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

##### ① 과중한 업무

■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이 21.1%,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20.5%,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17.3%, ‘거의 매일’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4.7%, 여성은 32.0%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1.5%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30.8%, 30세~34세는 33.9%, 35세~39세는 37.5%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1.9%, 성남시 중원구는 36.2%, 성남시 분당구는 32.8%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2.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7.3%, 대학 졸업 이상은 34.5%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2.3%, 배우자 있음은 36.6%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7〉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중한 업무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2〉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중한 업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7.8	20.5	33.4	21.1	17.3	100.0
성별	남성	(435)	6.4	21.8	34.7	21.3	15.9	100.0
	여성	(405)	9.2	19.1	32.0	20.8	18.9	100.0
연령	19세~24세	(112)	3.6	18.6	28.6	17.8	31.5	100.0
	25세~29세	(231)	7.3	16.7	30.8	27.0	18.2	100.0
	30세~34세	(258)	9.0	21.8	33.9	22.2	13.2	100.0
	35세~39세	(239)	8.9	23.6	37.5	15.6	14.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6.3	21.5	31.9	22.6	17.6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10.7	20.2	36.2	23.3	9.6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7.2	20.1	32.8	19.3	20.6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9.2	23.9	32.1	15.7	19.1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4.1	24.1	27.3	18.1	26.4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8.1	19.3	34.5	22.5	15.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7.5	19.2	32.3	22.0	19.0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8.2	23.0	36.6	18.6	13.6	100.0
	별거·이혼·사별*	(21)	9.6	38.0	38.0	14.4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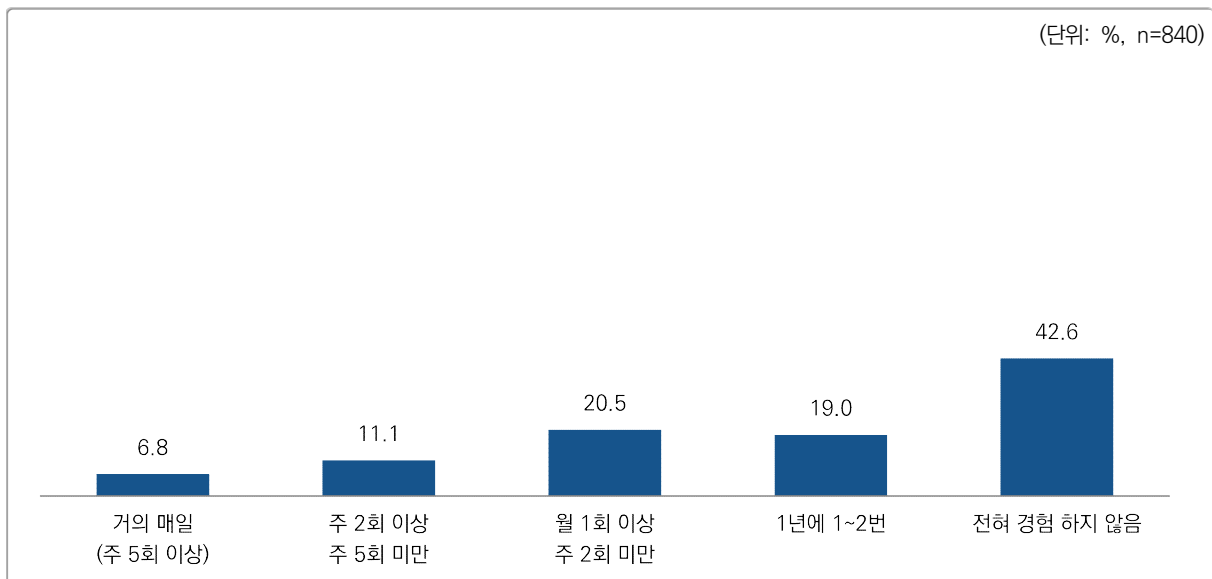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②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20.5%, ‘1년에 1~2번’이 19%,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11.1%, ‘거의 매일’이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1.0%, 여성은 44.4%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2.7%, 25세~29세는 48.1%, 30세~34세는 38.9%, 35세~39세는 36.7%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9.6%, 성남시 중원구는 35.6%, 성남시 분당구는 47.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4.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0.4%, 대학 졸업 이상은 44.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4.5%, 배우자 있음은 40.9%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8〉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3〉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6.8	11.1	20.5	19.0	42.6	100.0
성별	남성	(435)	6.4	11.3	20.7	20.7	41.0	100.0
	여성	(405)	7.2	10.9	20.4	17.1	44.4	100.0
연령	19세-24세	(112)	5.3	6.2	22.4	13.4	52.7	100.0
	25세-29세	(231)	6.0	11.2	15.9	18.9	48.1	100.0
	30세-34세	(258)	8.2	13.6	18.7	20.6	38.9	100.0
	35세-39세	(239)	6.8	10.5	26.1	19.9	36.7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7.2	10.8	21.6	20.8	39.6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6.9	14.9	25.6	17.0	35.6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6.5	9.5	17.8	18.9	47.3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10.1	15.6	24.0	15.6	34.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6.0	14.1	21.2	18.2	40.4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6.3	9.8	19.8	19.7	44.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6.6	10.2	19.1	19.6	44.5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6.0	11.5	24.6	16.9	40.9	100.0
	별거·이혼·사별	(21)	18.9	33.4	28.6	19.1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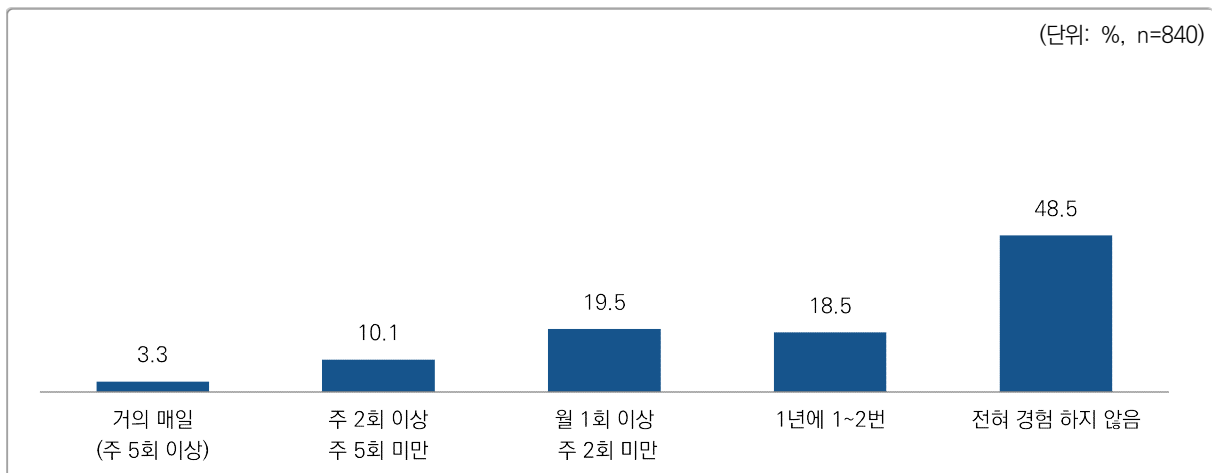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③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19.5%, ‘1년에 1~2번’이 18.5%,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10.1%, ‘거의 매일’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4.1%, 여성은 53.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0.2%, 25세~29세는 49.0%, 30세~34세는 46.6%, 35세~39세는 49.4%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6%, 성남시 중원구는 37.8%, 성남시 분당구는 55.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8.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3.5%, 대학 졸업 이상은 51.1%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9.0%, 배우자 있음은 51.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9〉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4〉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3.3	10.1	19.5	18.5	48.5	100.0
성별	남성	(435)	3.2	11.0	22.0	19.7	44.1	100.0
	여성	(405)	3.5	9.2	16.9	17.1	53.3	100.0
연령	19세~24세	(112)	-	11.5	25.9	12.5	50.2	100.0
	25세~29세	(231)	3.0	9.0	17.6	21.5	49.0	100.0
	30세~34세	(258)	5.1	10.1	17.1	21.0	46.6	100.0
	35세~39세	(239)	3.4	10.6	21.1	15.6	49.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3.2	7.2	24.3	20.8	44.6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3.7	19.1	20.2	19.2	37.8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3.3	7.7	16.8	17.0	55.3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4.6	19.3	27.5	10.1	38.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1.0	13.0	25.3	17.2	43.5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3.5	8.1	17.3	20.1	51.1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3.1	9.9	18.4	19.5	49.0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3.3	8.8	21.3	15.3	51.3	100.0
	별거·이혼·사별*	(21)	9.6	28.6	38.3	14.1	9.4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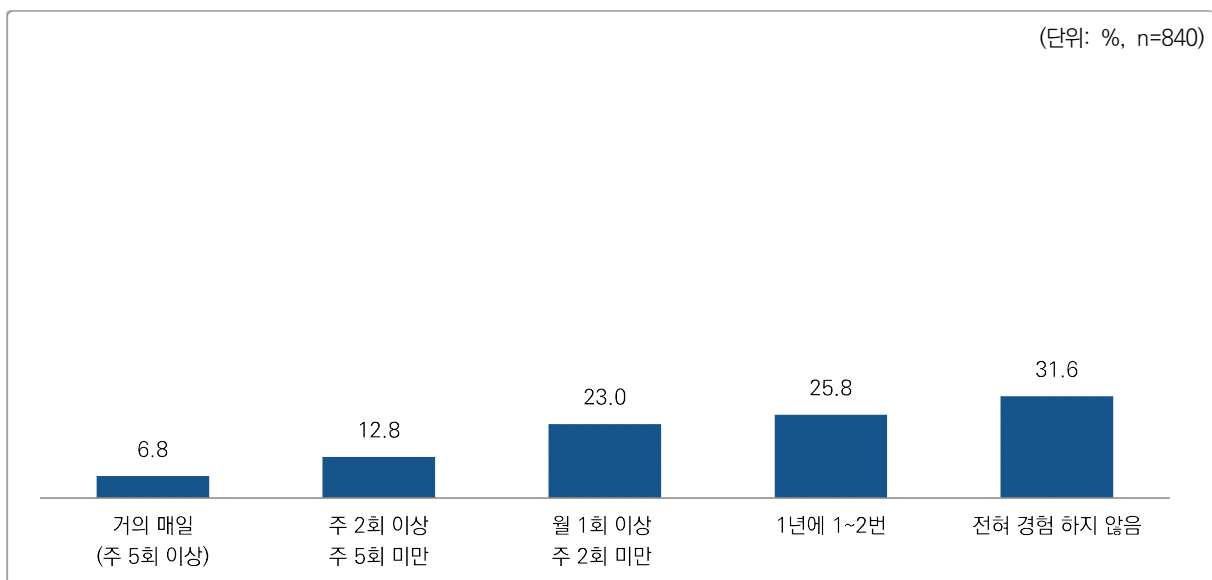


#### ④ 성과와 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 현 직장/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성과와 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에 1~2번’이 25.8%,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23.0%,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12.8%, ‘거의 매일’이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2.6%, 여성은 30.5%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5.7%, 25세~29세는 36.1%, 30세~34세는 27.6%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세~39세는 27.8%로 ‘1년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8.9%로 ‘1년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25.0%, 성남시 분당구는 37.8%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0.3%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6.5%, 대학 졸업 이상은 30.4%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3.9%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27.3%로 ‘1년에 1~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0〉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5〉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6.8	12.8	23.0	25.8	31.6	100.0
성별	남성	(435)	6.9	12.9	22.5	25.2	32.6	100.0
	여성	(405)	6.7	12.7	23.6	26.5	30.5	100.0
연령	19세~24세	(112)	3.5	12.5	22.2	16.0	45.7	100.0
	25세~29세	(231)	7.3	7.7	21.9	27.0	36.1	100.0
	30세~34세	(258)	9.0	13.6	22.6	27.2	27.6	100.0
	35세~39세	(239)	5.5	16.9	24.9	27.8	24.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7.2	15.7	23.0	28.9	25.2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7.9	17.6	27.1	22.3	25.0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6.1	9.1	21.2	25.8	37.8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7.3	18.5	30.3	19.2	24.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3.0	14.1	14.1	22.2	46.5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7.3	11.6	23.1	27.6	30.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6.3	11.5	23.0	25.3	33.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8.2	14.8	23.0	27.3	26.7	100.0
	별거·이혼·사별*	(21)	9.3	33.3	23.9	28.7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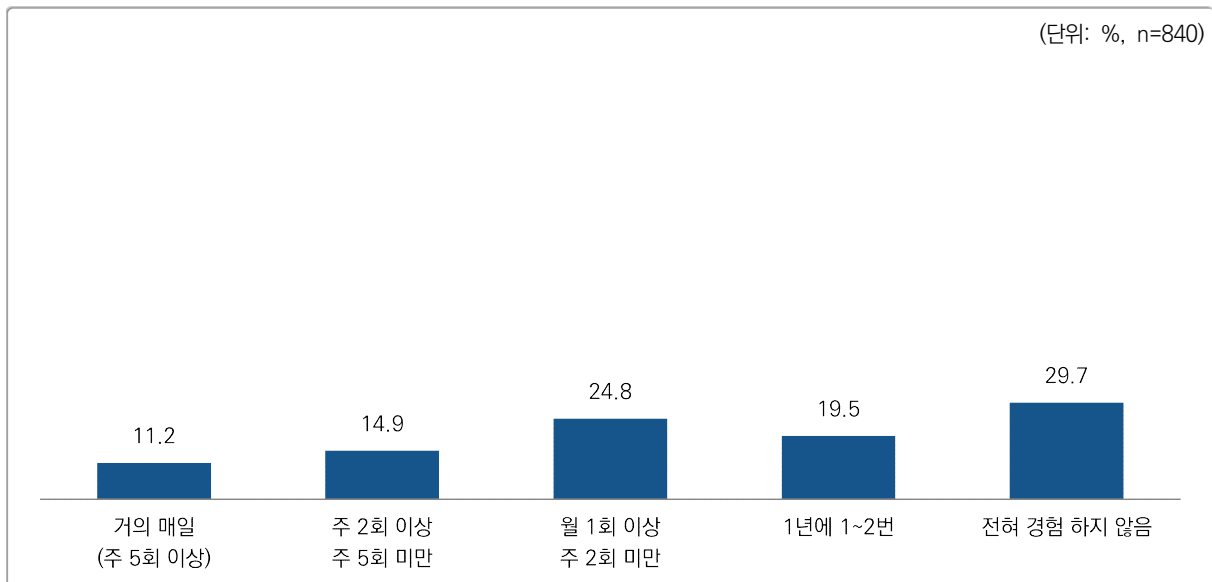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⑤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24.8%, ‘1년에 1~2번’이 19.5%,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14.9%, ‘거의 매일’이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2.8%, 여성은 26.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9.5%, 25세~29세는 27.9%, 30세~34세는 31.1%, 35세~39세는 30.0%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7.5%, 성남시 중원구는 26.6%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34.8%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4.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1.3%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32.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0.9%, 배우자 있음은 28.4%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1〉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6〉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11.2	14.9	24.8	19.5	29.7	100.0
성별	남성	(435)	8.9	12.1	27.5	18.6	32.8	100.0
	여성	(405)	13.6	17.8	21.8	20.4	26.3	100.0
연령	19세-24세	(112)	6.3	19.6	31.3	13.4	29.5	100.0
	25세-29세	(231)	12.4	15.9	24.0	19.8	27.9	100.0
	30세-34세	(258)	11.7	13.6	24.2	19.5	31.1	100.0
	35세-39세	(239)	11.8	13.1	23.2	21.9	30.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9.9	16.6	27.5	20.7	25.2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11.7	14.8	26.6	23.4	23.4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11.6	14.0	22.6	17.0	34.8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13.8	22.1	24.7	19.3	20.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4.0	28.2	31.3	13.2	23.3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11.9	11.6	23.8	20.5	32.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10.7	14.3	25.5	18.6	30.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13.7	14.7	21.9	21.4	28.4	100.0
	별거·이혼·사별*	(21)	4.8	33.0	28.9	28.8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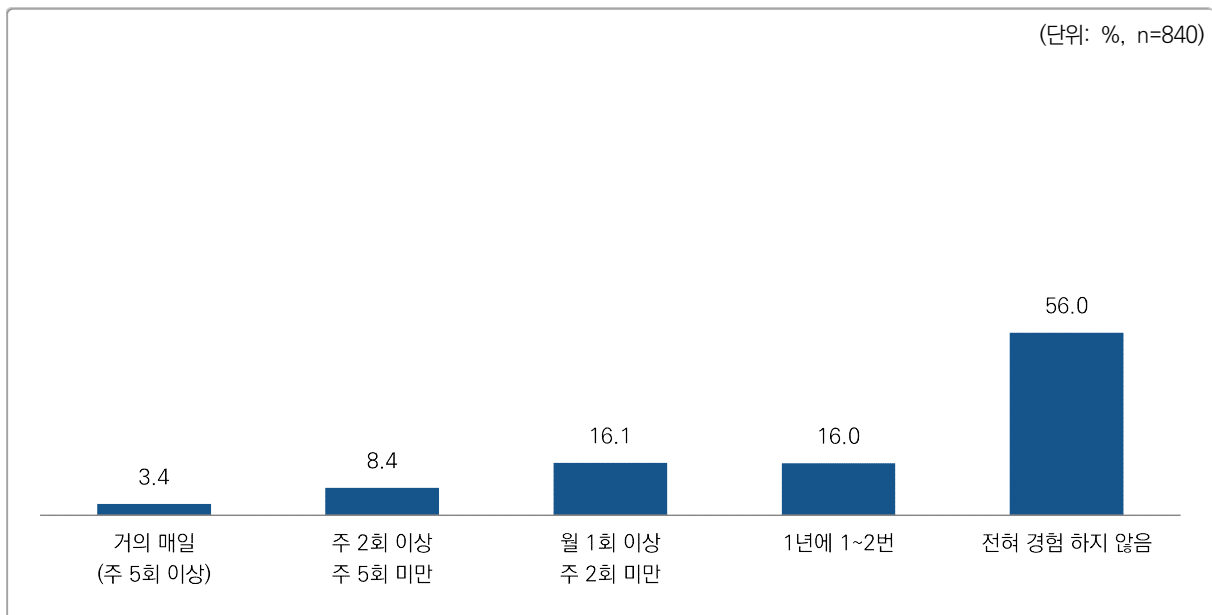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⑥ 안전, 보호 장비 미비

■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안전, 보호 장비 미비'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이 16.1%, '1년에 1~2번'이 16.0%,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8.4%, '거의 매일'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8.4%, 여성은 64.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4.7%, 25세~29세는 54.9%, 30세~34세는 56.0%, 35세~39세는 57.8%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9.6%, 성남시 중원구는 50.6%, 성남시 분당구는 61.8%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8.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0.6%, 대학 졸업 이상은 59.9%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7.8%, 배우자 있음은 56.3%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2〉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안전, 보호 장비 미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7〉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 경험 빈도\_안전, 보호 장비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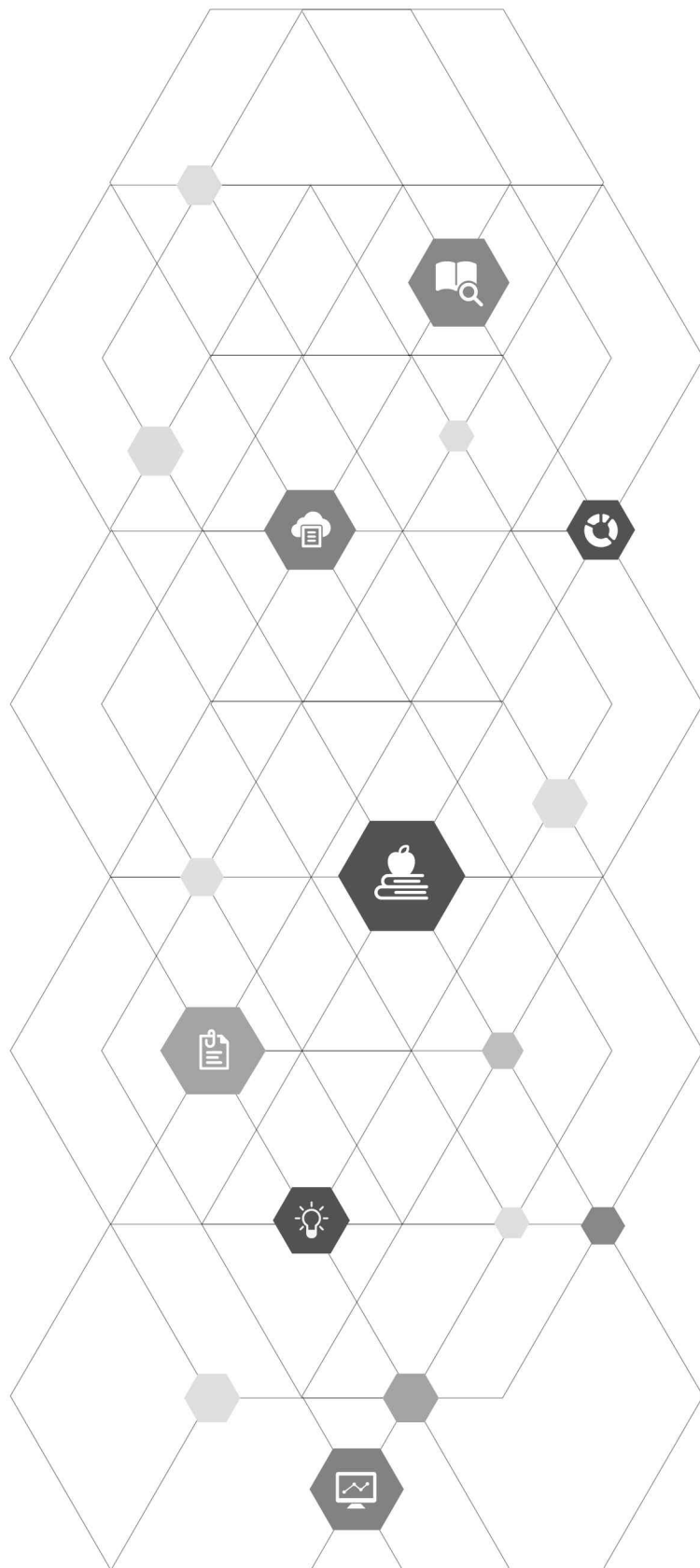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월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계
전체		(840)	3.4	8.4	16.1	16.0	56.0	100.0
성별	남성	(435)	3.4	8.9	20.4	18.9	48.4	100.0
	여성	(405)	3.5	7.9	11.4	12.9	64.3	100.0
연령	19세-24세	(112)	2.6	8.0	19.5	15.2	54.7	100.0
	25세-29세	(231)	3.8	9.0	12.0	20.3	54.9	100.0
	30세-34세	(258)	5.1	8.2	17.5	13.2	56.0	100.0
	35세-39세	(239)	1.7	8.4	16.9	15.2	57.8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23)	4.1	9.9	16.6	19.9	49.6	100.0
	성남시 중원구	(189)	4.2	11.7	18.1	15.4	50.6	100.0
	성남시 분당구	(428)	2.8	6.3	14.9	14.3	61.8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4.6	21.1	20.2	15.7	38.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99)	3.0	12.1	23.2	11.1	50.6	100.0
	대학 졸업 이상	(633)	3.3	5.7	14.2	16.8	59.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635)	3.1	7.4	15.6	16.1	57.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84)	3.8	7.7	15.8	16.4	56.3	100.0
	별거·이혼·사별*	(21)	9.3	47.7	33.6	9.4	-	100.0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08

## 청년 정책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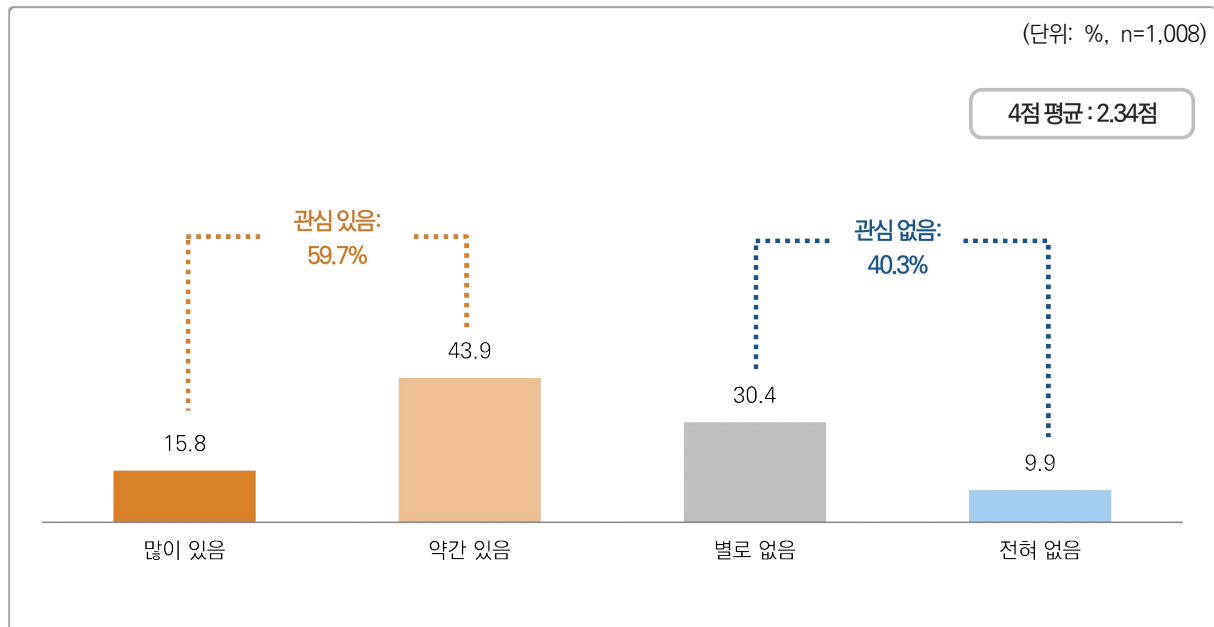
## 8 청년 정책 및 사업

### 1) 청년 정책 및 사업

#### (1)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있음'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로 없음'이 30.4%, '많이 있음'이 15.8%, '전혀 없음'이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관심 있음'이 59.7%, '관심 없음'이 40.3%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5.7%, 여성은 63.9%로 '관심 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2.0%, 25세~29세는 63.3%, 30세~34세는 59.4%, 35세~39세는 54.5%로 '관심 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2.9%, 성남시 중원구는 54.7%, 성남시 분당구는 60.3%로 '관심 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2.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4.5%, 대학 졸업 이상은 57.8%로 '관심 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2%, 배우자 있음은 58.5%, 별거·이혼·사별은 78.0%로 '관심 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3〉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8〉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 관심 있음	◎ 관심 없음	계	평균 (점)
전체		(1,008)	15.8	43.9	30.4	9.9	59.7	40.3	100.0	(2.34)
성별	남성	(517)	13.7	42.1	35.5	8.7	55.7	44.3	100.0	(2.39)
	여성	(491)	18.0	45.8	25.0	11.1	63.9	36.1	100.0	(2.29)
연령	19세-24세	(214)	18.7	43.3	31.9	6.1	62.0	38.0	100.0	(2.25)
	25세-29세	(256)	14.7	48.6	28.9	7.8	63.3	36.7	100.0	(2.30)
	30세-34세	(282)	18.2	41.3	29.2	11.4	59.4	40.6	100.0	(2.34)
	35세-39세	(255)	11.9	42.6	32.1	13.4	54.5	45.5	100.0	(2.4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7.6	45.3	27.0	10.1	62.9	37.1	100.0	(2.30)
	성남시 중원구	(232)	16.1	38.6	34.4	10.9	54.7	45.3	100.0	(2.40)
	성남시 분당구	(508)	14.7	45.6	30.4	9.3	60.3	39.7	100.0	(2.34)
학력	고졸 이하	(146)	13.0	49.3	25.4	12.4	62.2	37.8	100.0	(2.3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8.9	45.6	30.2	5.3	64.5	35.5	100.0	(2.22)
	대학 졸업 이상	(672)	15.5	42.3	31.6	10.6	57.8	42.2	100.0	(2.37)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6.4	42.9	31.0	9.8	59.2	40.8	100.0	(2.3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2.9	45.6	30.6	10.9	58.5	41.5	100.0	(2.39)
	별거·이혼·사별	(32)	18.8	59.2	15.8	6.2	78.0	22.0	100.0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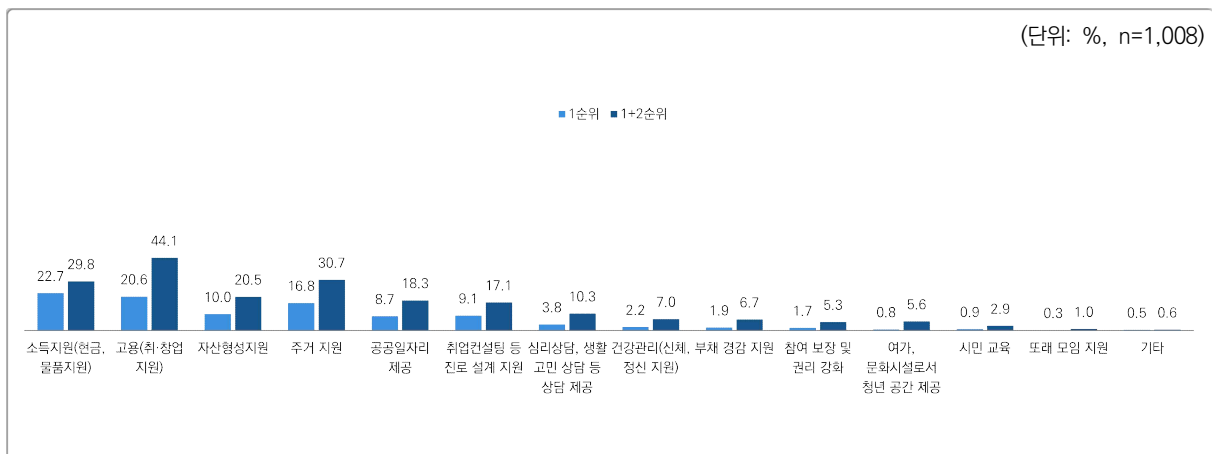
## (2)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

### ①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1순위 정책 및 사업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1순위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득 지원’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이 20.6%, ‘주거 지원’이 16.8%, ‘자산형성지원’이 10.0%, ‘취업컨설팅 등 진로 설계 지원’이 9.1%, ‘공공일자리 제공’이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0.0%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7.6%로 ‘소득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5.9%, 25세~29세는 20.5%로 ‘소득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34세는 24.9%, 35세~39세는 22.9%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0.9%, 성남시 분당구는 24.7%로 ‘소득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 중원구는 23.0%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4.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3.6%로 ‘소득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졸업 이상은 24.5%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5.4%로 ‘소득지원’이, 배우자 있음은 28.0%로 ‘고용’이, 별거·이혼·사별은 25.1%로 ‘주거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4〉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1+2순위)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09〉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지원 (현금, 물품 지원)	고용 (취·창업 지원)	자산형 성지원	주거 지원	공공 일자리 제공	취업 컨설팅 등 진로 설계 지원	심리상담, 생활 고민 상담 등 상담 제공	건강관리 (신체, 정신 지원)
전체		(1,008)	22.7	20.6	10.0	16.8	8.7	9.1	3.8	2.2
성별	남성	(517)	18.0	20.0	12.9	18.5	8.4	10.4	3.8	1.9
	여성	(491)	27.6	21.3	7.0	15.0	9.0	7.8	3.7	2.5
연령	19세-24세	(214)	35.9	13.5	9.2	10.7	6.0	13.5	4.2	1.8
	25세-29세	(256)	20.5	19.7	10.0	19.0	12.0	7.7	2.7	1.9
	30세-34세	(282)	22.0	24.9	12.1	17.8	6.1	5.0	3.6	1.8
	35세-39세	(255)	14.6	22.9	8.3	18.6	10.7	11.5	4.7	3.2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0.9	20.7	10.4	18.8	8.6	9.3	3.4	2.3
	성남시 중원구	(232)	20.3	23.0	11.6	16.0	9.1	6.9	2.2	1.7
	성남시 분당구	(508)	24.7	19.6	9.0	16.1	8.6	10.0	4.7	2.4
학력	고졸 이하	(146)	24.6	6.8	10.9	19.2	10.3	8.9	4.2	2.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3.6	17.7	8.9	12.6	5.7	12.5	3.7	1.6
	대학 졸업 이상	(672)	19.2	24.5	10.1	17.4	9.2	8.2	3.7	2.2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5.4	19.5	9.7	16.8	8.7	8.5	3.2	2.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5.5	28.0	10.4	15.6	7.2	10.4	5.7	2.1
	별거·이혼·사별	(32)	-	3.1	15.6	25.1	18.8	15.3	6.2	6.3

〈표 2-110〉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순위) - 계속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채 경감 지원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 공간 제공	시민 교육	또래 모임 지원	기타	계
전체		(1,008)	7.0	6.7	5.3	5.6	2.9	1.0	0.6
성별	남성	(517)	6.5	6.9	5.4	5.6	2.5	1.6	0.4
	여성	(491)	7.6	6.6	5.1	5.5	3.3	0.4	0.8
연령	19세~24세	(214)	5.1	6.0	7.0	6.5	4.2	-	-
	25세~29세	(256)	7.7	7.3	5.5	6.6	2.3	1.2	0.8
	30세~34세	(282)	6.1	6.1	4.3	5.4	2.1	1.1	1.1
	35세~39세	(255)	9.1	7.5	4.7	4.0	3.2	1.6	0.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4	6.4	6.0	5.3	2.6	1.9	0.8
	성남시 중원구	(232)	7.3	9.9	6.5	6.5	3.9	0.9	0.9
	성남시 분당구	(508)	7.3	5.5	4.3	5.3	2.6	0.6	0.4
학력	고졸 이하	(146)	7.5	11.0	10.4	8.9	6.1	2.8	-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8	6.2	6.3	6.3	2.1	-	-
	대학 졸업 이상	(672)	7.0	6.0	3.9	4.6	2.4	0.9	0.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7	6.0	4.5	5.1	2.8	1.0	0.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8	9.4	5.7	5.2	3.1	0.5	-
	별거·이혼·사별	(32)	21.9	9.4	22.0	18.8	3.1	3.2	-

②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1+2순위 정책 및 사업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1+2순위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30.7%, '소득지원'이 29.8%, '자산형성 지원'이 20.5%, '공공일자리 제공'이 18.3%, '취업컨설팅 등 진로 설계 지원'이 17.1%, '심리상담, 생활 고민 상담 등 상담 제공'이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1.3%, 여성은 47.0%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4.7%, 25세~29세는 40.1%, 30세~34세는 46.6%, 35세~39세는 44.7%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4.2%, 성남시 중원구는 46.8%, 성남시 분당구는 42.7%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1.5%,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7.1%, 대학 졸업 이상은 45.9%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4.2%, 배우자 있음은 49.2%로 '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거·이혼·사별은 28.1%로 '주거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11〉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2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지원 (현금, 물품지원)	고용 (취·창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	주거 지원	공공 일자리 제공	취업컨설팅 등 진로 설계 지원	심리상담, 생활 고민 상담 등 상담 제공
전체		(1,008)	29.8	44.1	20.5	30.7	18.3	17.1	10.3
성별	남성	(517)	25.9	41.3	24.4	31.0	17.4	20.2	10.8
	여성	(491)	34.0	47.0	16.4	30.5	19.3	13.7	9.9
연령	19세~24세	(214)	42.4	44.7	18.5	21.4	15.4	20.4	8.3
	25세~29세	(256)	28.2	40.1	22.5	33.9	21.2	14.6	8.1
	30세~34세	(282)	29.8	46.6	21.0	35.6	16.7	13.5	10.7
	35세~39세	(255)	21.0	44.7	19.7	30.1	19.7	20.6	13.8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8.1	44.2	23.9	28.1	19.5	16.5	10.5
	성남시 중원구	(232)	26.3	46.8	19.0	31.2	15.2	14.7	10.9
	성남시 분당구	(508)	32.4	42.7	19.4	31.9	19.2	18.4	10.0
학력	고졸 이하	(146)	29.4	31.5	19.1	25.4	19.2	17.0	11.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40.4	47.1	18.8	21.5	16.2	19.3	8.9
	대학 졸업 이상	(672)	27.0	45.9	21.3	34.5	18.8	16.4	10.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2.7	44.2	20.5	32.2	18.1	16.6	9.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2.8	49.2	20.7	25.4	18.6	17.7	11.9
	별거·이혼·사별	(32)	3.1	9.4	18.7	28.1	21.9	24.7	15.6

〈표 2-112〉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1+2순위)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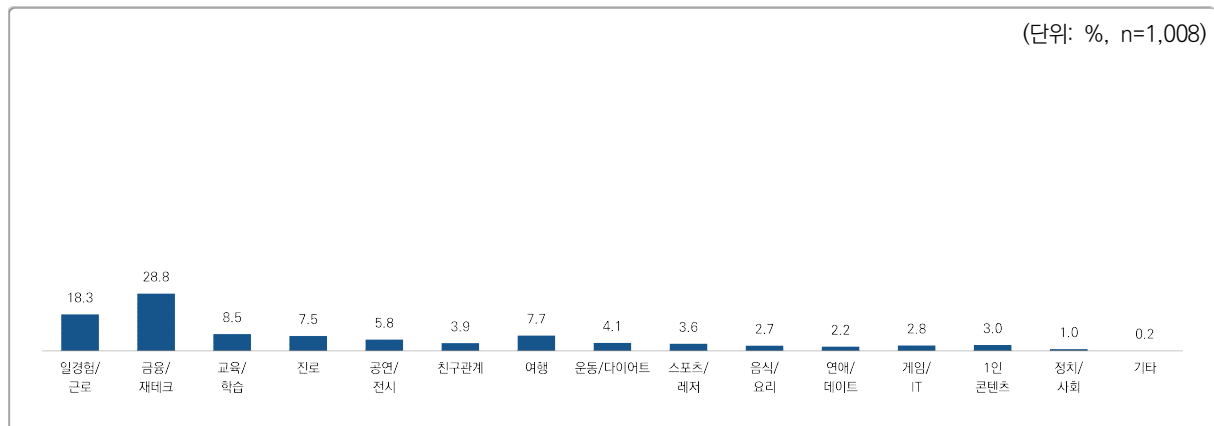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건강관리 (신체, 정신 지원)	부채 경감 지원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여가, 문화 시설로서 청년 공간 제공	시민 교육	또래 모임 지원	기타
전체		(1,008)	7.0	6.7	5.3	5.6	2.9	1.0	0.6
성별	남성	(517)	6.5	6.9	5.4	5.6	2.5	1.6	0.4
	여성	(491)	7.6	6.6	5.1	5.5	3.3	0.4	0.8
연령	19세~24세	(214)	5.1	6.0	7.0	6.5	4.2	-	-
	25세~29세	(256)	7.7	7.3	5.5	6.6	2.3	1.2	0.8
	30세~34세	(282)	6.1	6.1	4.3	5.4	2.1	1.1	1.1
	35세~39세	(255)	9.1	7.5	4.7	4.0	3.2	1.6	0.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4	6.4	6.0	5.3	2.6	1.9	0.8
	성남시 중원구	(232)	7.3	9.9	6.5	6.5	3.9	0.9	0.9
	성남시 분당구	(508)	7.3	5.5	4.3	5.3	2.6	0.6	0.4
학력	고졸 이하	(146)	7.5	11.0	10.4	8.9	6.1	2.8	-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8	6.2	6.3	6.3	2.1	-	-
	대학 졸업 이상	(672)	7.0	6.0	3.9	4.6	2.4	0.9	0.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5.7	6.0	4.5	5.1	2.8	1.0	0.8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8	9.4	5.7	5.2	3.1	0.5	-
	별거·이혼·사별	(32)	21.9	9.4	22.0	18.8	3.1	3.2	-

### (3)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재테크’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경험/근로’가 18.3%, ‘교육/학습’이 8.5%, ‘여행’이 7.7%, ‘진로’가 7.5%, ‘공연/전시’가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26.8%, 여성은 30.9%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8.9%로 ‘일경험/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30.9%, 30세~34세는 35.2%, 35세~39세는 30.0%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8.9%, 성남시 중원구는 22.5%, 성남시 분당구는 31.6%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19.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8.8%로 ‘일경험/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35.4%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9.1%, 배우자 있음은 31.6%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24.8%로 ‘공연/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5〉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표 2-113〉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일경험/ 근로	금융/ 재테크	교육/학습	진로	공연/전시	친구관계	여행	운동/ 다이어트
전체		(1,008)	18.3	28.8	8.5	7.5	5.8	3.9	7.7	4.1
성별	남성	(517)	13.2	26.8	7.9	10.6	5.4	4.4	7.9	4.4
	여성	(491)	23.8	30.9	9.0	4.3	6.1	3.3	7.6	3.7
연령	19세-24세	(214)	28.9	16.3	6.5	9.3	5.6	5.2	7.9	3.7
	25세-29세	(256)	13.9	30.9	8.2	8.9	7.3	3.9	8.1	1.9
	30세-34세	(282)	17.8	35.2	7.1	6.4	5.0	3.2	6.8	4.3
	35세-39세	(255)	14.6	30.0	11.9	5.9	5.1	3.6	8.3	6.3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2.4	28.9	8.3	8.6	6.3	4.5	7.1	3.7
	성남시 중원구	(232)	18.1	22.5	11.7	6.9	7.8	3.9	6.5	6.1
	성남시 분당구	(508)	16.3	31.6	7.1	7.3	4.5	3.5	8.6	3.4
학력	고졸 이하	(146)	19.2	13.7	8.3	10.9	10.9	6.2	8.2	6.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8.8	16.8	5.7	6.8	6.3	3.7	8.9	2.6
	대학 졸업 이상	(672)	15.2	35.4	9.3	7.0	4.5	3.4	7.3	4.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0.9	29.1	7.4	7.5	5.0	3.8	8.0	3.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0.9	31.6	12.5	7.8	5.7	3.6	5.7	4.7
	별거·이혼·사별	(32)	-	3.2	9.4	6.2	24.8	6.3	12.5	12.5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4〉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년 프로그램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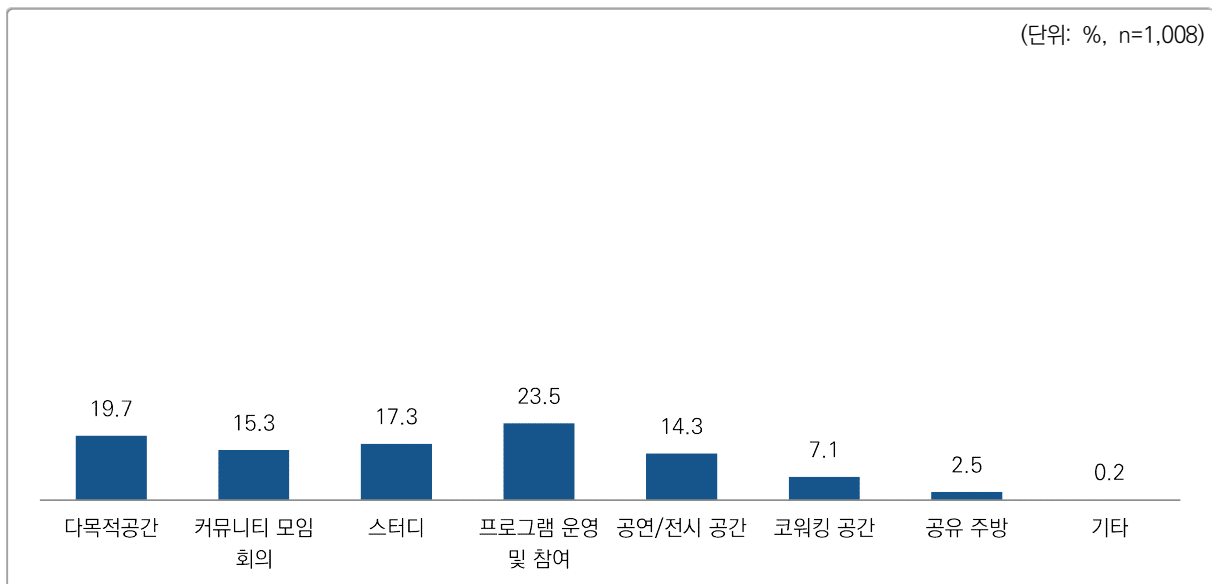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스포츠/ 레저	음식/요리	연애/ 데이트	게임/IT	1인 콘텐츠	정치/사회	기타	계
전체		(1,008)	3.6	2.7	2.2	2.8	3.0	1.0	0.2	100.0
성별	남성	(517)	5.7	1.9	2.5	4.6	3.1	1.3	0.2	100.0
	여성	(491)	1.4	3.5	1.8	0.8	2.9	0.6	0.2	100.0
연령	19세-24세	(214)	6.5	3.2	0.9	2.8	2.3	0.4	0.5	100.0
	25세-29세	(256)	3.4	3.1	2.7	3.0	3.5	1.2	-	100.0
	30세-34세	(282)	1.8	1.8	3.2	3.9	2.1	1.1	0.4	100.0
	35세-39세	(255)	3.6	2.8	1.6	1.2	4.0	1.2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5	1.5	2.6	0.7	3.0	0.8	-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3.0	3.9	2.2	4.8	1.3	0.8	0.4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1	2.7	2.0	2.9	3.7	1.2	0.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3.4	4.8	3.4	3.4	0.7	0.7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3	3.7	0.5	3.1	3.2	1.0	0.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4	1.9	2.4	2.5	3.4	1.0	0.2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4.2	2.0	2.7	2.0	2.5	0.8	0.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0.5	4.6	0.5	4.7	5.2	2.0	-	100.0
	별거·이혼·사별	(32)	9.5	6.3	-	9.4	-	-	-	100.0

#### (4)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 목적

-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목적 공간’이 19.7%, ‘스터디’가 17.3%, ‘커뮤니티 모임 회의’가 15.3%, ‘공연/전시 공간’이 14.3%, ‘코워킹 공간’이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22.0%, 여성은 25.2%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22.4%로 ‘커뮤니티 모임 회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23.6%, 30세~34세는 27.4%, 35세~39세는 25.2%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27.0%, 성남시 중원구는 23.0%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2.2%로 ‘다목적 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21.2%, 대학 졸업 이상은 25.6%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22.0%로 ‘커뮤니티 모임 회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22.6%, 배우자 있음은 29.0%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6%로 ‘공연/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6〉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 목적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5〉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 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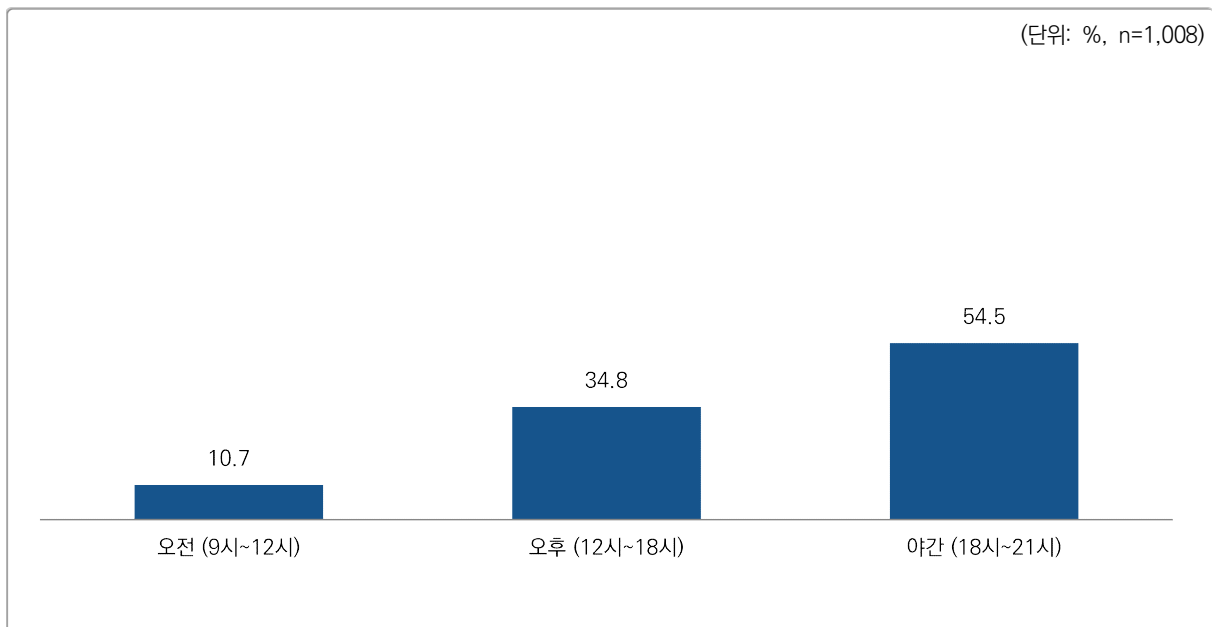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다목적 공간	커뮤니티 모임 회의	스터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공연/ 전시 공간	코워킹 공간	공유 주방	기타	계
전체		(1,008)	19.7	15.3	17.3	23.5	14.3	7.1	2.5	0.2	100.0
성별	남성	(517)	20.0	19.6	16.9	22.0	11.7	7.1	2.3	0.4	100.0
	여성	(491)	19.5	10.9	17.6	25.2	17.0	7.2	2.7	-	100.0
연령	19세-24세	(214)	22.3	22.4	19.5	16.3	11.6	4.2	3.2	0.5	100.0
	25세-29세	(256)	19.3	15.4	19.3	23.6	13.9	6.9	1.6	-	100.0
	30세-34세	(282)	20.3	15.3	14.2	27.4	12.5	7.8	2.1	0.4	100.0
	35세-39세	(255)	17.4	9.5	16.6	25.2	19.0	9.1	3.2	-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9.1	16.1	16.1	27.0	12.0	7.1	2.6	-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5.1	12.1	22.4	23.0	16.5	7.0	3.4	0.4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22.2	16.4	15.5	22.0	14.5	7.3	2.0	0.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9.8	8.9	17.1	21.2	20.6	6.9	5.5	-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9.4	22.0	17.7	17.9	16.2	4.7	1.6	0.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9.8	14.9	17.2	25.6	12.4	7.9	2.1	0.2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1.7	17.3	16.5	22.6	13.0	6.4	2.2	0.3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5.1	9.4	20.2	29.0	14.5	9.8	2.1	-	100.0
	별거·이혼·사별	(32)	-	3.1	18.8	12.6	43.6	9.3	12.6	-	100.0

## (5)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한 시간대

### ① 청년 사업 진행시 참여 가능한 평일 시간대

■ 청년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시간대는 언제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간(18시~21시)'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후(12시~18시)'가 34.8%, '오전(9시~12시)'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3.0%, 여성은 56.1%로 '야간(18시~21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7.4%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51.6%, 30세~34세는 60.1%, 35세~39세는 61.7%로 '야간(18시~21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8.3%, 성남시 중원구는 47.0%, 성남시 분당구는 61.2%로 '야간(18시~21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46.5%, 대학 졸업 이상은 59.6%로 '야간(18시~21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49.2%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2.8%, 배우자 있음은 65.3%로 '야간(18시~21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9.5%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7〉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평일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6〉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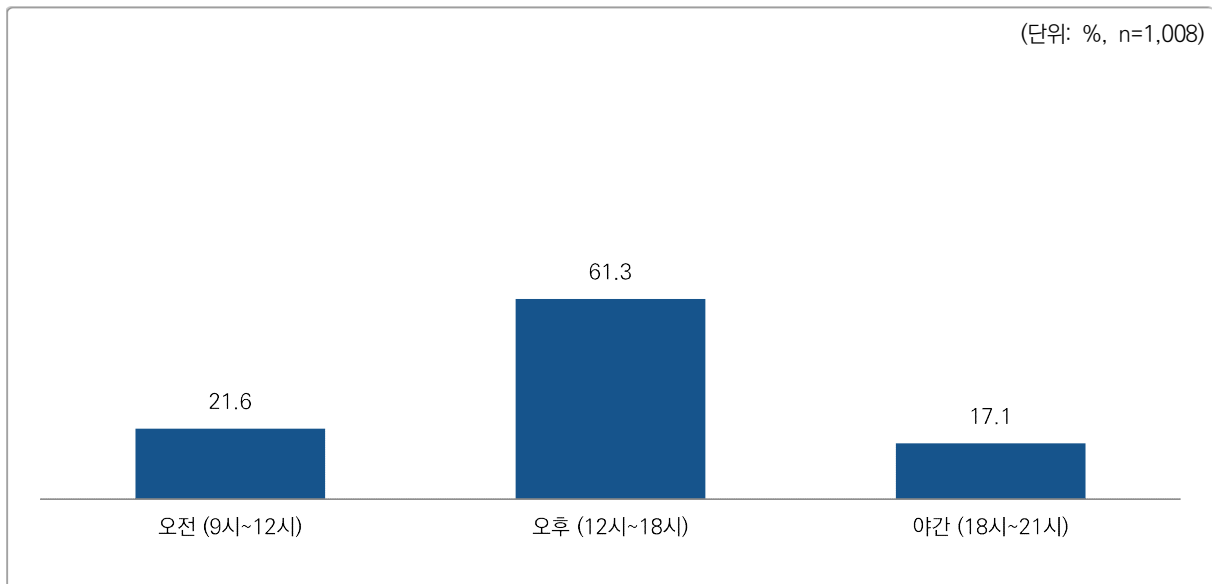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오전 (9시~12시)	오후 (12시~18시)	야간 (18시~21시)	계
전체		(1,008)	10.7	34.8	54.5	100.0
성별	남성	(517)	9.4	37.6	53.0	100.0
	여성	(491)	12.1	31.8	56.1	100.0
연령	19세~24세	(214)	10.7	47.4	41.9	100.0
	25세~29세	(256)	10.8	37.5	51.6	100.0
	30세~34세	(282)	8.5	31.3	60.1	100.0
	35세~39세	(255)	13.0	25.3	61.7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3.5	38.2	48.3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7.8	45.3	47.0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0.6	28.2	61.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1.6	41.9	46.5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8.4	49.2	42.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1.2	29.2	59.6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0.3	36.9	52.8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2.4	22.3	65.3	100.0
	별거·이혼·사별	(32)	9.3	59.5	31.2	100.0

## ② 청년 사업 진행시 참여 가능한 주말 시간대

■ 청년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시간대는 언제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후(12시~18시)'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전(9시~12시)'이 21.6%, '야간(18시~21시)'이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7.1%, 여성은 65.8%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7.2%, 25세~29세는 62.9%, 30세~34세는 62.6%, 35세~39세는 53.4%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1.5%, 성남시 중원구는 60.6%, 성남시 분당구는 61.6%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6.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7.6%, 대학 졸업 이상은 60.6%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3.1%, 배우자 있음은 54.4%, 별거·이혼·사별은 59.4%로 '오후(12시~18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8〉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주말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7〉 청년 사업 진행 시 참여 가능 시간대\_주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오전 (9시~12시)	오후 (12시~18시)	야간 (18시~21시)	계
전체		(1,008)	21.6	61.3	17.1	100.0
성별	남성	(517)	21.3	57.1	21.6	100.0
	여성	(491)	22.0	65.8	12.3	100.0
연령	19세~24세	(214)	17.5	67.2	15.3	100.0
	25세~29세	(256)	22.8	62.9	14.3	100.0
	30세~34세	(282)	21.7	62.6	15.6	100.0
	35세~39세	(255)	23.7	53.4	22.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4.0	61.5	14.5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5.1	60.6	14.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8.8	61.6	19.6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1.9	56.3	21.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9.8	67.6	12.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2.1	60.6	17.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0.7	63.1	16.2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5.5	54.4	20.2	100.0
	별거·이혼·사별	(32)	21.7	59.4	1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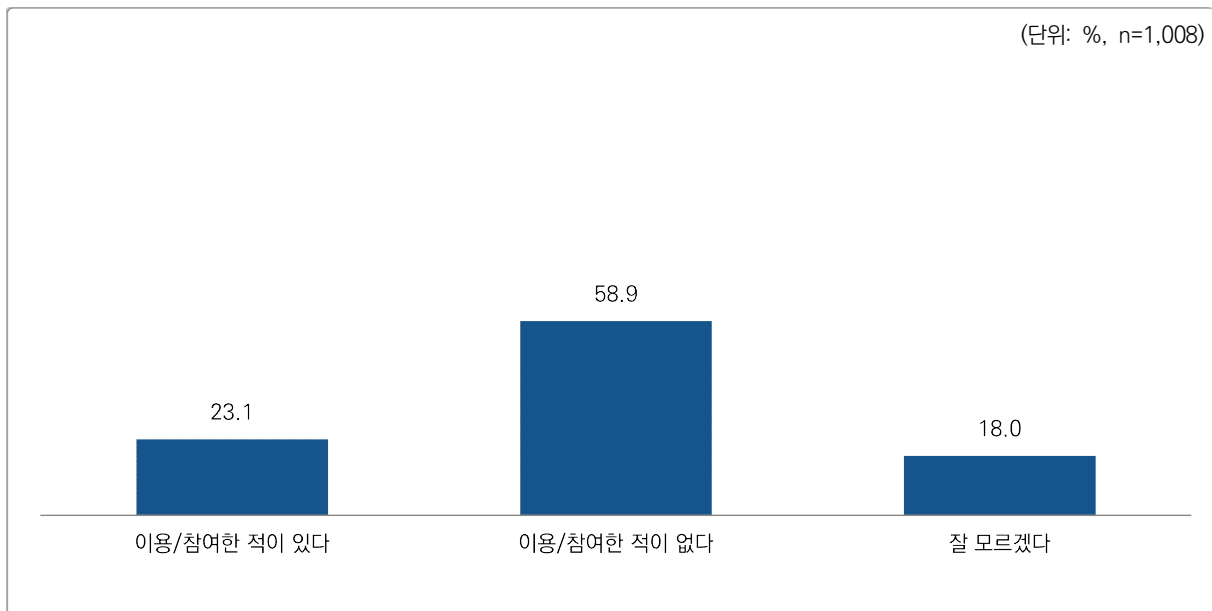
## 2) 성남시청소년정년재단과 운영시설

### (1)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정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

#### ①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58.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23.1%, '잘 모르겠다'가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6.2%, 여성은 51.2%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6.6%, 25세~29세는 61.8%, 30세~34세는 59.4%, 35세~39세는 57.3%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6.9%, 성남시 중원구는 60.1%, 성남시 분당구는 59.4%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9.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8.5%, 대학 졸업 이상은 58.8%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9.6%, 배우자 있음은 54.5%, 별거·이혼·사별은 68.7%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9〉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정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작은도서관 이용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8〉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작은도서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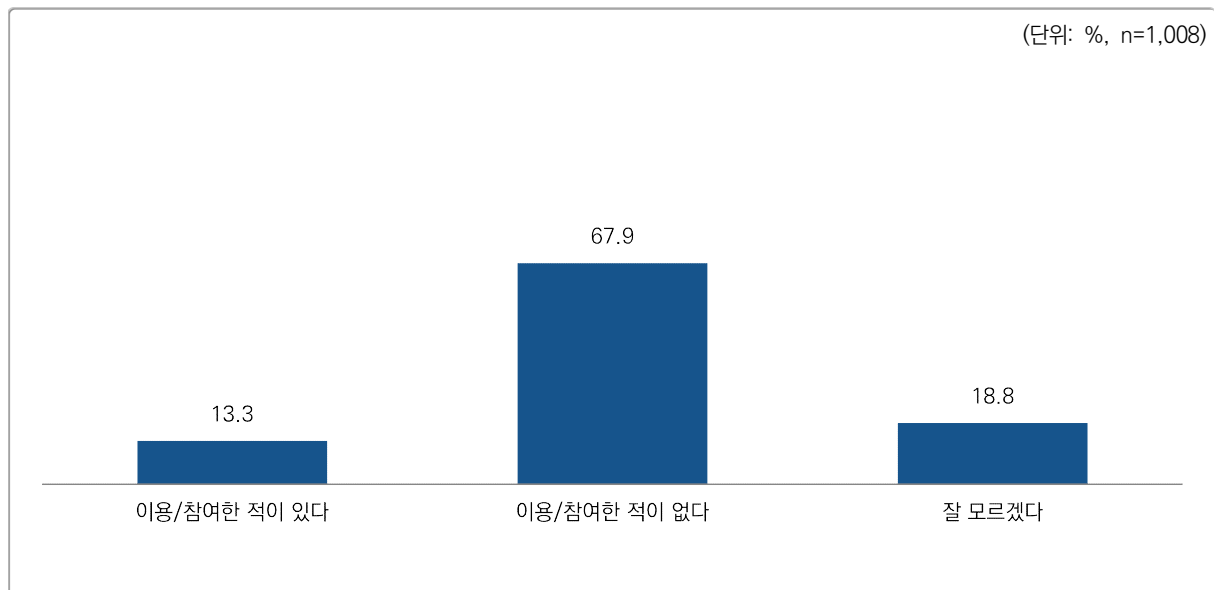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23.1	58.9	18.0	100.0
성별	남성	(517)	17.1	66.2	16.7	100.0
	여성	(491)	29.3	51.2	19.5	100.0
연령	19세-24세	(214)	29.0	56.6	14.3	100.0
	25세-29세	(256)	20.8	61.8	17.4	100.0
	30세-34세	(282)	20.0	59.4	20.6	100.0
	35세-39세	(255)	23.7	57.3	18.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2.1	56.9	20.9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20.8	60.1	19.0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24.6	59.4	16.1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3.7	59.6	26.6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31.0	58.5	10.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22.8	58.8	18.3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2.8	59.6	17.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7.0	54.5	18.5	100.0
	별거·이혼·사별	(32)	6.3	68.7	25.0	100.0

## ②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67.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8.8%,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6.4%, 여성은 69.5%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1.4%, 25세~29세는 69.2%,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67.6%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9.3%, 성남시 중원구는 63.4%, 성남시 분당구는 69.2%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9.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1.4%, 대학 졸업 이상은 68.7%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8.9%, 배우자 있음은 64.3%, 별거·이혼·사별은 65.5%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0〉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19〉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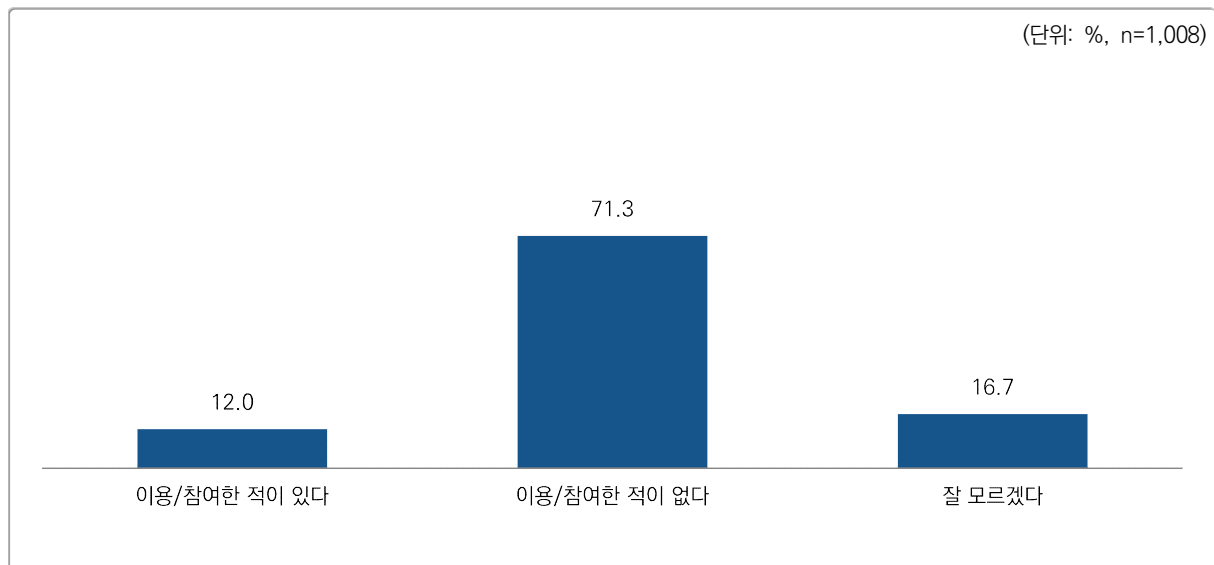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13.3	67.9	18.8	100.0
성별	남성	(517)	12.9	66.4	20.7	100.0
	여성	(491)	13.7	69.5	16.8	100.0
연령	19세~24세	(214)	9.7	71.4	18.9	100.0
	25세~29세	(256)	13.9	69.2	17.0	100.0
	30세~34세	(282)	15.0	64.4	20.6	100.0
	35세~39세	(255)	13.9	67.6	18.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4.6	69.3	16.1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2.1	63.4	24.5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3.1	69.2	17.7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1.7	59.6	28.7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0.4	71.4	18.2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4.5	68.7	16.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2.5	68.9	18.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7.1	64.3	18.6	100.0
	별거·이혼·사별	(32)	9.3	65.5	25.3	100.0

### ③ 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 청년지원센터 등 공간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71.3%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6.7%,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0.4%, 여성은 72.3%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4.4%, 25세~29세는 72.2%, 30세~34세는 64.4%, 35세~39세는 75.5%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1.6%, 성남시 중원구는 70.1%, 성남시 분당구는 71.8%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4.8%, 대학 졸업 이상은 71.1%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1.4%, 배우자 있음은 70.0%, 별거·이혼·사별은 78.4%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1〉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0〉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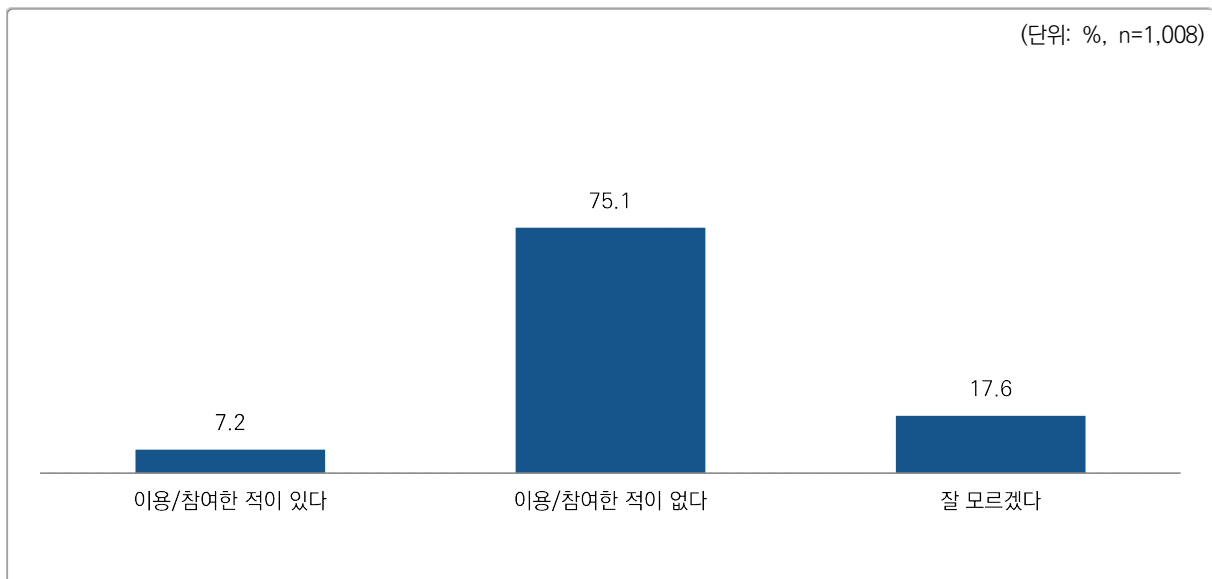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12.0	71.3	16.7	100.0
성별	남성	(517)	13.1	70.4	16.5	100.0
	여성	(491)	10.8	72.3	16.8	100.0
연령	19세~24세	(214)	9.8	74.4	15.8	100.0
	25세~29세	(256)	12.4	72.2	15.4	100.0
	30세~34세	(282)	16.0	64.4	19.6	100.0
	35세~39세	(255)	9.1	75.5	15.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3.1	71.6	15.4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2.6	70.1	17.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1.2	71.8	17.1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8.9	67.9	23.2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2.5	74.8	12.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2.5	71.1	16.4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2.0	71.4	16.6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2.0	70.0	18.0	100.0
	별거·이혼·사별	(32)	12.5	78.4	9.2	100.0

## ④ 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 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 기구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75.1%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7.6%,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3.7%, 여성은 76.7%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4.0%, 25세~29세는 76.2%, 30세~34세는 70.8%, 35세~39세는 79.8%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9.5%, 성남시 중원구는 70.6%, 성남시 분당구는 74.9%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2%,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7.0%, 대학 졸업 이상은 76.3%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6.3%, 배우자 있음은 70.1%, 별거·이혼·사별은 78.2%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2〉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1〉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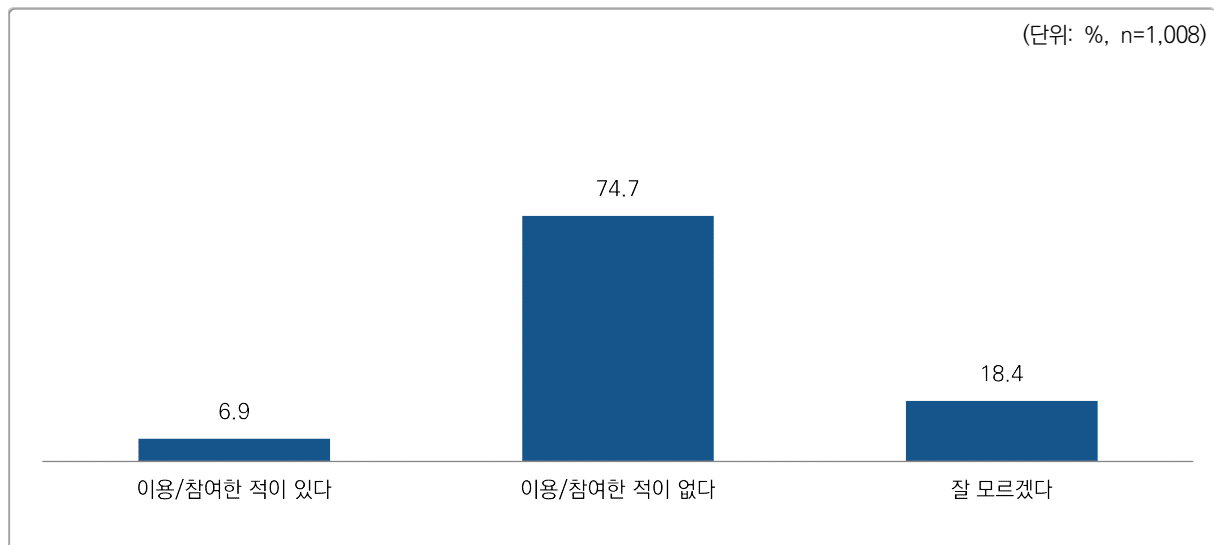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7.2	75.1	17.6	100.0
성별	남성	(517)	8.1	73.7	18.2	100.0
	여성	(491)	6.4	76.7	17.0	100.0
연령	19세~24세	(214)	8.8	74.0	17.2	100.0
	25세~29세	(256)	7.0	76.2	16.9	100.0
	30세~34세	(282)	7.9	70.8	21.3	100.0
	35세~39세	(255)	5.5	79.8	14.6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8	79.5	12.7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0.8	70.6	18.6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5.3	74.9	19.8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11.0	67.2	21.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9.3	77.0	13.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5.8	76.3	17.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6.5	76.3	17.2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9	70.1	20.1	100.0
	별거·이혼·사별	(32)	9.4	78.2	12.4	100.0



## ⑤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7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8.4%,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2.2%, 여성은 77.3%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2.7%, 25세~29세는 74.3%, 30세~34세는 72.2%, 35세~39세는 79.5%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4.6%, 성남시 중원구는 72.8%, 성남시 분당구는 75.6%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3.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7.0%, 대학 졸업 이상은 76.5%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4.7%, 배우자 있음은 76.2%, 별거·이혼·사별은 65.7%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3〉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2〉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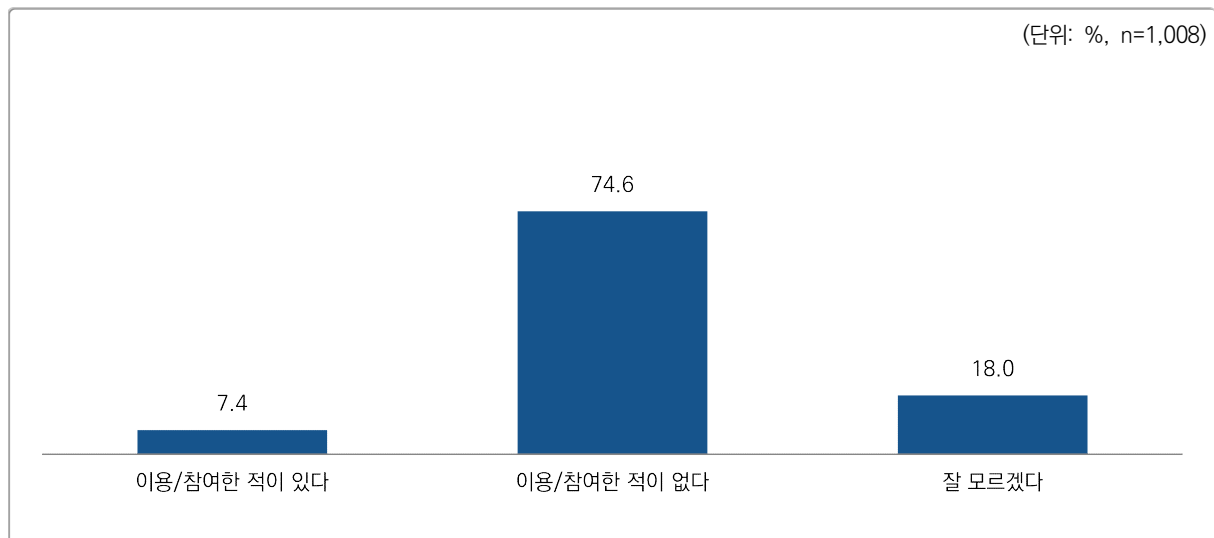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6.9	74.7	18.4	100.0
성별	남성	(517)	6.9	72.2	20.9	100.0
	여성	(491)	7.0	77.3	15.8	100.0
연령	19세~24세	(214)	7.0	72.7	20.4	100.0
	25세~29세	(256)	7.3	74.3	18.4	100.0
	30세~34세	(282)	9.6	72.2	18.2	100.0
	35세~39세	(255)	3.6	79.5	17.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7.9	74.6	17.6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6.9	72.8	20.3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6.4	75.6	18.0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9.5	63.1	27.3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7.3	77.0	15.7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6.3	76.5	17.2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6.5	74.7	18.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3	76.2	16.5	100.0
	별거·이혼·사별	(32)	15.5	65.7	18.8	100.0

## ⑥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74.6%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8.0%,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2.8%, 여성은 76.4%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5.0%, 25세~29세는 74.6%, 30세~34세는 71.9%, 35세~39세는 77.1%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8.3%, 성남시 중원구는 69.4%, 성남시 분당구는 75.0%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7.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5.0%, 대학 졸업 이상은 76.0%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5.0%, 배우자 있음은 73.2%, 별거·이혼·사별은 71.9%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4〉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3〉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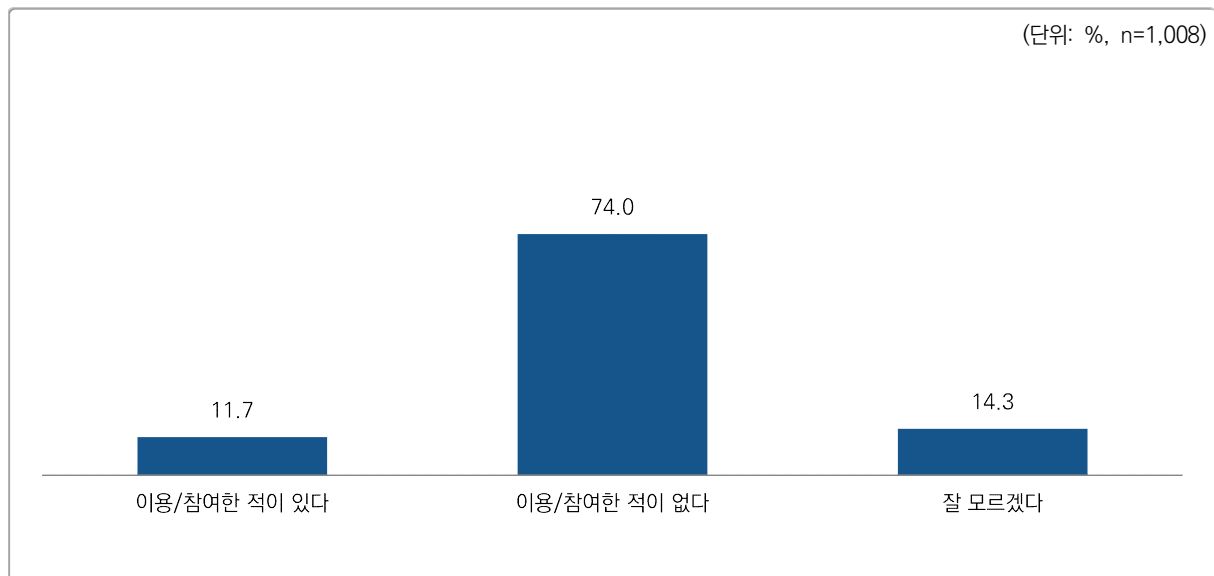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7.4	74.6	18.0	100.0
성별	남성	(517)	7.5	72.8	19.8	100.0
	여성	(491)	7.4	76.4	16.2	100.0
연령	19세~24세	(214)	6.9	75.0	18.1	100.0
	25세~29세	(256)	6.5	74.6	18.9	100.0
	30세~34세	(282)	10.3	71.9	17.8	100.0
	35세~39세	(255)	5.5	77.1	17.4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6.3	78.3	15.4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0.8	69.4	19.8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6.4	75.0	18.6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6.9	67.1	26.0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9.3	75.0	15.7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7.0	76.0	16.9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7.1	75.0	17.9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9.4	73.2	17.5	100.0
	별거·이혼·사별	(32)	3.2	71.9	25.0	100.0

## ⑦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74.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14.3%,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가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2.5%, 여성은 75.6%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77.2%, 25세~29세는 75.4%, 30세~34세는 68.3%, 35세~39세는 76.3%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4.2%, 성남시 중원구는 72.3%, 성남시 분당구는 74.8%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0.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77.0%, 대학 졸업 이상은 73.9%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3.9%, 배우자 있음은 74.7%, 별거·이혼·사별은 71.9%로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5〉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4〉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_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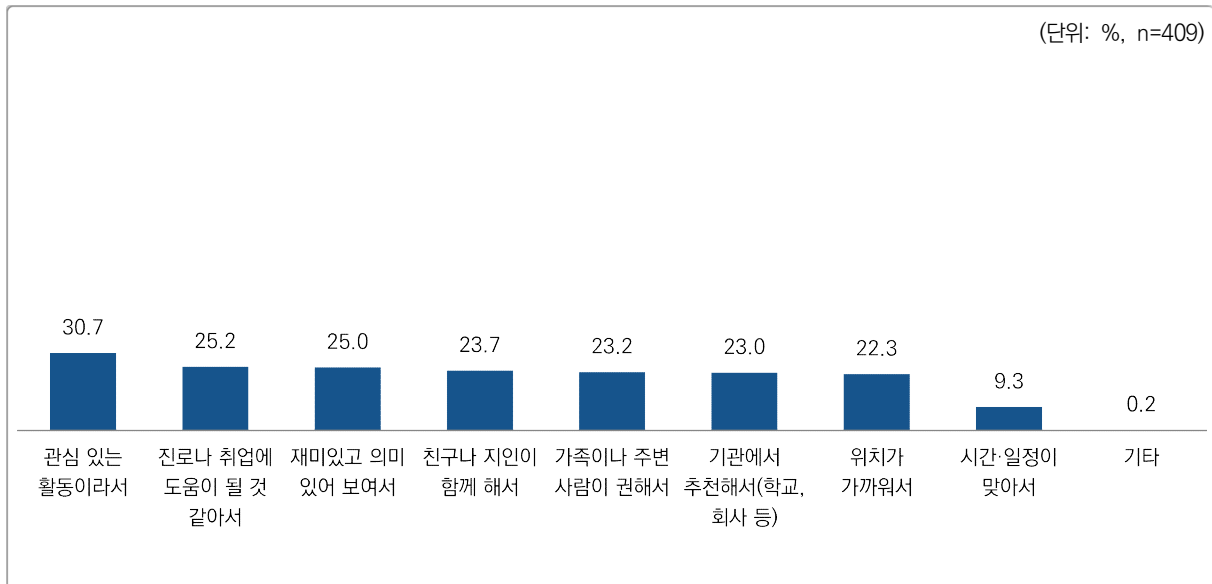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8)	11.7	74.0	14.3	100.0
성별	남성	(517)	12.5	72.5	15.0	100.0
	여성	(491)	10.8	75.6	13.5	100.0
연령	19세~24세	(214)	8.8	77.2	13.9	100.0
	25세~29세	(256)	12.0	75.4	12.7	100.0
	30세~34세	(282)	16.4	68.3	15.3	100.0
	35세~39세	(255)	8.7	76.3	15.0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2.7	74.2	13.1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3.5	72.3	14.2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0.4	74.8	14.9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9.6	70.6	19.8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1.4	77.0	11.6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12.2	73.9	13.8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1.6	73.9	14.4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12.0	74.7	13.3	100.0
	별거·이혼·사별	(32)	12.6	71.9	15.5	100.0

## (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30.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5.2%,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가 25.0%, ‘친구나 지인이 함께 해서’가 23.7%,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권해서’가 23.2%, ‘기관에서 추천해서’가 23%, ‘위치가 가까워서’가 22.3%, ‘시간·일정이 맞아서’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3.6%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권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4.4%로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40.0%로 ‘친구나 지인이 함께 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세~29세는 29.6%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권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세~34세는 32.8%로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세~39세는 35.1%로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2.7%, 성남시 분당구는 31.7%로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29.4%로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0.4%로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8.8%, 대학 졸업 이상은 31.4%로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3.5%로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은 35.3%로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6〉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복수응답)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5〉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관심 있는 활동 이라서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	친구나 지인이 함께 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권해서	기관에서 추천해서 (학교, 회사 등)	위치가 가까워서	시간· 일정이 맞아서	기타
전체		(409)	30.7	25.2	25.0	23.7	23.2	23.0	22.3	9.3	0.2
성별	남성	(180)	25.9	31.6	30.9	24.2	33.6	29.2	20.5	5.0	-
	여성	(228)	34.4	20.2	20.3	23.4	15.0	18.0	23.8	12.8	0.4
연령	19세-24세	(85)	39.0	23.5	18.7	40.0	19.9	29.3	15.3	5.8	-
	25세-29세	(103)	23.8	21.1	25.9	19.1	29.6	22.9	25.1	10.6	-
	30세-34세	(123)	27.1	32.8	28.8	18.0	20.5	22.9	19.7	10.7	-
	35세-39세	(98)	35.1	21.6	24.8	21.7	22.7	17.5	28.9	9.3	1.0
지역	성남시 수정구	(110)	32.7	28.2	26.3	25.3	20.9	25.4	20.0	10.9	-
	성남시 중원구	(100)	26.3	25.3	29.4	22.2	26.2	18.1	20.2	7.1	1.0
	성남시 분당구	(198)	31.7	23.6	22.0	23.7	22.9	24.1	24.7	9.6	-
학력	고졸 이하	(56)	14.3	28.4	30.4	12.4	25.0	32.0	14.4	5.4	-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88)	38.8	25.1	15.7	38.6	22.5	30.7	14.8	6.8	-
	대학 졸업 이상	(265)	31.4	24.6	26.9	21.2	23.0	18.5	26.5	11.0	0.4
혼인 상태	미혼/비혼	(305)	33.5	25.6	22.9	26.5	24.1	21.9	20.7	9.9	-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86)	27.1	22.4	35.3	15.3	16.5	27.0	29.4	8.3	1.2
	별거·이혼·사별*	(18)	-	33.0	11.0	16.7	39.0	22.1	16.8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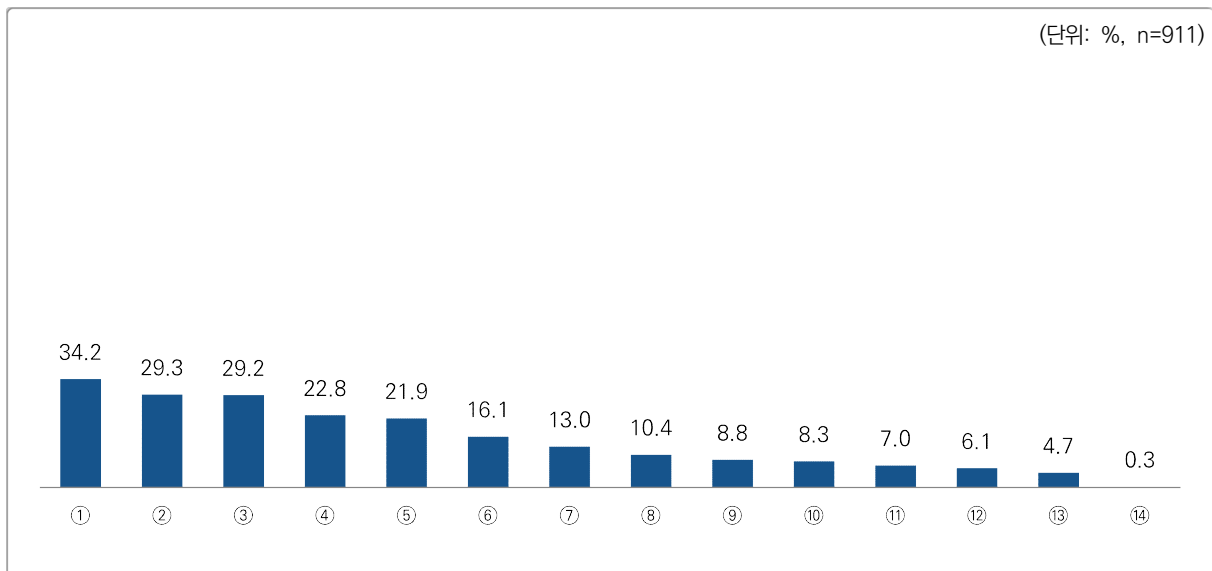
〈주〉 다음의 구분(\*)은 유의미한 분석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34.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 방법을 몰라서’가 29.3%, ‘시간이 없어서’가 29.2%, ‘내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가 22.8%, ‘관심이 없어서’가 21.9%,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가 16.1%, ‘거리나 이동이 불편해서’가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32.0%, 여성은 36.5%로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31.8%, 25세~29세는 41.0%, 30세~34세는 33.0%, 35세~39세는 30.6%로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37.0%, 성남시 중원구는 36.9%로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33.4%로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0.3%로 ‘참여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35.2%로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졸업 이상은 38.5%로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35.6%, 배우자 있음은 33.7%로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3.8%로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II. 청년 실태조사 결과

〈표 2-126〉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프로그램 홍보/ 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 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	② 참여 방법을 몰라서	③ 시간이 없어서 (학업, 일 등)	④ 내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	⑦ 거리나 이동이 불편해서
전체		(911)	34.2	29.3	29.2	22.8	21.9	16.1	13.0
성별	남성	(469)	32.0	29.4	28.1	26.7	27.5	22.3	14.0
	여성	(442)	36.5	29.3	30.3	18.6	15.9	9.5	11.8
연령	19세~24세	(190)	31.8	29.3	31.5	22.4	25.6	14.6	13.6
	25세~29세	(237)	41.0	31.8	26.5	22.5	21.4	15.8	10.8
	30세~34세	(249)	33.0	26.6	31.4	25.8	24.6	14.9	11.7
	35세~39세	(234)	30.6	29.7	27.6	20.3	16.4	18.9	15.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44)	37.0	30.0	24.3	20.2	16.9	15.6	14.8
	성남시 중원구	(212)	36.9	33.7	25.6	26.0	20.3	15.7	11.8
	성남시 분당구	(455)	31.5	27.0	33.4	22.7	25.3	16.6	12.5
학력	고졸 이하	(132)	23.4	30.3	15.9	16.6	18.9	22.1	12.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75)	27.8	23.9	35.2	26.6	25.4	17.6	12.4
	대학 졸업 이상	(604)	38.5	30.7	30.3	23.1	21.5	14.4	13.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03)	35.6	29.3	29.8	22.1	23.2	15.6	12.9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6)	33.7	29.7	30.3	28.0	17.2	13.1	13.7
	별거·이혼·사별	(32)	6.2	28.2	9.4	9.3	18.7	43.8	9.5

〈표 2-127〉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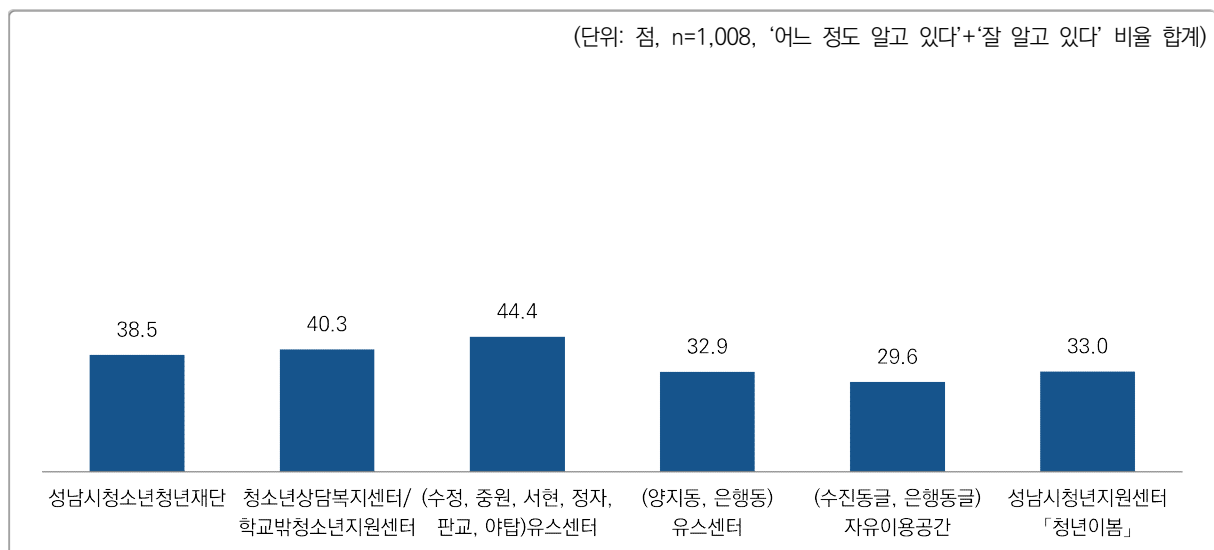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⑧ 타 지역에서 더 나은 유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⑨ 비용이 부담되서	⑩ 분위기가 낮설어서	⑪ 선발과정이 어려워서 (서류작성 및 면접과정, 경쟁률 등)	⑫ 다른 활동 (일, 공부, 취미 등)을 선호해서	⑬ 신청 절차가 불편해서	⑭ 기타
전체		(911)	10.4	8.8	8.3	7.0	6.1	4.7	0.3
성별	남성	(469)	15.3	9.4	8.2	5.8	7.0	2.3	0.2
	여성	(442)	5.3	8.2	8.4	8.4	5.2	7.3	0.5
연령	19세~24세	(190)	11.4	7.8	7.8	2.6	4.2	4.2	0.5
	25세~29세	(237)	8.7	8.8	8.6	8.4	5.8	5.0	0.4
	30세~34세	(249)	10.1	10.5	8.5	10.1	6.9	4.4	-
	35세~39세	(234)	11.6	7.8	8.2	6.0	7.3	5.2	0.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44)	9.1	10.7	8.6	8.3	7.4	5.4	-
	성남시 중원구	(212)	12.2	10.4	8.1	7.6	3.8	4.3	-
	성남시 분당구	(455)	10.3	7.0	8.3	6.1	6.5	4.6	0.7
학력	고졸 이하	(132)	12.2	9.9	10.6	9.1	6.0	4.6	0.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75)	13.0	6.2	7.4	2.3	6.8	4.0	-
	대학 졸업 이상	(604)	9.3	9.3	8.1	8.0	6.0	5.0	0.3
혼인 상태	미혼/비혼	(703)	10.8	9.4	9.1	7.0	5.7	5.0	0.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76)	8.0	6.9	6.3	8.6	7.4	4.6	0.6
	별거·이혼·사별	(32)	15.6	6.1	3.1	-	9.4	-	-

#### (4)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44.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40.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38.5%,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가 33.0%, ‘(양지, 은행)유스센터’가 32.9%, ‘(수진동글, 은행동글)자유이용공간’이 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42.7%, 여성은 46.3%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8%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44.3%, 30세~34세는 45.6%, 35세~39세는 39.5%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40.5%, 성남시 분당구는 47.2%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는 44.4%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9.1%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6.0%, 대학 졸업 이상은 43.0%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43.8%, 배우자 있음은 45.7%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유스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9.3%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표 2-12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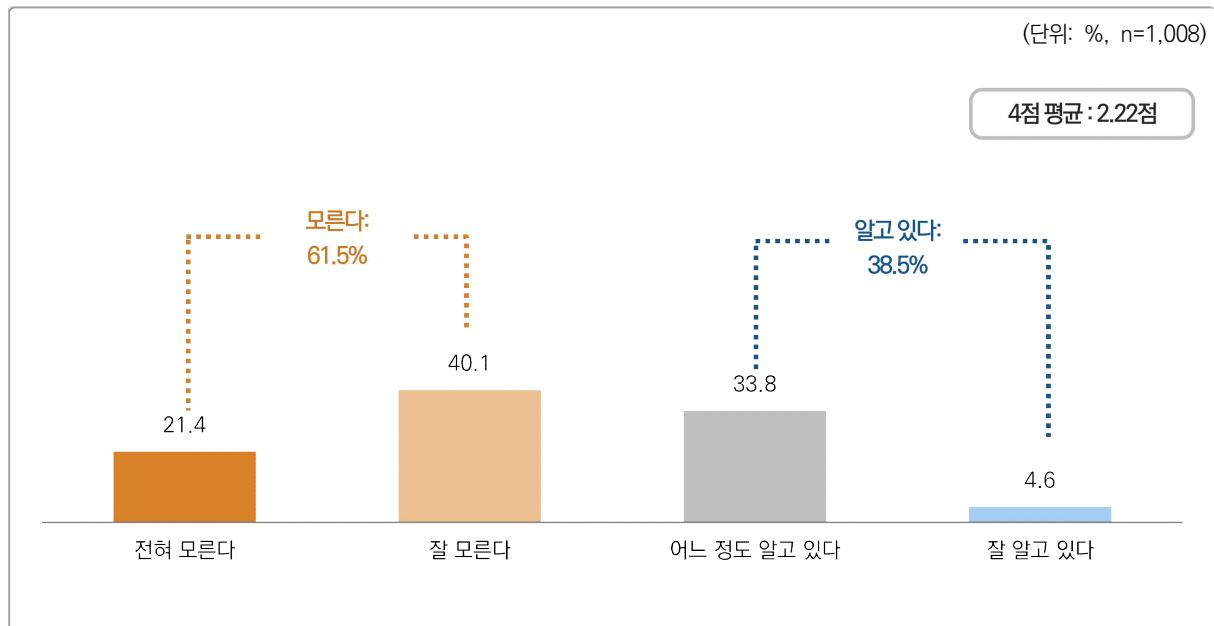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성남시청 소년 청년재단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아탑) 유스센터	(양지, 은행) 유스센터	(수진동글, 은행동글) 자유이용 공간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전체		(1,008)	38.5	40.3	44.4	32.9	29.6	33.0
성별	남성	(517)	41.3	40.4	42.7	35.7	33.7	37.1
	여성	(491)	35.5	40.2	46.3	29.9	25.2	28.7
연령	19세~24세	(214)	46.9	51.8	49.0	44.7	37.7	41.9
	25세~29세	(256)	38.6	38.9	44.3	30.4	25.8	31.6
	30세~34세	(282)	33.5	35.9	45.6	31.3	30.6	32.4
	35세~39세	(255)	36.8	36.8	39.5	27.3	25.3	27.7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4.1	38.9	40.5	32.6	27.8	32.2
	성남시 중원구	(232)	44.4	37.3	43.0	34.2	32.4	30.3
	성남시 분당구	(508)	38.0	42.3	47.2	32.5	29.2	34.7
학력	고졸 이하	(146)	39.1	36.3	35.8	30.2	26.1	27.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50.7	54.0	56.0	47.6	43.9	51.2
	대학 졸업 이상	(672)	34.9	37.2	43.0	29.4	26.2	29.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8.8	40.0	43.8	33.4	29.6	33.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3.7	39.9	45.7	30.6	26.9	28.0
	별거·이혼·사별	(32)	59.3	50.1	53.3	34.6	44.0	46.9

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40.1%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3.8%, '전혀 모른다'가 21.4%, '잘 알고 있다'가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61.5%, '알고 있다'가 38.5%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8.7%, 여성은 64.5%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3.1%, 25세~29세는 61.4%, 30세~34세는 66.5%, 35세~39세는 63.2%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5.9%, 성남시 중원구는 55.6%, 성남시 분당구는 62.0%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 별에서 고졸 이하는 60.9%, 대학 졸업 이상은 65.1%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0.7%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1.2%, 배우자 있음은 66.3%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9.3%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1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표 2-12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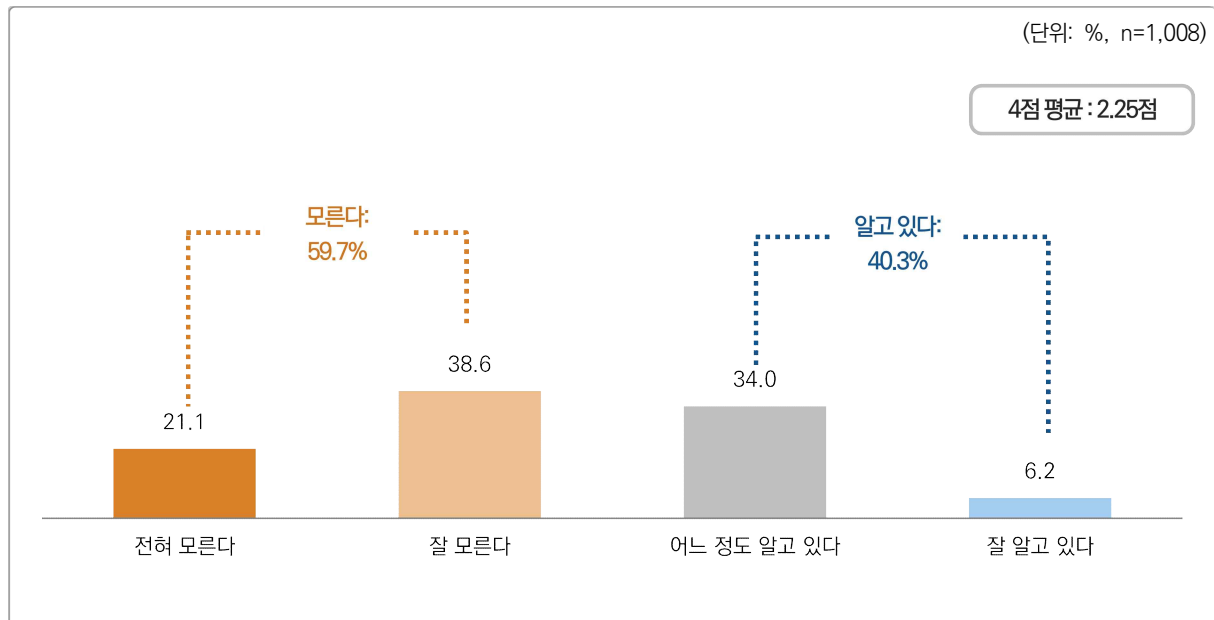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1.4	40.1	33.8	4.6	61.5	38.5	100.0	(2.22)
성별	남성	(517)	19.3	39.4	35.5	5.8	58.7	41.3	100.0	(2.28)
	여성	(491)	23.6	40.9	32.0	3.5	64.5	35.5	100.0	(2.15)
연령	19세-24세	(214)	15.9	37.2	39.9	7.0	53.1	46.9	100.0	(2.38)
	25세-29세	(256)	14.7	46.7	32.9	5.7	61.4	38.6	100.0	(2.30)
	30세-34세	(282)	24.6	42.0	29.9	3.6	66.5	33.5	100.0	(2.12)
	35세-39세	(255)	29.3	34.0	34.0	2.8	63.2	36.8	100.0	(2.1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0.2	45.6	30.0	4.1	65.9	34.1	100.0	(2.18)
	성남시 중원구	(232)	22.7	32.9	39.2	5.2	55.6	44.4	100.0	(2.27)
	성남시 분당구	(508)	21.4	40.5	33.4	4.7	62.0	38.0	100.0	(2.21)
학력	고졸 이하	(146)	17.8	43.1	33.6	5.5	60.9	39.1	100.0	(2.2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2.2	37.2	42.8	7.8	49.3	50.7	100.0	(2.46)
	대학 졸업 이상	(672)	24.8	40.3	31.3	3.6	65.1	34.9	100.0	(2.1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9.9	41.3	34.3	4.4	61.2	38.8	100.0	(2.2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0.1	36.2	29.0	4.7	66.3	33.7	100.0	(2.08)
	별거·이혼·사별	(32)	6.2	34.5	49.9	9.4	40.7	59.3	100.0	(2.63)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38.6%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4.0%, '전혀 모른다'가 21.1%, '잘 알고 있다'가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59.7%, '알고 있다'가 40.3%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9.6%, 여성은 59.8%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8%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25세~29세는 61.1%, 30세~34세는 64.1%, 35세~39세는 63.2%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1.1%, 성남시 중원구는 62.7%, 성남시 분당구는 57.7%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3.7%, 대학 졸업 이상은 62.8%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4.0%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0.0%, 배우자 있음은 60.1%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0.1%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표 2-13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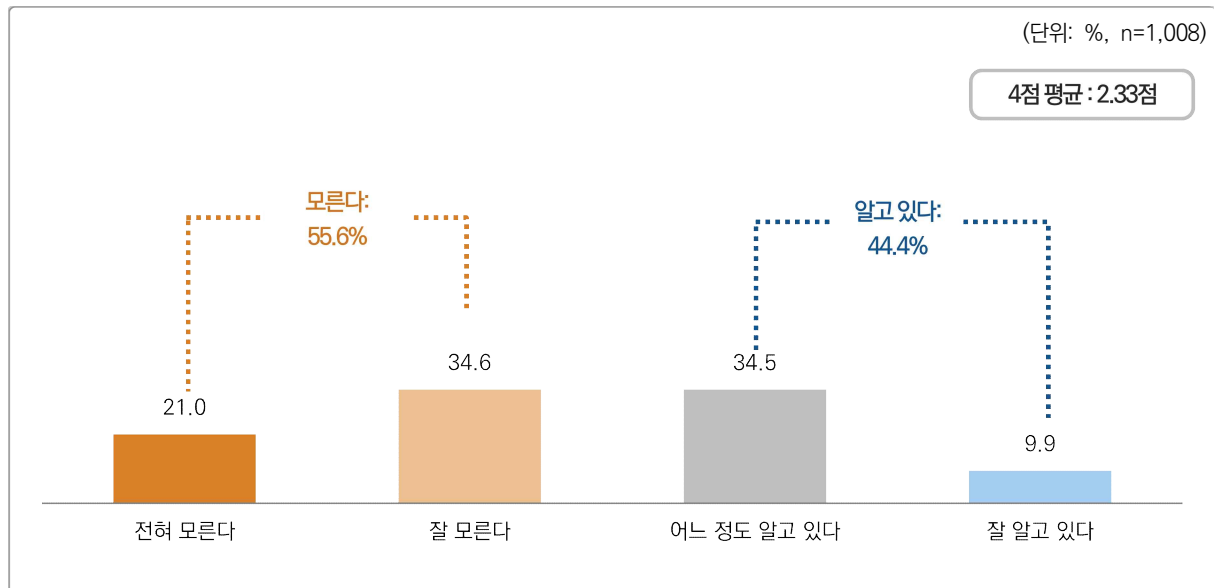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1.1	38.6	34.0	6.2	59.7	40.3	100.0	(2.25)
성별	남성	(517)	19.3	40.3	32.9	7.5	59.6	40.4	100.0	(2.28)
	여성	(491)	23.0	36.8	35.2	4.9	59.8	40.2	100.0	(2.22)
연령	19세-24세	(214)	14.9	33.3	42.0	9.8	48.2	51.8	100.0	(2.47)
	25세-29세	(256)	13.6	47.5	33.5	5.3	61.1	38.9	100.0	(2.31)
	30세-34세	(282)	23.5	40.6	28.8	7.1	64.1	35.9	100.0	(2.20)
	35세-39세	(255)	31.2	32.0	33.6	3.2	63.2	36.8	100.0	(2.09)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3.3	37.8	34.4	4.5	61.1	38.9	100.0	(2.20)
	성남시 중원구	(232)	23.0	39.7	33.8	3.5	62.7	37.3	100.0	(2.18)
	성남시 분당구	(508)	19.1	38.6	33.9	8.4	57.7	42.3	100.0	(2.32)
학력	고졸 이하	(146)	19.2	44.5	30.2	6.1	63.7	36.3	100.0	(2.2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2.1	33.9	45.1	8.9	46.0	54.0	100.0	(2.51)
	대학 졸업 이상	(672)	24.1	38.7	31.7	5.5	62.8	37.2	100.0	(2.1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9.8	40.3	33.2	6.7	60.0	40.0	100.0	(2.27)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6.4	33.7	35.2	4.7	60.1	39.9	100.0	(2.18)
	별거·이혼·사별	(32)	21.7	28.2	47.0	3.1	49.9	50.1	100.0	(2.32)

③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편교, 야탑)유스센터

■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편교, 야탑)유스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4.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른다’가 34.6%, ‘전혀 모른다’가 21.0%, ‘잘 알고 있다’가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55.6%, ‘알고 있다’가 44.4%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57.3%, 여성은 53.7%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1.0%, 25세~29세는 55.7%, 30세~34세는 54.4%, 35세~39세는 60.5%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9.5%, 성남시 중원구는 57.0%, 성남시 분당구는 52.8%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4.2%, 대학 졸업 이상은 57.0%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6.0%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56.2%, 배우자 있음은 54.3%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53.3%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 유스센터



〈표 2-13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아탑) 유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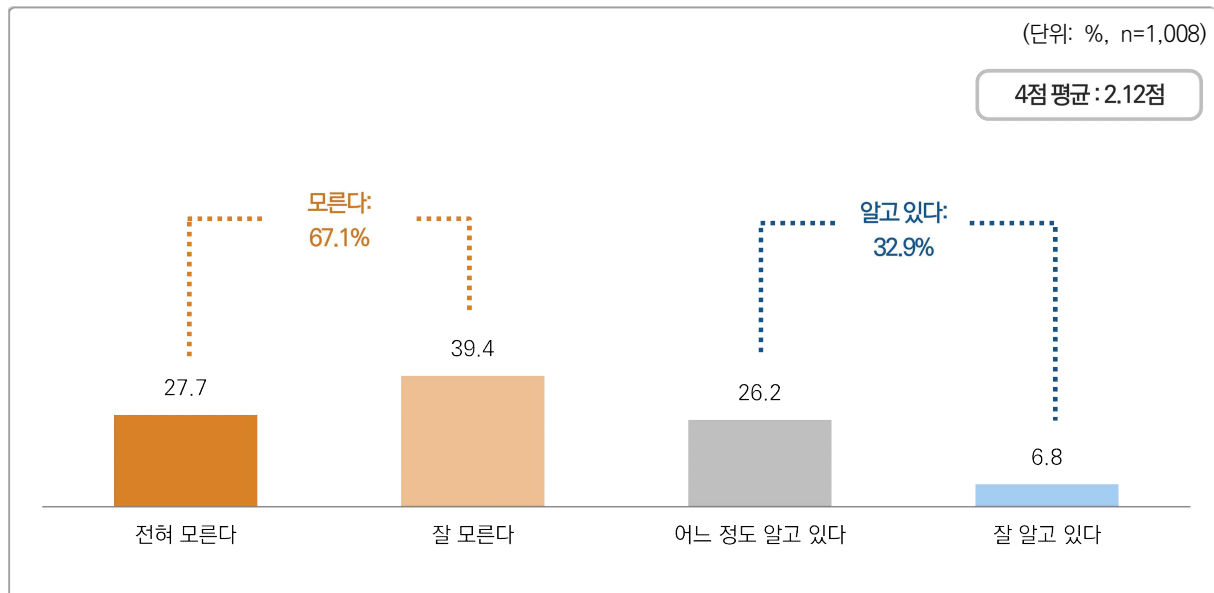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1.0	34.6	34.5	9.9	55.6	44.4	100.0	(2.33)
성별	남성	(517)	19.9	37.4	32.9	9.8	57.3	42.7	100.0	(2.33)
	여성	(491)	22.1	31.6	36.2	10.1	53.7	46.3	100.0	(2.34)
연령	19세-24세	(214)	18.1	32.9	37.4	11.6	51.0	49.0	100.0	(2.43)
	25세-29세	(256)	19.0	36.7	36.2	8.1	55.7	44.3	100.0	(2.33)
	30세-34세	(282)	22.1	32.3	33.8	11.8	54.4	45.6	100.0	(2.35)
	35세-39세	(255)	24.1	36.4	31.2	8.3	60.5	39.5	100.0	(2.24)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4.3	35.2	30.3	10.1	59.5	40.5	100.0	(2.26)
	성남시 중원구	(232)	21.3	35.8	32.1	10.8	57.0	43.0	100.0	(2.33)
	성남시 분당구	(508)	19.1	33.7	37.8	9.4	52.8	47.2	100.0	(2.38)
학력	고졸 이하	(146)	21.9	42.3	28.2	7.6	64.2	35.8	100.0	(2.2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2.6	31.4	39.8	16.2	44.0	56.0	100.0	(2.60)
	대학 졸업 이상	(672)	23.2	33.8	34.4	8.7	57.0	43.0	100.0	(2.29)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0.6	35.6	34.2	9.6	56.2	43.8	100.0	(2.3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24.3	30.0	34.7	10.9	54.3	45.7	100.0	(2.32)
	별거·이혼·사별	(32)	9.1	37.6	40.8	12.5	46.7	53.3	100.0	(2.57)

④ (양지, 은행)유스센터

■ (양지, 은행)유스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3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가 27.7%,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6.2%, '잘 알고 있다'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67.1%, '알고 있다'가 32.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4.3%, 여성은 70.1%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5.3%, 25세~29세는 69.6%, 30세~34세는 68.7%, 35세~39세는 72.7%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4%, 성남시 중원구는 65.8%, 성남시 분당구는 67.5%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69.8%,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2.4%, 대학 졸업 이상은 70.6%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6.6%, 배우자 있음은 69.4%, 별거·이혼·사별은 65.4%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양지, 은행) 유스센터



〈표 2-13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양지, 은행) 유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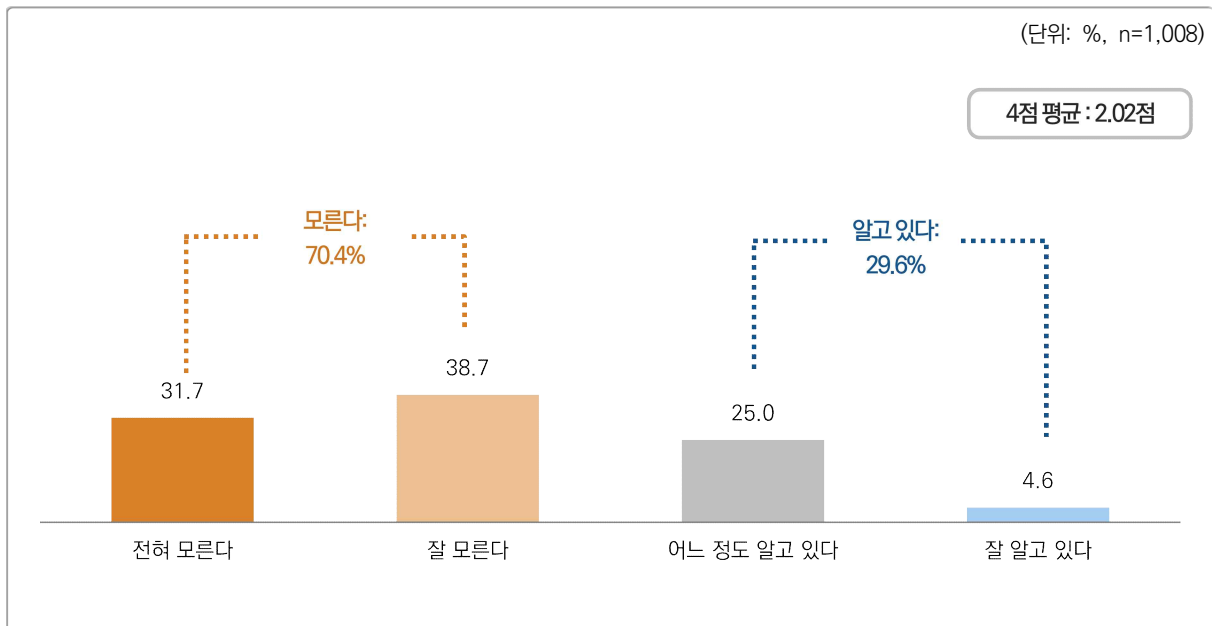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27.7	39.4	26.2	6.8	67.1	32.9	100.0	(2.12)
성별	남성	(517)	23.2	41.1	29.4	6.4	64.3	35.7	100.0	(2.19)
	여성	(491)	32.4	37.7	22.7	7.2	70.1	29.9	100.0	(2.05)
연령	19세-24세	(214)	22.4	32.9	36.7	7.9	55.3	44.7	100.0	(2.30)
	25세-29세	(256)	25.2	44.4	25.0	5.4	69.6	30.4	100.0	(2.11)
	30세-34세	(282)	29.5	39.1	22.4	8.9	68.7	31.3	100.0	(2.11)
	35세-39세	(255)	32.4	40.3	22.6	4.8	72.7	27.3	100.0	(2.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8.5	38.9	25.5	7.2	67.4	32.6	100.0	(2.11)
	성남시 중원구	(232)	27.0	38.9	26.3	7.8	65.8	34.2	100.0	(2.15)
	성남시 분당구	(508)	27.5	40.0	26.4	6.1	67.5	32.5	100.0	(2.11)
학력	고졸 이하	(146)	25.4	44.4	24.0	6.2	69.8	30.2	100.0	(2.11)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9.5	32.9	39.7	7.9	52.4	47.6	100.0	(2.36)
	대학 졸업 이상	(672)	30.5	40.2	22.8	6.6	70.6	29.4	100.0	(2.05)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7.0	39.5	27.0	6.4	66.6	33.4	100.0	(2.1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1.6	37.8	21.7	8.9	69.4	30.6	100.0	(2.08)
	별거·이혼·사별	(32)	18.8	46.6	31.4	3.2	65.4	34.6	100.0	(2.19)

⑤ (수진동글, 은행동글)자유이용공간

■ (수진동글, 은행동글)자유이용공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3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가 31.7%,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5.0%, '잘 알고 있다'가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70.4%, '알고 있다'가 29.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6.3%, 여성은 74.8%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2.3%, 25세~29세는 74.2%, 30세~34세는 69.4%, 35세~39세는 74.7%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72.2%, 성남시 중원구는 67.6%, 성남시 분당구는 70.8%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3.9%,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6.1%, 대학 졸업 이상은 73.8%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0.4%, 배우자 있음은 73.1%, 별거·이혼·사별은 56.0%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진동글, 은행동글) 자유이용공간



〈표 2-133〉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수진동글, 은행동글) 자유이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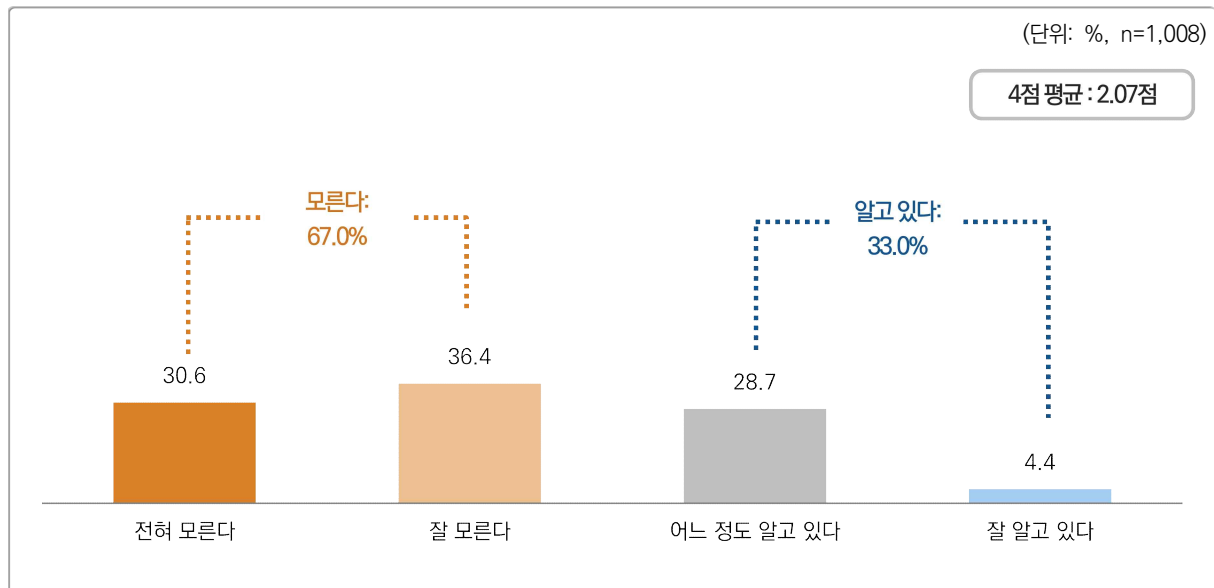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1.7	38.7	25.0	4.6	70.4	29.6	100.0	(2.02)
성별	남성	(517)	25.8	40.5	28.9	4.8	66.3	33.7	100.0	(2.13)
	여성	(491)	37.9	36.9	20.9	4.3	74.8	25.2	100.0	(1.92)
연령	19세-24세	(214)	24.3	37.9	31.2	6.5	62.3	37.7	100.0	(2.20)
	25세-29세	(256)	30.5	43.6	23.2	2.7	74.2	25.8	100.0	(1.98)
	30세-34세	(282)	33.1	36.3	24.9	5.7	69.4	30.6	100.0	(2.03)
	35세-39세	(255)	37.5	37.1	21.7	3.6	74.7	25.3	100.0	(1.9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33.4	38.9	22.9	4.9	72.2	27.8	100.0	(1.99)
	성남시 중원구	(232)	28.3	39.3	28.2	4.3	67.6	32.4	100.0	(2.08)
	성남시 분당구	(508)	32.4	38.4	24.7	4.5	70.8	29.2	100.0	(2.01)
학력	고졸 이하	(146)	26.8	47.1	22.0	4.1	73.9	26.1	100.0	(2.0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0.6	35.5	36.1	7.8	56.1	43.9	100.0	(2.31)
	대학 졸업 이상	(672)	35.9	37.8	22.5	3.7	73.8	26.2	100.0	(1.94)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31.1	39.3	25.2	4.5	70.4	29.6	100.0	(2.03)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38.3	34.8	22.3	4.7	73.1	26.9	100.0	(1.93)
	별거·이혼·사별	(32)	6.0	50.0	37.7	6.2	56.0	44.0	100.0	(2.44)

⑥ 성남시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 성남시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가 30.6%,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8.7%, '잘 알고 있다'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른다'가 67.0%, '알고 있다'가 33.0%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62.9%, 여성은 71.3%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58.1%, 25세~29세는 68.4%, 30세~34세는 67.6%, 35세~39세는 72.3%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7.8%, 성남시 중원구는 69.7%, 성남시 분당구는 65.3%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72.6%, 대학 졸업 이상은 70.9%로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1.2%로 '알고 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6.3%, 배우자 있음은 72.0%, 별거·이혼·사별은 53.1%로 '모른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4〉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표 2-134〉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_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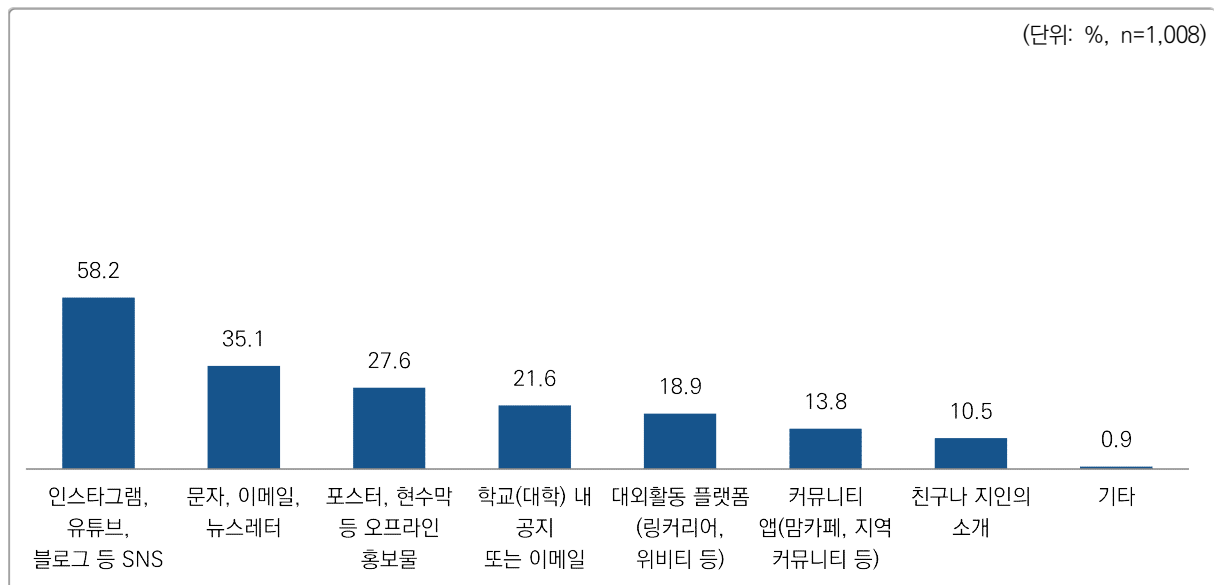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모른다	☉ 알고 있다	계	평균 (점)
전체		(1,008)	30.6	36.4	28.7	4.4	67.0	33.0	100.0	(2.07)
성별	남성	(517)	23.7	39.2	32.7	4.4	62.9	37.1	100.0	(2.18)
	여성	(491)	37.9	33.4	24.4	4.3	71.3	28.7	100.0	(1.95)
연령	19세-24세	(214)	22.4	35.7	36.8	5.1	58.1	41.9	100.0	(2.25)
	25세-29세	(256)	25.9	42.5	27.4	4.2	68.4	31.6	100.0	(2.10)
	30세-34세	(282)	33.8	33.8	26.7	5.7	67.6	32.4	100.0	(2.04)
	35세-39세	(255)	38.7	33.6	25.3	2.4	72.3	27.7	100.0	(1.91)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28.8	38.9	27.0	5.3	67.8	32.2	100.0	(2.09)
	성남시 중원구	(232)	31.3	38.4	26.3	3.9	69.7	30.3	100.0	(2.03)
	성남시 분당구	(508)	31.3	34.1	30.6	4.1	65.3	34.7	100.0	(2.07)
학력	고졸 이하	(146)	26.1	46.5	22.7	4.8	72.6	27.4	100.0	(2.06)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17.9	30.9	46.0	5.2	48.8	51.2	100.0	(2.39)
	대학 졸업 이상	(672)	35.2	35.7	25.0	4.0	70.9	29.1	100.0	(1.98)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28.3	38.0	29.4	4.3	66.3	33.7	100.0	(2.1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44.0	28.0	22.8	5.2	72.0	28.0	100.0	(1.89)
	별거·이혼·사별	(32)	6.0	47.1	46.9	-	53.1	46.9	100.0	(2.41)

(5)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 전달 시 선호하는 경로

■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을 주로 어떤 경로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58.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자, 이메일, 뉴스레터’가 35.1%, ‘포스터,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물’이 27.6%, ‘학교(대학) 내 공지 또는 이메일’이 21.6%, ‘대외활동 플랫폼’이 18.9%, ‘커뮤니티 앱’이 13.8%, ‘친구나 지인의 소개’가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 남성은 51.5%, 여성은 65.4%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0.5%, 25세~29세는 54.5%, 30세~34세는 63.7%, 35세~39세는 54.2%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59.6%, 성남시 중원구는 56.6%, 성남시 분당구는 58.3%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38.3%,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62.8%, 대학 졸업 이상은 61.3%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60.6%, 배우자 있음은 58.0%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31.2%로 ‘학교(대학) 내 공지 또는 이메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5〉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 전달 시 선호하는 경로(복수응답)



〈표 2-135〉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 전달 시 선호하는 경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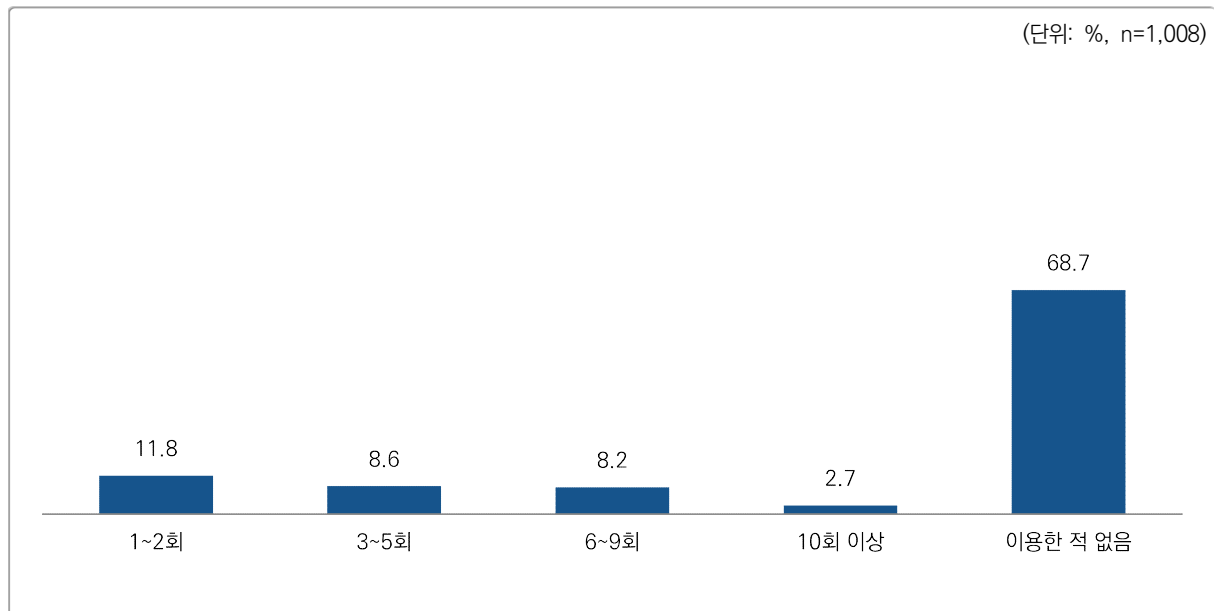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인스타 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	문자, 이메일, 뉴스레터	포스터,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물	학교(대학)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대외활동 플랫폼 (링크리어, 위비티 등)	커뮤니티 앱(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	친구나 지인의 소개	기타
전체		(1,008)	58.2	35.1	27.6	21.6	18.9	13.8	10.5	0.9
성별	남성	(517)	51.5	38.6	29.8	24.4	26.9	16.1	12.6	0.8
	여성	(491)	65.4	31.3	25.4	18.7	10.4	11.3	8.2	1.0
연령	19세-24세	(214)	60.5	33.5	27.9	39.5	18.9	9.3	11.6	0.5
	25세-29세	(256)	54.5	38.0	31.2	20.1	26.0	15.7	11.5	-
	30세-34세	(282)	63.7	33.5	28.8	15.3	18.9	11.4	8.5	1.1
	35세-39세	(255)	54.2	35.2	22.5	15.0	11.8	18.2	10.7	2.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59.6	34.0	23.6	20.9	16.5	14.6	9.3	0.4
	성남시 중원구	(232)	56.6	34.3	28.6	24.6	24.9	10.9	9.5	1.3
	성남시 분당구	(508)	58.3	36.0	29.3	20.6	17.4	14.6	11.5	1.0
학력	고졸 이하	(146)	38.3	32.7	25.4	22.6	16.4	10.8	7.4	0.7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62.8	37.1	32.4	42.3	17.6	11.0	9.9	0.5
	대학 졸업 이상	(672)	61.3	35.0	26.8	15.5	19.8	15.2	11.3	1.1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60.6	35.3	27.9	23.4	20.5	12.5	10.8	0.6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58.0	34.7	26.4	13.0	13.5	18.1	8.8	2.1
	별거·이혼·사별	(32)	3.1	31.2	28.0	31.2	12.6	18.6	12.5	-

(6)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 빈도

■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을 몇 회 정도 이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적 없음'이 6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2회'가 11.8%, '3~5회'가 8.6%, '6~9회'가 8.2%, '10회 이상'이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은 70.9%, 여성은 66.4%로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9세~24세는 63.6%, 25세~29세는 69.9%, 30세~34세는 70.4%, 35세~39세는 69.9%로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성남시 수정구는 65.9%, 성남시 중원구는 63.5%, 성남시 분당구는 72.5%로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 고졸 이하는 57.4%,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는 58.5%, 대학 졸업 이상은 74.0%로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에서 미혼/비혼은 71.7%, 배우자 있음은 67.3%로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은 46.8%로 '6~9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6〉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 빈도



〈표 2-136〉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이용한 적 없음	계
전체		(1,008)	11.8	8.6	8.2	2.7	68.7	100.0
성별	남성	(517)	8.4	9.5	8.7	2.5	70.9	100.0
	여성	(491)	15.4	7.6	7.8	2.9	66.4	100.0
연령	19세~24세	(214)	20.1	8.4	6.0	1.9	63.6	100.0
	25세~29세	(256)	11.6	6.6	10.1	1.9	69.9	100.0
	30세~34세	(282)	8.6	8.9	7.9	4.3	70.4	100.0
	35세~39세	(255)	8.7	10.3	8.7	2.4	69.9	100.0
지역	성남시 수정구	(268)	11.6	7.9	10.1	4.5	65.9	100.0
	성남시 중원구	(232)	12.1	10.8	10.4	3.1	63.5	100.0
	성남시 분당구	(508)	11.8	7.9	6.3	1.6	72.5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8.2	9.6	16.5	8.3	57.4	100.0
	대학 재학·수료·휴학·중퇴	(190)	22.1	9.0	9.4	1.1	58.5	100.0
	대학 졸업 이상	(672)	9.7	8.2	6.1	1.9	74.0	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782)	12.9	7.8	5.9	1.7	71.7	100.0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194)	7.8	10.9	11.4	2.6	67.3	100.0
	별거·이혼·사별	(32)	9.4	12.4	46.8	28.4	3.1	100.0



# III

## 성남시 청년 심층인터뷰 분석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심층인터뷰 방법
3. 연구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5. 청년정책 이해관계자 인터뷰





## Ⅲ

## 성남시 청년 심층인터뷰 분석

## 1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 지역 청년의 삶과 과제를 지원하는 핵심 시행기관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남시 청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논의는 개별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분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나, 청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영향과 전반적인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본 연구는 청년 당사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과 기대, 청년 사업을 통해서 경험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또한, 청년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담당자의 시각을 동시에 수집·분석하여 청년들의 생활세계에서 드러나는 정책 수요와 현장 담당자가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남시 청년 정책의 구조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 본 심층인터뷰는 양적 실태조사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맥락과 정책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첫째, 청년 당사자의 삶과 정책 경험 파악: 청년들이 재단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활용하며 체감한 변화, 개선 필요 등을 살펴본다.
- 둘째, 청년 사업 담당자의 정책 사업 실행 경험 분석: 청년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과정과 성과 인식,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과제를 조명한다.
- 셋째, 정책 환경에 대한 다층적 이해: 청년들의 생활 경험과 담당자의 시각을 교차하여 분석하고 성남시 청년정책의 실제와 개선 방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 넷째, 실행 가능한 제언 도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성남시 청년 정책 기획과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 심층인터뷰 방법

### 1) 인터뷰 대상

- 인터뷰는 2025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청년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명,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담당자 5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구분은 <표 3-1>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3-1> 심층인터뷰 대상자

ID	구분	성별	주 참여 사업부문	ID	구분	성별	주 참여 사업부문 <sup>4)</sup>
A-1	청년	여	문화·복지	B-1	지도자	남	일자리
A-2	청년	여	문화·복지	B-2	지도자	여	문화·복지
A-3	청년	남	참여·권리	B-3	지도자	여	참여·권리
A-4	청년	남	일자리	B-4	지도자	남	문화·복지
A-5	청년	남	참여·권리	B-5	지도자	여	일자리
A-6	청년	남	참여·권리				
A-7	청년	여	일자리				
A-8	청년	여	문화·복지				
A-9	청년	여	문화·복지				
A-10	청년	남	참여·권리				

- 대상자 선정 과정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내부 공문과 공개 추천 절차를 거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참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집단이나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주 참여 사업부문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청년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영 기획, 서포터즈 형태는 문화·복지 부문으로, 정책 제안, 의견 수렴, 청년 참여 기반으로 운영되는 참여·권리 부문으로, 직무체험, 취업역량 강화 중심의 사업의 경우 일자리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 청년의 경우 재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20세~34세 사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참여 기관과 주요 활동 부문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자는 청년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참여·권리, 일자리, 문화·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업무 경험과 경력을 가진 담당자들이 포함되었다.<sup>5)</sup>

4) 청년지도자의 경우 사업부문을 세분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 부문의 사업만을 운영하는 것 보다 일자리+문화·복지 형식으로 포괄하여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주로 언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주 참여 사업 부문을 기술하였다.

5) 연구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행정, 입법 관련)에 대하여 별도의 인터뷰(4인)가 병행되었으나, 이는 청소년사업 실행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맥락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본 보고서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주체들(청소년, 청소년사업 담당 지도자, 학부모)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기에,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결과는 본문이 아닌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 2) 조사절차 및 윤리적 고려

▣ 심층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3-2〉 심층인터뷰 절차

단계	세부내용
1단계: 준비 및 설계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질문지 개발 내부 관계자(연구 주무부서 총괄매니저, 실장) 검토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2인) 자문을 통한 보완 대상별 인터뷰 일정 및 장소 조율·확보 녹음 및 기록 장비 준비
2단계: 면담 수행	개별 심층인터뷰 진행(1인당 약 60~90분 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른 유연한 조정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대화 분위기 조성
3단계: 자료 처리 및 검증	클로바노트와 다글로를 활용한 인터뷰 전사 참여자별 핵심 내용 정리 및 분류 필요 시 후속 확인 절차를 통한 정확성 확보

▣ 본 연구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인터뷰 자료 활용 방식,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확보하였다. 분석 및 보고 과정에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으며, 모든 참여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인터뷰 도중에도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 3) 질문지 구성 및 내용

▣ 심층인터뷰 질문지는 청년의 생활 맥락과 청년이 경험하는 재단, 그리고 향후 기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은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반영해 일상과 경험, 인식과 제안까지 폭넓게 아우르도록 설계되었으며, 재단 내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완되었다.

▣ 먼저 청년의 일상과 사회적 위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하루 일과, 최근 관심사, 자신을 어떤 위치의 청년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통해 삶의 조건과 주관적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어서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다루는 문항에서는 재단을 알게 된 경로, 기억에 남는 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아쉬움이나 개선점,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였다.

▣ 공간 이용과 청년 친화성에 관한 질문은 주로 이용했던 공간과 그 이유, 청년 친화적이라고 느낀 부분이나 불편했던 순간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관계와 커뮤니티 경험 영역에서는 재단 활동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나 소속감, 다른 세대와 교류한 경험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 재단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생각, 시설이나 프로그램 변화의 체감 정도를 물었다. 청년정책과 취업 관련 인식에서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나 진로·

취업 과정에서 재단이 지원하기를 바라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지속성과 제안·기대에 관한 질문에서는 재단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게 된 이유와 원동력, 앞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재단 공간이 갖추어야 할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재단이 맡아야 할 역할과 또래 청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지 등을 탐색하였다.

〈표 3-3〉 심층 인터뷰 질문지(청년)

질문 구분	내용
청년의 일상과 사회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li> <li>• 요즘 관심있게 보고 있거나, 자주 생각하는 주제나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li> <li>• 본인을 '청년'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 일하는 청년, 쉬고 있는 청년, 배우는 청년 등)</li> </ul>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고 이용하게 되셨나요?</li> <li>•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li> <li>•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li> <li>• 아직 참여해보지 못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li> </ul>
공간 이용과 청년 친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이용했던 재단 공간이 있다면 어디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 공간을 이용하면서 ‘여기는 청년에게 잘 맞는다’ 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li> </ul>
관계와 커뮤니티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소속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li> <li>• 다른 세대(예: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와 함께 활동하거나 교류한 경험이 있다면 어땠나요?</li> </ul>
재단 변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재단 명칭이 바뀐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변화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li> <li>•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서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li> </ul>
청년정책 및 취업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li> <li>•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해, 재단이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li> </ul>
참여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활동이나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li> <li>•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li> </ul>
제안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꼭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li>• 프로그램이나 공간 운영에서 청년이 더 직접 참여하면 좋겠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li> <li>• 재단 시설이 청년에게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예: 쉬는 곳, 함께하는 곳, 도전하는 곳 등)</li> <li>•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며,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li> <li>• 재단이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li> </ul>

❑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질문지는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시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그 과정에서 마주한 성과와 어려움을 통해 청년사업의 흐름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특징을 확인하고자 했다.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청년 의견 반영 사례나 개선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의 기준과 판단 과정을 탐색하였다.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긍정적 반응과 불편 경험, 그리고 공간 변화가 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물리적 환경이 청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더불어 재단 명칭 변경 이후 체감된 변화와 청소년·청년 사업의 연계 사례를 통해

조직 차원의 변화를 꾀었으며, 향후 청년사업이 집중해야 할 방향과 재단 공간이 청년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 잡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제언을 수집하였다.

〈표 3-4〉 심층 인터뷰 질문지(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질문 구분	내용
담당 사업과 현장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 말고 계시는 청년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li> <li>• 기억에 남는 '잘 된 사례'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li> </ul>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li> <li>• 청년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li> <li>• 성과가 다소 아쉽다고 느꼈던 사업에 대해서 개선한 경험이 있었나요?</li> </ul>
공간 운영과 청년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이 공간은 좋다'고 반응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셨나요?</li> <li>• 반대로, 청년들이 공간에서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느꼈던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li> <li>• 공간을 새로 바꾸거나 변화시켰을 때 청년 참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li> </ul>
조직 변화와 정책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명칭이 바뀐 이후, 청년사업 쪽에서 체감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li> <li>•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이 함께 기획되었던 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li> </ul>
향후 전략과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청년사업이 특히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li> <li>• 청년 공간(또는 재단 전체)이 청년에게 오래도록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li> </ul>

■ 각각의 질문지를 통하여 청년은 이용자이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는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재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의 질문지는 일상과 사회적 위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 공간 활용과 관계 형성, 재단 변화 인식, 정책적 요구와 참여 지속성, 향후 제언과 기대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지도자 질문지는 담당 사업의 흐름과 운영 경험, 프로그램 기획과 개선 과정, 공간 운영과 청년 반응, 조직 변화와 정책 흐름, 향후 청년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도록 구성하였다. 두 집단의 응답을 나란히 분석함으로써 청년과 지도자가 바라보는 재단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시각을 교차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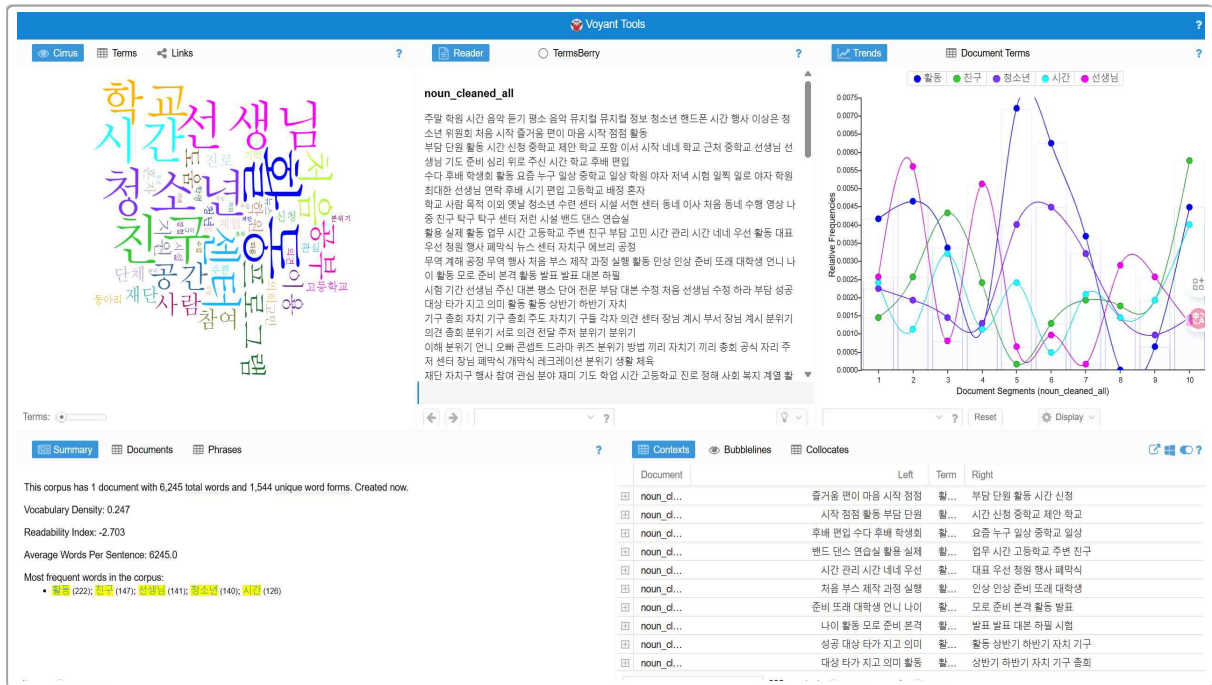
#### 4) 분석방법

■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개인적 의견을 수집할 수 있으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관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 자료로 전환한 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한영주, 2025).

■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전처리는 Anaconda Navigator의 Jupyter Notebook (Python 3.13.5 버전)을 기반으로 수행하였으며,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를 중심으로 주요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청년과 청년사업 담당 지도자의 응답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분석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상호 검증하고 종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구체적으로, 단어구름·상관분석·산점도 분석은 Voyant Tools를 활용하였다. Voyant Tools는 Stéfan Sinclair와 Geoffrey Rockwell이 개발한 웹 기반 텍스트 마이닝 도구로, 프로그래밍 없이도 자료 분석과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황중문, 2024). 한편, 토픽모델링은 Jupyter Notebook (Python 3.13.5 버전) 환경에서 Gensim과 pyLDAvi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3-1〉 Voyant tools



- 분석에 활용된 기법은 다음과 같다.

- 단어 빈도 및 단어구름 분석**은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어를 추출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어구름은 빈도가 높은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Voyant Tools에서는 Cyrrus 기능이 이를 지원한다. 단어빈도는 Summary Tool의 “Most Frequent Words in the corpus” 항목을 통해 확인하였다.

- 산점도 분석**은 Voyant Tools가 제공하는 텍스트 분석 도구 가운데 정교성이 높은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임성택, 2024). ScatterPlot Tool을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 대응분석, 문서 간 유사성 검사, t-SNE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투영해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t-SNE 분석을 적용하였다. t-SNE는 최적화가 용이하고 데이터가 중심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시각적 해상도를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Maaten & Hinton, 2008). 다만 클러스터 수를 자동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2~5개의 클러스터를 비교 검토한 뒤, 구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클러스터 수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t-SNE는 데이터 분포의 전반적 양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주제 구조의 최종 해석은 이후 단계인 토픽모델링을 통해 보완하였다.

- ▣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텍스트 속에 잠재된 주제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으로, 문서에는 복수의 주제가 내재되어 있고 각 주제는 특정 단어들의 분포로 형성된다는 전제를 갖는다(송정환·강동수, 2025). 여기서 토픽은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해된다(Boyd-Graber, Hu & Mimno, 2017). 분석에서는 Perplexity와 Coherence 값을 활용해 적절한 토픽 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명을 부여한 뒤 토픽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 ▣ 마지막으로, 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과 지도자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요 관점과 집단별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종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 3 연구결과

#### 1) 청년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 단어빈도 및 단어구름 분석결과(청년)

- 단어빈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청년’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람’,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가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권에는 ‘공간’, ‘시간’, ‘학교’, ‘지원’, ‘도서관’이 포함되어, 청년의 활동 경험과 생활 공간과 관련된 단어가 주로 도출되었다.
- 11위~20위 단어로는 ‘선생님’, ‘성남시’, ‘기획’, ‘경험’, ‘개인’, ‘처음’, ‘정책’, ‘학생’, ‘기억’, ‘올해’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적 맥락, 프로그램 기획과 경험, 정책 및 개인적 배경과 같은 주제를 언급했음을 보여준다.
- 21위~30위에서는 ‘공부’, ‘준비’, ‘관심’, ‘고민’, ‘취업’, ‘분야’, ‘홍보’, ‘행사’, ‘대학’, ‘도전’이 나타나 학업과 진로 준비, 취업, 자기 발전, 행사 참여 및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청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청년	372	11	선생님	62	21	공부	48
2	사람	225	12	성남시	61	22	준비	47
3	프로그램	157	12	기획	61	22	관심	47
4	청소년	148	14	경험	60	24	고민	45
5	참여	96	15	개인	55	25	취업	44
6	공간	91	16	처음	54	25	분야	44
7	시간	86	17	정책	52	27	홍보	43
8	학교	84	18	학생	51	28	행사	41
9	지원	78	19	기억	50	28	대학	41
10	도서관	68	20	올해	48	30	도전	38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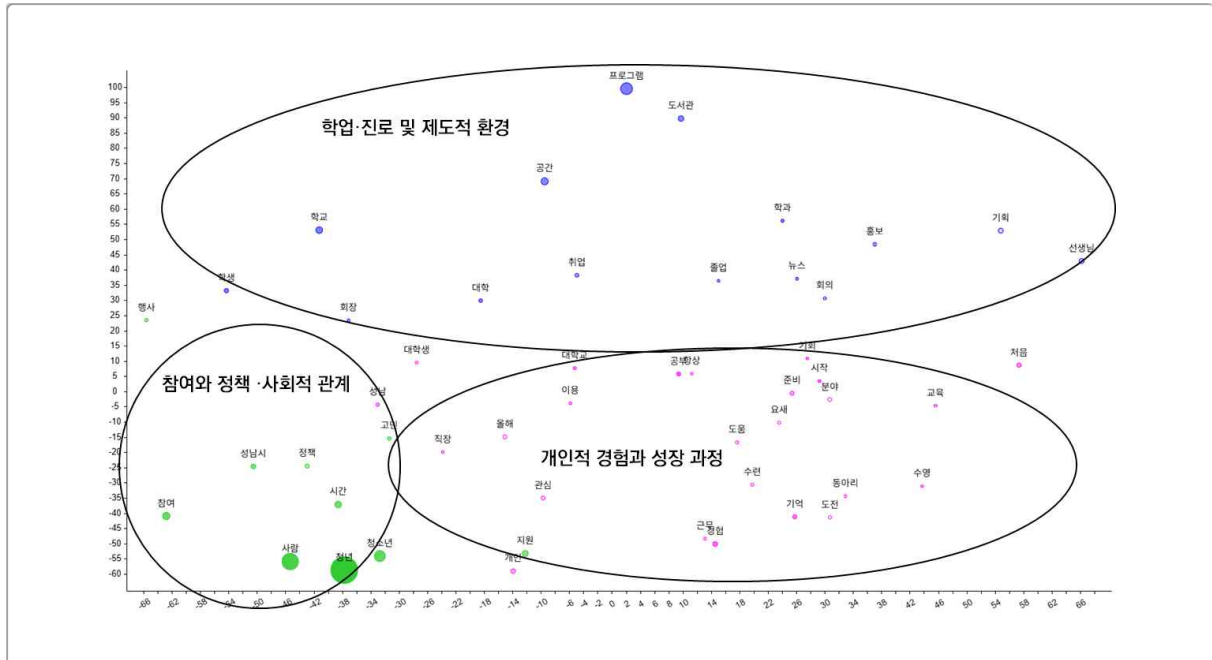
### 〈그림 3-2〉 단어구름 분석 결과(청년)



## 산점도 분석 결과(청년)

- 분석 결과 ‘학생’, ‘회장’, ‘학교’, ‘대학’, ‘취업’, ‘공간’, ‘프로그램’, ‘도서관’, ‘졸업’, ‘학과’, ‘뉴스’, ‘회의’, ‘홍보’, ‘기획’, ‘선생님’ 등으로 구성된 첫 번째 클러스터는 ‘학업·진로 및 제도적 환경’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학교와 대학, 취업 과정, 제도적 운영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학업 및 진로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행사’, ‘참여’, ‘성남시’, ‘정책’, ‘사람’, ‘청년’, ‘청소년’, ‘시간’, ‘고민’,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집합은 ‘참여와 정책·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행사와 정책, 지역사회 속에서 참여하고 지원받는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 번째 클러스터는 ‘성남’, ‘대학생’, ‘직장’, ‘올해’, ‘관심’, ‘개인’, ‘이용’, ‘대학교’, ‘공부’, ‘항상’, ‘도움’, ‘근무’, ‘경험’, ‘수련’, ‘기억’, ‘도전’, ‘동아리’, ‘요새’, ‘준비’, ‘기회’, ‘시작’, ‘분야’, ‘수영’, ‘교육’, ‘처음’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개인적 경험과 성장 과정’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청년들의 대학 생활, 직장 경험, 개인적 관심과 준비 과정, 도전과 동아리 활동 등 일상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이 드러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그림 3-3〉 3 클러스터 중심 분석 결과(청년)



####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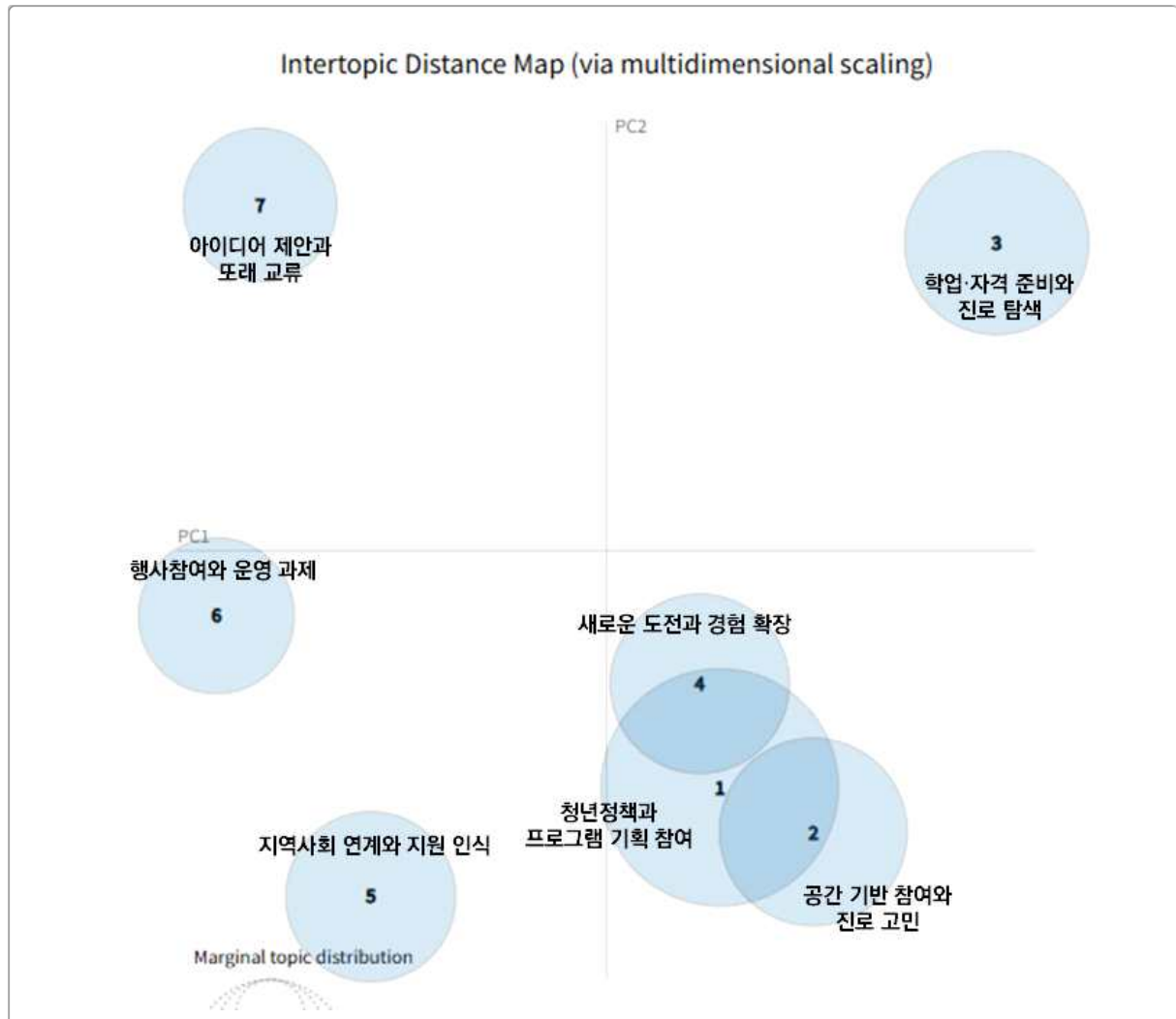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청년 10명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의 주제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청년사업의 다층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 주제의 비중은 해당 맥락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 먼저 토픽1은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참여’로 명명하였다. 이 주제는 청년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논의나 기획·홍보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과정에서 청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청년사업이 수혜자 중심의 구조를 넘어 청년 주도적 참여를 통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토픽2는 15.0%의 비중을 보였으며, ‘공간 기반 참여와 진로 고민’으로 부여하였다. 청년들은 유스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체험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간은 단순한 이용 시설을 넘어 청년들이 교류와 학습을 결합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관계와 경험의 확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었다.
- 토픽3은 14.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자격 준비와 진로 탐색’으로 설정하였다. 상위 단어에는 ‘학과’, ‘졸업’, ‘자격증’, ‘준비’, ‘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들은 학업 성취와 진로 준비라는 개인적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부 청년들은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취득이나 진로 탐색을 구체화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청년사업이 청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조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토픽4는 13.7%의 비중을 보였으며,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으로 명명하였다. 이 주제는 청년들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활동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또래 및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토픽5는 12.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 인식'으로 부여하였다. 이 주제에는 '학교', '매니저', '지원', '성남시', '선생님', '의회', '지역'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제도적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체감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교, 지도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청년들이 행정적·제도적 자원과 연결되면서,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지원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 토픽6은 10.4%의 비중을 보였으며, '행사 참여와 운영 과제'로 설정하였다. 청년들은 행사 참여 과정에서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단체 운영, 인원 조정, 예산 관리 등 실제적인 과제를 접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사업이 단순히 이벤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조직 운영 능력과 현실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토픽7은 10.1%의 비중을 보였으며, '아이디어 제안과 또래 교류'로 명명하였다. 이 주제는 청년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을 확장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협력적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과정은 청년들이 창의적 의견을 나누고 또래와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6〉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No	비중(%)	토픽명	상위 15개 단어
1	24.0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참여	• 청년, 프로그램, 사람, 청소년, 기획, 홍보, 참여, 지원, 정책, 개인, 공간, 시간, 공부, 학교, 취업
2	15.0	공간 기반 참여와 진로 고민	• 청년, 참여, 공간, 사람, 고민, 개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야, 공부, 체험, 청소년, 성남, 뉴스
3	14.5	학업·자격 준비와 진로 탐색	• 도서관, 사람, 청년, 프로그램, 학과, 기획, 졸업, 경험, 시작, 자격증, 준비, 시청, 대학교, 다시, 기억
4	13.7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	• 청년, 청소년, 도전, 사람, 프로그램, 공간, 참여, 수련, 도서관, 경험, 시간, 학교, 수영, 회장, 커뮤니티
5	12.4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 인식	• 사람, 청소년, 청년, 학교, 매니저, 지원, 성남시, 선생님, 관심, 시간, 참여, 의회, 이용, 처음, 지역
6	10.4	행사 참여와 운영 과제	• 청년, 행사, 사람, 학생, 선생님, 나이, 인원, 성남시, 분야, 회장, 예산, 공간, 단체, 관심, 지원
7	10.1	아이디어 제안과 또래 교류	• 학교, 청년, 사람, 동아리, 신청, 청소년, 아이디어, 올해, 대학, 시간, 공간, 기억, 선생님, 당시, 처음

〈그림 3-4〉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청년)



## 2)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 단어빈도 및 단어구름 분석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단어빈도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청년’이었으며, 그 뒤로 ‘청소년’, ‘공간’, ‘창업’, ‘사람’ 등이 나타났다. 상위 10위권에는 ‘참여’, ‘교육’, ‘지원’, ‘고민’, ‘학교’, ‘시간’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들이 주로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 물리적 공간의 활용, 창업 및 교육 지원, 그리고 개인적 고민에 대한 대응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 11위에서 20위 단어에는 ‘시작’, ‘대학생’, ‘시설’, ‘처음’, ‘네트워크’, ‘계획’, ‘본인’, ‘프로젝트’, ‘준비’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 사업이 초기 진입 과정과 대학생 참여, 시설 운영, 네트워크 형성, 구체적인 사업 기획과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1위에서 30위 단어로는 ‘사회’, ‘프로그램’, ‘역할’, ‘의견’, ‘확대’, ‘수련’, ‘매니저’, ‘정책’, ‘과정’, ‘매니저’ 등이 도출되었다. 이 범위의 단어들은 청년 사업이 사회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프로그램 운영 속에서 의견 수렴, 역할 분담, 제도적 확장, 정책 연계, 조직 내 매니저의 역할 등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7〉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청년	596	11	시간	45	21	사회	32
2	청소년	133	12	시작	42	21	프로그램	32
3	공간	107	12	대학생	42	23	역할	31
4	창업	82	14	시설	41	23	의견	31
5	사람	69	15	처음	38	23	확대	31
6	참여	63	15	네트워크	38	26	수련	30
7	교육	57	17	계획	34	26	매니저	30
8	지원	56	18	본인	33	26	정책	30
9	고민	52	19	프로젝트	32	26	과정	30
10	학교	48	19	준비	32	30	직원	29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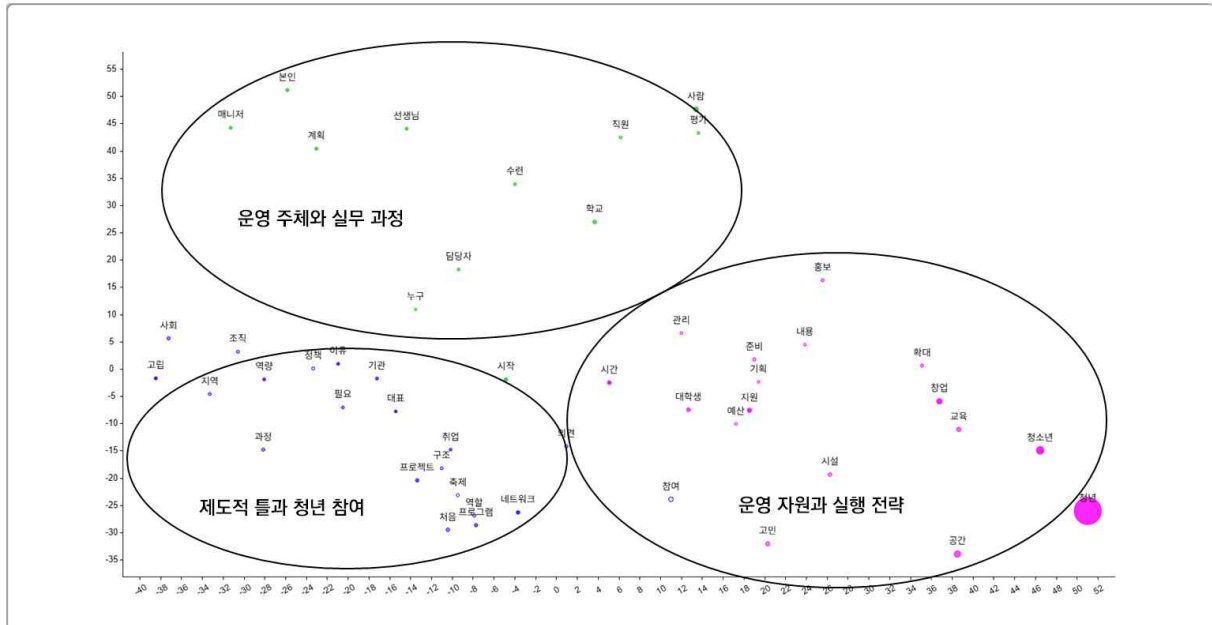
〈그림 3-5〉 단어구름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산점도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산점도 분석에서는 3개의 클러스터가 구분되었으며, ‘매니저’, ‘담당자’, ‘선생님’, ‘직원’, ‘수련’, ‘학교’, ‘평가’, ‘계획’, ‘시작’ 등으로 구성된 첫 번째 클러스터를 ‘운영 주체와 실무과정’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청년사업이 현장에서 다양한 운영 주체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기획과 평가, 관리 등 실무적 과정이 핵심을 이루는 양상이 보여진다.
- 두 번째 클러스터는 ‘제도적 틀과 청년 참여’ 영역으로 명명되었으며, ‘사회’, ‘지역’, ‘조직’, ‘역량’, ‘정책’, ‘기관’, ‘구조’, ‘취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네트워크’, ‘참여’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 사업이 사회적·정책적 환경 속에서 추진되며, 조직적 구조와 정책적 요구,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맥락으로 나타난다.
- 세 번째 클러스터는 ‘운영 자원과 실행 전략’으로 명명하였으며, ‘시간’, ‘관리’, ‘대학생’, ‘예산’, ‘지원’, ‘기획’, ‘준비’, ‘홍보’, ‘시설’, ‘공간’, ‘창업’, ‘교육’, ‘청소년’, ‘청년’ 등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는 청년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와 기획·홍보·시설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드러난다.

〈그림 3-6〉 산점도 분석 결과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3 클러스터 기준)



####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청년사업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주목한 경험과 과제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는 현장에서 관찰되는 운영 방식과 제도적 조건, 성과 관리와 참여 지원의 특징을 드러내며, 청년사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 맥락을 보여준다.
- 토픽1은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현장’으로 명명되었으며,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도자들은 청년사업이 단순히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기획, 여러 주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언급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창업 관련 활동과 연계되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성과가 실무적 조율 속에서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 토픽2는 25.3%의 비중을 보였으며, ‘정책적 맥락과 사회적 연계’로 설정되었다. 이 주제는 청년사업이 지역사회와 정책 환경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도자들은 학교, 대학생 조직, 지역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참여가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활동이 정책 목표와 연결되면서,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확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 토픽3은 18.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과 평가와 운영상의 한계’로 명명되었다. 여기서는 창업 및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실패와 어려움이 함께 언급되었다. 지도자들은 참여자의 요구와 실제 성과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며, 사업이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동시에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 토픽4는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으로 명명되었으며, 15.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들이 기관에 처음 참여하는 단계에서 상담, 홍보, 안내와 같은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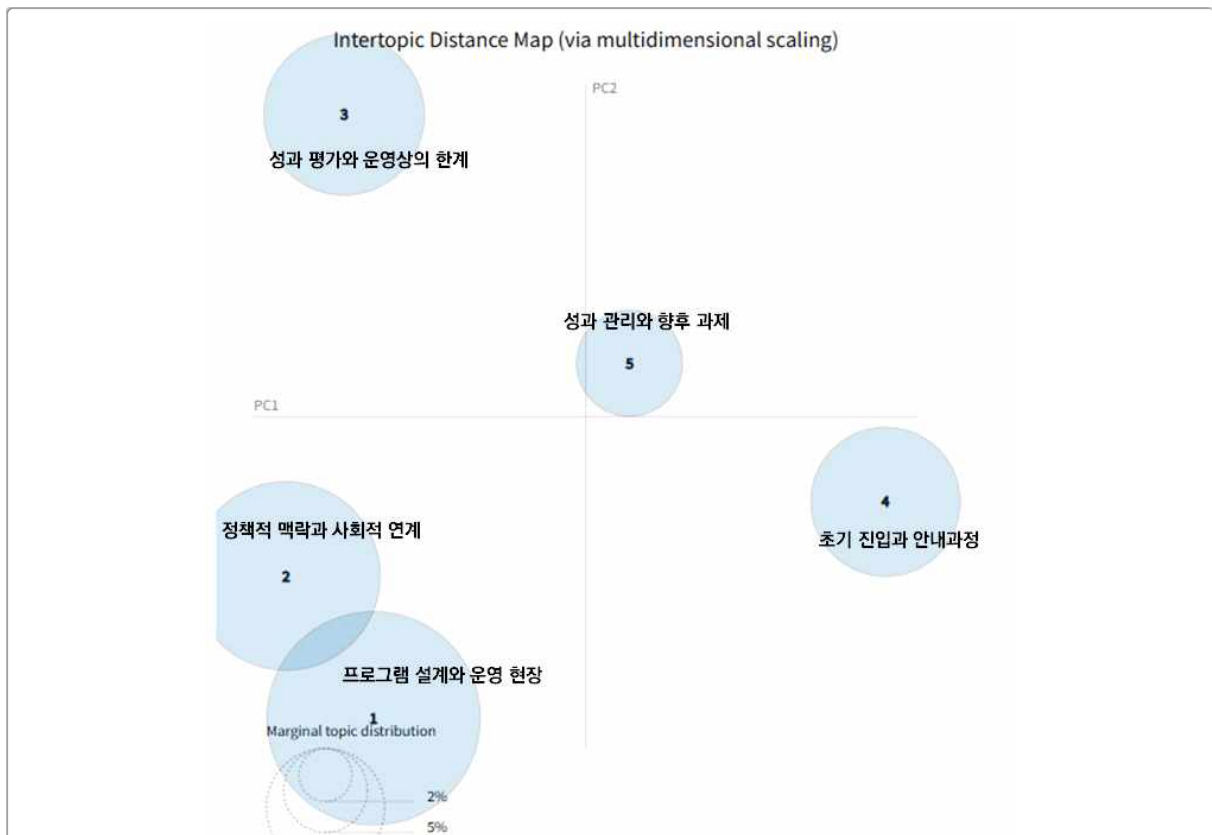
지원은 청년이 기관과 관계를 맺고 이후 활동을 이어가는 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단계에서의 안내는 청년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연결 고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마지막으로 토픽5는 8.0%의 비중을 보였으며, ‘성과 관리와 향후 과제’로 명명되었다. 지도자들은 예산과 인력, 홍보와 네트워크 관리가 항상 과제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내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적 부담을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의 성과 관리와 장기적 발전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청년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3-8〉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No	비중(%)	토픽명	상위 15개 단어
1	32.4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현장	청년, 공간, 청소년, 창업, 교육, 시작, 매니저, 참여, 고립, 담당자, 지원, 사람,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2	25.3	정책적 맥락과 사회적 연계	청년, 청소년, 참여, 창업, 학교, 사회, 정책, 교육, 조직, 역할, 기관, 축제, 지원, 대학생, 준비
3	18.4	성과 평가와 운영상의 한계	청년, 사람, 창업, 시설, 지원, 경험, 참여, 시간, 축제, 실패, 직원, 과정, 역할, 평가, 계획
4	15.8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	공간, 청년, 청소년, 고민, 시작, 사람, 처음, 대표, 시간, 학교, 상담, 홍보, 기관, 활용, 목표
5	8.0	성과 관리와 향후 과제	청년, 결과, 청소년, 창업, 참여, 대학생, 홍보, 내년, 프로젝트, 고민, 예산, 사람, 본인, 네트워크, 이후

〈그림 3-7〉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 4 요약 및 시사점

■ 청년과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의 심층인터뷰 자료는 단어빈도 분석, 산점도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진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사업과 관련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전체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 단어빈도 및 구름분석

- 단어빈도 분석 결과 청년 심층인터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청년’이었으며, 이어 ‘사람’,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공간’, ‘시간’, ‘학교’, ‘지원’, ‘도서관’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가 자기 정체성, 생활공간, 프로그램 참여, 학업·진로와 같은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서관’, ‘학교’, ‘시간’과 같은 단어가 함께 언급되어, 청년의 활동 경험이 일상과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청년’이었으며, 이어 ‘청소년’, ‘공간’, ‘창업’, ‘사람’, ‘참여’, ‘교육’, ‘지원’, ‘고민’, ‘학교’, ‘시간’이 상위에 나타났다. 이는 지도자들이 청년과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공간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별 고민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위권 단어인 ‘대학생’, ‘네트워크’, ‘계획’, ‘프로젝트’, ‘예산’, ‘정책’은 청년 사업이 초기 진입, 네트워크 형성, 정책 연계, 자원 관리 등 다층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청년과 지도자 모두 ‘청년’, ‘참여’, ‘공간’, ‘지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청년 사업의 핵심 영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은 생활공간과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발화하는 반면, 지도자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원 관리, 정책 연계와 같은 관리적 맥락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즉, 동일한 키워드가 도출되더라도, 청년은 생활 경험의 차원에서, 지도자는 운영·관리의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산점도 분석

- 산점도 분석 결과 청년은 ‘학업·진로 및 제도적 환경(학생, 학교, 대학, 취업, 도서관, 졸업, 학과, 기획, 선생님)’, ‘참여와 정책·사회적 관계(행사, 참여, 정책, 성남시, 사람, 청년, 청소년, 지원, 고민)’, ‘개인적 경험과 성장 과정(대학생, 직장, 관심, 개인, 준비, 도전, 동아리, 기회, 교육, 기억)’의 3개의 클러스터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험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정책 환경에서의 참여와 관계, 그리고 대학 생활·직장 경험·동아리 활동과 같은 개인적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청년 사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의 경우 ‘운영 주체와 실무과정(매니저, 담당자, 선생님, 직원, 수련, 학교, 평가, 계획, 시작)’, ‘제도적 틀과 청년 참여(정책, 사회, 지역, 조직, 역량, 구조, 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취업, 프로젝트, 참여)’, ‘운영 자원과 실행 전략(예산, 시간, 관리, 지원, 기획, 홍보, 시설, 공간, 대학생, 창업, 교육, 청소년)’의 3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이는 지도자들이 청년 사업의 현장 실무뿐 아니라 정책·제도적 구조와 운영 자원, 실행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종합하면 산점도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은 학업·진로, 참여, 개인적 성장을 중심으로 경험을 인식하는 반면, 청년사업 담당 지도자는 운영 과정, 제도적 구조, 자원과 실행 전략에 주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 토픽모델링 분석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청년의 경우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참여’는 청년들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논의나 프로그램 기획·홍보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청년 사업이 청년 주도적 참여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간 기반 참여와 진로 고민’은 센터와 같은 지역 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닌 교류와 학습, 진로 탐색을 매개하는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학업·자격 준비와 진로 탐색’은 청년들이 대학 생활과 자격증 취득, 진로 준비를 통해 성장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프로그램이 이를 자원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 인식’은 학교, 지도자, 지자체와 같은 제도적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청년들이 지원 구조를 경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행사 참여와 운영 과제’는 청년들이 행사 속에서 단순 참여를 넘어 운영과 예산 관리 등 실제적 과제를 경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제안과 또래 교류’는 청년들이 창의적 의견을 공유하고 또래와 교류하며 활동을 확장하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제도적 참여, 공간 활용, 진로 탐색,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연계, 운영 경험, 또래 교류라는 다양한 층위를 통해 청년 사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의 경우 5개의 주제가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현장’은 공간 확보, 기획,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교육·창업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성과가 형성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정책적 맥락과 사회적 연계’는 청년 사업이 지역사회와 정책 환경 속에서 추진되며, 학교·대학생 조직·지역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과 평가와 운영상의 한계’는 창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성과와 어려움이 병존함을 드러내며, 참여자 요구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은 홍보와 상담, 안내가 청년들이 기관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이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와 향후 과제’는 예산·인력·홍보·네트워크 관리라는 현재의 과제와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적 요구를 드러냈다. 이는 지도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운영뿐 아니라 정책적 연계, 성과 관리, 초기 지원, 장기 전략이라는 다층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합하면, 청년과 청년사업 담당 지도자 모두 청년 사업을 다양한 층위에서 의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은 제도 참여, 공간 활용, 진로 탐색, 또래 교류 등 자기 경험과 성장 과정에 주목한 반면, 지도자는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연계, 성과 관리, 초기 지원, 장기적 과제라는 운영적 관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동일한 청년 사업을 두고도 참여자와 공급자의 위치에 따라 경험의 초점과 의미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표 3-9〉 분석결과 비교(청년,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구분	청년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단어빈도 분석 상위 10개 단어	청년, 사람,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공간, 시간, 학교, 지원, 도서관  → 청년 활동·참여·공간 활용 강조	청년, 청소년, 공간, 창업, 사람, 참여, 교육, 지원, 고민, 학교  → 운영·지원·창업·교육 매력 강조
산점도 분석	학업·진로 및 제도적 환경 참여와 정책·사회적 관계 개인적 경험과 성장 과정	운영 주체와 실무과정 제도적 틀과 청년 참여 운영 자원과 실행 전략
토픽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참여</li> <li>• 공간 기반 참여와 진로 고민</li> <li>• 학업·자격 준비와 진로 탐색</li> <li>•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li> <li>•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 인식</li> <li>• 행사 참여와 운영 과제</li> <li>• 아이디어 제안과 토래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현장</li> <li>• 정책적 매력과 사회적 연계</li> <li>• 성과 평가와 운영상의 한계</li> <li>•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li> <li>• 성과관리와 향후 과제</li> </ul>
종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성장 과제(학업, 진로, 도전) 강조</li> <li>• 정책·사회 참여 경험 동시 추구</li> <li>• 성장과 제도 참여를 연결하려는 경향</li> <li>• 혼합형(역량 강화+정책 참여) 프로그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구조·성과 관리 중점</li> <li>• 제도적 연계·가시성·자원 확보 강조</li> <li>• 사업 지속성·연속성 핵심 과제</li> </ul>

## 5 청년정책 이해관계자 인터뷰

### 1) 정책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 단어빈도 및 단어구름 분석결과(정책이해관계자)

- 정책이해관계자의 심층인터뷰에 관한 단어빈도 분석 결과 상위 단어는 ‘청년’, ‘청소년’, ‘업무’, ‘정책’, ‘예산’, ‘부서’, ‘공간’, ‘홍보’, ‘프로그램’ 등이 도출되었음. 이는 주로 행정 운영, 사업 집행, 재정 관리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음을 보여줌.
- 또한 ‘협업’, ‘참여’, ‘직원’, ‘회의’, ‘소통’, ‘의회’ 등의 단어는 내부 협력 및 외부와의 행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됨.

〈표 3-10〉 최빈도 상위 30개 주요 단어(정책이해관계자)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청년	125	10	이용	19	21	처음	14
2	청소년	70	10	수련	19	22	현재	13
3	업무	34	13	협업	18	22	집행	13
4	정책	32	13	기관	18	22	아이	13
5	사람	31	15	참여	17	22	성남시	13
6	예산	30	15	직원	17	22	문제	13
7	부서	28	15	신청	17	27	고민	12
7	공간	28	18	방향	16	27	평가	12
9	홍보	23	19	회의	15	27	의회	12
10	프로그램	19	19	소통	15	27	역할	12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공동 순위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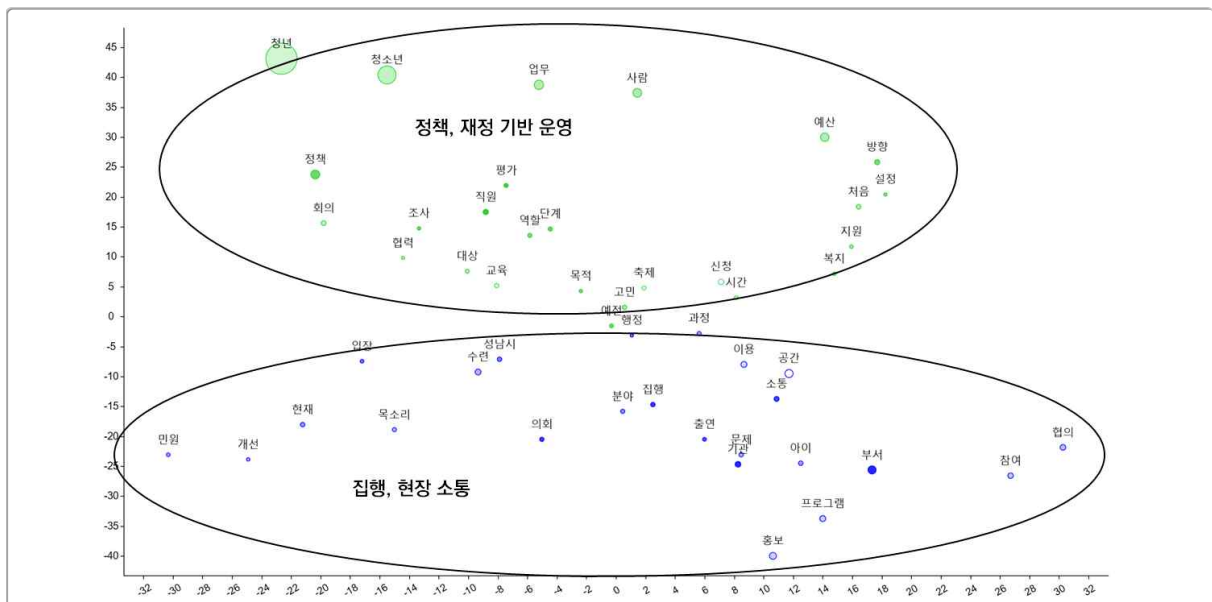
〈그림 3-8〉 단어구름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 산점도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산점도 분석 결과, 정책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데이터의 산점도 분석 결과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뉨.
- 첫 번째 클러스터는 ‘정책, 재정 기반 운영’으로 청년, 청소년, 예산, 단계, 역할, 평가, 직원, 조사, 협력 등이 주 키워드를 이룸. 내부 기획과 제도 운영, 재정 관리, 평가 중심의 맥락을 보여줌.
- 두 번째 클러스터는 ‘집행, 현장 소통’으로 민원, 개선, 성남시, 의회, 집행, 기관, 행정, 홍보, 참여, 협의 등의 키워드로 구성됨. 민원 대응, 의회와의 관계, 사업 집행, 홍보, 참여와 같은 현장 행정적 과제에 초점을 두는 맥락을 확인함.

〈그림 3-9〉 2 클러스터 중심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정책 이해관계자 4명의 심층인터뷰 전문을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잠재주제가 도출됨. 각 토픽은 청소년, 청년사업의 행정적 운영과 정책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핵심 관심사와 고민을 반영함.
- 종합하면, 정책이해관계자들은 청소년, 청년사업을 바라볼 때 ①정책, 예산 기반 운영 논의, ②참여, 신청 중심 사업 진행, ③기관 운영과 민원, 협력 과제, ④ 정책 방향 설정과 대외 홍보, ⑤ 사업 관리와 평가, 사례 공유, ⑥의회, 행정 협의와 지역 연계라는 6개의 잠재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됨.
- 청소년, 청년 사업에 관하여 현장의 체험이나 관계보다는 정책집행과 제도 운영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또한 홍보부족과 민원 대응 등 현실적 어려움의 맥락도 나타남. 이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은 청소년사업에 관하여 제한된 행정, 재정적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3-11〉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정책이해관계자)

No	비중(%)	토픽명	상위 15개 단어
1	21.2	정책, 예산 기반 운영 논의	청년,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 고민, 예산, 기관, 업무, 공간, 수련, 협의, 입장, 편성, 회의, 이용
2	21.1	참여, 신청 중심 사업 집행	청년, 신청, 참여, 예산, 업무, 수련, 공간, 사람, 청소년, 목적, 협의, 문제, 정책, 하반기, 이용
3	19.3	기관 운영과 민원, 협력 과제	청년, 부서, 청소년, 현재, 공간, 이용, 기관, 업무, 협업, 협력, 사람, 민원, 소통, 안전, 시간
4	13.6	정책 방향 설정과 대외 홍보	방향, 사람, 청소년, 청년, 예산, 협의, 목소리, 처음, 설정, 정책, 분야, 홍보, 담당자, 업무, 시설
5	13.3	사업 관리와 평가, 사례 공유	청년, 청소년, 업무, 공간, 단계, 홍보, 아이, 역할, 사례, 민원, 관리, 소통, 이해, 평가, 학교
6	11.5	의회, 행정 협의와 지역 연계	의회, 청년, 청소년, 회의, 사람, 직원, 성남시, 홍보, 교육, 목소리, 지원, 수련, 부서, 예전, 활성화

〈그림 3-10〉 토픽모델링 분석 시각화 결과(정책이해관계자)



## 2) 청년,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정책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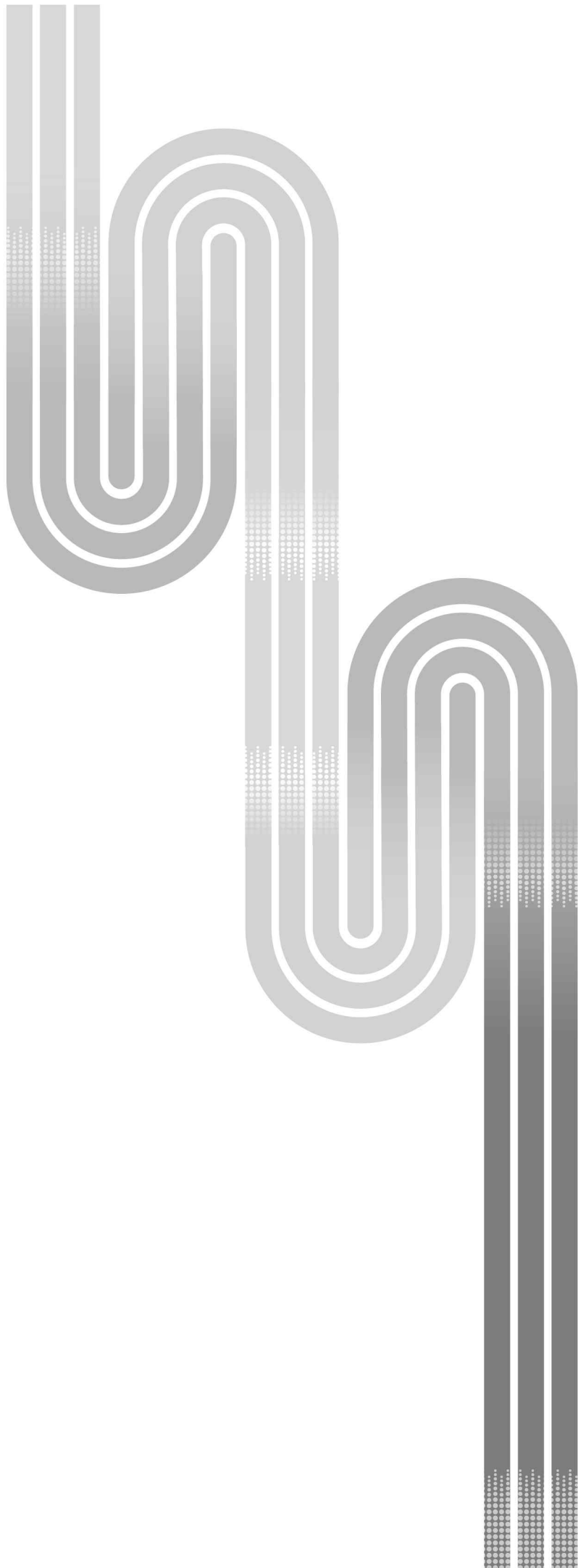
구분	청년	청년 사업 담당 지도자	정책이해관계자
단어빈도 분석 상위 10개 단어	청년, 사람,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공간, 시간, 학교, 지원, 도서관  → 청년 활동·참여·공간 활용 강조	청년, 청소년, 공간, 창업, 사람, 참여, 교육, 지원, 고민, 학교  → 운영·지원·창업·교육 맥락 강조	청년, 청소년, 업무, 정책, 예산, 기관, 공간, 수련, 참여, 홍보  → 정책·집행·행정 강조
산점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진로 및 제도적 환경</li> <li>• 참여와 정책·사회적 관계</li> <li>• 개인적 경험과 성장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주체와 실무과정</li> <li>• 제도적 틀과 청년 참여</li> <li>• 운영 자원과 실행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재정 기반 운영</li> <li>• 집행, 현장 소통</li> </ul>
토픽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참여</li> <li>• 공간 기반 참여와 진로 고민</li> <li>• 학업·자격 준비와 진로 탐색</li> <li>•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li> <li>• 지역사회 연계와 지원 인식</li> <li>• 행사 참여와 운영 과제</li> <li>• 아이디어 제안과 토래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현장</li> <li>• 정책적 맥락과 사회적 연계</li> <li>• 성과 평가와 운영상의 한계</li> <li>•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li> <li>• 성과관리와 향후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예산 기반 운영 논의</li> <li>• 참여, 신청 중심의 사업 진행</li> <li>• 기관 운영과 민원, 협력 과제</li> <li>• 정책 방향 설정과 대외 홍보</li> <li>• 사업 관리와 평가, 사례 공유</li> <li>• 의회, 행정 협의와 지역 연계</li> </ul>
종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성장 과제(학업, 진로, 도전) 강조</li> <li>• 정책·사회 참여 경험 동시 추구</li> <li>• 성장과 제도 참여를 연결하려는 경향</li> <li>• 혼합형(역량 강화+정책 참여) 프로그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구조·성과 관리 중점</li> <li>• 제도적 연계·가시성·자원 확보 강조</li> <li>• 사업 지속성·연속성 핵심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li> <li>• 민원, 의회 대응 역량 제고</li> <li>• 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대외 소통력 확보</li> </ul>





# IV

## | 정책 제언





## IV 정책 제언

### 1 연속적 이행을 위한 퍼스트터치 시스템 구축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년사업 담당 지도자의 토픽모델링에서 ‘초기 진입과 안내 과정’이 주요 이슈로 도출된 점을 통해, 홍보, 상담, 안내가 청년들이 기관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이어가는 핵심 기초임을 시사한다. 현재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는 담당자들의 개별 모집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청년은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담당자는 안내와 모집의 반복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청년들의 경험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생활 공간(학교, 대학, 도서관) 중심으로 진로 탐색과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재단 시설 이용 경험에서 작은도서관 이용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재단 이용 이유 2순위는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25.2%)\*\*로 나타나, 청년들이 재단 서비스를 성장 과제 해결의 경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인터뷰 분석과 단어빈도 분석에서 ‘청년, 프로그램, 공간, 참여, 학교, 도서관’이 상위에 나타났고, 산점도 분석에서는 ‘학업·진로 및 제도적 환경’, ‘개인적 경험과 성장 과정’이 클러스터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들이 재단과 맺는 초기 접점이 이미 청소년기부터 형성되었으나, 중·고등학교(학업 중심) 및 대학 시기(진학·적응)를 거치면서 재단과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결국 취업 전후의 소속감이 약화된 시점에서야 재단 서비스를 다시 찾는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는 곧 청소년기의 ‘퍼스트 터치’가 연속되지 못한 채 단절되고, 성인 전환기에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 따라서 퍼스트 터치 시스템은 단순히 한 시점의 안내 체계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최초 경험 기록 → 전환기 공백 관리 → 청년기의 재연결 → 후기 청년 단계의 환류로 이어지는 연속적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실제 경험과 제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중요한 관점이며, 젊은 세대의 이행 과정을 단절이 아닌 연속적 경로(Eliason, Mortimer, & Vuolo, 2015)로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이러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이력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기록·관리이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일정한 행정적 노력을 요구하지만, 주기적인 동의 절차와 이력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재단이 지향하는 공적 책무와도 부합하며, 초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개인의 성장 궤적을 지원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로 기능할 것이다.

〈표 4-1〉 퍼스트 터치 시스템 로드맵(안)

생애 주기	주요 접점	청년 당사자 경험	퍼스트 터치 적용 방향	기대 효과
학령기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 농구대회, 캠프, 체험 활동 등 기초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즐겁고 긍정적인 첫 경험을 형성 하나, 이후 관리·기록은 단절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활동 참여 시 담당자가 활동명·기간·참여 여부를 간단 기록</li> <li>아동·보호자 동의하에 재단 포털(마이페이지) 이력으로 보존</li> <li>이후 진로·활동 설계 때 “내 첫 경험”으로 확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긍정적 소속감과 장기적 관계 형성 기반</li> </ul>
학령기 중,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학원 중심 생활, 입시 및 교우관계</li> <li>대안학교·학교 밖 경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입시로 인해 재단과의 연결이 약화, 공백 발생</li> <li>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 체계(센터)를 통해 재단과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한의 소통 유지(온라인 이벤트, 알림 메시지, 찾아 가는 청소년활동)</li> <li>자치기구, 참여기구, 동아리 참가 청소년의 경우 지속 독려</li> <li>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력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단절 최소화</li> <li>재단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 제공</li> <li>학교 밖 청소년은 재단 내 다른 체계를 통해 연속적 지원 확보</li> </ul>
진로 탐색, 준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아르바이트, 자격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이 분절적이고 재단과의 연속성 약화, 필요할 때 재단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참여 기록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자격·창업 지원 안내</li> <li>참여자 포털에서 자신의 이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신청에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현재·미래 경험의 연결감 확보</li> <li>맞춤형 지원으로 재참여 유도</li> </ul>
사회 초년생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사회 적응, 첫 직장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적응 과정에서 소속감 결여, 재단을 다시 떠올리는 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참여 경험을 근거로 재단 교류 모임·정책 참여 기회 재안내</li> <li>‘첫 경험-현재 상황’을 이어주는 재소환 장치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적응 단계에서 정체성·소속감 강화, 장기적 관계 재형성</li> </ul>
경력, 정착기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동호회, 직장 네트워크, 글로벌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경력을 살려 심화 활동 희망, 활동 기록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활동(동호회·직장 네트워크 등)과 과거 재단 이력을 함께 아카이빙</li> <li>개인은 성장 이력을 관리, 재단은 이를 청년정책 기초 데이터로 환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전문성 성장 지원, 경험의 사회적 환류, 재단의 청년정책 정체성 강화</li> </ul>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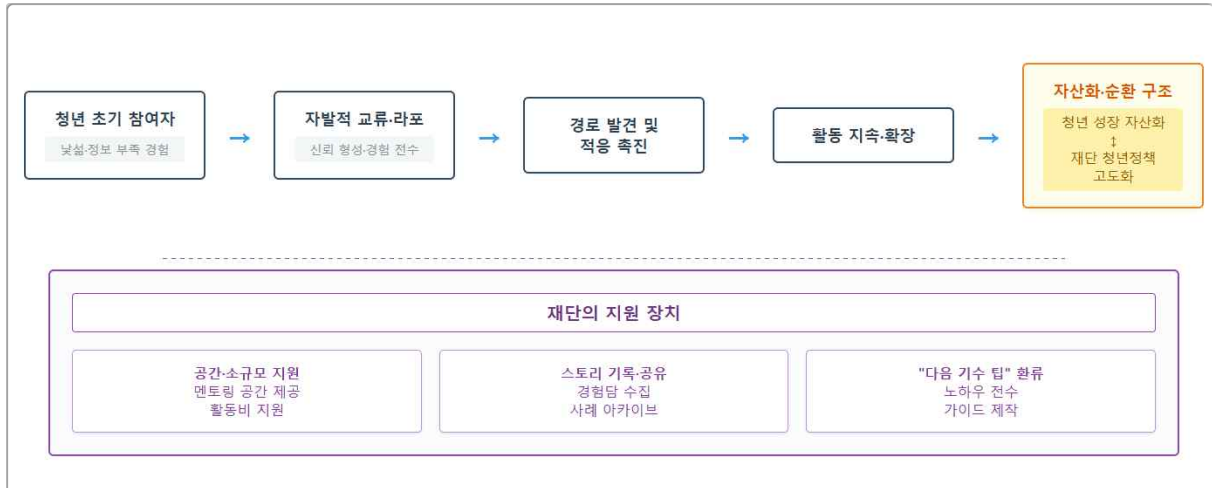
## 도전과 성장을 위한 실패 경험지지 기반 구축

- ❑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들이 높은 수준의 소진(번아웃)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성장 자원으로 전화하기 위한 제도적지지 기반 구축을 제언한다.
- ❑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에 달했다. 이는 타 조사(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32.3%)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로, 성남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소진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소진(번아웃)의 주된 이유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결과(39.1%)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청년의 시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진로 불안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심리적 소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한국의 사회는 성과 위주의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년(20~30대)들은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혜정, 2025). 그러나 성공한 많은 사람 중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청년들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진로 불안과 결합하여 청년의 소진을 방치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 ❑ 청년들은 심층 인터뷰와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 확장’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냈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관계망을 넓히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도전 이후 실패를 겪더라도 이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경험을 공유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의 도전 욕구에 대응하고 실패를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지지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 ❑ 실패 경험 지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청년의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서적 지지 및 제도적 확장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서적 지지 및 공감 환경 조성이다. 비슷한 진로 불안을 겪는 청년들을 모아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예: 성동구청청년지원센터의 '청년LAB실')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성공이 아닌 실패의 경험을 수집·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정서적 지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재단 차원에서 공공성 있는 캠페인(예: '빠른 성공이 아닌 단단한 시도')을 통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 둘째, 실패 경험 지지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청년들이 학업, 취업, 창업, 사회참여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실패는 재단의 개별 사업 안팎에서 모두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남시는 이미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경기신문, 2024.01.29)을 통해 실패를 재도전의 기회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시도를 했으며, 이러한 사례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창업 영역을 넘어 학업, 취업, 사회참여 등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실패 경험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궁극적으로 성남형 청년정책은 실패조차도 성장의 일부로 인정하는 지지 체계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의 정책적 자산을 토대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도전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소진을 예방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 3 경험 전수 기반 당사자 간 멘토링 발굴 및 지원

- 본 연구는 청년의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해 경험 전수 기반의 당사자 간 멘토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청년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일터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과중한 업무'를 제외한 다른 항목('혼자서 일하는 괴로움', '성과 평가 스트레스' 등)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초기에 경험하는 어려움 중 '과중한 업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중한 업무'는 업무 숙련도와 효율적인 협업 분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은 초기 청년에게는 적응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청년과의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및 경험의 전수는 청년의 직장 초기 적응에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도적 안내보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멘토링 제도를 강제적으로 설계하기보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뢰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전수 경험을 발굴·지원·환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경험 전수 기반 멘토링 사례의 발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재단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공식 멘토링을 정책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① 경험의 기록 및 공유 구조 마련: 신규 청년이 선배 청년과 프로젝트 수행이나 취업 준비 과정을 함께 하며 얻게 된 배움을 짧은 사례 기록이나 학습 노트의 형태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다른 청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인적 자원 순환 구조 강화: 축적된 경험 전수 사례를 재단의 지식과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이 후속 프로그램의 멘토나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청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 주도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 ③ 연계 및 지원 시스템 확보: 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멘티)과 일터 노하우를 가진 청년(멘토)을 연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멘토링 공간 및 활동비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멘토링 스토리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직장 적응 가이드를 제작한다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청년 이행 지원 활용: 재단이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와 청년참여기구는 19세~24세의 동일 시기를 공유하는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미 다른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일 경험을 가진 멘토와 취업 준비 중인 멘티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비공식 멘토링 현상을 제도적 기반 위에 올려놓는 과정은 청년 개인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재단 차원에서는 청년 사업 및 정책의 순기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림 4-1〉 경험 전수 기반 멘토링 프로세스(안)



#### 4 청년 맞춤형 공공 정보 전달 채널 혁신

- ❑ 청년 대상 취업 준비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 전달 채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성남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취업 준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학교, 공공기관, 사설기관, 가족·친인척, 친구 및 선후배,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등으로부터 취업 관련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및 선후배가 42.7%로 가장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 나타났으며(표6 참조),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65.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은 20.2%에 그쳤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도 4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주로 또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공공 기관 이용 경험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 ❑ 그럼에도 성남시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을 통해 자격증 시험·학원 수강료 지원, 청년 일경험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또한 ‘온통청년’, ‘경기청년포털’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의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아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존재한다.

〈표 4-2〉 취업준비관련 도움 받은 기관

순위	취업준비관련 도움 받은 기관	도움 받은 경험		
		없다	있다	도움이 되었다
1	친구, 선후배	57.3%	42.7%	65.1%
2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61.7%	38.3%	60.6%
3	부모님이나 친인척	64.6%	35.4%	50.9%
4	학교(상담 교사, 교사, 지도 교수 등)	66.5%	33.5%	48.1%
5	사설기관(사설 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71.1%	28.9%	58.4%
6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9.8%	20.2%	43.3%

출처: 2025 성남시청년실태조사

- 함께 수행된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 시기 정보 접근의 어려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 경로 단절’ 등의 의견이 확인되었으며, 청년들은 또래와의 교류를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인식하고 경험자와의 연결이 빠른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지원 정책이 실제 청년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전달 방식의 혁신이 요구된다.
- 현재 공공기관의 지원 시스템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방문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공문·공식 홈페이지 기반의 정보 제공은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청년들은 SNS, 유튜브, 비공식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러한 채널을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청년 관련 정보 수신 경로로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등 SNS(58.2%)’가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 맞춤형 SNS 채널’ 구축을 통해 청년과 자연스럽게 접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주맨’ 사례는 공공기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B급 감성 및 유머 코드를 활용함으로써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로 참고가 가능함(이병훈, 2025.08.13).
- 공공기관 이용 경험, 취업 준비 성공 사례 등을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로 제작하여 청년과 공유한다면 ‘청년의 이야기로 청년에게 다가가는 공감 방식’이 가능하며, 영상 기반 간접 경험이 실제 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청년에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자, 공공기관 이용 후기를 통한 유대감·신뢰 형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5

### 취업 준비 청년 대상 의료 분야 경제적 지원

-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성인기 이행(김기현·오병돈,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은 졸업 후 평균 약 1년이 지나야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3개월 이내 조기 취업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 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추가적인 교육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미취업자가 구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능·학력·능력 부족’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교육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그만큼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승지, 2025.6.10).
- ❑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평소 본인의 건강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4%였으나,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4%로 확인된다. 전문가 상담이나 신체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담의 경우 ‘비용 부담’이 22.5%로 가장 높았고, 신체 진료는 ‘의료비 부담’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의료 이용 제한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기간(예: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6 일상과 연결되는 정책 연계 및 지원체계

- ❑ 청년들은 대학 시기 프로그램 정보 접근이 어렵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지원 경로가 단절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지원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하며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지도자들 또한 청년의 상황이 매우 다양해 단일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특정 영역(예: 창업·직무지원)에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청년 집단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보다 청년이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자원을 쉽게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경로 중심의 지원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 인터뷰 결과에서도 청년을 특정 공간으로 모으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참여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조사에서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년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청년 창업·취업 역량 강화 활동이나 청년지원센터의 공간 사용 경험은 11~12% 수준에 머물렀고, 청소년 참여단·청년기획단 활동 및 개별·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6~7%로 더욱 낮았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 ❑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청년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인으로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에 재단이나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과 지원이 청년의 생활권 ‘대학, 직장, 거주지’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청년을 수동적 참여자로 가정하기보다, 지원 주체가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유희부지 복합개발은 정책 간 연계와 생활권 중심 지원을 구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리 역세권의 'AI·모빌리티 R&D센터'와 정자동의 '마이스(MICE) 복합지구' 개발은 주거·산업·문화·국제 교류 기능을 결합하고 있어, 기존 청년 지원체계와 연계될 경우 ▲주거 안정 → ▲일자리 기회 → ▲전문 역량 개발 → ▲참여·교류로 이어지는 통합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의 일상과 정책이 실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구조다.
- 이 과정에서 재단은 기존 정책 자원과 청년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 입주 청년에게 지역 내 소모임·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쉽게 안내하고, ▲R&D센터와 협력해 청년 역량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며, ▲마이스(MICE) 단지 국제행사와 청년참여단 및 재단의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기관 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단이 정보 매개자·플랫폼 운영자로서 청년에게 단계별 맞춤 경로를 제시하는 구조다. 이러한 접근은 현장에서 지적된 '지원의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성남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청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강승지. (2025.06.10).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3배↑...“사각지대 보완”.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809215>
- 강주연.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 고양특례시 보도자료. (2025.06.20.).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2년 차...고양형 미래교육으로 ‘배워서 바로 일 하는 도시’ 실현.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bbscttSn=20250620194502732&q\\_estnColumn1=All](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bbscttSn=20250620194502732&q_estnColumn1=All)
-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성인기 이행 (연구보고 24-일반 05-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경기신문. (2024.01.29). 성남시 “청년 창업 실패자 재기 돕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497>
- 성동구청년지원센터. (2025). 센터 프로그램. <https://sdyv.org/cp>
- 송정환, 강동수. (2025). 북한의 위협 활동 추세 파악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반 뉴스 데이터 분석.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31(8), 366-374.
- 안혜정. (2025). 도전하라면서 실패는 감당하지 않는 사회. CAF Insight Newsletter, 34, 1-6.
- 이병훈. (2025.08.13.). B급 감성으로 MZ 저격... 너도나도 “튀어야 산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13515828>
- 이승우. (2025.07.23.). 성남시장의 결단... 유희부지에 ‘AI 센터’, 청년 주택 짓는다. 조선일보. [https://reali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7/22/2025072202744.html](https://reali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7/22/2025072202744.html)
- 장여옥, 조미영, 강주연, 김나영. (2020). 군포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
- 정세정 외.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2-1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 교육과정 연계 활동프로그램.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4.jsp>
- 한영주. (2025).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다차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미디어 자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9(3), 167-205.
- 황종문. (2024). 초등 교과 학습도구어 추출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도구 활용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Boyd-Graber, J., Hu, Y., & Mimno, D. (2017). Applications of topic model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11(2-3), 143-296.
- Eliason, S. R., Mortimer, J. T., & Vuolo, M. (2015). The transition to adulthood: Life course structures and subjective percep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8(3), 205-227.
- Houlberg, B. J., Scales, P. C., & Williams, J. (2023). *Developmental Relationships: The Root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 10 Years of Youth Voice, Practitioner Wisdom, and Research Insights*.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Larson, R. W., & Walker, K. C. (2010). Dilemmas of practice: Challenges to program quality encountered by youth program lead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3), 338-349.
- Larson, R. W., Walker, K. C., Rusk, N., & Díaz, L. B. (2015).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from the practitioner's point of view: A call for research on effective practi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9(2), 74-86.
- Maaten, L. V. D., & Hinton, G. (2008).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9(Nov), 2579-2605.
- OECD. (2024). *OECD Youth Policy Toolkit*. Paris: OECD Publishing.
- Spencer, R., & Basualdo-Delmonico, A. (2014). Family involvement in the youth mentoring process: A focus group study with program staf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1, 75-82.
- The Governor's Prevention Partnership. (2023). *Youth-Initiated Mentoring Toolkit*. East Hartford, CT: The Governor's Prevention Partnership.

# V

부록

2025 성남시  
청년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 사 말 씀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청년 정책 경험 등을 확인하고 성남시 청년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25년 4월

♠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① 남성

--	--	--	--

 년
 

--	--

 월
 ▶▶ 조사대상 1986년 ~ 2006년생

① 경기                                  ② 그 외 ▶▶ 조사중단

① 성남시 수정구      ② 성남시 중원구      ③ 성남시 분당구      ④ 그 외 ▶▶ 조사종단

<p>연구수행기관</p>	<p> <b>성남시청소년재단</b>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p> <p>한지현 총괄매니저(전략기획실) 강주연 매니저(전략기획실) ☎ 031-729-9015</p>	<p>조사수탁(응역)기관</p>	<p> <b>한국갤럽</b></p> <p>조인휘 차장/팀장(사회1부문 1실) 전민성 연구원 ☎ 02-3702-2112</p>
---------------	---	-------------------	--



## I. 사회인식·미래설계

### ※ 사회인식

1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매우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항목	갈등이 많이 있다	갈등이 있는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전혀 없다
(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2) 부유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3) 수도권과 비수도권	①	②	③	④
(4)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④
(5) 내국인과 외국인	①	②	③	④

5 귀하는 다음의 상황들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항목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약간 위협이 된다	매우 위협이 된다
(1) 불평등	①	②	③	④
(2) 저출생·고령화	①	②	③	④
(3) 기술·산업구조 변화	①	②	③	④
(4)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①	②	③	④
(5) 기후 변화	①	②	③	④



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우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미래설계

8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자녀·출산과 양육	①	②	③	④
(4) 높은 학력 수준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일자리	①	②	③	④
(6)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①	②	③	④
(7)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8) 사회 기여	①	②	③	④
(9) 명예와 권력	①	②	③	④

9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10 귀하께서는 향후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비해당(배우자 유)
- ② 있다
- ③ 없다

11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 II. 관계 및 참여

12 귀하는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다	없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②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②

14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17 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15 로 이동

15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16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의 중단으로
- 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
-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II. 건강

17 귀하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일주일에 1번 미만
- ③ 일주일에 1~2번
- ④ 일주일에 3~4번
- ⑤ 일주일에 5번 이상

18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에 외식이나 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제외하고 응답)

- ① 하루 2회 이상
- ② 하루 1회
- ③ 주 5~6회
- ④ 주 3~4회
- ⑤ 주 1~2회
- ⑥ 전혀 안 했다

1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 ①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 ② 대체로 가족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
- ③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

20 귀하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22 로 이동
- ② 아니오 → 23 으로 이동

22 소진(번아웃)되었다고 느끼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하고 있는 일에는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 자신의 주된 일과를 의미함

- ①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
- ④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 ⑤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 ⑥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23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또는 진료)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25 로 이동
- ② 아니오
- ③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 26 으로 이동

25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 ② 주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③ 혼자 가기 어려워서
- ④ 상담 비용이 부담되서
- ⑤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 ⑥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 ⑦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6 귀하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좋음
- ② 좋음
- ③ 보통
- ④ 나쁨
- ⑤ 매우 나쁨

27 귀하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8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29 로 이동
- ② 아니오
- ③ 병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30 으로 이동

29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 ②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 ③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
- ④ 의료비가 걱정되어서(경제적 부담)
- ⑤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V. 교육·훈련

30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30-1 도움 받은 경험		30-2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학교(상담 교사, 교사, 지도 교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 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영역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 ①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 ② 취업 준비 비용 지원
- ③ 어학
- ④ 고용 상담 서비스
- ⑤ 창업 교육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⑦ 받고 싶은 교육·훈련 없음



## V. 주거

32

귀하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부모/보호자 동거) → 33 으로 이동
- ② 아니오(부모/보호자 비동거) → 34 로 이동

33 (부모/보호자 동거) 귀하는 부모님(보호자)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33-1 로 이동  
 ② 없다 → 33-2 로 이동

33-1 (부모/보호자 동거)(독립계획있음) 귀하가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  
 ②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③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④ 독립생활이 하고 싶어서  
 ⑤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3-2 (부모/보호자 동거)(독립계획없음) 귀하가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  
 ②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③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④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⑥ 특별한 이유 없음

→ 응답 후 36 으로 이동

34 (부모/보호자 비동거) 귀하는 1인 가구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5 (부모/보호자 비동거)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  
 ② 내부환경이 좋아서  
 ③ 통학·통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④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방 크기, 1인실 등)  
 ⑤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⑥ 자연환경이 좋아서  
 ⑦ 편의 시설(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⑧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⑨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36 귀하는 주거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생활 인프라(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2) 대중교통 이용	①	②	③	④	⑤
(3)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①	②	③	④	⑤
(4) 위생 환경(무단 쓰레기 투기 등)	①	②	③	④	⑤
(5) 녹지 공간(산책로, 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6) 문화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7) 교육 환경 (학교·환경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8)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 ☞ 반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 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옥탑)이 아닌 지상으로 응답

- ① 반지하  
 ② 지하  
 ③ 옥상(옥탑)  
 ④ 지상

38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전세 자금 대출  
 ② 주택 구입 자금 대출  
 ③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  
 ④ 공공 임대 입주  
 ⑤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불법 건축물 감독, 전세 사기 처벌, 불공정 공인 중개 처벌)  
 ⑥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⑦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 VI. 노동

39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① 예 → 40 으로 이동

② 아니오

39-1 지난주에 일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42 로 이동

※ 취업자 문항(지난 주 수입 목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

40 지난주에 일한 일자리는 귀하가 소유한 사업입니까?

① 예, 자영업자입니다 → 41 로 이동

② 아니오,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

40-1 이 일자리의 고용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설명을 받거나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일하기로 정해졌을 경우, 사업의 완료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응답합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더 짧게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응답합니다.

- ① 1달 미만
- ② 1달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으로 정함
- ④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40-2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 ③ 3년 이상

41 지난주에 일한 곳의 근로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일제(주 36시간 이상) → 45 로 이동

② 시간제

41-1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음)
- ② 아니오 (없음)

→ 응답 후 44 로 이동

※ 미취업자 문항

42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① 구해 보았음

② 구해 보지 않았음 → 43 으로 이동

42-1 지난 주에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① 예 (있었음) → 42-2 로 이동

② 아니오 (없었음) → 44 로 이동

42-2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얼마나 계속 해왔습니까?

\_\_\_\_\_개월

43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① 원하였음

② 원하지 않았음 → 44 로 이동

43-1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에 직장(일)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① 예 (있었음)

② 아니오 (없었음)

43-2 (지난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 ③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④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⑤ 취업을 위해 준비 중
- ⑥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⑦ 가사 일 때문에
- ⑧ 건강상 이유로
- ⑨ 당분간 쉬고 싶어서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4 (평소활동상태)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  |                          |
|--|--------------------------|
| ① 육아                                   | ⑥ 취업 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
| ② 가사                                   | ⑦ 진학 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
|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 ⑧ 질병 등에 따른 요양            |
| ④ 입시학원 통학                              | ⑨ 군입대 대기                 |
|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br>(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⑩ 쉬었음                    |
|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45 이직 또는 구직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임금            | ⑧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
| ② 근로시간          | ⑨ 스카우트 제의           |
| ③ 고용안정성         | ⑩ 복지수준              |
| ④ 승진가능성         | ⑪ 대기업               |
| ⑤ 휴일(주5일제)      | ⑫ 공기업               |
| ⑥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 ⑬ 정규직               |
| ⑦ 회사전망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46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47 로 이동

46-1 귀하는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항목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경험 하지 않음
(1) 과중한 업무	①	②	③	④	⑤
(2)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①	②	③	④	⑤
(3)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①	②	③	④	⑤
(4) 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5)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①	②	③	④	⑤
(6) 안전, 보호 장비 미비	①	②	③	④	⑤



## Ⅶ. 청년 정책 및 사업

47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많이 있음
- ② 약간 있음
- ③ 별로 없음
- ④ 전혀 없음

48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         | ⑧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 ② 고용(취·창업 지원)            | ⑨ 부채 경감 지원            |
| ③ 자산형성지원                 | ⑩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 ④ 주거 지원                  | ⑪ 여가, 문화시설로서 청년 공간 제공 |
| ⑤ 공공일자리 제공               | ⑫ 시민 교육               |
| ⑥ 취업컨설팅 등 진로 설계 지원       | ⑬ 또래 모임 지원            |
| ⑦ 심리상담, 생활 고민 상담 등 상담 제공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49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경험/근로  | ⑨ 스포츠/레저            |
| ② 금융/재테크  | ⑩ 음식/요리             |
| ③ 교육/학습   | ⑪ 연애/데이트            |
| ④ 진로      | ⑫ 게임/IT             |
| ⑤ 공연/전시   | ⑬ 1인 콘텐츠            |
| ⑥ 친구관계    | ⑭ 정치/사회             |
| ⑦ 여행      | ⑮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⑧ 운동/다이어트 |                     |

50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 ① 다목적공간
- ② 커뮤니티 모임 회의
- ③ 스터디
- ④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 ⑤ 공연/전시 공간
- ⑥ 코워킹 공간
- ⑦ 공유 주방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1 청년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항목	오전 (9~12시)	오후 (12시~18시)	야간 (18시~21시)
(1) 평일	①	②	③
(2) 주말	①	②	③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

52 최근 1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이용/참여한 시설/활동은 무엇입니까?

항목	이용/참여한 적이 있다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1) 작은도서관 이용	①	②	③
(2)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수업	①	②	③
(3) 청년지원센터 등 공간 사용	①	②	③
(4) 청년참여단 등 청년 참여기구	①	②	③
(5) 청년기획단, 청년 서포터즈 등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6)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①	②	③
(7) 청년 창업, 취업 역량 강화 활동	①	②	③

53 [ 52 에서 하나라도 '① 이용/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내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관심 있는 활동이라서
- ② 친구나 지인이 함께 해서
- ③ 기관에서 추천해서(학교, 회사 등)
- ④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권해서
- ⑤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여서
- ⑥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⑦ 위치가 가까워서
- ⑧ 시간·일정이 맞아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4

【 52 에서 하나라도 '② 이용/참여한 적이 없다'를 응답한 경우  
다음의 시설/활동을 이용/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                                      |                                  |
|--------------------------------------|----------------------------------|
| ① 프로그램 홍보/안내가 부족해 그런 시설/활동이 있는 줄 몰라서 | ⑧ 거리나 이동이 불편해서                   |
| ② 참여 방법을 몰라서                         | ⑨ 비용이 부담되서                       |
| ③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                   | ⑩ 분위기가 낯설어서                      |
| ④ 내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 ⑪ 다른 활동(일, 공부, 취미 등)을 선호해서       |
| ⑤ 타 지역에서 더 나은 유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 ⑫ 선발과정이 어려워서(서류작성 및 면접과정, 경쟁률 등) |
| ⑥ 관심이 없어서                            | ⑬ 신청 절차가 불편해서                    |
| ⑦ 시간이 없어서(학업, 일 등)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55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을 알고 있다 (* 청소년청년재단은 (구)청소년재단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 야탑 중 한 곳이라도) 유스센터를 알고 있다 (* 유스센터는 (구)청소년수련관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4) (양지, 은행 중 한 곳이라도) 유스센터를 알고 있다 (* 유스센터는 (구)청소년문화의집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5) (수진동굴, 은행동굴 중 한 곳이라도) 자유이용공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6

청년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소식을 주로 어떤 경로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
- ② 대외활동 플랫폼(링크커리어, 위비티 등)
- ③ 학교(대학) 내 공지 또는 이메일
- ④ 문자, 이메일, 뉴스레터
- ⑤ 포스터,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물
- ⑥ 커뮤니티 앱(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
- ⑦ 친구나 지인의 소개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7 최근 1년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을 몇 회 정도 이용하셨나요?

- ① 1~2회
- ② 3~5회
- ③ 6~9회
- ④ 10회 이상
- ⑤ 이용한 적 없음



## VIII. 응답자 특성

DQ1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음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⑥ 대학원(석사)
- ⑦ 대학원(박사)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DQ2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비혼
- ②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 ③ 별거
- ④ 이혼
- ⑤ 사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핸드폰 번호	(            ) - (            ) - (            )
<p>☞ 전화번호는 기프티콘 등 답례품 증정과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증정 및 자료 확인 후 파기됩니다.</p>		

## 2025년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

2025년 12월 인쇄

2025년 12월 발행

발행인 : (재)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발행처 : (재)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031) 729-9010~12

[ 비매품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